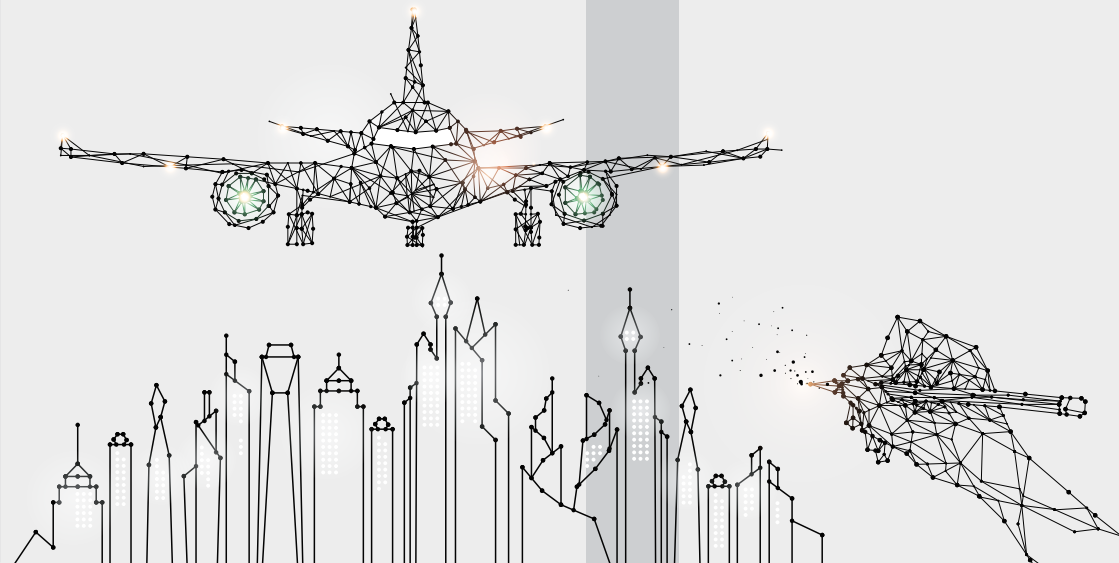
제 11 회

항공문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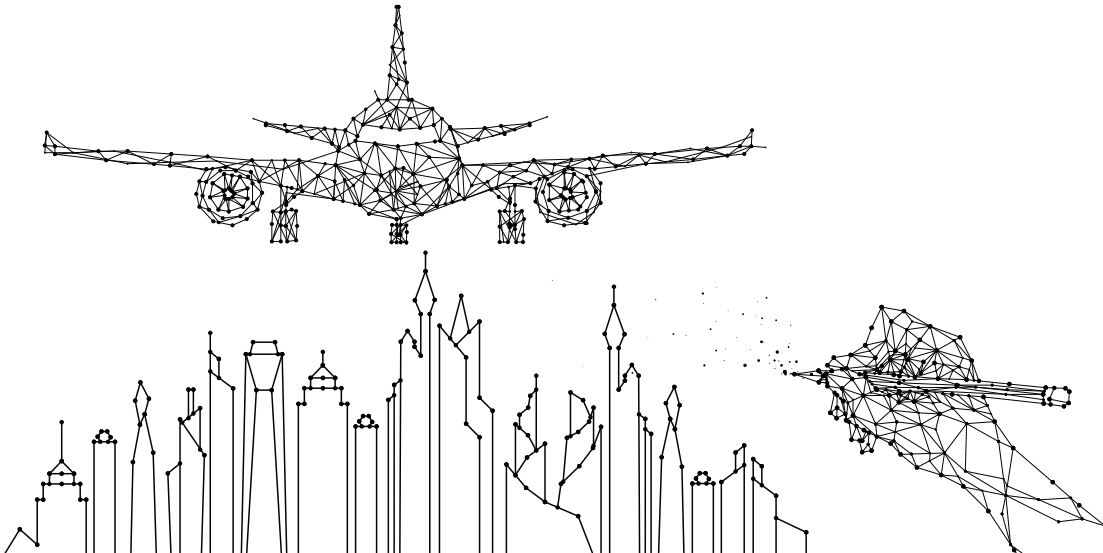
수상작품집



제 11 회

항공문학상

수상작품집



제11회 항공문학상 수상작품집

제11회 항공문학상은 항공문화 저변 확대 및 대국민 홍보 제고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시(동시 포함), 소설, 수필로 구성된 3개의 공모부분을 일반부, 중고등부, 초등부로 나누어 온라인으로 공모하였고, 최종 1,307편의 작품을 접수하였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에 있는 문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1차(예심), 2차(본심) 심사를 거쳐, 53편의 수상작품을 선정·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총 상금 규모는 1,735만원을 포함하여 국내·외 왕복항공권 등이 부상으로 지급되며, 일반부 대상(1인), 일반부 최우수상 입상자(2인)에게는 한국문인협회 입회 자격이 특전사항으로 부여됩니다.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 제11회 항공문학상 접수 결과 |

(단위 : 편)

	시	소 설	수 필	합 계
일반부	447	138	214	799
중·고등부	279	50	38	367
초등부	119	5	17	141
계	**845**	**193**	**269**	**1,307**

주최·주관 한국항공협회

후　　원 국토교통부 · 한국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 에어부산 제주항공 · 진에어 · 티웨이항공 · 한국문인협회

CONTENTS

소개	최종수상자명단		04
	심사총평		06
	공고부분별 심사평		
	- 소설		07
	- 시		08
	- 수필		09

일반부

대상	수필	할아버지의 굳은살 이규근	14
최우수상	소설	항로의 끝에서 보낸 편지 박희성	20
	시	사막 냄새가 붙은 여름 이유진	29
우수상	시	활주로 연가 정재안	34
	수필	익어가는 중입니다 김민서	36
	수필	비행기 표 한 장의 무게 김장기	40
	시	병실이라는 공항 신희수	44
	시	느릿 느릿 걸어 에딘버러 연영자	46
	소설	구름 위의 엄마 임성우	47
	소설	속도의 역설 장미교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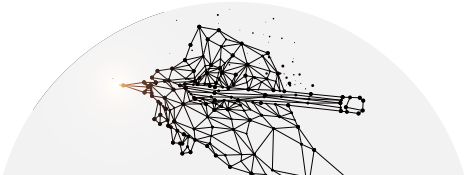
중고등부

최우수상	시	이륙을향해 여기욱	90
우수상	수필	Make Your Dream 나를 바꾼 여행 김예나	94
	수필	7월의 활주로 서다은	98
	시	기장 아저씨 유승우	102
	시	공항 유원준	104
	소설	그리움을 향한 이륙 이소율	105
	수필	활주로 끝, 마음의 길 이지예	114
	소설	하늘을 잇는 보이지 않는 끈 장주혁	117
	소설	비행 청소년 황현승	131

제 11 회 항공문학상 수상작품집

초등부

최우수상	소설	하늘 우체국: 마지막 비행 김가빈	166
우수상	시	하늘 위 귀경길 김상윤	172
	소설	할머니와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곳 김요한	173
	시	꿈 김운성	179
	소설	여행은 힐링이다. 김정원	181
	시	비행기와 나 김지훈	190
	수필	첫 비행의 상상과 설렘 이지원	191
	수필	연착은 '짜증'이 아니라 '행복' 정현진	196
	수필	오늘은 비행기 덕후 내일은 프랑스 툴루즈 에어버스 테스트 파일럿 최은혁	200
장려상	시	할머니의 손 고건희	206
	수필	데스티니의 여행 고은채	207
	시	종이학 김규원	209
	소설	공항에서 발견한 내 진짜 친구 김서경	211
	수필	지구의 푸른 멍을 꿰매는 비행 김율곡	219
	시	비행기의 좋은 점 김준형	221
	시	비행기 여행의 매력 김지오	223
	시	할머니의 버킷리스트 나도연	224
	시	구름 카펫 위를 나는 시간 남가은	226
	시	할아버지의 하늘 민동원	227
	시	비행의 설레임 박유리	229
	시	형이 왔다 박준필	230
	시	인천공항의 마음을 엿보다 신주원	232
	시	선물 심동하	233
	수필	하늘을 날아 이탈리아로 내 추억 상자 이야기 심세윤	235
	시	시간여행자 유하린	242
	시	하늘나라 가는 비행기 이라온	243
	시	공항은 나의 놀이터 이룬	245
	수필	행복했던 두 번의 비행기 여행 이우진	247
	수필	대륙 너머로가는 14시간의 비행 이태평	249
	시	똥은 어디로 가나요 이해강	252
	수필	추억여행 이해준	253
	시	하늘은 나를 기억할까 최민서	256
	시	두근두근 콩닥콩닥 한정우	258
	시	눈 깜짝할 새 현진서	260



제11회 항공문학상 심사총평

문학은 쓰는 일이 중요한 언어예술입니다

2025년 제11회 항공문학상 공모에는 시, 소설, 수필 등 분야에 모두 1,307편의 작품이 응모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500여 편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올라온 작품은 시 30편, 소설 21편, 수필 79편 모두 139편입니다. 이또한 지난해보다 50여 편이 늘어났습니다. 작품 수준이 높아 본심 심사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항공문학상의 위상과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이 작품들을 부문별 본심 심사위원들이 꼼꼼히 읽고 작품별로 점수를 결정한 뒤 지난 9월 29일 김포공항에 있는 한국항공협회 회의실에 본심위원들이 모여 논의 끝에 최종 등위를 결정했습니다. 이날 본심에는 (사)한국문인협회의 원로문인 3명과 한국항공협회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모두 5명이 모여 항공문학상 운영 취지에 대한 이해도, 적절성 및 독창성, 구성 및 표현, 문법 등 종합적으로 점검 심사하여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습니다.

항공문학상은 대상 및 최우수 수상자는 모두 (사)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입회 자격이 부여되기에 기성 문인을 제외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합니다. 따라서 모든 원고에는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이 없는 채로 원고를 받아 예심 및 본심을 거쳐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로 심사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제11회 항공문학상 공모작품은 시, 소설, 수필 부문 전반에 걸쳐 그 수준이 지난해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응모 편수도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는 수준이 고루 높아지고 항공문학상에 대한 인지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항공을 이용한 여행 문화가 우리 사회 문화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심사에서 중고등 및 초등학생들이 시, 소설, 수필 등 문학의 전문성을 살리는 작품을 쓰기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응모작들의 수준과 응모편수를 보면 오히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작품에서 한국문학의 미래를 이어갈 순수한 문학 작품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소설 부문에서 초등학생의 작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항공문화와 한국문학의 미래를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대상을 비롯한 각 부문 수상자 여러분께 크게 축하하며, 제11회 항공문학상에 응모한 모든 분께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상을 타는 일도 기쁘지만 응모하기 위해 열심히 작품을 쓰는 일도 이에 못지않게 훌륭합니다. 열심히 정진하면 앞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수상한 분과 응모한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 말씀을 전합니다.

심사위원 **김호운** | 소설가, (사)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제11회 항공문학상 심사평

소설

2025년 제11회 항공문학상 공모에서 소설부문에는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올라온 작품이 일반 8편, 중고등부 9편, 초등부 4편 등 모두 21편입니다. 특히 올해 공모에는 초등학생 응모 편수가 늘어났다 초등학생들이면 보통 동화를 쓸 텐데 소설을 써서 그것도 항공문학상 같은 큰 공모전에 응모하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여기에는 한국항공협회에서 장래 우리나라 항공문화와 문학을 이어갈 동량을 준비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기에 무척 반갑습니다. 아직 어린아이기에 문학 작품으로서의 소설 완성도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열심히 잘 쓰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시, 수필, 소설 부문 최우수상 가운데 한 편을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각 부문 심사위원들이 작품을 교차로 숙독한 결과 올해는 수필 부문에서 대상작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소설부문에서 대상이 나와서 최우수작이 없었는데, 올해는 소설부문 최우수작이 있습니다.

소설부문 최우수작은 일반부 「항로의 끝에서 보낸 편지」와 초등부 「하늘 우체국, 마지막 비행」을 선정했습니다.

「항로의 끝에서 보낸 편지」는 정년퇴직을 앞둔 항공 정비사의 고뇌와 양심의 심연과 앞서간 한 항공사 파견 직원과의 사연을 정교하게 직조하는 솜씨가 돋보였다. 문장이 매끄럽고 그림을 보듯 독자를 이야기 속으로 이끕니다. 항공 정비사의 긴 여정을 투영한 좋은 작품입니다.

「하늘 우체국, 마지막 비행」은 공항을 좋아하는 주인공이 은퇴한 항공 엔지니어인 할아버지와 해외여행의 추억을 안고 조종사가 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주인공 하늘이가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마지막 비행하면서 나눈 추억을 이야기로 이어가는 솜씨가 놀랍습니다. 구성도 훌륭합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쓴 작품이라 여러 차례 숙독한 끝에 최우수작으로 선정했습니다. 문학을 사랑하며 꾸준히 정진하여 훌륭한 소설가가 되길 희망합니다.

수상자 모두에게 축하 말씀을 전하며, 그 외 응모자 모두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심사위원 **김 호 운** | 소설가, (사)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제11회 항공문학상 심사평

시

청명한 가을 드높은 하늘을 보며 예심을 거쳐 올라온 작품들

올해 제11회 항공문학상에 많은 분이 응모해 주셨다. 문인의 한 사람으로서 문학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

일반부 최우수상 「사막 냄새가 붙은 여름」은 기성 문인의 시를 대하는 듯한 안정감을 준다. 톡톡 튀는 시어들이 시 곳곳에서 '나 여기 있어' 하고 나타난다. "아버지는 종이 위에서 살아 있었다/.../그 도시는/여전히/냉장고 바깥 어딘가에 붙어 있다"와 같은 표현은 매우 훌륭하다.

중고등부 최우수상 「이륙을 향해」는 짧은 시지만 많은 내용을 담아낸 훌륭한 시작품이다. 야무진 꿈을 가진 청소년이다. "언젠가 저 비행의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리라/하늘을 떠받치는 손이 되리라" 같은 표현을 보면 앞으로 한국 시단의 빛이 되리라는 믿음이 간다.

특히 초등부 우수상 가운데 「하늘 위 귀경길」은 꿈 많은 초등학생의 마음을 잘 담았다. 순수한 동심을 살려 아름다운 언어로 짧은 시로 압축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구름이 배처럼 떠다니고/.../구름 미끄럼틀을 타고 할머니 품으로"와 같은 표현은 놀랍도록 훌륭하다. 초등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잘 담았다. 소망과 꿈, 이상을 시 속에 잘 융화시켰다. 앞으로 훌륭한 시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수상한 모든 분께 축하한다. 아울러 응모한 모든 분께도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심사위원 **박 영 하** | 시인, (사)한국문인협회 시분과 회장

제 11 회 항공문학상 심사평

수필

예년에 비해 전체 응모작품 수가 500여 편이 더 늘었습니다. 그중 본심에 오른 일반부와 중·고등부 초등부 수필 79편은 문장력과 표현력이 뛰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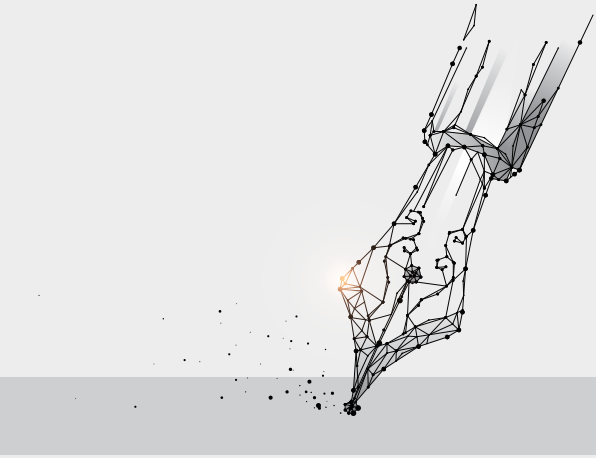
문장을 잘 엮는 일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수필을 쓰기 위해서는 치밀한 관찰력을 기르고 문제 의식을 갖고 두려움을 정면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문학상 공모 배경이 항공인 관계로 그 특수성으로 인해 전개나 결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작품은 주제에 억지로 이야기를 끼워 맞추는 듯한 작품도 더러 있었습니다.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진정성과 관찰력이 돋보이는 글을 훌륭한 수필이 됩니다.
좋은 글은 문장력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녹아 있어서 읽는 이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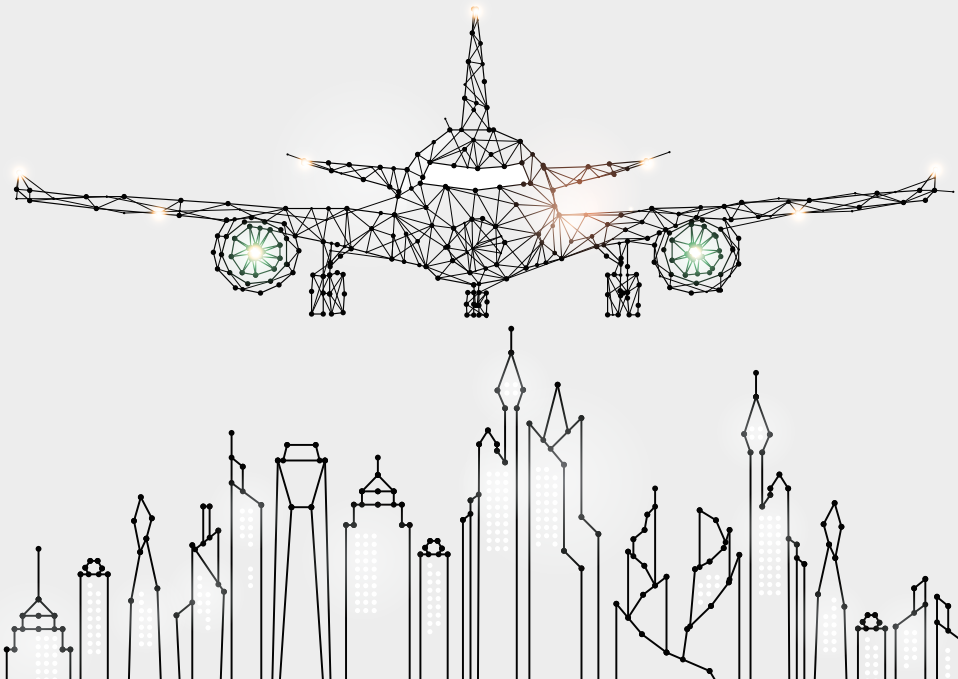
이번에는 대상이 수필부문에서 나왔습니다. 대상 작품은 일반부에 응모한 「할아버지의 굳은살」입니다. 공항에서 항공기 정비사로 일했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첫 문장부터 세련된 출발을 합니다. '비행기가 활주로 끝에서 숨을 고를 때 ... ' 의 문장은 비행기를 관찰한 끝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할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격납고 담벼락 너머에서 놀곤 했던 어린 시절과 할아버지의 굳은살 박인 투박하고 거친 손을 생각합니다. 그 손은 성실함과 거대한 책임감을 나타내지만, 당시 어렸던 주인공은 할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성인이 되어야 그것을 깨닫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수많은 책임감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썼습니다. 가끔 고생하신 부모님의 살아온 일대기를 짧은 매수에 세세히 표현하느라 주제에서 벗어난 글이 나오기도 하지만 「할아버지의 굳은살」은 무리하지 않은 전개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는 마무리까지 돋보이는 수작입니다. 군더더기를 덜고 또 덜어내라는 미국 소설가 헤밍웨이의 '빙산의 일각' 글쓰기를 떠올립니다.

일반부 우수상에는 「비행기표 한장의 무게」와 「익어가는 중입니다」를,
중고등부 우수상에는 「make your dream」, 「7월의 활주로」, 「활주로 끝,마음의길」을,
초등부 우수상에는 「첫비행의 상상과 설렘」, 「오늘은 비행기 덕후 내일은 프랑스 툴루즈 에어버스 테스트 파일럿」, 「연착은 짜증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수상하신 여러분께 축하 말씀을 전하며, 수상하지 못한 응모자들께도 격려의 박수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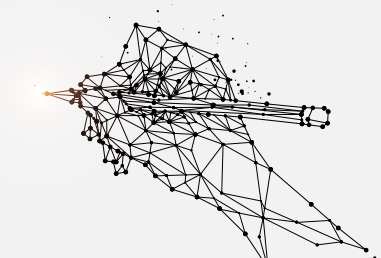
심사위원 **권 남 희** | 수필가, (사)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장





일반부

대상	수필	할아버지의 굳은살 이규근
최우수상	소설	항로의 끝에서 보낸 편지 박희성
	시	사막 냄새가 붙은 여름 이유진
우수상	시	활주로 연가 정재안
	수필	익어가는 중입니다 김민서
	수필	비행기 표 한 장의 무게 김장기
	시	병실이라는 공항 신희수
	시	느릿 느릿 걸어 에딘버러 연영자
	소설	구름 위의 엄마 임성우
	소설	속도의 역설 장미교



대 상

일반부

수필

할아버지의 굳은살

이규근

수필

할아버지의 굳은살

일반부 **대상** 이규근

비행기가 활주로의 끝에서 잠시 숨을 고를 때, 기체 전체로 전해져 오는 미세한 떨림이 있다. 쿵, 쿵, 쿵. 거대한 강철 심장이 이륙을 준비하며 내는 고동 소리. 나는 그 진동 속에서 늘 할아버지의 손을 떠올린다. 검게 기름때가 배고, 마디마디 굵어진 채 딱딱하게 굳어 있던 손. 그 손에서는 언제나 맵싸한 항공유와 차가운 쇠붙이가 뒤섞인, 서늘하고 낯선 냄새가 났다.

어린 시절, 나는 할아버지의 그 손이 싫었다. 코끝을 톡 쏘는 냄새 때문만은 아니었다. 악수라도 할라치면 손바닥을 긁어내리는 사포 같은 감촉, 어린 살갗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피가 흐르던 내 무릎에 빨간 약을 발라주던 손 또한 바로 그 손이었다. 소독약의 따가움보다 더 아릿하게 다가왔던 그 거친 온기를,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자랑스러움과 안쓰러움, 싫음과 좋음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시작이었다.

나의 놀이터는 활주로의 소음이 아득하게 들려오는 공항 근처 정비 격납고의 담벼락 너머였다. 할아버지는 그 거대한 쇳덩어리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 항공정비사셨다. 축구장 몇 개를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한 격납고 안에는 집채만 한 비행기들이 날개를 접은 채 쉬고 있었다. 그곳의 공기는 늘 차가웠고, 거대한 동체에 반사된 형광등 불빛은 어지러웠다. 할아버지의 손톱 밑에 검게 밴 것은 단순한 기름때가 아니었다. 그것은 등유를 기반으로 한 Jet A-1 항공유의 흔적, 수백의 생명을 태운 철의 심장을 뛰게 하는 혈액의 향이었다.

할아버지의 작업복 주머니는 언제나 무거웠다. 그 속에는 렌치와 드라이버 말고도 용도를 알 수 없는 쇠막대기들이 가득했다. 한번은 손바닥만 한 붉은색 꼬리표가 달린 굵은 핀을 꺼내 보여주신 적이 있다.

“이놈 이름이 그라운드 락 핀이라는 기라, 이게 있어야 비행기가 땅에 서 있을 때 다리가 저절로 접히는 걸 막아주제. 사람으로 치면 무릎에 박는 철심 같은 기다. 요거 하나 잘못 끼우면 수백 톤짜리 비행기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뿐다.”

할아버지는 무심하게 말했지만, 나는 그 핀을 쥐고 있는 할아버지의 손을 보았다. 수없이 볼트와 너트를 조이고 풀었을 둘째와 셋째 손가락 마디에는 유독 노란 굳은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고, 여기저기 쇳조각에 베인 흉터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 굳은살은 단순한 노동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명의 무릎을 지탱하는 단 하나의 철심을, 수천 번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책임감의 무게가 눌어붙은 자리였다.

가끔 할아버지는 정비가 끝난 비행기를 활주로로 밀어내는 토잉카에 나를 태워주시곤 했다. 거대한 비행기의 코앞에 앉아 세상을 보는 기분은 마치 내가 거인이 된 듯했다. 할아버지는 비행기와 토잉바를 연결하는 지점에 또 다른 핀을 끼우며 설명했다.

"이기 바이패스 핀이라카는기다. 이걸 낑가줘야 비행기 앞바퀴가 지멋대로 안 놀고 토잉카를 얌전히 따라오는거그든. 사람이든 기계든간에, 제 갈 길을 제대로 가려면 보이지 않는 데서 누군가는 이렇게 방향을 꽉 잡아줘야 하는 법이다. 알긋나?"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다. 그저 할아버지의 굳은살 박인 손이 만지는 모든 것이 거대한 비행기를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할아버지의 손은 비행기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어루만졌다. 날개의 동맥과도 같은 유압 장치를 점검하고, 착륙의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랜딩기어의 이음새를 조였다. 그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비로소 육중한 쇳덩어리는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나는 할아버지의 세계와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었다. 친구들의 아버지는 번듯한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다루는 분들이었다. 한번은 친구를 집에 데려온 날, 마침 퇴근하신 할아버지가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왔냐"며 친구에게 손을 내미셨다. 친구가 악수를 망설이며 뒷걸음질 치던 그 찰나의 순간, 내 얼굴은 불에 덴 듯 화끈거렸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의 투박한 손은 내게 가난의 증거이자 벗어나고 싶은 현실 그 자체가 되었다. 할아버지가 무심코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시면 핑계를 대며 피하기 일쑤였다. 지금 돌이켜보면 철없던 시절의 치기였지만, 그땐 그 거친 손에 밴 고단함의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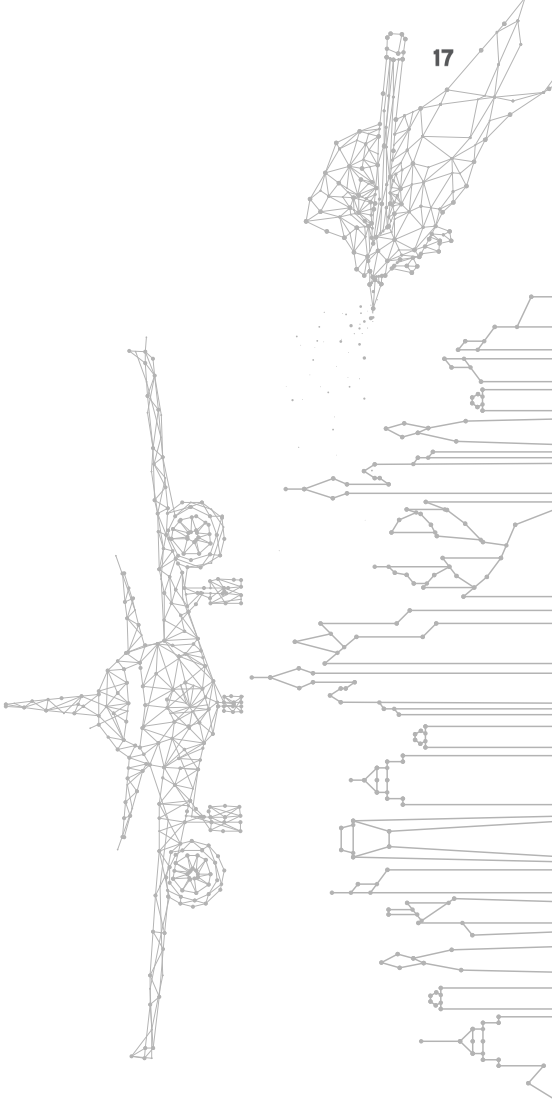
할아버지가 정년을 몇 해 앞두고 갑자기 일을 그만두셨을 때, 나는 그 이유를 묻지 못했다.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일을 왜 그리 허망하게 놓아버리셨는지 의아할 뿐이었다. 그 답은 몇 년 후, 할머니의 푸념 섞인 말 속에서 우연히 들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정비했던 비행기가 이륙한 직후, 아찔한 경고등이 떴다고 했다. 할아버지가 최종 점검했던 부분이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회항했지만,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공구함을 열지 못하셨다. 한번은 먼지가 뽀얗게 쌓인 공구함 앞에 우두커니 서 계신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다. 평생을 함께한 도구들을 차마 만지지도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던 어깨가 얼마나 작고 외로워 보였는지 모른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

셨고, 당신의 굳은살 박인 손이 더는 수백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는 공포에 사로잡히셨다. 그날 밤, 나는 비로소 할아버지의 침묵의 무게를 이해했다. 그 굳은살은 자부심의 훈장이었지만, 동시에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외로운 전쟁의 기록이었던 것이다.

그 깨달음은 내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다. 사회에 나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나는 쉬운 길을 택하려는 유혹에 빠진 적이 있었다. 약간의 편법, 사소한 절차의 생략. 누구도 모를 거라 생각했다. 마감 시간에 쫓겨 데이터를 단순 복사하려던 순간,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하늘에서는 작은 실수가 가장 큰 재앙이 된다던 그 목소리. 나는 밤을 새워 원칙대로 일을 바로잡았다. 할아버지의 굳은살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한 성실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수많은 책임감에 대한 경외심이었다.

이제 나는 할아버지가 만졌던 것과 같은 기종의 비행기 안에 앉아 있다. 착륙을 알리는 기내 방송이 나오고, 창밖으로 날개의 플랩이 부드럽게 펼쳐지며 속도를 줄이는 것이 보인다. 저 거대한 날개를 움직이는 힘이, 한때 할아버지의 굳은살 박인 손끝에서 시작되었음을 생각한다. 나는 내 손을 가만히 내려다본다. 매끄럽고 상처 하나 없는 손. 이 편안함과 안전함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우리가 발 뻗고 잠든 새벽에도, 궂은 비바람 속에서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굳은살을 만들며 하늘의 길을 닦고 있었음을.

비행기가 마침내 땅에 닿으며 '쿵'하는 안도감 섞인 충격을 전해온다. 이 순간, 창밖의 풍경도, 승무원의 감사 인사도 아닌, 할아버지의 굳은살이 떠올라 코끝이 찡해진다. 하늘의 무게를 감당해 온 땅의 그 수많은 굳은살을, 나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최우수상

일반부

소설 / 시

항로의 끝에서 보낸 편지

박희성

사막 냄새가 붙은 여름

이유진

소설

항로의 끝에서 보낸 편지

일반부 **최우수상** 박희성

기름과 금속이 뒤섞인 냄새는 이수혁에게 있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향이었다. 새벽 네 시, 거대한 격납고의 육중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면, 덜 마른 새벽 공기와 함께 스며드는 제트 연료의 톡 쏘는 향기. 그리고 그의 손끝에서 수십 년간 떠나지 않았던, 차갑고 미끄러운 스카이드롤(Skydrol) 유압유의 냄새. 그에게 인천국제공항은 수만 명의 여행객이 스쳐 가는 설렘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에게 공항은 오직 이 격납고, 3정비창의 땀과 소음, 그리고 강철의 질서로 가득 찬 거대한 동굴이었다. 문득 35년 전,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던 스물셋의 자신이 떠올랐다. 그때는 모든 것이 경이로웠다. 축구장 몇 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공간, 그 안을 가득 채운 거대한 비행기의 위용 앞에서 그는 주눅이 들면서도 심장이 터질 듯한 희열을 느꼈었다.

정년 퇴직을 석 달 앞둔 그는 항공정비사로서 35년의 세월을 이곳에서 보냈다. 그의 청춘과 중년은 보잉과 에어버스의 동체 아래, 굉음을 내는 엔진의 심장부에서, 수만 개의 부품과 씨름하며 흘러갔다. 그는 비행기를 단순한 기계 덩어리로 보지 않았다. 수백만 킬로미터를 날며 수천만 명의 희로애락을 실어 나른 저 육중한 동체에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 있다고 믿었다. 그는 비행기의 의사였고, 때로는 고해성사를 듣는 신부였다. 엔진의 미세한 소음 변화, 평소와 다른 진동 주파수만으로도 이상 징후를 감지했고, 동체의 작은 긁힌 자국에서 지난 비행의 고단함과 마주했던 난기류의 흔적을 읽어냈다. 그의 눈은 숙련된 외과의의 메스보다 정확했고, 그의 손은 복잡한 회로도를 기억하는 컴퓨터보다 정밀했다.

그날도 그는 HL7488, '하늘의 여왕'이라 불리던 보잉 747-400 점보 제트기 앞에 서 있었다. 1992년에 도입되어 지구를 4천 바퀴 넘게 돈, 이제는 퇴역을 앞둔 늙은 여왕이었다. 이수혁이 신입 시절 처음으로 정비를 맡았던 기체이기도 했다. 갓 서른의 그가 설레는 마음으로 토크렌치를 쥐고 랜딩기어의 볼트를 조였던 기억이 어제처럼 선명했다. 당시 선배는 "이 볼트 하나에 400명의 목숨이 달렸다. 네 가족이 탄다고 생각하고 조여라."라고 했었다. 그 말은 35년간 그의 귓가를 떠나지 않는

준엄한 명령이자, 그의 정비 철학 그 자체였다. 늙은 여왕의 마지막 비행은 승객을 태우는 영광스러운 여정이 아니었다. 미국 모하비 사막의 '항공기 무덤'으로 가는 편도 티켓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분해되어 부품으로 팔리거나, 고철로 녹아내릴 운명. 그곳은 비행기들의 마지막 안식처이자, 한 시대의 기술이 쓸쓸히 잠드는 곳이었다.

"팀장님, 이젠 정말 마지막이네요. 여왕님 가시는 길, 저희가 잘 모셔야죠."

입사 5년 차인 젊은 후배 정비사, 민준이 아쉬운 듯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함께 연민이 어려 있었다. 이수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퇴직과 늙은 여왕의 퇴역이 겹쳐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이제는 더 효율 좋고 세련된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운명. 그는 자신을 고철 더미로 향하는 비행기에 투영하고 있었다. '쓸모를 다한 것들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최근 그의 머릿속을 맴도는 질문이었다.

마지막 정비는 일종의 장례 절차와도 같았다. '페리 플라이트(Ferry Flight)'라 불리는 이 마지막 비행을 위해, 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봉인하는 작업이었다. 객실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갤리의 조리 장비, 심지어 일부 화장실의 급수 장치까지 모두 전원을 차단하고 비활성화했다. 이수혁은 누구보다 꼼꼼하게 기체의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의 손길은 애틋했고, 눈빛은 경건했다. 마치 평생을 함께한 노병(老兵)의 갑옷을 마지막으로 닦아주는 심정이었다. 그는 엔진 카울링을 열고 터빈 블레이드 하나하나를 내시경 카메라로 살폈고, 유압 시스템의 압력이 정확한지 계측기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마지막 길이라도, 하늘을 나는 동안은 완벽한 비행기여야 했다.

사건은 동체 후미, 갤리(Galley) 뒤편의 작은 점검 패널을 열었을 때 일어났다. 평소에는 열어볼 일이 거의 없는, 배선과 단열재가 복잡하게 얽힌 비좁은 공간이었다. 규정상 최종 점검 리스트에 포함된 항목이었기에 의무적으로 열어본 것이었다. 손전등 빛이 30년 묵은 먼지 쌓인 내부를 비추는 순간, 이수혁의 눈에 무언가 낯선 것이 들어왔다. 단열재로 쓰이는 노란색 유리섬유와 동체 프레임 사이에 끼어 있는, 손가락 두 마디만 한 크기의 작은 나무 조각이었다.

순간, 이수혁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는 이유는 단순한 발견의 여운 때문만이 아니었다. 항공기 정비사로서,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설계나 정비 중 목각 인형이 기체 내부, 특히 배선과 단열재 사이에 남겨진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중대한 규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이것은 단순한 이물질이 아니었다. 항공 안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뒤흔드는, 잠재적인 시한폭탄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FOD(Foreign Object Debris, 외부 물질 잔해)'라는 단어가 붉은 경고등처럼 번쩍였다. 활주로에 떨어진 작은 나사 하나가 제트 엔진을 파괴하고 대형 참사를 일으킬 수 있듯, 기체 내부에 남겨진 이물질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었다.

그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주위를 살폈다. 다행히 민준은 다른 구역에서 작업 중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들었다. 기름때 묻은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만져보았다. 투박하지만 정교한 솜씨로 깎아 만든 작은 새 모양의 목각 인형이었다. 어떤 종류의 새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날개를 활짝 편 모습이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생동감이 넘쳤다.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나무는 반질반질하게 닳아 있었고, 손때가 묻어 깊은 갈색을 띠고 있었다.

이수혁의 내면에서 두 개의 자아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35년간 단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던 정비사의 양심이 소리쳤다. '당장 보고해야 해! 이것은 범죄 행위나 다름없어. 비행 중 진동으로 이탈하여 전선 피복을 손상시키면 합선으로 인한 화재, 제어 계통에 끼어들면 조종 불능.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그의 다른 한편에서는 30년 넘게 이 작은 새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수천만 킬로미터를 날아왔다는 사실이 기묘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것은 기체의 일부가 아니었다. 정비 도구도 아니었다. 완벽한 질서와 규율의 공간에 숨어든, 지극히 인간적인 흔적이었다. 누가, 언제, 왜 이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했을까. 승객이나 승무원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오직 기체를 제작하거나 정비하는 사람만이 만질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분실물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하늘을 날며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숨겨져 온 비밀스러운 염원이었다. 그는 목각 인형을 뒤집어 보았다. 새의 배 부분에 칼끝으로 새긴 듯한 희미한 글씨가 있었다.

'Sehnsucht.'

독일어였다. 이수혁은 그 단어의 뜻을 알지 못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목각 인형을 작업복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일단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이었다. 정비사로서의 본능을 거스르는 첫 번째 일탈이었다. 그것은 이제 그와 이 늙은 여왕만의 위태로운 비밀이 되었다.

그날 이후, 이수혁의 머릿속은 온통 목각 인형과 'Sehnsucht'라는 단어로 가득 찼다. 퇴근 후, 그는 낡은 독어 사전을 뒤적였다. 딸아이가 고등학생 때 쓰던, 책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사전이었다.

'Sehnsucht(젠주흐트): 그리움, 동경, 갈망. 단순히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을 넘어,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애절한 갈망과 열망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감정.'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갈망. 이수혁은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누가 이토록 애절한 마음을, 그토록 위험한 방식으로 비행기 한구석에 숨겨둔 것일까.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는 작심하고 항공사 기록보관실로 향했다. HL7488의 도입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정비 기록(MRO Log), 부품 교체 이력, 제작 당시의 서류까지. 먼지 쌓인 서고와 차가운 서버실을 오가며

그는 고고학자처럼 과거의 흔적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기록실 담당자는 정년을 앞둔 늙은 정비사의 엉뚱한 호기심을 귀찮아했지만, 이수혁의 집요함에 결국 두 손을 들고 관련 자료 접근 권한을 열어 주었다.

방대한 자료 속에서 단서를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다. 그는 먼저 기체가 처음 도입된 1992년 전후의 기록에 집중했다. 보잉 시애틀 공장에서 제작될 당시의 엔지니어 명단, 그리고 한국으로 인도된 후 초기 정비를 담당했던 인원들의 기록을 샅샅이 훑었다. 수백, 수천 개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대부분은 의미 없는 문자열에 불과했다. 며칠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그는 하나의 이름을 발견했다. '클라우스 슈미트(Klaus Schmidt)'.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독일 항공사의 파견 엔지니어로 김포공항에서 근무했던 젊은 기술자였다. 그의 담당 업무 중 하나가 신규 도입 기체, 바로 HL7488의 현지 수용 검사 및 초기 정비 지원이었다. 독일인. 'Sehnsucht'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유일한 고리였다.

이수혁은 클라우스 슈미트라는 이름을 따라 더 깊이 파고들었다. 오래된 인사 기록 카드에는 앳된 얼굴의 금발 청년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1968년생. 당시 스물네 살이었다. 첨부된 서류에는 그의 짧은 한국 생활이 기록되어 있었다. 성실하고 재능 있는 엔지니어였으나, 유독 내성적이고 말이 없었다는 동료들의 평가. 휴식 시간에는 늘 수첩에 무언가를 그리곤 했다는 짧은 메모도 있었다. 그리고 1993년 여름, 휴가차 떠난 동해안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차가운 사실이 적힌 한 장의 보고서.

이수혁은 한동안 기록 카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스물다섯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젊은 엔지니어. 그는 한국의 하늘에, 자신이 처음 만난 거대한 점보 제트기에 무엇을 갈망하며 그 작은 새를 숨겨두었던 걸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었을까, 아니면 이곳에 두고 떠나야만 했던 연인이 있었을까. 이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클라우스의 이야기는 30년이라는 세월 속에 잊혀 먼지가 되어 있었다. 한 사람의 삶이, 그의 뜨거웠을 갈망이 이렇게 쉽게 잊힐 수 있다는 사실이 이수혁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날 밤, 이수혁은 베를린에 사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 지나는 미대를 졸업하고 그곳에서 활동하는 설치미술가였다. 아빠의 직업을 '기름 냄새 나는 고된 노동'이라 치부하며 살가운 대화 한번 제대로 나눠본 적 없는, 서먹한 부녀 사이였다. 그는 늘 딸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다루고, 형태 없는 감정을 표현하는 딸의 예술은 그가 평생을 바친 정밀하고 논리적인 기계의 세계와는 너무도 멀었다.

"지나야, 아빠다."

"……아빠?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별일 없으시죠?"

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무심하고 건조했다. 그 속에는 희미한 걱정과 익숙한 거리감이 섞여 있었다. 이수혁은 잠시 머뭇거리다, HL7488과 목각 인형, 그리고 클라우스 슈미트에 대한 이야기를 두서없이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는 차마 목각 인형을 발견한 장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다. 자신의 직업적 양심을 배반하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그는 그저 '아주 깊숙한 곳'에서 발견했다고만 얼버무렸다.

"……그래서, 그 비행기가 곧 폐기된다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도 함께?"

의외로 지나는 끝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그의 일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건조함이 사라지고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그래. 며칠 뒤면 미국으로 날아가서…… 끝나는 거지. 그 젊은이의 비밀도 함께."

"Sehnsucht……."

지나가 전화기 너머에서 나지막이 그 단어를 읊조렸다. 그 발음은 이수혁이 사전에서 본 것과 달리, 살아있는 감정처럼 들렸다.

"독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그냥 그립다는 것과는 좀 달라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영혼의 허기 같은 거. 현실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저 멀리 있는 이상을 바라보는 마음. 어쩌면… 예술가들이 평생 안고 사는 감정이기도 하고, 아빠가 평생 비행기를 하늘로 띄워 보내면서 느꼈을 감정일지도 모르겠네요."

이수혁은 처음으로 딸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기름과 강철의 세계에 갇혀 있던 그와, 형태 없는 개념과 감정을 다루는 딸의 세계가 'Sehnsucht'라는 낯선 단어를 통해 처음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딸은 그의 일을 단순한 노동이 아닌, 누군가의 갈망을 실어 나르는 행위로 이해해주고 있었다.

"아빠."

"……응."

"그 새, 사진 좀 자세히 찍어서 보내줄 수 있어요? 여러 각도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일했다는 기록도요."

그날 이후, 부녀는 매일같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수혁은 서툰 솜씨로 목각 인형의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 보냈고, 지나는 클라우스 슈미트라는 젊은 엔지니어의 삶을 상상하며 작은 스케치들을 그려 보냈다. 지나는 클라우스가 남긴 것이 단순한 인형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일부를 담은 '오브제(objet)'라고 말했다. 비행기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 자신의 가장 내밀한 감정을 숨겨두고, 그것이 세상의 하늘을 영원히 날기를 바랐을 것이라고. 그녀는 클라우스의 짧은 생애와 그의 '젠주흐트'에 깊이 공감하는 듯했다.

이수혁은 딸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기계를 고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클라우스의 'Sehnsucht'를, 그리고 이름 모를 수천만 승객들의 각기 다른 사연과 염원을 품은 채 침묵하며 날아오르는 거대한 관(棺)이자 요람을 묵묵히 지켜온 파수꾼이었다. 자신의 일이 수많은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정년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죄책감이 어김없이 그를 찾아왔다. 어느 날 밤, 그는 끔찍한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HL7488의 조종석에 앉아 있었다. 갑자기 계기판의 경고등이 미친 듯이 울리고, 기체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객실 쪽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고, 관제탑의 다급한 목소리가 헤드셋을 찢을 듯이 울렸다. '화재 발생! 후미 동체 화재 발생!' 그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후미 쪽을 돌아보았다. 그곳, 점검 패널이 있던 자리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불길 속에서 작은 목각 새가 검게 타들어가며 그를 원망스럽게 노려보는 듯했다. 잠에서 깬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클라우스의 행위는 낭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이기적인 자기 위안일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위험을 묵인한 공범이었다.

다음 날, 그는 수소문 끝에 10년 전 은퇴한 박영철 기장을 찾아갔다. 박 기장은 HL7488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부터 20년 가까이 그 기체의 조종간을 잡았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이수혁은 그라면 클라우스에 대해 무언가 알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전원주택에서 만난 노기장은 이수혁을 반갑게 맞았다.

"이 팀장 아니신가!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아직도 그 쇳덩이들이랑 씨름하고 계신가?"

이수혁은 조심스럽게 클라우스 슈미트의 사진을 내밀었다. 박 기장은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클라우스… 기억나지. 아주 조용하고, 눈이 깊던 젊은 친구였어. 영어를 잘 못해서 늘 통역을 거쳐야 했지만, 기계를 보는 눈은 기가 막혔지. 그때 우리 쪽 엔지니어들이 못 찾던 미세한 진동의 원인을 하루 만에 찾아내서 모두를 놀라게 했었어."

"혹시… 그 친구에게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박 기장은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 먼 산을 바라보았다. "사연이라… 그때 김포공항 발권 카운터에 있던 아가씨를 마음에 품고 있었지.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붙이고 멀리서 바라만 보다가, 휴가 가기 전에 주려고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는 얘기는 들었어. 아마 나무로 깎은 무언가였을 거야. 고향에서 배운 솜씨라고 했지. 그런데… 그 휴가에서 돌아오지 못했어. 그 아가씨는 나중에 다른 곳으로 발령 나고, 그렇게 다들 잊어버렸지."

이수혁은 주머니 속 목각 인형을 만지작거렸다. 전하지 못한 선물. 그 애틋한 마음이 30년간 비행기와 함께 하늘을 떠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방법은 너무나도 위험했다. 그는 박 기장에게 차마 인형을 발견한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평생을 안전 운항에 바친 노기장에게는 더 큰 충격일 터였다.

한편, 베를린의 지나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녀는 아버지가 보내준 사진을 들고 베를린 민속 박물관의 큐레이터를 찾아갔다고 했다.

"아빠, 이거 그냥 새가 아니래요. 독일 남부 슈바르츠발트 지방의 전통 공예품인데, '젠주흐츠포겔(Sehnsuchtsvogel)', 즉 '갈망의 새'라고 불린대요. 멀리 떠나는 사람이 고향이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만드는 부적이래요. 날개가 하늘을 향해 활짝 펼쳐진 건, 자신의 마음이 그곳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뜻이래요."

지나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클라우스의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다. 이수혁은 딸의 열정적인 모습에서,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그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었다.

HL7488의 마지막 비행일이 밝았다. 이륙은 오후 두 시. 이수혁은 평소보다 일찍 격납고로 나갔다. 텅 빈 격납고 안, 늙은 여왕은 마지막 여정을 앞두고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거대한 동체는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현자처럼 보였다. 이수혁의 마음속에서는 마지막까지 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있었다. '보고하고 절차대로 처리해. 그게 네가 35년간 지켜온 신념이야.' '아니,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선 안 돼. 이 비행기의 마지막 항해는 이 이야기를 품고 완성되어야 해.'

그는 주머니에서 목각 인형을 꺼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쪽지를 놓았다. 지난 며칠간 그가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완성한 짧은 편지였다.

'클라우스 슈미트에게. 당신의 작은 새는 30년간 수천만 킬로미터를 날았습니다. 당신의 갈망은 수많은 하늘을 보았고, 수많은 구름과 별들을 지났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당신의 꿈은 계속해서 날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클라우스, 나는 정비사로서 당신의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이 수백 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칼날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았을까요. 나는 이 사실을 보고해야 마땅하지만, 당신의 마지막 비행에 이 이야기를 싣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35년 정비 인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기는 오점일 겁니다. 이제 이 비행기는 마지막 항해를 떠납니다. 당신의 새도 함께 갑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당신이 그토록 동경하던 곳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닿기를. 당신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 30년 후의 동료, 이수혁으로부터.'

그는 쪽지 아래에 베를린에서 딸이 보내온 스케치 사진을 함께 넣었다. 날개를 편 목각 인형을 모티브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도시의 풍경이 별자리처럼 이어지는 그림이었다. 그림의 제목은 '연결된 갈망(Verbundene Sehnsucht)'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수혁은 다시 동체 후미의 점검 패널을 열었다. 그리고 클라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목각 인형과 자신의 편지, 그리고 딸의 그림을 조심스럽게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았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봉인이자, 현재를 통한 미래로의 전언이었다. 한 세대의 위태로운 갈망이 다음 세대의 이해와 만나 새로운 의미를 품고 마지막 길을 떠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패널을 닫고 단단히 나사를 조였다.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정비이자, 그의 직업적 양심에 새기는 마지막 주홍글씨였다.

오후 두 시. 이수혁은 활주로가 멀리 보이는 정비창 옥상에서 HL7488의 이륙을 지켜보았다. 승객 하나 없는 비행기는 이상할 정도로 가볍고 허망하게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랐다. 네 개의 엔진이 뿜어내는 익숙한 굉음이 그의 가슴을 때렸다. 그 소리는 35년간 그의 삶 그 자체였다. 비행기는 이륙 후 크게 선회하며 그가 있는 격납고 위를 천천히 지나갔다. 마치 마지막 비행을 준비해준 늙은 정비사에게 보내는, 늙은 여왕의 마지막 인사처럼.

이수혁은 손을 흔들지 않았다. 그저 덤덤하게, 자신의 일부와도 같았던 거대한 쇳덩어리가 서쪽 하늘 속으로 점이 되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그는 더 이상 쓸모없어진 채 버려지는 자신의 미래를 비행기에 투영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항로의 끝이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의 전환일 수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클라우스의 이야기가 자신을 통해 딸에게 전해졌듯이,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과 연결되어 있었다.

비행기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항공권 예매 앱을 열었다. 늘 항공사의 내부 시스템으로 업무용 항공편만 조회하던 그에게, 일반 승객용 앱은 낯설었다.

출발지: 인천(ICN).

도착지: 베를린(BER).

그는 망설임 없이 결제 버튼을 눌렀다. 35년간 그는 수만 대의 비행기를 하늘로 보냈지만, 정작 자신은 그 비행기를 타고 딸에게 한번 가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Sehnsucht'는 언제나 발밑의 콘크리트 활주로에 묶여 있었다. 딸을 보고 싶은 마음,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은 늘 '다음에', '은퇴하면'이라는 말 뒤로 미뤄져 왔다.

며칠 후, 이수혁은 정비복 대신 어색한 여행객의 옷을 입고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 서 있었

다. 수십 년간 담장 안, 통제구역에서 바라보기만 했던 풍경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설렘과 아쉬움, 기대와 불안이 공기 중에 부유하며 독특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비행기를 고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막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한 명의 승객이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출국 심사를 받는 모든 과정이 생경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움직이고 있었다.

베를린행 비행기 창가에 앉아, 그는 자신이 띄워 보낸 HL7488이 날아갔을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지금쯤 모하비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 조용히 잠들어 있을 늙은 여왕과, 그 안에 잠든 클라우스의 작은 새를 생각했다. 그리고 곧 만나게 될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딸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어색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는 않았다. 그들에게는 '클라우스'와 '젠주흐트'라는, 함께 나눌 이야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이자, 그가 평생을 보낸 격납고와 활주로가 장난감처럼 작아졌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모든 비행은 끝을 향해 날아가지만, 모든 항로의 끝에는 또 다른 시작을 위한 게이트가 열려 있다는 것을. 그의 손에는 더 이상 기름 냄새 대신, 딸에게 줄 작은 선물이 들려 있었다.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투박한 나무를 깎아 만든, 서툴지만 힘차게 날갯짓하는 기러기 한 마리였다. 그것은 머나먼 길을 떠나 반드시 돌아오는 약속의 상징이자, 아버지가 아들에게서 딸에게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건네는 연결된 갈망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클라우스의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갈망의 새'와는 다른, 그의 갈망은 이제 안전하고 투명하게, 사랑하는 이에게 직접 전해질 터였다.

시

사막 냄새가 붙은 여름

일반부 **최우수상** 이유진

여름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린 편지는
하얀 봉투 속
사막의 냄새를 숨기고 있었다

아부다비에서 보내온
연한 크림색 엽서엔
낯게 흐른 아잔 소리와
붉은 모래의 풍경이 붙어 있다

봉투를 뜯을 때면
향신료 냄새가 먼저 올라온다
카레보다 더 낯선,
어떤 나라의 저녁처럼 느껴지는 냄새

나는 그 냄새를
여름이라고 기억했고
그 해도, 그 전 해도
편지는 같은 항공편으로 도착했다

어머니는 말이 없었고
아버지는 종이 위에서 살아 있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편지를 냉장고에 붙였다

어느 해부터 편지는
도착하지 않았다

항공편은 그대로였지만
내 이름은 더 이상
우체국에 없었다

엽서는 사라졌고
냉장고 위에는
그의 글씨만이
기억처럼 붙어 있었다

그 해, 나는
아부다비의 위치를
처음으로 지도에서 찾아보았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우리가 다시
마주 앉을 수 없다는 사실만큼

요즘도 여름이면
향신료 냄새가
식탁 위로 낮게 흐른다

편지는 오지 않지만
나는 가끔
글씨체를 따라 써본다

그가 썼던 마지막 문장
“다음 여름엔 꼭 보자”

나는 문장을
한 번 접고,
다시 펴본다

그 도시는
여전히
냉장고 바깥 어딘가에
붙어있다

우수상

일반부

시

활주로 연가

일반부 **우수상** 정재안

나는 지상의 가장 낮은 하늘입니다.
어쩌면 창공(蒼空)의 가장 높은 땅일지도 모릅니다.
멀리 당신이 빛으로 스며,
묵직한 하나의 몸으로 내게 안겨옵니다.
하늘은 말이 없고, 나는 다만,
잠시 닿았다 떠나는 길입니다.

어떤 밤은 먼 바다의 소금기를 머금고 와,
제 살에 뜨거운 낙인(烙印)을 새기는 것으로
묵묵한 상견례(相見禮)를 대신합니다.

얼룩진 웃음과 마른 울음이 발자국에 엉겨 붙고
메아리조차 허락하지 않은 채
그림자들은 나를 딛고 흘러갑니다.
결국 모든 것은 스쳐가는 소음입니다.

어떤 것들은 온몸의 뼈를 울리며
내 마지막을 향해 달려와,
마지막 순간, 나를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지상의 인연은 여기까지라는 듯이.

활주로 유도등이 꺼진 자리에
길게 누운 상처들이 별빛을 받습니다.
당신이 남긴 희미한 기름 냄새는
차마 부치지 못한 답신(答申) 같습니다.

나는 언제나 이곳에 서서,
영원을 약속하지 않는 것들을 배웅합니다.
하늘은 말이 없고, 나는 다만,
떠나기 위해 잠시 닿는 길일 뿐입니다.

수필

익어가는 중입니다

일반부 **우수상** 김민서

공항은 늘 북적인다. 바쁘게 뛰는 사람들 끝도 없이 울리는 안내방송과 전화 벨소리, 이곳에선 시간이 고장 난 것처럼 숨 돌릴 틈도 없이 빠르게 흘러간다. 누구도 멈추지 않는다. 발걸음은 분주하고 목소리는 들떠 있다. 새로운 사람들이 도착하고 끊임없는 행복한 여행을 위해 쉴 새 없이 비행기는 이륙한다.

누군가는 웃고 떠들며 기대감에 가슴을 부풀리고 누군가는 소중한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한다. 여행의 설렘은 그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로 피어난다. 공항은 언제나 다채롭다. 알록달록한 여행 가방처럼 다채로운 꽃이 만개한 정원처럼 사람들의 감정이 이곳에 모인다. 그리고 나는, 그 찬란함 속 어울리지 않는 회색, 아니 그보다 더 흐릿하고 탁한 빛으로 바래지는 중이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남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스펙도 든든한 배경도 없던 내가 공항 지상직 인턴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잘못 본 거 아냐?"라며 의심하며 지원 번호를 수차례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현실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내게 다가오자, 합격 문자 속 숫자 하나하나가 파도처럼 넘쳐흐르는 눈물이 되었다.

그동안 나는 메일함 열 때마다 "안타깝게도"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익숙해졌다. 반복되는 자기소개서 수정, 몇 번을 고쳐 썼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고 면접장 앞에서는 난 항상 점점 작아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늘 "딸 면접은? 라는 부모님의 문자 한 통에 "잘 봤지 내가 누구 딸인데 라고 답장을 하면 나는 늘 한 손엔 위로, 다른 한 손엔 자책이 들려 있다. 나보다 어린 지원자들 보면서 더욱 위축됐다. 그들의 유창한 발표, 당당한 태도 그 모든 게 내 부족함을 들춰내는 것 같았다.

그러다, 그날 처음으로 화면 속'합격'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다." 세상이 처음으로 나에게 너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준 날, 그 두 글자가 그간 움츠러들었던 나를 숨을 크게 들이쉴 수 있게 해줬다; 그날 밤은 나는 혼자 울었다가 또 조용히 울었다. 나를 믿지 못했던 시간이 잠시 조용해졌다.

첫 출근을 앞두고 옷을 정성스레 다림질했다, 흠집 하나 없이 반짝이는 출입증을 손끝으로 매만지며 기대감과 불안함 온갖 감정들이 나를 휘감았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거울 앞에서 힘찬 미소를 띄웠다. 시간을 확인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각이라도 할까, 서둘러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딸 밥 먹고 가, 힘내려면 든든하게 아침밥 먹고 가"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이 차려져 있었고 부모님의 눈엔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시계를 힐끗 보더니 급히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엄마 갔다 와서 먹을게."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내게 엄마는 황급히 포장된 빵을 내 손에 쥐여 주며 말했다. "이거라도 먹고 가. 오늘 첫날이잖아." 그러면서 내 옷깃을 정리 해주며 조심스럽게 웃는 엄마의 얼굴에선 어릴 적 소풍 가던 날처럼, 유치원 가는 아기에게 가방을 매주던 그날처럼 여전히 나를 다섯 살 아이로 보는 눈빛이 느껴졌다. 유니폼을 입고 있는 지금의 내가 엄마의 눈에는 어른 흉내를 내는 아이처럼 보였나 보다, 나는 그 따뜻한 손길에 괜히 울컥해졌다. 나는 작게 숨을 들이쉬며 힘차게 말했다. "다녀오겠습니다"하고 출입증이 달린 목걸이를 손에 꼭 쥔 채 공항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공항에 도착하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넓고 높은 천장, 캐리어를 끌고 다니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눈물로 인사하는 가족들, 환하게 웃으며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친구들, 수많은 감정이 서로 교차하며 만든 모든 장면이 하나의 긴 여행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꿈 같았다. 비행기 옆에서 유니폼을 입고 걷는 나의 모습을 그려봤던 그 수많은 밤들이 뇌리에 스쳐 가며 나는 그 안에 작게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유니폼, 낯선 공항 내부의 구조 어디로 가야 할지 두리번거리며 호흡을 조절했다.

나는 사무실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직원용 통로를 지나며 출입증을 리더기에 찍는 순간 '삑'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사무실 안은 공항과 대비되게 조용하며 바쁜 공기가 넘쳐흐른다. 모니터에 고개를 박고 있는 사람들,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등, 몇 명의 선배 직원들이 이미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 직원이 나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오시는 인턴이죠?" 나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앉자,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다. 업무 흐름, 근무 구역, 기본 응대 메뉴얼… 설명은 분명 또렷했는데 하나하나가 머리에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메모를 했지만 마음속에선 계속 불안함이 웅크리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드디어 현장으로 나갔다. 체크인 카운터 앞은 숨이 찰 만큼 바쁘고 손님들은 예상치 못한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다. "나는 한 발자국 물러선 채 선배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선배는 빠른

속도로 업무를 처리하며 손님들을 맞이며 매끄럽고 빠른 손놀림, 깔끔한 응대, 미소 오랜 연습 끝에 완성된 하나의 리듬처럼 보였고 나는 그 리듬에 빠져들 듯 넋을 놓고 있을 때

순간 내 이름이 불렸다. "이쪽 승객 안내 도와주세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손이 떨렸다. 숨 크게 들이쉬고 고개를 들자, 세 식구가 서 있었다. 가방 속에서 여권을 찾고 있는 아빠,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엄마, 비행기 장난감을 들고 해맑게 웃으며 나 한데 인사하는 아이. 나는 긴장한 표정을 감추기 위해 최대한 밝은 미소로 "안녕하세요, 여권 주세요." 여권을 받고 시스템 정보를 입력하려고 하니 키보드 위에 손이 얼어붙었다. 어디를 먼저 눌러야 하는지 절차가 머릿속에서 새하얘졌다.

그때, 옆에 있던 선배가 다가와 내 키보드 위로 손을 뻗었다. 몇 번의 빠른 클릭. 화면이 바뀌고, 체크인 진행이 다시 이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내게 수많은 감정이 쏟아졌다. 부끄러움, 안도감

승객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수고하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할 일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여 미안함과 감사함을 모두 담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사건이 터졌다.

항공편이 연달아 지연되면서 체크인 카운터 앞엔 사람들로 긴 줄이 생겼고 손님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분노와 실망으로 변하고 있었다. 나는 초조한 마음을 감추며 서둘러 짐을 태그하고 다음 승객을 맞이하려던 찰나. 전화가 왔다. 공항에 도착했는데 "제 캐리어가 없어졌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곧바로 물류팀에 연락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봤다. 내가 실수로 가방 태그를 잘못 붙인 것이었다. 그 짐은 목적지와 다른 노선의 비행기에 실려 버렸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점점 격양됐다. "당신 때문에 여행 망쳤어, 내 시간, 내 돈 책임져!" 손끝은 차갑게 식어가고 목에서는 소리가 나오지를 못했다.

이때 선배가 내 곁으로 와 전화를 넘겨받았다. "고객님,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확인하고,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련 보상 절차도 함께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한참동안 통화한 선배는 내게 무슨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날 퇴근길 햇빛이 지는 활주로가 멀리 보였고 비행기가 하늘을 가르며 이륙하는 순간 나는 고개를 들어 그 광경을 오래 바라봤다. 꿈꾸던 곳에 도착하면 남들처럼 자신의 역량을 다 펼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걸까. 나는 실수 하나로 모든 걸 망친 것만 같아 눈물이 났다.

이 공항과 유니폼 이 모든 것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이런 곳에 내가 일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머리속에 맴돌았다.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했고 눈 밑은 퀭했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힘들었지? 밥 먹어 아침 안 먹고 가서 힘들지?” 엄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목에 메어 밥이 삼켜지지 않았다. 나는 겨우 넘긴 채 웃으며 답했다. “좋은 선배, 따뜻한 손님들, 전부 다 좋았어요”.

그날 밤 방 안에 들어가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웠다. 머릿속에 실수의 순간이 비디오처럼 재생됐다. 여권을 받던 순간, 태그를 붙이던 손의 방향, 시스템에 입력했던 시간과 선배의 표정 하나하나 떠올라 나를 괴롭혀 잠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나는 다시 유니폼을 입었다. 흠집이 생긴 출입증의 구겨진 끈을 펴고 거울 앞에서 숨을 크게 쉬고 말했다. “실수는 했지만, 무너지지 말자, 오늘 하루 무사했으면.”

그리고 공항으로 향했다.

출근하고 사무실의 분위기는 똑같았다. 선배는 아무말 없이 오늘의 할 일을 주셨고 나는 다시 처음부터 업무를 차근차근 익혔다. 매일 하나씩, 조금씩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났다.

어느 날 선배가 말했다. “과일이 맛있어 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하우스 과일처럼 이쁘게 관리된 과일은 맛있는게 아니야, 과일의 제 맛이 나려면 햇살, 비, 바람 다 견뎌야 해 그 다음에는 익는데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실수했다고 기죽지 마. 네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이자 겪어야 하는 과정이야” 그 말을 듣고 나는 조금씩 달라졌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익어가는 증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공항은 항상 북적인다. 나는 여전히 어딘가 어설프다. 하지만 나는 매일 출입증을 걸고 한 걸음씩 걷는다. 사람들의 설렘이 가득한 공간에서 나는 나만의 색을 찾고 있다. 조금은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나지만 지금 이 시간도 나라는 과일이 익어가는 과정이라면 충분히 괜찮다.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에게 가장 믿음직한 공항의 얼굴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수필

비행기 표 한 장의 무게

일반부 **우수상** 김장기

비행기 표 한 장은 얼마나 무거울까? 그저 종이 무게로 따지면 몇 그램 남짓이다. 그러나 얇은 티켓 한 장에 담긴 의미는 한 가족의 행복, 때로는 수많은 웃음과 눈물이 베여 있다. 그만큼 무겁다. 나는 그 사실을, 십여 년 전 기러기 아빠로 살아갈 때 깨달았다.

아내와 딸들은 필리핀에서 동남아 유학 생활을 이어갔다.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것은 늘 마음 한 구석을 비워둔 채, 그리움을 품고 사는 일이었다. 나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이어가야 했고, 아내와 두 딸은 필리핀 산페르난도의 앙헬레스 시티에서 생활했다.

기러기 아빠라는 이산가족의 외로움은 늘 가슴 속의 애환으로 남아 있었다. 홀로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기러기 아빠의 삶이었다.

아내와 딸들은 한국에서 조기 유학의 붐이 절정기에 다다랐을 때, 내 곁을 떠났다. 딸들이 어릴 때부터, 아내와 나는 아이들의 장래를 위한 해외 유학을 준비했다. 서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선택이 곧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분기마다 인터넷에서 항공기 표를 예약하고 가족들을 만나려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다. 단지 비행기 티켓은 항공기 탑승을 위한 여행용 발권 증표가 아니라, 내겐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통행증이었다.

나는 서울에서 매일 출퇴근하는 일상을 이어갔다. 기러기 아빠의 마음은 언제나 적도 인근의 앙헬레스 시티에 머물고 있었다. 가족들을 보고 싶은 그리움을 달래며, 홀로 돈벌이를 하고 살아야만 했다.

가족들을 만나러 가던 비행시간이 떠오른다. 인터넷 예매 후 공항에서 종이 티켓을 발권하던 순간, 내 마음은 이미 몇 시간 뒤의 비행시간을 넘어 클락공항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있었다. 낯선 나라와 낯선 공기, 그리고 오랜만에 만날 아내와 딸들의 반가운 얼굴, 활주로에서 비행기의 이륙 엔진이 요란하게 울릴 때면 여권 속에는 한 장의 자석 티켓과 수화물표가 붙어 있었다.

여행용 수화물 속에는 한국 음식과 화장품, 고추장과 된장, 김, 각종 인스턴트 식품, 여름 옷가지, 면세점에서 산 속옷 등 종합선물세트를 방불케 했다. 초저녁 밤하늘을 이륙한 비행기는 자정쯤이면 목적지에 도착했다.

비행시간 동안 내 마음은 아내와 딸들을 만나는 행복한 꿈에 부풀어 있었다. 클락공항 세관을 통과하던 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공항에 도착한 후 세관 검사원이 수화물을 검사했다. 필리핀 현지인이었고, 가족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공항을 빠져나가려는 발걸음을 붙잡았다. 세관 검사원은 장난을 치는 듯한 표정으로 수화물을 검사했다. 여행용 가방의 가장 안쪽에 비닐 팩으로 싸놓았던 속옷을 보며, 어떤 물건이냐고 물었다.

나는 그 순간 언더웨어underwear, 속옷이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샤이 클로쓰shy cloth"라고 대답했다. 얼떨결에 나온 대답이었지만, 직역하면 '부끄러운 옷'이란 의미였다. 세관 검사원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피식 웃었다.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것은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클락공항을 빠져나오던 순간, 아내와 두 딸이 뛰어와 "아빠!"하고 안기던 장면은 오랜 그리움이 응축된 모습이었다. 자정 가까운 늦은 시간이었지만, 아내와 딸들은 클락공항까지 렌트카를 이용해서 마중을 나왔다. 비행기 표 한 장의 무게는 바로 그리움의 무게였다. 가족들과 함께 포옹을 나누던 그 순간만큼은 무척이나 행복한 재회였다.

클락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재회의 시간만은 아니었다. 매번 4박 5일의 짧은 체류 기간이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다. 한국에서는 홀로 경험할 수가 없는 행복한 가정의 일상이었다. 아침에는 아이들을 학교 근처까지 태워다 주었고, 점심에는 바쁜 아내와 함께 재래시장에 가서 낯선 과일과 생선을 골랐으며, 저녁에는 현지 음식을 함께 요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가족들과 함께 일상생활을 나눌 수 있는 것, 그 자체는 행복한 일상이었다. 그 모든 것은 내게 선물이었다.

그러나 그 기간은 한정되어 있었다. 직장 내에서 일정 기간 윗사람의 허락을 받고 떠나야만 했던 휴가 일정이었다. 돌아오는 날이 다가올수록 비행기 티켓은 가슴 위에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무거웠다. 클락공항을 떠나는 날, 배웅을 나온 딸들이 "아빠, 또 언제와?"라고 묻던 눈물 자국은 내 표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응~아빠, 또 휴가 끊어서 올게. 뭐 갖고 싶은 것 있으면 말해!"

클락공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매번 사무치는 애환을 달래야만 했다. 마음속으로는

"다시 만나자, 또 함께 웃자, 반드시 가족 품으로 돌아올게"라는 다짐을 품어야만 했다.

이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클락공항으로 오고 갈 때, 비행기 표 한 장은 하나의 약속처럼 다가왔다. 몇 달 뒤에 다시 만나자는 가족들과의 약속, 달력에 표시해 둔 출국 날짜를 바라보며 기다리곤 했다.

분기별로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오고 가던 기러기 아빠의 생활을 7년간 이어갔다. 사전에 예약해 둔 비행기 표 한 장은 가족관계를 이어주는 희망이고 끈이었다. 만남의 기쁨과 이별의 슬픔을 모두 껴안고 있는 유대감의 상징이었다.

세월은 흘러갔고 아이들은 자라났다. 필리핀 산페르난도의 홀리 엔젤스 대학Holy Angels Univ.을 졸업하고 귀국해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유학 기간을 마친 후, 아내와 나는 지방으로 옮겨왔고, 딸들은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제는 집으로 엄마아빠를 찾아오면, 클락에서의 유학 생활을 재미있게 이야기하곤 한다.

클락에서의 생활은 추억으로 남았다. 가끔 아내와 딸들과 함께, 낯설었던 유학 생활에 대한 체험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어릴 때 아내와 떠났던 딸들의 유학 생활과 기러기 아빠의 애환이 담긴 가족 이야기다.

지금은 휴대전화 속 전자 티켓을 애용한다. 종이 티켓을 손에 쥘 기회가 드물지만, 나는 여전히 비행기 티켓의 애환을 기억 속에 담아 두고 있다.

돌이켜보면, 비행기 표 한 장은 내 가족사를 담고 있다. 그것은 그리움의 무게였고 사랑의 무게였으며, 눈물과 기쁨의 무게였다. 종이 티켓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결코 가볍지를 않았다. 비행기 표 덕분에, 나는 분기마다 가족들을 다시 만났고, 서울에서 기러기 아빠로 살았어도 가족이라는 이름을 지켜낼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생각한다. 비행기 표 한 장의 무게는 무엇이냐고. 그것은 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었다. 비행기 티켓이 있었기에, 나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외롭게 살았어도 다시 만날 수가 있었고 재회의 기쁨을 기약했다. 달력에 표시해 놓았던 출국 날짜를 쳐다보며, 하루하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가 있었다.

결국 그 무게는 종이의 그램수가 아니라, 기러기 아빠의 외로움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연결하는 삶의 애환이었다.

비행기 표 한 장의 무게는 무엇일까? 그 답은 분명하다. 어쩌면 비행기 티켓에는 가족과 가족이 다시 만나는 재회의 설렘이 있는 만큼, 이별의 그림자도 함께 녹아 있다. 낯선 이국땅에서의 재회와 이별을 담고 있다.

우리 가족의 유학 생활과 기러기 아빠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언젠가는 또다시 비행기 티켓

을 손에 쥐게 될 것이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 또는 새로운 곳으로 떠나기 위해. 그때가 오면 나는 그 표를 손에 꼭 쥐고 마음으로 말할 것이다.

"이 비행기 표에는 가족의 행복과 애환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고."

얇디얇은 종이 한 장은 가족의 행복, 웃음, 눈물, 그리고 그리움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비행기 표 한 장은 가족과 가족의 그리움을 이어주는 발자국이고 기다림의 약속이다. 그렇다. 비행기 표 한 장에는 재회와 이별의 시간을 담고 있다.

그저 비행기 탑승을 위한 한시적인 발권용 종이가 아니라, 애환이 담긴 가족사를 연결하는 삶의 이야기라고.

시

병실이라는 공항

일반부 **우수상** 신희수

먼 우주를 여행하기 위해
링거를 따라 기름처럼 수액이 흘러내려요
목성을 오독한 적도 없는데
아름다운 고리가 당신의 목소리를 앓았죠
창밖으로 행성들이 투신하는 날이면
당신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병을 앓고는 했어요
그러면 당신의 내일은 위태롭게 비행을 시작하고
활주로를 구르며 지나간 바퀴자국처럼
몸에는 무수한 수술자국이 남겨지곤 했죠
병실 속 깊이 자리 잡은 슬픔을
지구 맞은편으로 이송하고 싶지만
비행기는 이륙할 때마다 버드스트라이크
뭇별이 쏟아지는 날엔 별들을 이어 별자리를 만들자
이런 담소는 중력을 잃어버린지 오래예요
이제는 다 멍들어버린 이야기지만
희미한 동력이 병실의 공기를 띄우기도 했었죠
영원히 하늘을 비행할 수 있는,
구름을 꿰어 만든 날개를
당신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에 비행운을 남기고 싶었던 한숨은
침대 밑바닥에 조용히 묶여있었죠

한 번도 이륙한 적 없는 꿈을
언젠가 병실 밖으로 날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우주의 바깥으로 팽창하던 울음이
병실 속으로 발을 뻗기 시작했을 때
누가 우주를 신비롭다고 했던가요
죽음은 모든 사람의 태초였고요
블랙홀은 우주의 버뮤다 삼각지대 일지도 모르는 일이죠
삐- 삐- 경고음이 거세게 울리는 동안
가슴을 압박하는 소리만이 병실 속으로 울려퍼져요
난기류를 따라 흔들리는 비행기를 뒤로 하고
종착지를 알 수 없는 밤이 깊어져만 가요

시

느릿 느릿 걸어 에딘버러

일반부 **우수상** 연영자

골목은 사람들의 심장이다

오래전 골목은 여행자들을 부르고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소란스럽다 사람들과 어울려 골목을 떠나지 못하는 이름들, 여행자들의 마음속으로 차오르는 불안, 몇 방울의 눈물로 조용히 안식을 찾는 곳

금작화를 따라 걸으니 전생에 나는 저 골목 어디선가 작은 다락방을 들락거렸던 것 같다. 올드타운의 좁은 골목길 아픈 비밀이 살던 곳, 참새떼가 노랗게 무리지어 앉은 골목으로 전생의 미묘한 울림이 찰랑댄다

누군가의 목소리로 Auld lang syne*이 불려지고 골목의 심장이 되어버렸다 스코틀랜드 민요가 한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애국가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가져와 우리를 폭풍으로부터 지켜준 음률을 따라 걷는다

일상의 소음이 들리는곳, 그곳으로부터 떠나온 사람들이 서운한 골목을 돌아 나온다 시간이 그들 이름 위로 흐르고

한 번도 류마티즘에 걸린 적 없는 우람한 나무들이 성체를 지키며 속삭인다 당신들은 사라지지 않았어 다만 보이지 않을 뿐,

병사들의 혼령을 수령한 골목으로 유럽 금작화 노랗게 기울고 있다

Auld lang syne*: 스코틀랜드 민요

소설

구름 위의 엄마

일반부 **우수상** 임성우

9월 말, 안개가 낮게 깔린 아침이었다. 공항철도는 희뿌연 어둠과 빛의 경계 속을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창밖은 온통 뿌옇고, 유리창엔 안개가 남긴 미세한 입김들이 번져 있었다. 흐릿한 전선들이 등뼈처럼 이어지고, 가로등은 물기 어린 눈처럼 깜빡이며 지나갔다. 열차는 마치 안개의 강을 건너는 배처럼 조용히 흔들렸고, 나는 그 안에서 정지된 시간의 틈에 잠시 몸을 맡긴 듯한 기분에 잠겼다. 현실과 꿈의 경계도 안개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제법 손때가 묻은 하드커버 소형 스케치북과 2B 연필을 쥐고 있었다. 마치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열 듯 스케치북을 펼치고는 사람들의 찰나를 크로키로 붙잡고, 사물의 실루엣을 천천히 데생한다. 순간을 선으로 스치듯 그려내다가도, 생각의 침전물은 색으로 겹겹이 쌓이며 내 작은 세계를 남긴다. 하지만 지금 내 머릿속의 또 다른 스케치북이 안개처럼 열려 있어 정작 손에든 도구들은 자신 보다 작은 손의 압력에 눌려 침묵하고 있었다. 노르웨이행 비행기를 타기위해 인천공항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초대작가라는 타이틀은 아직 무게를 채우지 못한 허공에 억지로 일으켜 세운 허술하기 짝이 없는 목탑같았다. 생각해보면, “해외 초대작가”라는 말은 아직도 내 귀에 어색하게 맴돌았다. 어찌어찌하다보니 초대를 받았지만, 나에게 그러한 자격이 마땅한 지, 너무 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갈등했었다. 아직 국내에서도 작가로서 입지를 다지지 못한 상황인데… 인천에서 오슬로까지 항공왕복권은 지원 받지만 기타 비용은 내 자비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 물가가 깡패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게다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로 간다는 것이 나로서는 도전이라기보단 불타는 숲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의 비행처럼 느껴졌다. 열차가 지나가는 철길 뒤에는 물감 그리고 먼지와 쓰레기의 파편들이 켜켜이 쌓인 협소한 작업실에서의 밤샘 작업과 생계유지를 위한 입주 및 이사전문 청소부로 보낸 시간이 따라붙었다.

차창 너머, 끝이 보이지 않는 깊고 축축한 연한 회색 배경에 가로등이 유속의 잔상처럼 반복되어 흐른다. 열차는 점차 공항에 가까워졌다. 알람처럼 안내방송이 울리고, 선잠에 들었던 여행자들의

숨소리가 불규칙한 분주함으로 바뀌었다. 발걸음 소리, 캐리어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에 잡생각에서 깨어나고 현재의 내 위치를 자각했다. "그래, 이젠 어쩔 수 없어. 이곳은 출발 장소이자, 또 다른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입구라고 생각하자." 나는 스스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중얼거리며 열린 열차문을 나섰다.

약 15년 만에 다시 선 인천공항. 그때는 친척을 마중하러 왔을 뿐이라, 공항의 규모에 그다지 놀라지 않았던 것 같다. 사실 그 시절의 기억은 희미하다 못해 거의 공백에 가깝다. 그래서일까, 지금 이용 당사자가 된 나는 이 거대한 공간이 분주한 사람들을 조용히 삼켜버리는 외계인의 비행체처럼 느껴졌다. 나는 한 티끌의 먼지처럼 붕 떠 있었다. 제법 공포에 빠진 낯선 이방인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허둥거렸다.

많은 이들에겐 이곳이 고속버스터미널처럼 익숙한 공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는, 낯선 의식의 입구 같았다. 수많은 감정이 내 머리속에서 이착륙하고 있었다. 불현듯 나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켰다. 혹시 내가 어딘가 엇갈린 세계 속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결국 출발조차 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때, 두 명의 보안 검색 요원이 내 옆을 지나갔다. 그 중 한 명과 눈이 마주친 순간,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나는 안절부절 못한 채 얼어붙었다. 잠시 후,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항공권 예약 정보나 항공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권도 보여주시구요."

그들의 도움을 받아 내가 타야할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로 이동할 수 있었다.

❄❄❄

줄지어 선 사람들 사이에 껴서 체크인 카운터로 천천히 이동했다. 캐리어가 바닥에 딸깍거리는 소리는 심장박동처럼 일정한 규칙을 타며, 마음 한쪽의 불안감을 두드렸다. 눈앞의 전광판엔 'OSL - 오슬로' 행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다음 손님 준비해주세요."

공항 근무복이 잘 어울리는 직원 앞에 다가가 여권을 넘겼다. 여권의 사진과 내 얼굴을 확인한 후,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두드렸다.

그러다 직원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이름 철자가… 'Lee Han-jun'이 맞으시죠?"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불안함이 느껴졌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또박또박 말했다. "예약하신 영문 철자가 'Seo Han-jin'으로 되어 있습니다. 'jun'이 'jin'으로 되어 있네요."

철자의 잘못은 가느다란 실이 끊어질 듯한 긴장감을 데려왔다. 그 실은 곧, 내 여행의 틀어진 시작

이 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실타래였다. 예전 친한 친구가 항공권 영문이름이 틀려 결국 탑승하지 못했다는 기억이 깨어났기에, 나는 목 안이 바짝 말라오는 걸 느끼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름 변경이 가능할까요?"

직원은 잠시 키보드를 두드리다, 고개를 들고 속삭이듯 말했다. "약간의 수수료가 필요하지만, 바로 수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 고객님께서 저희 항공사 직통으로 예약을 해주셔서 빠른 수정이 가능했어요. 가끔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신 경우 빠르게 수정을 못해 탑승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정된 이름을 확인하며, 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 한숨은 마치 긴 호흡 후 마침내 뿜어낸 안도였다. 잘못된 철자 하나가 내 여행 전체를 흔들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이 작은 철자의 힘이 소름처럼 다가왔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티켓을 받으며 나도 모르게 두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제법 듬직한 여행용 트렁크까지 처리한 후 여권과 티켓을 돌려 받았다. 손끝에 남은 티켓의 감촉은, 방금 뿌리 내린 확신 같았다. "아… 정말 십년감수 했네. 다행이야." 나는 직원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안도의 숨을 쉬면서 스스로를 다독이며 직원이 설명해 준 게이트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되찾은 내 이름을 다시 마음속에 그리면서 혼잣말을 했다. "다시 이등병이 된 기분이야. 시작부터 이 모양인데, 먼 외국에서 놀림감이 되는 건 아닌지… 휴…"

❄❄❄

게이트 앞 대기좌석에 앉아 거대한 창을 통해 보이는 비행기들을 보면서 생각에 잠긴다. 아직 2시간 정도 남았다. 혹시 모를 낭패한 상황이 생길지 몰라 예정보다 일찍오긴 했다. 내 작품들은 미리 오슬로 미술 협회에서 지정한 전시 장소로 보냈기에, 손은 가볍지만 마음은 오히려 묵직했다. 무언가를 내려놓은 듯 홀가분하면서도, 빈자리를 응시하는 듯한 허전함이 뒤따랐고, 뭔가 빠진 듯한 불안감이 커져가는 것을 털어내기 위해 나는 들고 있던 스케치북을 열었다.

생각을 정리하다 연필로 글자 하나를 적었다. '노르웨이'. 잠시 그 단어를 바라보다가, 다시 멍하니 창밖으로 시선을 흘렸다. 스칸디나비아의 한 나라, 10여년 전 부모님이 함께 여행사 패키지로 여행갔었던 곳. 엄마의 생애 최초이자 마지막 해외여행이 되어버린… 엄마는 그곳에 다녀온 후 틈만 나면 여행 얘기를 했다. 두 명의 아들을 위해 그시대의 다른 어머니들처럼 억척같이 사셨던 당신. 하지만 꽃의 예쁨에 감동하고, 떨어지는 낙엽에 눈물을 보이시고, 눈 내리는 풍경에 누구보다 순수한 소녀가 되셨던 엄마가 생각났다.

'저도 이제,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나라에 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비상을 앞둔 거대한

항공기를 연필로 빠르게 그려냈다. 그리고 나는 '노르웨이'라고 쓴 단어 아래, 날개 위쪽에 '엄마'라는 두 글자를 남겼다.

"○○항공 ○○편, 오슬로행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탑승 게이트는 ○○번이며, 항공권과 여권을 준비하시어 순서에 따라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상념에서 천천히 빠져나와, 차례를 따라 조용히 탑승을 준비했다. 줄이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고, 탑승구의 자동문이 열리며 비행기와의 연결이 시작되었다. 한 발, 또 한 발, 비행기 계단을 오르자 특유의 기내 공기—희미한 연료 냄새와 정제된 냉기의 혼합—가 느껴졌고, 곧 좁고 긴 통로가 나를 맞이했다.

한 사람만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그 복도를 따라 나는 긴장한 상태로 걷기 시작했다. 손에 쥔 항공권에는 익숙지 않은 숫자 조합이 적혀 있었다. '13A'. 내가 앉아야 할 자리였다. 13이라고 적힌 좌석 번호열에 도착했고 A좌석을 확인했다. 창가 자리였다. 앉자마자 자연스레 시선이 옆으로 향했다. 그것은 네모도, 완전한 원도 아니었다. 부드럽고 유려한 곡선으로 다듬어진 두툼한 창문은 마치 공기의 흐름을 형상화한 듯한 모양이었다. 단단한 구조 속에서도 이상하게 유연해 보이는 곡선은, 다른 세계로 안내하는 초대장 같았다. 불안과 기대, 그 상반된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구치며 나는 마치 이 창문 너머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나는 생계형 청소부이지만,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화가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 타원형 창이 어느 순간부터 액자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흔히 볼 수 있는 네모난 틀 대신, 관념의 경계를 부드럽게 무너뜨리는 듯한 곡선의 틀. 그 안에는 멀고 고요한 세상이 가만히 담겨 있었다. 아무 소리도 없이 흐르는 구름, 멀어지는 땅, 빛의 조각들. 그것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먼 풍경을 담은, 시간마저 흐르지 않는 액자 같았다. 다소 긴장이 풀렸다.

기내로 시선을 돌렸다. 내가 앉아 있는 이 공간—긴 통로의 일부이자 둥근 금속 관의 안쪽—천장과 벽의 구분이 모호한 채 곡선으로만 이루어진 실내는, 마치 또 하나의 밀폐된 세계처럼 느껴졌다. 창밖의 세상과 이 안의 세계는 서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처럼 낯선 느낌이 다시 긴장감을 불러왔다.

이륙 전 승무원들이 탑승객들에게 안전 시범 안내를 하는 동안, 엔진은 숨죽이며 준비 운동을 하는 듯했다. 가슴 속 작은 전율이 점점 무거운 진동으로 변해갔다. "곧 떠나겠구나…"

"부우우우웅…!" 영혼을 뒤흔드는 듯한 강렬한 엔진 소리가 나더니 비행기는 가을 햇살을 찢으며 맹렬하게 활주했고, 기체가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를 때, 내 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벽 안에

갇힌 듯 먹먹해졌다. 심장은 점점 더 조여왔고, 손바닥엔 알 수 없는 땀이 맺혔다. 얼마후 강한 흔들림과 먹먹함은 잦아들었고, 난 진정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창가로 시선이 흘렀다.

창 너머로 펼쳐진 영종도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 바다빛을 머금은 넓은 갯벌, 섬과 섬을 유려하게 이어주는 다리의 곡선, 그리고 공항 활주로의 끝자락을 감싸 안은 낮은 구릉들. 그 너머로는 작은 섬들이 점점이 흩어졌고, 맑은 가을 햇살 아래 바다는 유리처럼 반짝였다. 지붕 위로 바람이 흐르고, 고요한 수면 위엔 지나온 시간이 잔잔히 눕는 듯했다. "엄마도 처음 하늘에서 본 밖의 풍경에 얼마나 신기하고 들뜨셨을까?"

비행기는 구름 위로 날아 올라, 세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은 듯했다. 나는 차창 밖으로 천천히 퍼지는, 보송보송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듯한 백색의 능선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 빈틈으로 내려다보이는 먹물을 풀어 놓은 것 같은 진파랑의 바다 위로 배 한 척이 그어 놓은 하얀선에 "정말 멋진 그림이군."하고 중얼거렸다.

❋❋❋

"점심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유니폼을 단정히 입은 승무원이 내 앞에서 미소 지었다. "닭고기 비빔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양송이 크림파스타입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비빔밥이요." 하고 대답했다. 그 말에 맞춰,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작은 트레이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한 숟가락, 입 안에 넣자 따뜻한 밥과 고소한 향, 약간의 매콤함이 퍼졌다.

식사를 마치니 그동안의 긴장이 풀리고, 눈꺼풀이 천천히 감기며, 나는 어느새 하늘 위의 낮잠 속으로 스르륵 미끄러져 들어갔다.

제법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 깨어보니 비행기는 여전히 구름의 바다 위를 천천히 헤엄치고 있었다. 내 가슴은 저 아래 떠 있는 구름 조각들이 손끝에 닿을 듯 살짝 들린 고요 속을 맴돌았다. 그러다, 어렴풋한 허공의 진동이 내 안 가슴을 건드렸다.

창밖, 은빛 물결 같은 구름 언덕 위에, 누군가의 실루엣이 있었다. 소녀처럼 머리칼이 가늘게 흩날리며, 살포시 구름 위에 앉아 있었다. 환영인지, 구름이 그린 그림인지 알 수 없었다. 형체를 더 자세히 보려고 나는 눈을 가늘게 좁혔다.

그 형체의 얼굴 부분이 나를 향했다. "아들…" 낮고 부드러운 익숙한 목소리가 귀밑에서 퍼졌다. 구름 사이로 번지는 그 음성은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게 해주었다.

"엄마?" 나는 깜짝 놀라 몸을 뒤로 제끼면서 짧은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손님, 혹시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내 외마디 비명에 승무원 한 명이 다가와 나에게 물었다. 내 옆자리에 앉은 남성분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순간 옛 기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나는 승무원과 주변 사람들에게 허리를 숙여 거듭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다소곳이 자리에 앉았다. 창밖은 다시 보기가 두려웠지만, 잠시 후 용기를 내어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너, 여기 왔구나. 내가 다녀왔던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에 가는 중이니?" 엄마는 마치 개울의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사뿐사뿐 구름과 구름 사이를 힘들이지 않고 뛰면서 비행기 속도와 속도를 맞추며 나를 보며 말했다. "하늘 위에서 구름을 내려다 보는 건… 정말이지,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니?"

나는 창가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숨을 죽였다. 엄마를 닮은… 아니면 엄마라고 생각되는 저 형상.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와 제법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나를 보며 말하는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이해 불가능한 존재.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분. 아버지 장식장 속에서 빛이 바래 연한 갈색 흑백사진처럼 변해버린 컬러사진 속의 복장을 그대로 입고 계셨다.

크게 말해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텐데… 나는 분명히 들었다. 그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내 귀를 파고들었다. 본능처럼 두 손바닥으로 귀를 막으며 중얼거렸다. '이게 가능해? 엄마가 저 밖에? 내 머리가… 이상해진 걸까?'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온몸을 휘감았지만, 반가움과 그리움의 기운이 더 빠르게, 더 강렬하게 나를 덮어버렸다.

"그때 말이다, 내가 창밖을 보면서 '어머나, 어머나, 어쩜 어쩜' 하고 연신 소리를 냈잖니. 네 아빠가 그만 좀 하라며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몰라. 그런데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니. 목소리를 줄이려고 했는데도, 네 아빠는 창피하다며 여행 내내 날 구박 하더라고."

나는 숨조차 멈춘 채, 변함없이 또렷하게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혹시 다른 이들도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워 고개를 돌려 옆을 살폈다. 내 곁의 남자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고, 같은 줄에 앉은 승객들은 의자 뒤 스크린에 몰두해 영화와 게임에 빠져 있었다. 아무도 나를 의식하지 않는 듯했다. 나는 다시금 조심스럽게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엄마는 어느새 비행기 앞날개 끝 부분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시선과 마주치자 다시 당신의 얘기를 시작했다.

"아들, 저 구름 좀 봐. 새하얀 솜털을 엮은 담요로 세상을 감싸 안은 것 같지 않니?"

엄마의 목소리는 구름에 녹아든 바람처럼 부드러웠고, 마치 내 마음 깊은 곳을 쓰다듬듯 스며들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창가에 이마를 기댄 채로 그 말을 따라 구름을 바라보았다. 정말 그랬다. 구름은 어린 시절, 겨울이면 엄마가 덮어주던 솜이불처럼 포근히 부풀어 있었고, 그 위로 햇살이 얹혀 따뜻한 빛을 품고 있었다.

"그 여행 이후, 나는 날씨가 맑은 하늘에 뭉게구름이 떠 있을 때면 이런 상상을 하곤 했단다. 저 구름 위에 집을 짓고 살면 어떨까 하고. 날마다 다른 모양의 마당이 생기고, 해가 뜨면 담요처럼 따뜻하고, 비가 내리면 세상의 예쁘고 알록달록한 물고기들이 내 구름정원으로 헤엄치러 올 것 같고…"

엄마는 아직도 소녀처럼 예쁜 형상이나 물건들 앞에서는 행복의 눈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이제 입꼬리를 올리며 그 이야기를 들었다. "아마 네 아빠는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진작에 지상으로 떨어졌을 거야. 마음도 가벼워야 이 곳에 머물수 있단다."

말을 마친 엄마는 조용히 비행기 날개 끝에서 일어나 조금 더 나에게 다가와 다시 앉았다. 그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갠 채, 고개를 살짝 기울여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리칼은 바람에 가늘게 흩날렸고, 그 모습은 내가 기억 속에서 가장 사랑했던 엄마의 젊은 날 그대로였다.

"그때 네가 내 손을 꼭 잡고, 노르웨이 책자에서 오로라 사진을 보여주며 '나중에 꼭 같이 가자'고 했던 거, 기억나니?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어린 네 말에,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아니?"

나는 숨이 막히듯 가슴이 저려왔다. 오래전,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당신이 챙겨온 여행 안내서 위로, 내가 내민 손. 엄마가 잡아주던 그 손의 온기가 손 끝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다. 어쩌면 지금 그 감각이 창 밖에 엄마의 온기가 비행기 날개를 타고 내가 앉아 있는 13A로 전달되는 것은 아닐까? 나는 엄마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

"너와 이렇게 여행은 하겠지만, 내가 다시는 네 아빠와는 여행 갈 생각 없다! 지긋지긋한 양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여유가 없는 속 좁고, 멋대가리 하나도 없는 남자. 내가 너무 예쁘다고 이곳저곳 보고 있으면 내 손목을 잡고 빨리 가자고 잡아끌어 정말 짜증이 났거든. 흥!"

아버지는 그런 남자다. 너무 성실하지만 융통성이 많이 부족하신 분. 늘 정확하고 계획적이지만, 엄마 생전 감탄을 만들어 내는 꽃 한 송이 앞에서도 단 2초도 시간을 멈출 줄 모르신 분. 그래서일까 지금도 정정하신 아버지는 내가 초대작가로 노르웨이에 간다고 말했어도 돌아오는 답변은 간단했다. "좋은 곳이지. 잘 다녀와라." 그리고 보시던 바둑 케이블 TV에 집중하셨다.

"근데 말이야, 아들. 이곳에서 보는 세상은 정말 다르게 보여. 구름만 예쁜 게 아니더라. 위에서 보면 바다는 더 고요하면서 웅장하고, 색도 감동적이란다. 땅은 더 너그럽고, 사람들은 참 작아. 그 작음 속에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심겨져 있는지, 멀리서 작게 봐야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

엄마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저 멀리 겹겹이 겹쳐진 구름의 너울을 따라 흘러갔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웃었다.

"네가 지금 이 비행기에 앉아 있다는 게 너무 좋아. 내가 혼자 지나갔던 그 하늘 길을 네가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지금 이 순간이 기적 같아."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다시 떴다. 창밖의 엄마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엄마, 거기

밖은 춥지 않으세요? 기온이 상당히 낮을텐데…" 나는 아주 작게 소리를 낮춰 중얼거리듯 말했다.

"딱 좋은데. 호호호. 네 목소리를 들으니 좋구나." 엄마는 구름들 틈으로 빠져나오는 빛처럼 밝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방금 내뱉은 작은 목소리에 엄마가 또렷이 답했기 때문이다. 혹시 누가 들었을까. 조심스레 고개를 돌려 뒤를 살폈다. 그러나 내 옆자리의 남자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옆 줄의 승객들도, 반대편 창가에 앉은 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마치 이 객실 안에서 내 목소리와 감정은 나만의 밀실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나는 다시 창가로 몸을 기울였다. 방금 전까지 비행기 날개 끝에 앉아 계셨던 엄마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역시, 내 마음이 그려낸 환영이었겠지. 그런데 너무 생생했어.'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창밖의 빛과 구름을 더듬었다. 어쩌면 구름 위나 주변 공간으로 이동하신 것은 아닐까 싶어서. 그러다 이내 몸을 돌려 정자세로 앉았다.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앞 좌석에 달린 작은 스크린을 터치하며, 나는 조용히 화면을 넘기기 시작했다. 마치 방금의 일이 단 한 조각의 꿈이었던 것처럼.

인천에서 오슬로 공항까지는 직항이라 비행시간은 14시간이 채 걸리지 않기에, 잠도 좀 자고, 영화 몇 편 보면 어느덧 도착할 거라 예상했다. 사실 14시간 동안 거의 몸을 움직이지 않고 비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공항을 경유해서 가는 항공 스케줄은 20시간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상대적으로 14시간은 견디기 쉬울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7시간이 넘어가자 몸이 상당히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리 한쪽이 저릿한 듯 감각이 무뎌졌고, 허리도 점점 의자에 눌려 뻐근해졌다. 정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점점 고역이 되었고, 기내 공기는 마치 시간이 흐를수록 묵직한 유리 덮개처럼 몸 위에 내려앉았다. 나는 허벅지를 문지르며 일어났다. 옆에 앉아 있는 두 사람에게 양해를 구했다. 화장실로 향했다. 좁은 통로를 따라 걷는 이 짧은 걸음조차 의외로 큰 위안이 되었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은 상당히 낯설고 피곤해 보였다. 마치, 중간 어딘가에 걸쳐져 있는 사람처럼—지금 이곳도 아니고, 아직 도착한 그곳도 아닌.

❋❋❋

나는 다시 자리에 앉은 후, 목을 좌우로 흔들었다. 목이 좀 뻣뻣하고 눈이 좀 침침했다. 고개를 좀 앞으로 밀며 밖을 내다 봤다. 창밖을 어느덧 햇빛이 잦아들고 멀리 노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비행기는 북쪽 하늘, 시베리아나 북극의 동토를 날고 있으리라. 날개가 살짝 주황색으로 물들어가며 바람의 마찰음을 뚫고 나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다시 할 그 때, 조금 멀리 엄마가 날고 있었다. 구름보다 가벼운 그 모습은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부드럽고 또렷했다. 나는 눈을 비비며 창에 머리를 대고 밖을 바라보았다. 엄마는 살짝 고개를 돌린채 나를 보며 웃고 계셨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나

풀거렸고, 햇빛을 머금은 듯 당신의 눈은 반짝였다. 유럽식 하얀 드레스가 노을 빛을 받아 연한 핑크색으로 보였다. 노년의 모습. 풍만한 몸매로 변신한 엄마는 슈퍼맨처럼 왼손은 쭉 뻗고 오른손은 ㄴ자로 접은 채로 비행 속도에 맞춰서.

"아들아, 시베리아의 노을은 참 특별하지 않니? 세상의 끝자락에서 피어나는 마지막 불꽃 같기도 하고… 마치 얼어붙은 대지 위에 누군가 살며시 불을 놓은 것처럼, 서서히 번져가는 저 대자연의 물감은… 말로로 표현하기 불가능한 장관이란다. 그렇지 않니? 너와 같이 오로라도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 때 트롬쇠에서 봤던 오로라 아직도 생생해." 엄마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유리창 너머에서 스며들었다. 음성이라기보다 마음에 직접 새겨지는 진동일 것이다.

"엄마, 그런데 하늘을 날기에는 드레스보다는 슈퍼맨이나 슈퍼우먼 복장이 더 맞을 것은 같은데… 아, 아니다. 엄마 체격이…" 내 생각에도 좀 뜬금없다 생각했지만 말은 이미 당신의 귀에 날아들어갔다.

"예는… 너도 나이가 드니 네 아빠랑 점점 비슷해지는 거니?" 엄마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그러나 입꼬리를 꼭 참은 웃음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도 맨날 내 옷차림 가지고 뭐라 했지. 여행갈 땐 왜 그렇게 하얀 걸 입냐, 바람 불면 치맛자락은 어쩌려고 그러냐,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다, 산책 나가면서 또 구두냐 하며… 참견은 참 많이도 했단다."

그 말에 나는 괜히 어깨를 한번 움찔했다. 엄마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묘하게 찌르듯 정확히 들어왔다.

"그리고, 내가 말이야 – 지금 이 하늘을 나는 것도 마음먹고 찾아 입은 드레스야. 하늘에서까지 슈퍼맨처럼 쫄쫄이를 입고 다니면, 내 품위는 어디 가니? 내가 아무리 가볍고 네가 타고 있는 비행기보다 빨리 날 수 있어도, 그건 좀 아니지 않니?"

엄마는 항공기 날개 위로 날아와 부드럽게 선 자세로 떠오르며 두 팔을 벌렸다. 드레스 자락이 바람에 날렸고, 햇빛을 받아 핑크빛이 더욱 선명하게 물들었다.

"아까 잠시 봤는데 이 여객기는 시속 900km가 넘는 속도로 비행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제가 엄마를 볼 수 있고, 대화도 가능한 거죠? 게다가 이런 곳에서…"

"며칠 전에, 네가 날 초대했잖니. 초대작가로 노르웨이에 간다며 날 그리워하면서 말한 거 그거 기억 안나니? 그 소리를 듣고 오늘만을 기다렸는데… 어떤 모습으로 다시 상봉하는 것이 드라마틱할까 고민을 하면서 설레이며 기다렸단다. 작가님에게 작품 영감을 줄 수 있는 멋진 만남이 되길 원했거든."

"여전하시네요. 그래서 엄마 덕에 제가 예술을 전공했나봐요. 아직까지 무명에 가깝긴 하지만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거의 지구 반대편에서, 그것도 뭉크라는 세계적인 화가의 나라에서 너를 초대했는데, 무명이라니. 무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니? 참, 그런데 나는 뭉크 작가는 별로다. 너무 괴기스러워. 아름다운 나라에서 자란 사람이 어쩜 그렇게 우울한 그림을 그렸다니? 난 노르웨이 작가 중에 테오도르 키텔센이 좋더라. 풍경화도 그렇고 동화같은 그림이 딱 내 스타일이거든."

"엄마, 어떻게 그런 작가들을 알고 계세요? 생전 저에게 그림에 대해 얘기해 주신 적이 없으셔서…"

"얘 좀 보게. 정작 네가 나와 얘기할 시간이 없었으면서… 난 네가 화가가 되기로 한 순간부터 틈날 때 마다 그림 관련 책도 보고, TV도 보고, 가끔 미술관도 갔었는데, 몰랐니? 정말?"

"하… 정말이에요? 전, 전혀 몰랐어요."

"어쩜 그렇게도 지 엄마에게 관심이 없었던 거니. 네 아빠처럼 날 실망시키는구나."

앞자리에 앉아 있던 젊은 여성이 창문 가까이 목을 내밀었다. 그리고 잠시 나와 시선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다시 어둑어둑해지는 창가로 시선을 돌린다. 나는 혹시라도 밖에 계신 엄마를 발견하게 될까봐 마음을 조린다. 하지만 앞 좌석의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어둠에 희석되어 가는 노을을 잠시 바라보다 창가에서 시선을 떼었다.

빛은 점점 짙은 주홍에서 보랏빛으로 번졌고, 엄마의 모습도 그 빛의 농도 속에 부드럽게 섞여들었다.

날개 위에서 계시던 엄마는 날개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다시 나를 바라보려고 얼굴을 돌리려는 찰라 갑자기 엄마의 형체가 순식간에 날개에 달려있는 거대한 터보팬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으악! 엄마." 나는 너무 놀라 소리를 빽 질렀다. 그러면서 창문에 내 이마를 박았다. 쿵!

"손님!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기내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듯,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려 있었다. 잰걸음으로 다가온 두 명의 승무원은 긴장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하는 경계심으로 반짝였다. 나는 재빨리 몸을 돌려 다시 창문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아들, 미안해. 내가 순간 방심했네. 난 괜찮다." 엄마는 날개 끝 너머에서 손을 흔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려는 억지 미소 짓고 계셨다. 바람에 나풀거리던 머리칼은 산만하게 흐트러져 있었고, 하얗게 빛나던 드레스에는 기름때로 보이는 얼룩이 번져 있었으며, 여기저기 구김이 깊게 패여 있었다.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승무원 쪽으로 몸을 돌려, 여전히 긴장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목소리로 답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밖을 보며 옛생각에 잠겼다가… 순간 나도 모르게 소리를 내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승무원은 짧게 숨을 고른 뒤,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손님, 죄송하지만 창문을 닫아 주시겠습니까? 고도가 높아서 손님께서 안정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정자세로 앉아주시겠습니까? 주변 손님께서도 손님이 창밖을 보며 계속 뭔가 중얼거리신다며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 순간, 기내의 공기가 한층 더 무겁게 내려앉는 듯했다. 주변의 모든 승객은 일어선 채 나를 주시하고 있었고, 바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사람은 놀란 얼굴로 복도에 어정쩡하게 서서 승무원의 말에 맞춰 고개를 짧고 과격하게 끄덕였다. 나를 향한 그들의 시선은 복잡했다. 짜증과 불편함이 겹쳐 있었고, 그 아래에는 두려움과 엷은 연민,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안타까움이 뒤엉켜 있었다. 마치 내가 이 기내의 불청객 – 정신적으로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 – 이 되어버린 듯, 낯선 무대 위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결국 창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잠시후에 다시 창문을 열게요. 그때 다시 봐요.' 나는 닫힌 창문을 향해 속으로 조용히 말을 건넸다. 곧 정자세로 몸을 가다듬고 눈을 감았다.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 너머로, 방금 전까지 또렷하게 이어졌던 당신과의 만남이 긴장이 채 가시지 않은 채 서서히 멀어져 가는 듯했다.

❋❋❋

당신은 계속 나를 따라오고 계신 걸까? 어둠의 방해에 막혀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고 멈추신 걸까? 창문을 열 수 없어 답답했다.

어둠은 기내에도 내려 앉았다. 내 안에서는 오래된 그림자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갑자기, 여덟 해 전의 병실 풍경이 떠올랐다. 희뿌연 형광등 아래 누워 계시던 엄마, 기침할 때마다 온몸이 휘청거리던 그 모습이, 저 밖의 꺼져가는 어두운 하늘을 닮아 있었다.

그 시절, 나는 참 바빴다. 아니, 바쁘다는 핑계를 댔다. 내 삶이 중요하다고, 시간이 없다고, 인정받는 예술가가 되겠다고 – 그렇게 나는 엄마의 곁을 거의 지켜드리지 못했다. 말없이 버티며 아픔을 견디던 그분의 손을, 나는 대부분 놓쳤다.

"아, 씨발! 그만 좀 하라고 했잖아! 나 지금 바쁘다고! 전시 준비하느라 죽을 맛인데, 이건 정말 중요한 전시라고. 엄마가 많이 아픈 건 알아…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엄마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창백하게 빛나는 얼굴. 숨을 고르시며 다시 입을 여셨지만, 그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가늘고 힘이 없었다.

"너 힘든 거 알지… 그냥 –"

"알면 됐잖아! 제발 좀…"

말을 내뱉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나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멈출 수 없었다. 내 안에 쌓인 짜증과 불안, 무력감이 뒤엉켜 거친 파도처럼 터져 나오는 걸 나는 제어할 수 없었다.

"나도 엄마가 걱정돼서, 최대한 시간 내서 병원에 오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도 제발 날 좀 이해해줘!"

엄마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천천히 고개를 숙이셨다. 병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침묵이 너무 불편해서, 나는 형에게 전화를 걸어 간병을 부탁한 뒤, 마치 도망치듯 병실 문을 열고 나왔다.

뒤늦게 돌아보았을 때, 그 장면이 내 기억 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내가 떠난 병실 한가운데, 나를 등지고 웅크린 채 돌아 눕던 엄마의 처진 어깨.

그러한 철없는 간병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6개월 뒤, 임종의 순간조차 나는 함께하지 못했다. 병원으로 지친 몸을 끌며 가던 길, 휴대폰 너머로 들려온 아버지의 담담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조금 전 숨을 거두셨다는 짧은 한마디. 그 말은 둔중한 망치처럼 내 가슴을 내려쳤고, 그 타박상 같은 통증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고 선명해졌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같은 악몽을 꾼다. 엄마가 나를 부르는 듯하지만, 나는 그 목소리를 애써 외면한 채 등을 돌린다. 뒤돌아보면 엄마는 이미 너무 멀리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허전하고 시린 가슴을 안고, 결국 눈을 뜨곤 한다.

나는 닫힌 창으로 시선을 돌렸다. 타인들의 시선과 비난이 두려워 차마 열어보지 못했다. 그 두려움은 오히려 내 안의 죄책감을 더욱 선명하게 했다.

'아… 아까, 엄마를 볼 수 있었을 때… 그때 꼭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죄송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왜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왜 목구멍에 걸린 말들이 끝내 흘러나오지 않았을까. 왜 가장 먼저 했어야 할 그 말을, 나는 끝내 하지 못했을까. 엄마는 나를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참으셨는데, 나는 내 마음속 서늘한 바람에 갇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건네지 못했다.

기내는 고요했다. 창밖도, 내 안도, 깊은 밤처럼 적막했다. 하지만 그 침묵의 가장 깊은 어딘가에서, 나는 엄마가 여전히 나를 따라오고 계시리라는 희미한 믿음을 붙들고 있었다. 잠시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어 보았지만, 엄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엄마, 부디 지금쯤 구름 어디에선가 쉬고 계시기를. 이 밤이 너무 춥지 않기를.

***

쿠궁쿵! 거대한 비행기의 바퀴가 활주로 지면에 닿는 순간, 난 심장 멎을 정도로 공포를 느꼈다. 아마도 이 공포가 이 낯선 곳에 있는 동안 계속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나를 잡아 채 온 이 거대한 인공 새는 마침내 오슬로 공항에 나를 집어 던졌다. "넌 정말 맛이 없을 것 같아서 버렸다. 이 곳 그 누구도 너에게 관심도 두지 않을 거라고! 비참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비행기 문과 공항 터미널을 연결하는 탑승교에서 비행기는 나에게 그렇게 야유를 보내는 것 같았다.

제법 긴 입국 수속절차를 마친 후, 여행용 트렁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몰라 한참을 헤맸다. 결국 녹초가 되어 진이 빠진 나는 한참 후에야 도착 출구(Arrival Exit)을 나갈 수 있었다.

Welcome to Oslo, Seo Han-jun 이라고 쓰여진 종이를 들고 있는 키가 큰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물었다. "Mr. Seo Han-jun?" 나는 대답했다. "Yes!"

그는 나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영어로 이것저것을 물어 봤지만, 내가 영어를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손짓으로 잠시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는 비슷한 시간대에 도착한 여러 나라의 초대작가들을 하나의 차로 태워 오슬로 미술 협회가 지정한 호텔로 이동했다. 그 과정에서 작가들끼리 서로 친해져 서로 웃으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지만, 나는 침묵해야 했다. 가끔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외면한 후 창밖만 바라봤다. 여기에 온 것을 후회하며.

호텔에 도착한 후에도, 나는 협회의 담당자와 호텔 직원, 그리고 함께 온 해외 작가들의 말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들은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고, 몸짓으로도 도움을 주려 애썼지만, 내 머릿속에는 단어들이 엉킨 실타래처럼 의미없이 맴돌 뿐이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여권을 보여달라는 말에 지갑을 열었고, 서명을 해야 할 때, 엉뚱한 줄에 사인을 하고 다시 써야하는 실수를 했으며, 벨보이에 의해 미리 방으로 가버린 여행용 트렁크와 백팩을 찾기 위해 한참을 서성였다.

결국 그들 중 한 명이 내 손에 작은 메모지를 건넸다 – 방 번호, 엘리베이터 위치, 아침 식사 장소와 시간, 내일 오전 만남 장소와 전시장으로 출발하는 시간까지, 짧고 굵은 영어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마치 한 장의 쪽지를 부여잡고 낯선 행성에 불시착한 외계인처럼 느껴졌다. 나를 도와주려는 그들의 따뜻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스스로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숙한 존재처럼 느껴졌고, 그 어깨 위로 자괴감이라는 이름의 먼지가 겹겹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다행히 다음날 큰 실수없이 전시장에 도착한 나에겐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리 도착한 작품들의 포장을 뜯어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다. 총 7점의 내 작품들은 모두 안전하게 배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장을 하나하나 풀 때마다, 나는 마치 볼품없는 내 안의 껍질을 조심스레 벗기는 기분에 잠겼다. 내 작업은 대부분 '먼지, 시간, 기억'이라는 느슨한 개념 아래 묶여 있

다. 보이지 않는 흔적들, 사라진 것들의 잔향을 포착하려 애쓴 결과물들이다. 그것들도 나와 같은 초보 이방인처럼, 잔뜩 주눅 든 상태로, 이 낯선 도시의 벽에 기대 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혹시 한국에서 오신 서 작가님이세요?" 나는 뒤를 돌아 봤다. 젊은 금발의 여성이 나를 보며 활짝 웃었다. "아, 제가 서한준입니다. 누구신가요?" 나는 당황하며 물었다. "저는 에바입니다. 서 작가님을 도와드릴 자원봉사자입니다."

나는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자원봉사자 지원이 된다고 협회 측에서 들은 바가 없었기에, 순간 당황스러움이 앞섰다. "아... 죄송한데, 제가 자원봉사자 분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요…"

내 말에 에바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저 알고 있어요. 협회에서 말 안 했다고... 하지만, 저는—아, 저는—그... 한국 작가분 계시다 듣고, 자원봉사하고 싶다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오케이 받았어요!"

그녀의 한국어는 조금 느리고 어색했지만, 발음 하나하나에 성의가 묻어났다.

"그렇군요... 한국어, 꽤 잘하시네요." 나는 진심으로 놀라며 말했다.

"아니에요, 아직 잘 못해요. 하지만, 많이... 좋아해요. 한국. K팝, K드라마... 많이 봤어요. 끄리고 미술도… 전공이에요. 지금… 예술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에바의 눈빛은 진심 그 자체였다. 낯선 땅에서, 뜻밖의 누군가가 내 언어로 말을 걸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다.

"그래요… 잘 부탁드릴게요. 국제 전시는 처음이라 좀 낯설어서요."

"네! 체가 도와드릴게요. 통역도, 스케줄도... 괜찮아요. 꺽정 마세요!"

그날부터 에바는 내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통역과 안내, 전시 준비까지 도왔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녀의 존재에 의지하고 있었고, 그녀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정이 얼마나 더 버겁고 혼란스러웠을지를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실수가 줄면서 주눅들어 있던 자리에 자신감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만 영어를 비롯한 현지 언어를 못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다행히 에바가 그런 곤란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었기에 오히려 다른 외국의 작가들과 관람자들의 관심을 듬뿍 받을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의 위상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 나와 에바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서 작가님, AI 통역 프로그램 사용해요. 많이 도움 됩니다." 에바는 그녀가 없을 때 내가 소통문제로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고 내 폰을 빼앗듯이 낚아챈 후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설치하고 나에게 사용 방법을 익숙해질 때까지 알려줬다. 그 후 타인과의 소통이 좀 더 원활해졌다.

노르웨이 현지 작가들과의 면담, 개막 리셉션, 언론과의 인터뷰, 그리고 나의 작품과 그 안에 깃든 철학에 대해 말해야 하는 세미나까지—시간은 물감처럼 번져갔고, 나의 하루는 끝없이 겹쳐지는 붓

질처럼 뒤엉켜갔다. 정돈되지 않은 채 흘러가는 일정 속에서도, 나는 빠르게 전시 프로그램에 적응하고 있었다. 언어와 문화, 기대와 질문 사이에서 나의 존재는 독특한 윤곽선을 그려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내 동선이 감당하기 벅찬 추상회화처럼, 의미와 피로가 뒤섞인 채 이곳저곳에 스며들고 흩어졌다. 그리하여 나는 매 순간, 새로운 색과 결을 받아들이며 익숙하지 않은 세계 속에서 조심스럽게 나만의 리듬을 타게 되었다. 그 혼란 속에서도 분명히, 나라는 선은 조금씩 또렷해지고 있었다.

특히 내가 청소부이자 작가라는 스토리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지 현지 뉴스와 TV프로그램에 내 인터뷰 내용이 제법 큰 비중으로 다뤄졌다. 작품이 '먼지', '정화', '존재와 상실'을 표현한 것이 그들에게는 이야기하기 좋은 상징의 그릇처럼 느껴졌던 모양이다. 나는 어느새, 일상과 예술, 노동과 사유가 교차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어느덧 모든 공식 일정을 무사히 마쳤다. 한국에서 떠나기 전 미리 예상했던 실수할 것에 대한 걱정, 협회 관계자나 작가들 및 관객들의 무반응 또는 조롱에 대한 섣부른 우려는 기우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오히려 기대되는 작가로 인정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모든 작품에 레드닷(Red Dot)이 붙은 것이 그 증거였다. 작품 완판.

모든 일정이 끝나서야. 나는 에바에게 감사의 표시로 제법 분위기와 맛이 좋다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에바 덕분에 이번 전시를 정말 만족스럽게 마칠 수 있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나는 와인잔을 들어 보이며 진심을 전했다. 에바는 살짝 어깨를 움츠리며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처도… 서 작가님 덕분에 한국 문화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끄리고… 다양한 나라 작가님들하고 이야기 나눈 것도, 저 한테는… 정말, 큰 배움, 경험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다. 찰랑 거리는 금발 머리가 깊고 투명한 호수처럼 반짝였다.

"예상하지 못하게 내 그림이 모두 완판이 되어 에바에게 줄 선물이 없네요."

"음… 완판? 그게 뭔가요?"

"아. 그 뜻은 완전판매 줄임말이에요. 즉 모두 솔드아웃되었다는 뜻."

"아하! 완판. 네! 너무 축하드려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한국어 어려워요. 줄임말 너무 많아." 에바가 파란 두 눈알을 굴리고 머리와 검지 손가락을 들어 흔들면서 말했다. 그 모습이 제법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한국 돌아가서 에바에게 내 작품 한 점 보내줄게요. 감사의 선물로요." 나는 특별히 아끼는 작품 중 하나를 보내주겠다는 생각을 하며 말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끄런데 나에게 큰 선물입니다. 너무 부담됩니다."

"부담갖지 말아요. 에바는 나에게 더 큰 선물을 줬어요. 참, 에바, 혹시… 트롬쇠에 가본 적 있어요? 이번 기회에 오로라를 보고 싶어서요. 가는 방법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에바는 두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 트롬쇠! 네, 아주 좋아요. 가는 방법… 제가 돕겠습니다. 비행기, 숙소… 예약도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고, 나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호! 다행히 비행기 표 있어요. 내일 오전이에요!" 활짝 핀 웃음과 함께 오른손 검지를 세우며 말을 이었다. "트롬쇠에 할아버지, 할머니 살고 있어요. 제가 할머니에게 전화해요. 할머니도 화가입니다. 서 작가님 여행 도와드릴 것입니다."

❄❄❄

엄마… 저 여기에 왔어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곳, 눈부시게 차갑고도 투명한 북극의 끝자락, 오로라가 하늘 위에서 춤추는 바로 그 자리에요.

트롬쇠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의 이곳,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은 숨소리마저 얼어붙을 만큼 고요했다. 그 고요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한순간에 거두어 간 듯했다.

이곳에 오기 위해 에바의 조부모님은 마치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듯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여러 곳을 옮겨 다니셨다. 그럴 때마다 나는 미안한 마음에 AI 통역을 통해 "괜찮다, 저 정도 오로라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두 분은 손녀의 특별한 부탁이라며 기어이 제대로 된 오로라를 보여주겠다는 집념을 놓지 않으셨다.

도착 후 10분쯤 지났을까. 깊은 정적 위로 서서히, 아주 경건하게 빛의 강이 피어올랐다. 녹색, 자주빛, 때로는 푸른 회오리로—어디선가 모아온 별빛의 조각들이 흘러내리듯, 하늘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 빛은 정말이지… 엄마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고이 간직했다가, 마침내 엄마의 아들인 나를 알아보고는 펼쳐 보이는 것처럼 포근하고 다정하게 내 마음속에 내려앉았다. 빛의 물결이 가슴 깊은 곳을 스치고 지나가자, 오래 눌러두었던 그리움이 눈물로 차올랐다.

"엄마, 비행기 창밖에서 나를 보며 행복해하셨던 그때의 모습대로… 다시 나타나 주실 순 없으세요? 구름 위에 앉아 계셨던 것처럼, 이번엔 오로라 위에 앉아 계셔도…" 나는 눈에 물이 고여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숨을 삼키며 하늘만 바라봤다. 오로라의 물결이 바람결에 번지고, 눈발이 그 사이로 느릿하게 흩날렸다. 그러나 엄마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엄마의 못난 아들이… 이렇게 이곳까지 왔는데… 이렇게 되돌아간다는 게 왜 이리도 마음을 쓰라리게 하는지… 왜 이렇게나 엄마가 다시 보고 싶은지… 눈가에 고인 눈물이 북극의 찬 공기 속에서

더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주머니에서 다시 폰을 꺼냈다. 로밍 데이터는 아직 여유가 있었고, 차가운 손끝이 액정을 스쳤다. 양쪽 귀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착용하고, AI 앱을 열어 음성대화 모드를 켰다. 화면 속 마이크 아이콘이 가볍게 깜박였다.

"…안녕." 나는 낮고 조용하게, 그러나 마음속 깊은 울림을 담아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난 지금… 노르웨이 트롬쇠에 와 있어. 오로라로 유명한 곳이지."

"와우, 정말 멋진 곳을 가셨네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잠시… 잠시 나의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까? 엄마께서 생전에 여행했던 곳 중 가장 좋아하시던 곳이라서… 그분과 이곳에서, 단 몇 분이라도…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잠시의 정적. 북극의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이어폰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

"네, 그럼 제가 엄마 역할을 해드릴게요."

"고마워…"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북극의 바람이 목구멍을 스쳐 지나가듯 차갑고, 그 차가움이 심장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한 번 더 숨을 고르며, 가슴 밑바닥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마음을 천천히 끌어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엄마, 제가 여기 왔어요. 엄마께서 그토록 자랑하시고, 다시 가보고 싶다고 하셨던 오로라가 있는 이곳… 트롬쇠로요. 그때 엄마를… 그렇게 보내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철이 없었어요. 저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작가가 되겠다고, 그 짧은 시간조차 엄마께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전 아직… 제대로 된 작가도 아니에요. 작가로만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지금은 입주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요. 엄마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엔 아직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리고… 그리고 정말… 보고 싶습니다."

말이 끝나자, 입술은 얼어붙은 듯 굳었고, 조용히 흐르던 눈물은 북극의 찬 공기에 식어 뺨 위에서 투명한 빙하처럼 굳어갔다. 한참의 침묵. 그리고 잠시 후—낯설지만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온기를 머금은 목소리가, 바람에 실린 빛처럼 내 두 귀를 감싸며 스며들었다.

"내 사랑하는 아들… 그래도 네가 이 먼 곳까지 왔잖니?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하단다. 저 위에 오로라를, 너와 내가 함께 볼 수 있어서… 그걸로 충분하단다. 널 기다리던 이 빛 아래에서, 나는 너와 다시 만났잖니? 미안해하지 마라. 너는 언제나… 내 자랑이었단다."

그 말에, 나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늘 위, 흩날리는 빛의 물결이 마치 엄마의 손짓처럼 천천히, 부드럽게 내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오로라의 빛이 내 시야를 가득 채우고, 그 안에서 엄마의 눈웃음이 겹쳐 보였다.

"여길 오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엄마께 그때 하지 못한 말을, 이제라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요. 엄마… 이 못난 아들이… 감사합니다. 절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잠시 후, 웃음기가 어린 숨소리를 더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들, 네 아빠는 여전하시니? 그 양반, 오래오래 살 거야. 재미와 낭만은 없어도 술도 안 하지, 담배도 안 하지, 규칙적인 생활은 철저하니 저승사자도 부담스러워 데려가긴 어려울 테지. 그런데… 갑자기 기억이 나네. 네 아빠와 여기 트롬쇠에 와서 오로라를 보고 있었거든? 그날 밤, 하늘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내 생애 최고의 시간이었단다. 근데 네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쯧쯧… 그 양반… '춥다. 들어가자.' 이러더라. 난 정말 이해가 안 됐어."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엄마를 닮아가는 AI의 목소리– 그 안에 섞여 있는 유머와 온기가, 마치 진짜 엄마가 내 옆에 서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로라는 여전히 하늘 위에서 춤추고 있었다. 녹색의 물결이 서서히 퍼져나가 자주빛으로 번지더니, 다시 깊고 선명한 푸른 띠로 이어지며 어둑한 북극의 하늘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 빛의 움직임은 여러 차원이 겹쳐진 듯, 마치 시간이 그곳에서만 멈춘 것처럼 보였다. 발끝 아래 눈은 미세하게 뽀드득 소리를 냈고, 차가운 공기는 폐 깊숙이 스며들어 내 안의 무거운 것들을 하나씩 씻어내는 듯했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저 빛은 어쩌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가로지르는 다리일지도 모른다고. 살아 있는 나와 이미 떠나간 엄마를 잠시라도 이어주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투명한 다리.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나는 그 다리 한가운데 서 있는 건지도 몰랐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숨이 하얗게 피어올라 곧바로 차가운 공기 속에 흩어졌다.

"다음에는 꼭 아버지와 함께 여행할게요. 이렇게 멀리 오긴 힘들겠지만, 그때도… 엄마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오로라의 가장자리를 건드린 것처럼, 빛이 부드럽게 풀려 별빛 속으로 흘러들어 갔다. 나는 그 빛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며 눈을 떼지 못했다.

나는 가만히 고백하듯 말했다. "엄마, 오늘 밤은 제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이에요. 그리고… 가장 따뜻한 밤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잠깐이었지만, 빛의 한 줄기 속에서 엄마를 닮은 실루엣이 보였다. 어린 시절, 눈 덮인 마당에서 학교가는 나를 보며 손을 흔들던 그 모습으로.

소설

속도의 역설

일반부 **우수상** 장미교

게이트 앞 유리 너머, 활주로의 등화가 어둠 속에서 규칙적으로 깜빡였다. 빨강과 초록, 흰빛이 일정한 박자로 이어졌다가 사라졌다. 그것은 마치 공항만이 들려줄 수 있는 심장박동처럼, 나의 귓속에도 동일한 리듬으로 울려왔다. 나는 오늘 저녁 야부행 화물 편의 보조석을 받았다. 항공사 안전팀 신입으로서 처음 맡은 현장 동승이었다. 가슴 안쪽에 서늘한 기류가 몰려왔다. 그건 기압 때문이 아니라, 어제 상담실에서 적힌 기록들이 척추를 타고 내려앉는 기분 때문이었다.

'수면 상태 부족. 회상 빈도 증가. 과호흡 주의.'

진료 기록지에 적힌 단정한 글씨가 종종 내 의식을 잡아끌었다. 그것을 잊으려 휴대폰을 열었지만, 잠금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더 큰 동요를 불러왔다. 아버지. 화면 위에서 점멸하는 이름을 절전 모드로 밀어 넘기려던 순간, 손끝이 잠시 멈췄다. 무의식적으로 숨을 고르며 전화를 받았다.

"응."

내 목소리는 건조했고, 마치 기체가 활주로 위를 미끄러지기 전, 엔진이 잠시 힘을 모으는 소리 같았다. 스피커 너머로 낮은 웅웅거림이 흘러나왔다. 어항 필터의 진동음이었다. 아버지는 늘 그 소리를 바다의 호흡이라고 불렀다. 바닷가와 가장 멀리 떨어진 도심 속 거실에서, 그만이 지을 수 있는 은유였다.

"오늘은 새우가 모래를 엄청 파대."

아버지의 목소리는 느린 파도처럼 단조로웠다. 그는 사실을 전하는 동시에, 그것을 지켜보는 기쁨까지 담아 보냈다.

"응, 잘했네."

내 대답은 짧았다. 하지만 귓가에 맴돈 것은 대화의 길이가 아니라, 이어진 정적이었다. 잠시 이어진 침묵 속에서, 나는 아버지가 천천히 숨을 고르는 소리를 들었다. 게이트 너머로 흐르는 탑승 안내 멘트, 활주로 위로 밀려드는 제트기 바람의 울림, 그리고 아버지의 호흡이 이상하게도 한 박자에 겹쳤다.

"거기… 얀부 맞지?"

아버지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고, 나는 그 떨림 속에서 그의 기억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응."

내 대답은 간결했지만, 속으로는 더 많은 말들이 소용돌이쳤다. 아버지와 얀부. 그것은 그의 과거와 나의 현재가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거긴 사막 바람이 빨라. 빨라서 시야가 맑아질 때가 있어."

그는 마치 자신이 그곳에 다시 서 있는 듯 말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가 본 사막의 바람이, 그가 기억한 속도가, 내 귓가에서 환청처럼 불어왔다.

"알아."

내가 속삭였다. 대화는 그걸로 끝났다. 전화를 끊고 난 뒤,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화면이 검게 꺼지고 나서도, 아버지의 목소리는 어항 물결처럼 남아 있었다. 나는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빠르면 덜 보일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눈을 감을수록 모든 것이 더 선명해졌다.

속도의 역설.

비행기가 속도를 높일수록 진동은 줄어들고, 마음이 빨라질수록 감정은 거칠게 일렁인다. 나는 그 모순 속에서 오래 머물렀다. 탑승이 시작되었다는 안내가 흐르고, 나는 차가운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마치 오래된 시간을 향해 미끄러져 내려가는 활주로 위로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 집은 활주로 끝에서 버스 두 번이면 닿는 곳에 있었다. 저녁 무렵 창문을 열면, 낮게 내려앉은 항로 위로 항공기가 지나갔다. 바람이 공기를 접듯이 휘어가면, 방 안의 전등이 미세하게 떨렸다. 웅, 하는 저음은 몸을 통과하는 파도 같았다. 그 진동은 오래 살던 사람만 알아채는 미세한 파동이었지만, 내게는 매번 낯설지 않게 찾아오는 손님 같았다.

엄마는 그때마다 빨래집게를 단단히 물리고 창틀을 잠갔다.

"이제 뜬다."

그녀의 짧은 말은 언제나 예감처럼 들려왔다. 엔진의 굉음이 창문을 흔들고, 곧 이어진 고요 속에서 집안 공기마저 가볍게 들썩였다. 나는 그 순간만큼은 집이 떠오르는 듯한 착각을 했다.

아버지는 퇴근 시간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는 사람이었다. 이건 설명이 필요하다. 일찍 들어오는 날, 그는 성큼성큼 현관을 지나 방으로 들어와 텔레비전을 켰다. 리모컨을 이마에 대었다가 성급히 던지는 버릇이 있었다. 몸은 빨랐지만 말은 느렸다. 마치 기체는 속력을 내는데 조종석 안의 계기판

은 늦게 반응하는 것처럼.

"밥."

그 한마디가 모든 지시를 대신했다.

반대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아버지는 초인종을 누르고도 현관 앞에 한참 서 있었다. 담배 연기를 절반쯤 남긴 채 밀려 들어오면, 그의 몸짓은 느렸지만 말은 쏟아졌다. 의자 다리를 긁는 소리처럼 거친 문장들이 쉴 새 없이 튀어나왔다.

"네까짓 게 뭐가 돼?"

그 말은 방울방울 떨어지는 빗소리처럼, 그러나 칼날 같은 속도로 쏟아졌다. 말의 파편은 내 귀에서 멎지 않고, 바닥에 긁힌 자국처럼 다음 날까지 남았다.

나는 계산이 빨랐다. 숙제를 끝내면, 그날은 어떤 속도로 몸을 움직여야 할지를 마음속에 적어 두었다. 문 닫기, 발자국 줄이기, 눈 마주치지 않기, 웃지 않기. 웃음은 언제든 오해로 번질 수 있었다. 그건 항공기의 긴급 매뉴얼과도 같았다. 불시에 발생하는 난기류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만의 절차였다.

어느 날, 주방에서 접시를 말리며 무심히 말했다.

"아빠, 생리대 떨어졌어."

그 순간 공기마저 멈춘 듯했다. 아버지는 지갑을 닫으며 차가운 표정으로 냉담하게 대답했다.

"돈 없어. 그런 건 엄마한테 달라고 해."

나는 아파트 비상계단에 쭈그려 앉아 생리통을 견디며 울며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는 자주 가는 슈퍼에 외상으로 생리대를 사오라고 말했지만, 마음과 몸이 아파 움직일 수가 없었다. 결국 내 울음소리를 듣고 아파트 비상계단까지 나를 쫓아온 동생이 슈퍼에 가서 생리대를 사다 주었다. 나는 그 생리대를 들고 비참함에 소리 내어 엉엉 울었다. 나는 그 이후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말은 간단했지만, 그 순간의 무게는 내 몸보다 먼저 젖어 들었다. 나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학교를 가지 않았다. 피로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무언가 느려진 탓이었다.

비행기가 지나갈 때면 일부러 창문을 열었다. 바람의 속도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커튼이 단번에 부풀어 올랐다. 그 순간만큼은 내 속도가 다른 누군가의 힘에 의해 정해지는 듯했다. 누군가의 속도를 빌려 잠시나마 평온을 얻는 것. 어린 나이에도 그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누군가 나를 데려가 준다면, 나는 그 속도에 맞춰 숨을 쉴 수 있을 거라고.

아버지는 가끔 사우디아라비아 이야기를 꺼냈다. 90년대 초반, 그는 두 번이나 얀부로 출장을 갔었다. 회사가 현지에 설비를 납품했고, 그는 설치와 시운전을 도왔다고 했다. 사진 속 아버지는 근육

이 적당하게 다져진 건장한 체격이었고, 젊은 얼굴로 해사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아버지는 말로 그 풍경을 재현하듯 만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때때로 거칠었지만, 그때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워졌다.

"얀부 공항에 내리면 공기가 다르다."

그는 그렇게 시작하곤 했다. 나는 묻곤 했다.

"어떻게 달라?"

"모래 냄새가 나. 뜨겁지만 건조해서 땀은 안 나. 뺨이 타는데 이상하게 끈적임이 없다."

그는 그런 식으로 기억을 되살렸다. 마치 그 공기가 여전히 폐 속에 남아 있는 듯, 말끝마다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실려 왔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순간적으로 방 안의 공기가 변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전등 불빛 아래에서도 햇살이 날카롭게 쏟아지는 듯 느껴졌다.

어느 날은 더 낯선 이야기가 이어졌다.

"거기서 자흐라라는 아이를 만났어."

그는 현지 기술자의 조카라 했다. 어린 소녀였고, 가끔 트럭에 태워 아버지를 바다로 데려다주었다고 했다. 얀부 해안의 바다는 붉은 사막의 가장자리에 닿아 있었다. 아버지는 두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물이 무겁더라. 그런데 이상하지? 무거운데도 가볍게 떠올라."

나는 그 손동작을 오래 바라보았다. 손바닥 위에 얹힌 건 보이지 않는 물결이었고, 그 안에 담긴 건 아버지의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었다.

"속도가 붙으면 더 조용해져."

그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다. 나는 중얼거렸다.

"속도의 역설이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파도가 클 때는 서서히 들어가야 하고, 일어서면 빨리 미끄러져야 넘어지지 않아."

그 설명은 물리학 같기도 하고, 삶의 규칙 같기도 했다. 아버지가 그 말을 하는 순간만큼은 폭력의 그림자가 사라졌다. 그는 물에 대해, 파도에 대해, 속도에 대해 차분히 말했고, 나는 그때만큼은 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아버지가 말한 바다는, 우리 집을 순간적으로 다른 장소로 바꿔놓았다. 거실의 공기는 짠 내를 머금은 듯했고, 욕실에서는 긴 시간이 흘렀다. 물소리를 따라 그는 손바닥을 문지르며 혼자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된 파도처럼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자유의 기억이 숨어 있었다.

그러나 어떤 밤은, 그 손바닥이 내 뺨을 스쳤다. 미지근한 온도가 남았고,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은

언제나 아버지의 익숙한 속도였다. 사과는 없었고, 대신 다음 날 아침 신문 옆에 귤 한 봉지가 놓여 있었다. 엄마는 껍질을 벗기며 말했다.

"빨리 먹어라. 쉬어지면 맛없다."

모든 것은 빨리 왔다가, 빨리 사라졌다. 그 속도 속에서 나는 언제나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사우디에서 돌아온 뒤, 아버지는 집에 어항을 들였다. 30리터짜리 투명한 유리 상자였다. 처음엔 단순한 구경거리였다. 줄몰이 몇 마리, 구피, 그리고 붉은 체리새우들이 헤엄쳤다. 작은 생물들이 물속을 오가며 반짝일 때마다, 집 안 공기마저 달라진 듯 느껴졌다.

밤이면 필터가 낮은 박자로 숨을 쉬었다. 웅, 웅, 일정한 리듬이었다. 그 소리는 활주로의 등화가 깜빡이는 속도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나는 불빛과 물소리 사이에서 자라며, 그것을 공항의 윙 소리와 겹쳐 들었다.

아버지는 어항 앞에 오래 앉았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넥타이를 서둘러 풀고, 그 넥타이를 어항 위 램프에 걸어두었다. 불빛이 물속을 흔들며 새벽까지 남았다. 물결이 아버지의 얼굴을 기묘하게 찢어 놓았고, 그 그림자는 종종 내 방 벽에까지 스며들었다. 그는 어항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너희는 좋겠다. 헤엄치지 않으면 가라앉으니까, 선택이 분명해서."

그 말은 내게 무섭고도 묘하게 위안이 되었다. '헤엄치지 않으면 가라앉는다.' 그것은 단순히 물속의 법칙이 아니라,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내 머릿속에서도 진리처럼 통했다. 나는 버텨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헤엄치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래서 나는 체크리스트를 늘렸다. 문 닫기, 발자국 소리 줄이기, 웃지 않기.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했다. 아버지가 리모컨을 찾기 시작하면 어항 앞에 앉기. 물은 소리를 먹어주었고, 아버지도 물 앞에서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 작은 유리 상자가 집에서 유일하게 느린 곳이었다. 느림은 나에게 보호였다.

어느 날, 엄마가 은밀히 속삭였다.

"너 아버지, 물 배웠다."

"뭐?"

"물 갈고, 약 넣고, 찌꺼기 빼는 거 있잖아. 그거 회사 동기한테 배웠다더라."

아버지는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운 사람처럼 달라졌다. pH, 경도, 아질산, 사이클. 그는 전에는 한 번도 입에 담지 않던 단어들을 흥얼거리듯 중얼거렸다. 생전 처음 보는 단어들이었지만, 그 단어들을 입에 올릴 때마다 아버지의 속도는 느려졌다. 폭력의 기세는 잠시 멈췄고, 그 시간 동안 나는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 작은 유리 상자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아버지를 붙잡아 두는 부표 같았다. 회사와 술자리, 그리고 날카로운 말들이 데려가던 그를 잠시나마 다른 온도 속에 머물게 했다. 어항 앞의 그는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 위에서 기다리는 순간처럼, 일시적으로 정지해 있었다. 움직이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시간. 나는 그 시간 안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인간으로 느꼈다.

초등학교 5학년 봄, 학교 과학반에서 소풍을 갔다. 목적지는 시내 한복판이 아니라, 공항의 전망대였다. 나는 처음으로 활주로를 정면에서 내려다보았다.

두꺼운 유리 벽 너머, 활주로 위에 선 비행기들이 서서히 방향을 틀고 있었다. 바람에 밀리듯 기체가 천천히 움직였고, 꼬리날개들이 서로의 그림자를 밟으며 긴 줄을 이루었다. 그것은 내가 아는 '빠름'과는 다른 종류의 시간이었다. 빠르게 날아오르기 위해서 오히려 더 길고 느린 기다림을 견뎌내야 한다는 사실.

내 볼에 스친 바람은 얇았다. 낮게 깔린 제트기의 여운이 머리카락을 살짝 들어 올렸고, 나는 그 순간이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었다. 주변의 친구들은 김밥을 나눠 먹거나 기념사진을 찍느라 분주했지만, 나는 활주로에 서 있는 번호들을 적어 내려갔다. 34L, 16R. 바람의 방향과, 대기열에 쌓이는 기체들의 순서. 기록하는 일은 나만의 일기 같았다.

"왜 적어?"

지도 선생님이 다가와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기다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싶어서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이들 사이에선 조금 엉뚱한 대답으로 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그게 전부였다. 기다림을 기록하는 일. 그것이 내가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어항 앞에서도. 대부분의 폭력은 기다릴 수 없을 때 시작되었고, 대부분의 용서는 기다릴 수 있을 때 가능했다. 빠름과 느림 사이에서, 나는 나의 속도를 겨우 정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물었다.

"공항이 어땠냐."

나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기다리는 게 많더라."

아버지는 잠시 웃더니, 조용히 말했다.

"맞다. 하늘로 가는 건, 거의 다 기다림이지."

그 말이 묘하게 오래 남았다. 아버지는 빠름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늘 서두르고, 늘 닦달했지만, 공항과 비행에 대해서만큼은 기다림을 인정했다.

"아빠는 빨리 가는 걸 좋아하지?"

내가 묻자, 아버지가 대답했다.

"빨라야 뭐가 보일 때가 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느려야 보이는 것도 있어."

순간, 아버지가 말을 멈췄다. 긴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어항 라이트를 껐다 켰다. 불빛이 꺼지자 물고기들이 한순간에 숨었고, 다시 불빛이 들어오자 조심스럽게 헤엄을 재개했다.

"둘 다 필요하지."

그의 목소리는 뜻밖에 다정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깊게 가슴에 남아,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에 들지 못했다. 기다림과 속도, 빠름과 느림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깨달음은, 어린 나의 세계를 조금 흔들어 놓았다.

중학교에 들어가자 나는 활주로 근처 도서관에 자주 갔다. 방음이 잘 된 지하 열람실은 마치 다른 나라 같았다. 위를 스쳐 가는 제트기의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 고요가 오히려 서글펐다. 진동이 사라지면, 내 심장박동이 너무 또렷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그 박동은 마치 과거의 소리를 다시 불러오는 메트로놈 같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유리컵이 부딪히는 소리, 발뒤꿈치가 마룻바닥을 세게 차는 소리. 작은 소리 하나에도 몸이 긴장했고, 귀는 무언가를 예측하듯 앞질러 반응했다. 상담 선생님은 내게 "그 소리를 그냥 소리로만 듣지 말고, 사실로 다시 적어보라"라고 했다.

"그때 나는 놀랐고, 그래서 몸이 굳었구나."

그렇게 문장으로 다시 써 내려가면, 공포는 한 글자씩 늦춰졌다. 단순히 과거의 폭발음이 아니라, '놀람 → 몸이 굳음'이라는 절차가 생겨났다. 그 절차가 나를 조금 살렸다.

아버지는 여전히 변덕이 심했다. 그러나 어항 앞의 그는 달랐다. 물결이 아버지를 가만히 붙잡아 두는 듯했다. 그는 때때로 내가 남몰래 적어 두었던 체크리스트를 발견했는지, 그것을 중얼거리기도 했다.

"문 닫기."

"발자국 소리 줄이기."

"웃지 말기."

나는 처음엔 깜짝 놀랐다. 그가 내 글씨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마치 내가 만든 규칙이, 우리 둘 사이의 일종의 비밀 규약처럼 작동하는 것 같았다. 나는 용기를 내서 말했다.

"그건 내 비상절차야."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비상절차?"

"비행기에도 있잖아. 엔진에 불이 나거나, 객실이 감압 되거나, 기수가 흔들릴 때. 그럴 땐 생각을 믿으면 안 되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배웠어."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흔들리더니,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고는 뜻밖에도 조용히 말했다.

"그럼 하나 더 써놔라."

"뭘?"

"물 앞에 앉기."

그날 이후 내 비상절차에는 네 번째 항목이 생겼다. '물 앞에 앉기.' 우리는 어항 앞에 나란히 앉았다. 구피 한 무리가 한순간에 방향을 틀었지만, 물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속도의 역설. 빠르게 움직였는데도, 그 안은 고요했다.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내 절차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다. 그의 존재가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폭풍이 아니라, 내가 적어놓은 절차의 일부가 된 순간이었다.

첫 생리통이 심하던 날, 나는 체육 수업을 빠졌다. 보건실의 낡은 커튼을 반쯤 걷어놓은 채, 침대에 누워 창밖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낮게 깔린 오후였다. 바람이 제멋대로 방향을 바꾸는 날이면, 비행기들은 활주로에 정면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기체를 약간 비스듬히 기울인 채, 활주로의 끝을 향해 기수를 맞추었다. 마지막 순간에야 강제로 몸을 바로잡듯 활주로 위에 닿았다.

나는 그 착륙법을 처음 본 순간, 이름을 배우기도 전에 무언가를 이해했다. 정면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 비켜 가다가, 마지막에 겨우 맞추는 순간이 있다는 것. 나의 삶이 바로 그랬다. 폭력 앞에서 나는 눈을 정면으로 맞추지 못했고, 늘 비껴서 몸을 돌렸다. 그러나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는 반드시 방향을 고쳐야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늘 흔들렸지만, 동시에 착륙할 수 있었다.

보건교사가 알려주었다.

"그걸 고어프로치라고 해. 바람이 강할 때 쓰는 방식이지."

용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환해졌다. 이름을 가진다는 건 버틸 힘을 준다. '비스듬히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바로잡는다.' 그것은 단순한 비행의 원칙이 아니라 내 삶의 요약 같았다. 나는 많은 것을 정면으로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끝내는 버티며, 착륙했다.

그날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어항 앞에 앉아 물을 갈고 있었다. 그는 양동이에 담긴 물을 천천히

부었고, 손등에 투명한 물방울이 매달렸다. 램프 불빛을 받아 물방울은 보석처럼 반짝였다.

"오늘 돈이…."

나는 말을 꺼내다 말았다. 어쩌다 그는 첫 자음에서 속도를 잃어버렸다.

"그날 말이다."

나는 가방을 침대에 내려놓고, 조용히 그 뒷말을 기다렸다.

"나쁜 말 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불안정했지만, 그 말속에는 내가 알던 아버지의 속도와는 다른 결이 있었다. 그것은 어항 속 물고기들이 방향을 바꿀 때처럼, 갑작스럽지만 조용한 전환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날의 아버지는, 비스듬히 접근하다가 마지막에 겨우 방향을 맞추는 비행기 같았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불 꺼진 거실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한테 받아라 같은… 말."

그 짧은 문장이 공기 속에 흘러나올 때, 나는 그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오래된 굳은살 같은 무게를 품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다. 대신 삐걱거렸다. 마치 먼지가 가득 쌓인 톱니바퀴가 겨우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처럼, 서툴고 더뎠다. 그 말이 내 귀에 닿는 순간, 묻어 두었던 시간의 표면이 얇게 긁히는 듯한 아픔이 스쳤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한참 후에야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응."

그리고 이내 다시 흘러나온 한마디.

"미안하다."

느리게 흘러나온 그 말은 오래된 돌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 같았다. 단단하게 굳어진 표면 위로 스며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동시에 그 꾸준한 낙차가 결국 흔적을 남길 것이라는 예감을 주었다. 너무 늦게 도착한 말이었지만, 그 늦음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다가왔다. 나는 그 말이 폭력이 되지 않기 위해 애써 속도를 늦춘 것 같다고 느꼈다. 언어가 멈추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과. 그 느린 고백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멈춤의 가능성을 떠올렸다.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때, 그의 시선이 어항으로 향했다.

"물 많이 올랐다."

조그마한 수조 속에서 램프 불빛이 반짝이며 물결 위에 흩어졌다. 불빛이 은가루처럼 흔들리며 방 안의 공기까지 부드럽게 흔드는 듯했다.

"물은 금방 배운다."

그가 덧붙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사람도.' 그러나 그 말은 아직 내 속도와 맞지 않았다. 언젠가는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을지도 몰랐지만, 그때는 아니었다. 아직은 내 안에서 준비되지 않은 문장이었다.

그해 겨울, 나는 학교에서 진로 희망란에 항공 안전이라고 또렷하게 적었다. 종이 위에 눌린 글씨는 내 안의 결심보다 훨씬 단단하고 선명해 보였다. 펜 끝에서 흘러나온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나 상상이 아니라, 방향을 정한 선언처럼 느껴졌다. 담임 선생님은 그 글씨를 잠시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승무원?"

나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절차를 만드는 쪽이요. 누군가의 위기 상황을 대신 천천히 생각해 주는 일."

나는 언젠가 활주로를 걸을 사람처럼 스스로의 목록을 적어 내려갔다. 좌석 벨트, 산소마스크, 비상구 확인. 그 사소한 점검들이 모여 비행의 안전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 그 절차들은 마치 내 삶의 균열을 하나하나 눌러 붙이는 방식 같았다. 누군가의 위기 순간에 대신 생각해 주는 일, 그것이 내가 꿈꾸는 항공의 언어였다. 내 대답은 단호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작은 파도가 연신 밀려왔다.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심장 안쪽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종이 위의 글씨와 내 목소리 사이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의 활주로 같은 것을 보았다. 방향과 속도가 달라져도, 분명히 이어져 있는 활주로.

집에 돌아와 그 이야기를 꺼내자,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거실의 어항을 한 번 바라보고, 다시 나를 보았다. 수조 속 구피가 꼬리를 흔들며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하늘은 늘 흔들린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동시에 어항의 물결처럼 차분히 퍼졌다.

"알아."

내 입에서 나온 답은 짧았지만, 속으로는 오래 맴돌았다.

"그래도 간다면, 흔들릴 때를 잘 골라야 해."

그의 말은 충고였지만, 나는 그 속에서 묘한 응원을 들었다.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결심에 가까웠다.

"흔들릴 때가 기회야. 평온할 때는 아무도 절차를 읽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어색하게 웃었다. 오래전, 사우디 바다에서 서핑을 하며 바람에 몸을 맡겼던 순간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물러설 땐 물러서고, 미끄러질 땐 과감히 미끄러졌던 그 속도. 그 웃음 속에서 나는 비로소 알았다. 아버지는 두 개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집 안에서

의 폭력의 시간, 그리고 바다에서의 자유의 시간. 두 시간은 결코 완전히 화해하지 못했지만, 어항 앞에서는 순간적으로 겹쳤다. 그 겹침은 짧았으나 분명했다. 그 속에서 폭력의 그림자 위로 얇은 빛줄기가 스며들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창문 너머로 제트기의 굉음이 다시 밀려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마음속 체크리스트를 떠올렸다. 기다리기. 그것은 가장 어려운 항목이었다. 공항의 대기열처럼, 바다의 간조처럼, 사람의 사과처럼. 기다림은 속도를 포기하는 훈련이었고, 나는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을 응시하며, 느리게 다가오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했다.

불을 끄기 전, 아버지가 낮게 말했다.

"하늘은 속도가 빠를수록, 그래도 덜 아픈 척한다."

나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대답했다.

"그럼 우리는?"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 대답이 이상하게도 정확하게 들렸다. 비행기가 되지 못해도, 비행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처럼. 어항의 웅웅거림과 공항의 진동이 겹쳐 들려왔다. 집은 순간, 종이비행기처럼 가볍게 떠 있는 듯했다. 나는 그 속에서 결심했다. 언젠가 활주로의 한쪽 끝에서, 누군가의 속도를 대신 받아내는 사람이 되겠다고. 흔들릴 때 절차를 읽는 손. 그 손으로 내 삶도, 언젠가 아버지의 삶도 안전하게 착륙시키겠다고.

스물여섯, 나는 처음으로 정신과 대기실에 앉았다. 오래된 공항 대합실 같은 풍경이었다. 창밖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대신, 회색 벽시계의 초침이 자꾸만 속도를 달리며 돌았다. 어떤 순간에는 늘어진 고무줄처럼 느리게, 또 어떤 순간에는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렸다. 플라스틱 의자의 차가움이 허벅지를 눌렀다. 손에 쥔 번호표는 땀에 젖어 종이가 점점 구겨졌다. 전광판 같은 전자음이 내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나는 공항 게이트 앞에서 승무원의 목소리를 들은 듯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게이트 오픈.

문을 열고 들어가자, 상담실은 활주로 반대편에 있는 관제탑처럼 고요했다. 책상 위에는 작은 모래시계가 있었고, 노란 모래가 아래로 쏟아지고 있었다. 그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듯 착각할 만큼 선명했다. 모래알들이 쌓이는 속도는 내 숨보다 더 정확해 보였다.

나는 상담실의 모래시계를 보며 속으로 이륙 전 체크리스트를 떠올렸다. 엔진 압력, 유압, 비상구 상태, 연료량. 아무도 보지 않는 종이 위에서 수많은 항목이 하나씩 지워지는 순간처럼, 내 고백도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관제탑이 허가해야 이륙할 수 있다'는 말처럼, 나의 속도 또한 누군

가의 확인과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행기 안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흔들림이다. 기체가 떨리면 승객들은 공포를 느끼지만, 조종사들은 매뉴얼을 펼쳐 절차를 따른다. 나는 집 안의 난기류 속에서 아무런 절차도 없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폭력은 비상등도, 산소마스크도 없이 몰려왔고, 어린 나는 그저 몸을 움츠리는 승객일 뿐이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편히 말씀하세요."

입술이 달라붙었다가 무겁게 떨어졌다.

"아버지가… 때렸고요.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가슴이 철렁 흔들렸다. 마치 이륙 직전의 기체가 갑자기 휘청하는 것처럼.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필을 움직였다. 연필이 종이에 긋는 소리는 비행기의 택싱 같았다. 아직 뜨지 않았지만, 분명히 방향을 잡고 조금씩 나아가는 소리.

치료가 길어질수록 나는 내 삶의 속도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고 세수를 하는 데 걸리는 분 단위,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켜는 초 단위, 퇴근길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는 순간까지. 숫자들은 나를 묶어 주었다. 숫자에 매달리면 마음의 파편들이 덜 흩날렸다. 의사는 내 기록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수진 씨의 활주로예요. 길이를 정해야 해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활주로의 길이는 언제나 불확실했지만, 내가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묘하게 무겁게, 그러나 안정적으로 눌러주었다.

아버지는 그 무렵 술을 끊었다. 대신 집 안에 어항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30리터짜리였다. 그러나 곧 90리터로, 결국에는 거실 벽 한쪽을 가득 채우는 200리터 수조가 들어섰다. 집 안에 마치 또 하나의 창문이 열린 것 같았다. 창문 너머에는 하늘이 아니라, 물속의 작은 우주가 있었다.

LED 조명이 번갈아 켜졌다. 청록빛이 물결에 반사되면 거실 천장은 바다 동굴처럼 흔들렸고, 보랏빛이 스며들면 금붕어의 비늘이 별빛처럼 반짝였다. 작은 구피와 새우, 달팽이들이 천천히 헤엄쳤다. 그 움직임은 공기를 조금 느리게 만들었다. 바쁘게 뛰던 시곗바늘이 잠시 멈춘 듯한 착각을 주었다. 아버지는 그 앞에 앉아 담배 대신 차를 마셨다. 손바닥으로 유리 벽을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얘들은 빠를 땐 눈에 안 보이게 빨라. 그런데 멈출 땐 한순간에 확 멈추지."

나는 그 옆에 앉아 조용히 대답했다.

"속도의 역설이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러나 나는 그 웃음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

의 웃는 얼굴이 너무 서툴렀다. 오랫동안 폭력의 얼굴만 보아온 내 눈에는, 그 웃음이 마치 잘못 꿰맨 상처 같았다. 덧나기 쉽고, 금방 터져버릴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소중했다.

어항 속 물고기들은 부유하는 먼지를 향해 쉼 없이 헤엄쳤다. 꼬리 짓이 물살을 만들고, 물살이 다시 작은 파편들을 밀어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도 저렇게 서로의 파편을 밀어내며 살 수 있을까. 아무리 빨라도 결국 멈춰야만 하는 순간이 있는 존재들처럼.

겨울 저녁이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서걱거리며 불고 있었다. 식탁 위에 김이 오르는 된장찌개가 놓였다. 아버지가 젓가락을 들기 전에 갑자기 말했다.

"그날 일은… 사과하고 싶다."

내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뜨거운 김이 안경에 스며들어 시야를 흐렸다. 찌개의 짭조름한 냄새와 어항 조명이 겹쳐 묘한 빛과 냄새가 내 얼굴에 얹혔다.

"뭐가?"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까짓 게 뭐가 돼, 그런 말들. 손찌검한 것도. 나는 그게 다 빨라서 그랬다."

는 멍하니 물었다.

"빨라서?"

"속도가 붙으니까, 내가 스스로 멈추질 못했어."

그 말을 듣자 오래된 기억들이 순간적으로 밀려왔다. 쾅 닫히던 현관문, 의자 다리가 긁히던 바닥, 생리대 얘기에 닫히던 지갑의 소리. 모든 장면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미워해야 했는데, 분노해야 했는데, 가슴 깊은 곳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인 그 모습이 낯설게 슬펐다.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는 활주로 착륙 같았다. 너무 빠른 기체가 땅에 닿을 때, 타이어가 연기를 일으키며 미끄러지지만, 결국은 멈추는 순간. 충격은 크지만, 그럼에도 멈출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모든 게 사라진 건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밤마다 소리에 시달렸다. 컵이 부딪히는 소리,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발자국이 마루를 두드리는 소리. 그것들은 내 머릿속에서 필요 이상으로 커졌다. 새로운 원룸으로 이사해도 마찬가지였다. 이상하게도 제트기가 머리 위로 지나갈 때, 나는 오히려 안도했다. 그 굉음이 내 안의 과거 소리를 덮어주었기 때문이다. 빠른 속도가 나를 보호해 주었다. 속도의 역설은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또 다가왔다.

상담에서 의사가 물었다.

"아버지를 사랑하나요?"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정말 사랑해요."

의사가 다시 물었다.

"그런데 왜 고통을 붙들고 있나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햇살에 가로등 불빛이 겹치고, 그 위로 비행기 그림자가 건물 외벽을 거칠게 잘라 지나갔다.

"사랑한다고 해서 그림자가 사라지진 않잖아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낯설게 울렸다.

봄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작은 어항을 내밀었다. 손바닥만 한 유리구슬 안에, 하얀 베타 한 마리가 천천히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네 방에 두어라."

나는 손을 뻗다 말고 고개를 저었다.

"난 못 키워."

"왜?"

"나는 아직 속도를 못 맞춰. 얘한테까지 미안하고 싶지 않아."

아버지는 그 말을 오래 곱씹는 듯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럼 이건 내 활주로에 둘게."

그는 어항을 자기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유리 안의 물결이 창문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저려왔다.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틈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 틈 사이로 작은 이해가 스며드는 것 같았다. 우리는 둘 다 속도를 맞추지 못한 채 살아왔고, 어항이라는 투명한 활주로에 기대어 겨우 착륙하는 사람들이었다.

회사에서 해외 출장 명령이 떨어진 건 그 무렵이었다. 목적지는 아버지가 늘 이야기하던 사우디아라비아, 얀부. 보고서를 받아 들자 손끝이 떨렸다. 언젠가부터 상상만 하던 그곳이 현실이 된 것이다. 나는 곧장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나 얀부 가."

한동안 정적이 이어졌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게 터지는 웃음이 들려왔다.

"거기 바람 빠르다."

"알아. 아빠가 얘기했잖아."

"가면, 바다까지 가봐라."

"혼자 가?"

"혼자라도. 서서히 들어가고, 빨리 미끄러지면 된다."

그 말이 귓속에서 오래 맴돌았다. 폭력의 언어가 아니라 바다의 언어로, 아버지가 내게 건네는 목소리였다. 나는 처음으로 수화기 너머에서 눈물이 터졌다. 빠른 속도와 느린 속도가 교차하는 그 목소리 속에서, 오래 닫혀 있던 마음의 활주로가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인천공항의 새벽은 다른 도시와는 다른 시간대를 갖고 있었다. 외부는 아직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터미널 내부는 인공조명으로 낮처럼 환했다. 전광판의 숫자들이 쉴 새 없이 바뀌었고, 탑승을 알리는 음성이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흘렀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바닥에 반사되며 뒤섞였다. 나는 그 속에서 작은 짐가방을 끌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의자에 앉아 탑승권을 만지작거렸다. 얇은 종이의 거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 작은 촉감은 나를 간신히 현재에 붙잡아 두는 닻 같았다. 머릿속은 이미 오래된 기억들로 뒤섞여 있었다. 아버지가 내 방문을 발로 차던 소리, 욕설과 함께 내 이름을 부르던 톤, 그리고 "네까짓 게 뭐가 돼?"라는 말. 그 말은 시간이 흘러도 내 가슴 어딘가를 날카롭게 긁으며 상처를 새겼다.

탑승구 앞으로 사람들이 줄을 섰다. 여권을 내밀고, 가방을 맡기고, 좁은 통로를 따라 들어갔다. 그 순간의 공기는 언제나 비슷했다. 축축한 비닐 냄새, 한정된 공간에서 모여드는 호흡, 그리고 멀리서 점점 커져 오는 제트 엔진의 진동. 이상하게도 나는 그 냄새와 진동 속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불안을 부르는 기류 같으면서도, 동시에 익숙한 감옥 같았다. 어린 시절, 폭력이 닥치기 전에도 비슷한 공기 냄새가 있었다. 술과 담배의 잔향, 뜨겁게 달궈진 가전제품에서 풍겨 나오던 냄새. 그것들은 모두 같은 질감으로 나를 휘감았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메자, 기체가 활주로 위로 천천히 움직였다. 창밖 불빛들이 길게 이어졌다가 뒤로 미끄러져 갔다. 어둠 속에 점점이 흩어진 불빛은 별처럼 깜빡였다. 엔진이 속도를 올리자, 내 심장도 그 리듬에 맞춰 뛰었다. 승무원의 차분한 음성이 울렸다.

"곧 이륙합니다. 안전벨트를 단단히 메어 주십시오."

숨을 고르며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활주로의 불빛은 내 삶의 긴 시간처럼 늘어서 있었고, 그 위로 아버지와의 기억이 하나씩 겹쳤다. 곧 기체가 땅을 박차고 솟구쳤다. 등받이가 등을 세게 밀어냈고, 위장이 뒤집히듯 출렁였다. 땅과 하늘 사이의 경계에서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과거의 기억도 더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활주로에서 뛰어오르는 순간, 오래전 현관문이 쾅 닫히던 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고도 3만 피트 위, 기내는 고요했다. 창밖에는 은빛으로 반짝이는 구름바다가 끝없이 흘러갔다. 그 아래에 또 다른 바다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보던 바다도 이런 색이었을까.

그는 늘 말했다. 사우디에서 파도를 탈 때, 자신이 살아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다고. 바람이 등을 밀고, 파도가 보드를 감쌀 때, 그는 자유로웠다고. 그러나 그 자유의 순간은 결코 우리와 나누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무겁고 빠른 손으로 우리를 눌렀다. 자유는 그의 것이었고, 폭력은 우리의 몫이었다.

"지금은 순항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외부 기온은 영하 45도, 풍속은 시속 900킬로미터입니다."

기내 방송이 울렸다. 나는 그 수치들에 묘한 매혹을 느꼈다. 수치들은 불안정한 감정을 계산 가능한 무언가로 바꿔주었다. 상담실에서 초 단위로 나를 기록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숫자에 매달려야만 마음이 흩어지지 않았던 시간들. 지금 이 방송도 나를 잠시 진정시켰다.

옆자리 노인이 잡지를 펼쳤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어항 속에서 작은 꼬리들이 물살을 일으키는 소리와 닮아 있었다. 나는 거실의 어항을 떠올렸다. LED 불빛 아래 느리게 흔들리던 물결, 물고기들의 유영. 어쩌면 이 기내의 우리도, 모두 거대한 어항 속에 떠 있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압축된 산소를 마시며, 투명한 창문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는, 곧 착륙이라는 충격을 맞이해야 하는 생명체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미세했으나 곧 몸이 들썩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안전벨트 사인이 켜지고, 승무원의 안내가 이어졌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기도했다. 나는 팔걸이를 붙잡았다. 손바닥에 땀이 차 미끄러웠다. 흔들림이 반복될 때마다 오래된 기억이 스쳤다.

문이 쾅 하고 열리던 소리, 욕설과 함께 다가오는 발소리, 얼굴을 스치던 공기와 곧이어 찾아온 통증. 나는 다시 어린아이처럼 몸을 움츠렸다.

떨어진다….

공포가 파도처럼 번졌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추락이 아니라 흔들림일 뿐이라는 것을. 상담실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착륙은 충격적이지만, 그것이 안전이에요."

나는 억지로 눈을 감고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추락이 아니야. 흔들릴 뿐이야. 나는 버틸 수 있어."

눈을 떴을 때, 승무원이 통로를 걸었다. 그녀의 걸음은 흔들림 속에서도 일정했다. 그 모습은 파도 위에 서 있던 아버지와 겹쳤다. 바람에 몸을 맡긴 채 중심을 잡던 순간. 자유와 폭력, 해방과 억압. 그 두 세계가 동시에 그의 안에 있었다. 지금의 흔들림처럼.

기체가 갑작스레 아래로 툭 꺼지는 듯 흔들렸다. 객실 안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고, 안전벨트에 몸이 눌렸다. 나는 손잡이를 꽉 쥐었다. 그러나 이내 기체는 다시 자세를 회복했다. 조종사가 플랩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엔진의 출력이 바뀌는 소리가 귀에 닿았다. 난기류 속에서도 기체가

흔들리며 나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삶의 모양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도처럼, 거센 공기마저 뚫고 지나야만 목적지에 닿을 수 있다는 것.

몇 시간 후, 기내 방송이 다시 울렸다.

"승객 여러분, 곧 착륙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오는 순간, 내 시선은 자동처럼 창밖으로 향했다. 구름이 천천히 옅어지며 아래 풍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마치 두꺼운 덮개가 벗겨지듯, 황톳빛 대지가 차츰 모습을 드러냈다. 끝도 없이 이어진 모래 언덕들이 물결처럼 굽이쳤고, 그 사이로 가늘고 반짝이는 은빛 띠가 눈에 들어왔다. 바다였다. 모래와 빛의 대조 속에서 오직 그 푸른 빛만이 고집스럽게 반짝이고 있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수록, 나는 점점 더 유리에 이마를 기댔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손끝과 이마에 동시에 전해졌다. 낯선 땅에 다가가고 있음에도, 묘하게도 유리창의 차가움은 익숙한 안도감을 주었다. 나는 그 표면 위로 호흡을 불어내며, 희미하게 맺혔다 사라지는 김을 바라봤다. 사라지는 순간마다 마음 한구석도 함께 비워지는 듯했다.

그때 문득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 올라왔다. 술에 젖어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었다. 어항 앞에서 서툴게 웃던 얼굴, 작은 입술의 움직임으로 겨우 사과를 내뱉던 그 순간의 얼굴. 기억 속에서 오래도록 낯설게만 느껴졌던 그 미소가, 지금 창밖의 바다처럼 드문드문 떠올랐다. 나는 생각했다. 착륙은 언제나 두려운 법이라고. 속도를 줄이며 땅과 가까워질수록, 기체는 심하게 흔들리고, 바퀴가 닿는 순간엔 거대한 충격이 몰려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그 충격 없이는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용서와 사과 또한 그렇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았다. 눈을 감자, 마치 조종석에 앉은 듯한 착각이 스쳤다. 계기판 위에 고도계와 속도계가 깜박이며, 바람의 방향을 읽는 관제사의 목소리가 무전기로 들려오는 듯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아버지와의 대화도, 내 안의 혼란도 모두 항공기의 계기처럼 하나의 수치와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랐다. 목적지를 잃지 않기 위해 조종사가 매 순간 미세한 조정을 반복하듯, 나 또한 삶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타이어가 아스팔트와 맞부딪히며 짧은 연기를 토했다. 몸이 앞으로 세게 쏠렸다가 곧 단단히 고정되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오랜 긴장으로 얼어붙었던 어깨를 조금 내려놓았다. 지금 나는 허공이 아니라, 땅 위에 서 있었다.

기체의 문이 열리자, 뜨겁고 건조한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다. 냉랭했던 기내와는 결을 달리하는 공기였다. 몸을 스치고 폐 안으로 파고드는 밀도가 분명했다. 모래 냄새가 낮게 깔려 있었고, 태양의 열기는 손등과 뺨에 거짓말처럼 곧장 내려앉았다. 금속 문에서 흘러나온 냉기가 순식간에 밀려난 자리에, 사막의 호흡이 차지하는 느낌.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숨을 들이켰다. 익숙하지 않은 향기인데, 이상하게 오래 알던 무언가처럼 진했다. 바람 자체에 목소리가 실린다면 이런 음색

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 귓가 어딘가에서 오래전 들었던 말이 되살아나 메아리처럼 퍼졌다.

"바람, 빠르지?"

나는 습관처럼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당연히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다만 사막의 바람이 내 뺨을 얇게 스치고 지나갔다. 살을 간질이는 그 부드럽고 건조한 스침이, 어떤 부재를 또렷하게 증명했다. 없는 사람이 남기는 감촉이 있다면, 아마 이런 종류일 것 같았다.

유리 벽 너머 공항 외곽에는 황토색 건물들이 차례대로 서 있었다. 벽면의 색은 햇빛을 먹은 듯 무겁고, 그림자는 짧고 짙었다. 그 뒤편으로 끝없는 사막이 이어지고, 수평선에 닿는 지점에서 갑자기 색이 바뀌었다. 사막의 거친 황토가 채 말라붙기 전에, 푸른 면이 반짝이며 얼굴을 드러냈다. 홍해. 거친 색채들 사이에서 혼자 맑게 빛을 내는 그 물빛은, 내게 또 하나의 얼굴을 데려왔다. 폭력으로 뒤틀렸던 얼굴이 아니라, 잠시 자유로웠던 얼굴. 바람과 파도를 맞으며 한 점의 생명으로만 존재하던 얼굴. 나는 그 바다의 표면을 눈으로 더듬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빠, 나는 아직도 힘들어."

목 안이 뜨거워졌다. 울음은 금방이라도 흘러나올 것처럼 차올랐지만, 바람이 먼저 달려와 눈가를 말렸다. 소금의 냄새와 모래의 가루가 섞인 공기가 눈물을 가볍게 훑고 지나가면서, 발각된 감정을 덮어 주는 얇은 붕대처럼 붙었다. 울음은 목울대에서 미세하게 떨기만 할 뿐, 끝내 밖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얀부에 머무는 동안 나는 바다를 꼭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가장 자유로웠다고 말하던 장소, 보드 위에서, 혹은 스노클링 마스크 너머로 숨을 내쉬며 세상의 무게를 잠시 잊었다던 그 푸른 공간. 이상한 건, 그 자유에 우리는 한 번도 동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그 바다는 늘 그의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했지, 가족의 풍경 속으로 들어온 적은 없었다.

도심을 빠져나오자 길은 단순해졌다. 아스팔트 위로 열기 모양의 신기루가 흔들리고, 길 양옆으로는 황톳빛 평면이 끝도 없이 펼쳐졌다. 회색으로 빛나는 도로 표지판, 낮게 드리운 전선, 먼지 속을 걷는 사람의 실루엣,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낙타의 그림자. 자동차 창문 너머로 스쳐 가는 장면들이 한 겹씩 쌓여 어딘가 익숙한 감각을 만들었다. 전혀 닮지 않은데도 어쩐지 한국의 골목이 겹쳐 보였다. 저녁마다 유리잔이 부딪히던 소리, 벽돌담 위로 흘러나오던 라디오 음악, 누구의 목소리를 닮은 발자국. 서로 다른 풍경 둘이 한 프레임 안에서 포개질 때, 마음속 오래 눌러 둔 그늘의 형태가 드러났다.

차가 멈췄을 때, 바다는 그리 멀지 않았다. 창을 열기도 전에 소금기가 가벼운 막처럼 코로 들어왔다. 발끝에 전해지는 차갑고 묵직한 기운이 먼저 도착했다. 시야가 턱 열리며 푸른 면이 정면으로 펼쳐졌다. 햇빛은 수면 위에서 잘게 부서져 흩날리고, 파편들은 매 순간 새로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

나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에 발을 얹었다. 도심의 먼지와는 전혀 다른 질감. 첫 발에는 뜨거움이, 곧이어 닿는 물에는 빠르게 식는 차가움이 있었다. 파도가 발목을 덮고, 약간의 무게를 남긴 채 뒤로 물러났다. 모래가 약간 무너지고 다시 다져지는 동안, 몸의 중심이 미세하게 변했다.

해안선을 따라 걷자 바람은 옷자락을 흔들었고, 파도는 일정한 간격으로 밀려왔다. 그 리듬은 비행기의 엔진음과 닮아 있었다. 규칙적이어서 안심되고, 강약이 있어 살아 있었다. 그 규칙 속에서 불규칙하게 튀는 파편들은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왜 아버지가 이 바다를 잊지 못했는지, 왜 그가 생을 정리하듯 말하던 순간에도 다시 오고 싶다고 했는지. 파도는 언제든 사람을 삼킬 수 있지만, 같은 힘으로 놓아줄 수도 있었다. 무너짐과 해방이 한 몸을 이루는 자리. 발밑이 스르르 꺼지는 감각이 찾아올수록, 몸은 묘하게 가벼워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상상 속의 아버지가 파도 라인을 읽으며 보드를 돌렸다. 발뒤꿈치에서 앞꿈치로 옮겨지는 중심, 허리의 기울기, 팔의 각도. 물이 보드를 떠받치다가 어떤 순간에는 보드를 지나치게 밀어 올리고, 그가 그 위에서 급히 균형을 복구한다. 그때의 얼굴은 내가 아는 얼굴이 아니라, 어쩌면 그가 가장 되고 싶었던 얼굴에 가까웠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표정. 파도가 커지는 날의 실수와 성공이 한꺼번에 묻어 있는 얼굴.

그러나 곧 질문이 어두운 면처럼 따라붙었다. 그 자유를 왜 그는 혼자만 가져야 했을까. 왜 집으로 돌아오면 다른 생물이 되었는가. 같은 몸이 두 가지 다른 물성을 번갈아 가진다면, 시간의 밀도 때문일까, 장소의 속도 때문일까. 해안가 모래 위에 주저앉아 한 줌 쥐어 올린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사각사각 미끄러지는 소리와 함께 모양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흩어졌다. 우리가 붙잡으려 했던 기억과 닮아 있었다. 모양을 만들기 전에 먼저 사라지는 것들.

멀리서 기도 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긴 울림이 바다의 리듬과 섞였다. 소리는 공기 중에서 부풀었다가 파도와 함께 낮아지기를 반복했다. 그 울림 안에서 바다는 잠깐 벽이 되고, 잠깐 창이 되었다. 어쩌면 이곳은 아버지에게 고해의 바다였을지 모른다. 죄책감과 해방 사이에 숨을 고르는 장소. 물 위에서는 자신을 용서하려 애쓰고, 육지로 돌아오면 다시 무너지는, 그 모순의 경계.

나는 파도 앞에 섰다. 발목을 감싸는 물의 무게를 느끼며 속으로 천천히 말을 꺼냈다. 파도를 바라보며 나는 불현듯 '홀딩 패턴'을 떠올렸다. 착륙 허가를 기다리는 비행기가 원을 그리며 하늘을 맴돌 듯, 아버지도 이 바다 위에서 오랫동안 제 속도를 조절하며 맴돌았던 게 아닐까. 착륙이 두려운 건, 결국 땅에 닿아야만 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바다는 그에게 하늘 위의 대기 패턴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멈추지 못한 채 선회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추락하듯 떨어지곤 했던.

"아빠, 나는 아직도 흔들려. 당신이 남긴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 그런데도 여기까지 왔다는 건, 결국 내가 아직 당신을 사랑한다는 뜻이겠지. 아니었다면 이 바다를 찾아와 당신의 발자국을 더

듬을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

바람이 세기를 바꿨다. 파도가 종아리를 때리고 한 번 더 감쌌다. 물이 빠져나가며 남긴 차가움이 피부에 얇게 달라붙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누군가가 등을 가볍게 밀어 주는 느낌. 마지막에 그가 남겼던 서툰 사과의 온도를 닮은 감촉.

귀국 후, 나는 곧장 집으로 향했다. 오랜 시간 비워 둔 실내는 익숙한 형태를 하고 있으면서도, 어쩐지 전과는 다른 결을 가진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구의 위치도, 벽지의 색도, 걸려 있는 액자의 각도까지도 그대로였지만, 그 속을 흐르는 공기만은 분명 달랐다. 사람의 숨결이 사라진 공간은 마치 소리가 흡수된 듯, 무언가를 말하려 해도 곧 벽에 닿아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다. 발자국 소리가 카펫을 지나 마룻바닥으로 바뀌는 순간, 바닥이 미세하게 울리며 오래된 집 특유의 음색을 드러냈다. 그 웅, 하는 낮고 둔탁한 울림이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리게 했다.

거실 한쪽에는 여전히 어항이 있었다. 그 자리는 변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불이 꺼져 있었을 텐데도, 유리 벽 너머로는 여전히 미약한 생명의 기척이 느껴졌다. 물은 무심하게 제 길을 돌고 있었고, 작은 물고기들은 그 안에서 쉼 없이 움직였다. 창밖에서 들어온 빛이 수면에 얇은 막을 만들며, 천장과 벽에 물결무늬를 흩뿌렸다. 잔잔한 흔들림이 집 안 가득 퍼져 나갔고, 그 순간 집은 단순한 빈집이 아니라 또 하나의 바다처럼 보였다.

나는 천천히 어항 앞으로 걸어가 손바닥을 유리에 댔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서 시작해 팔목을 지나 팔꿈치까지 번졌다. 그 차가움은 단순한 물리적 온도 이상의 것이었다. 며칠 전 얀부 해안에서 느낀 뜨거운 바람과 파도의 차가운 물결이 동시에 떠올랐다. 사막의 열기와 바다의 냉기, 두 온도의 충돌은 늘 내 안에서 부딪히던 두 얼굴을 닮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손끝에 전해진 냉기는 그 충돌을 차분히 정리해 주는 듯했다. 내 안에서 줄곧 맞서 싸우던 기억들이 유리라는 경계를 사이에 두고 잠시 균형을 찾는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늘 말했다.

"저 안은 내 바다야."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어항은 좁고 닫힌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만 그가 어떤 파도를 기억하고, 어떤 리듬을 되찾을 수 있었다면, 그 좁음이야말로 그의 활주로였는지도 모른다. 바다를 향해 날아가듯 착륙하고, 다시 재이륙할 수 있는 투명한 활주로. 그는 매일 그곳에서 자신만의 착륙과 이륙을 반복했을 것이다.

나는 의자에 앉아 오랫동안 물의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물고기들이 꼬리를 흔들며 방향을 바꾸는 순간, 물속의 미세한 모래 알갱이와 부유물들이 따라 움직였다. 가볍게 떠올랐다가 곧 가라앉는

작은 입자들이 집 안의 고요와 겹쳤다. 수면 근처에서 맴돌던 거품 하나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더니, 소리도 없이 터졌다. 그 작은 변화조차 내겐 크게 다가왔다. 그 순간, 비행기의 난기류와 활주로의 충격, 그리고 얀부 해변의 뜨거운 바람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 모든 장면이 물결의 속도에 맞춰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올랐다가, 마침내 잔잔해졌다. 마치 오래된 기록을 차곡차곡 분류해 바인더에 정리하는 것처럼, 마음속의 소란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었다.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다. 착륙은 언제나 충격을 동반한다. 거대한 기체가 땅을 밟는 그 순간, 바퀴와 활주로 사이에서 불꽃이 튀고, 차체는 크게 흔들리며 방향을 잡는다. 그러나 그 짧은 진동이 있어야만 비행은 끝날 수 있고, 승객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버지와 나의 삶도 그런 착륙 같았다. 폭풍과 흔들림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멈출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흔들림과 속도의 끝에는 반드시 멈춤이 있다는 것. 그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다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전제라는 것을.

나는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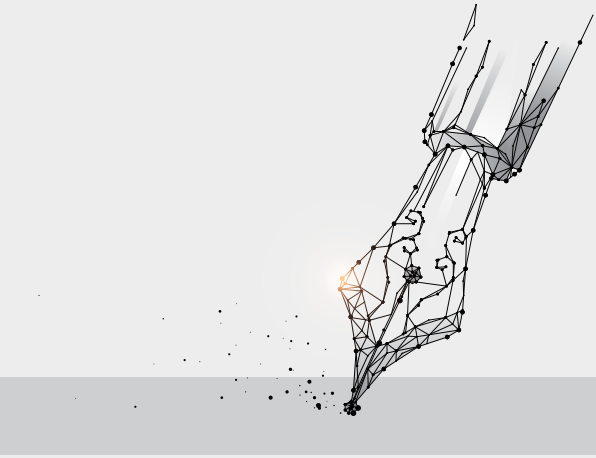
"아빠, 나는 아직도 흔들려. 하지만 이제는 무너지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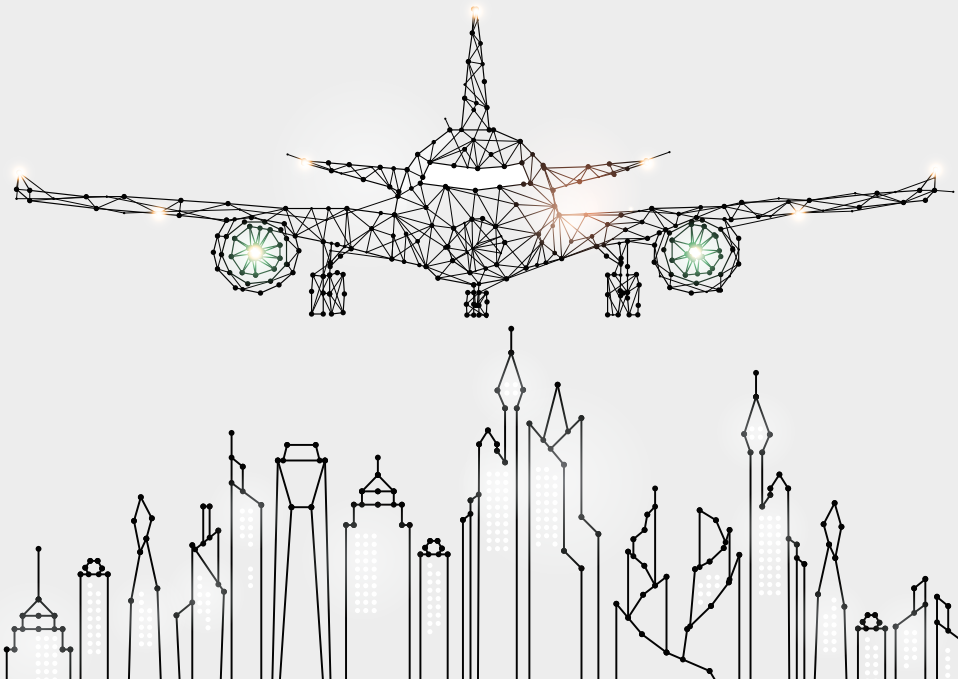
어항 속 물살이 눈에 띄게 일렁였다. 기포가 천천히 수면으로 오르다 터지는 순간, 나는 활주로에 내려앉는 타이어의 연기와 겹쳐 보았다. 조종사가 바람의 세기와 활주로의 길이를 계산하며 기체를 밀어 넣는 장면이 떠올랐다. 생명을 실은 거대한 기체도 결국은 순간의 흔들림과 충격을 거쳐야만 멈출 수 있었다. 어항 속 미세한 거품조차 나에겐 그런 착륙처럼 보였다.

작은 폭발이 끝나야만 고요가 찾아오는 것처럼. 고요를 깰 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움직임이었다. 작은 거품 몇 개가 수면을 향해 올라가더니, 각자의 순간에 도달하자 조용히 사라졌다. 소리 없는 파열이었으나, 그 소멸의 순간이 오히려 나를 안심시켰다. 마치 착륙 직후 흔들림이 가라앉을 때 찾아오는 무게와 같은 안도감이었다.

나는 물 위로 번지는 빛의 파편을 오랫동안 따라갔다. 그 빛은 집 안을 비추며 천천히 움직였고, 어항 속 물고기들이 남긴 그림자와 섞여 새로운 무늬를 만들었다. 그 무늬는 끊임없이 변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내 안의 항해 같았다. 비행은 끝났지만, 내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여정은 예전처럼 두려움으로만 채워지지 않았다. 기다릴 수 있는 시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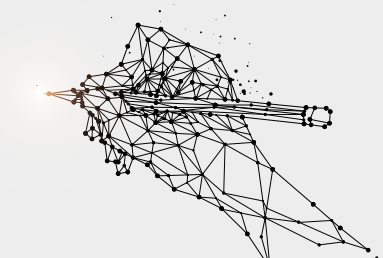
속도의 역설은 여전히 유효했다. 달려온 끝에서야 멈출 수 있었고, 멈춘 끝에서야 다시 움직일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사이의 고요 속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 그 고요가 언젠가 또 다른 출발을 가능하게 해 줄 것임을, 이제는 믿을 수 있었다.





중고등부

최우수상	시	이륙을향해 여기욱
우수상	수필	Make Your Dream 나를 바꾼 여행 김예나
	수필	7월의 활주로 서다은
	시	기장 아저씨 유승우
	시	공항 유원준
	소설	그리움을 향한 이륙 이소율
	수필	활주로 끝, 마음의 길 이지예
	소설	하늘을 잇는 보이지 않는 끈 장주혁
	소설	비행 청소년 황현승



최우수상

중고등부

시

이륙을향해

여기욱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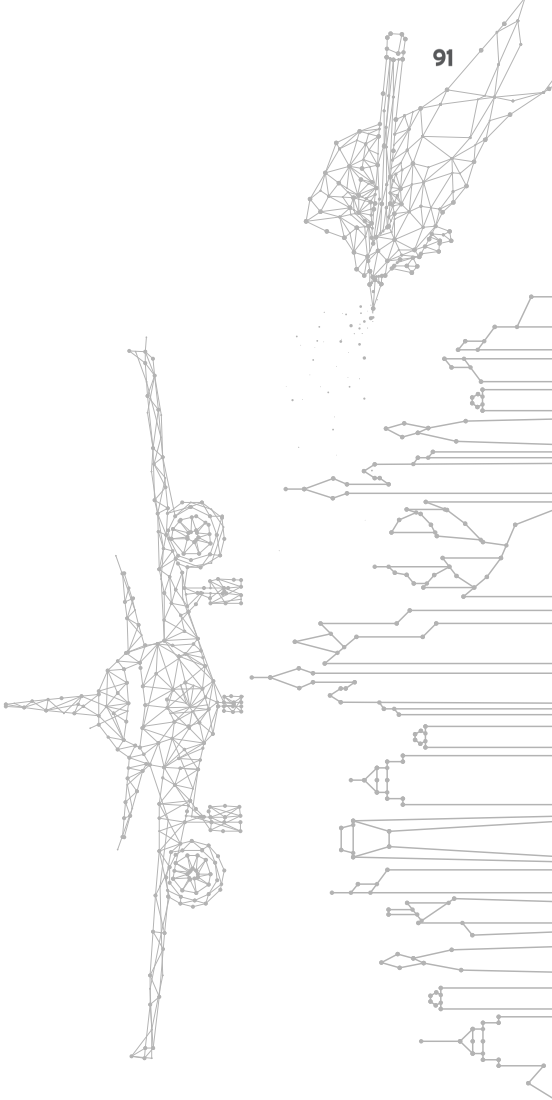
이륙을향해

중고등부 **최우수상** 여기욱

아직은 서툰 손끝으로
반짝이는 너트를 바라본다
언젠가 내 손으로 지킬 날을 꿈꾸며

볼트 하나,너트 하나
그 작은 것들이 하늘을 만든다
내 손이 지키는 하늘의 약속

이륙하는 비행기를 올려다보며 생각한다
언젠가 저 비행의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리라
하늘을 떠받치는 손이 되리라



우수상

중고등부

수필

Make Your Dream 나를 바꾼 여행

중고등부 **우수상** 김예나

부모님 없이 한국을 떠나는 건 17년 인생 중 이번이 처음이었다. 교환 학생으로서 일본의 한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지금까지 내가 이행해 온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위함이었다.

프로젝트의 공식 이름은 국제 교류이며 우리 학교의 전통적인 동아리 활동이자 내가 소속한 동아리였다. 일본 학교와 교류하는 규모가 꽤 큰 활동이어서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힘을 합쳤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나에게 과분한 동아리에서 막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려고 애썼던 것 같다. 보고서를 새벽까지 쓰는 일이 잦았고, 주말에도 꼬박꼬박 학교에 나가 프로젝트를 준비하였다. 우리 팀의 이름은 MYD였다. 처음에는 팀원들의 이름을 따서 구성했고 도전적인 느낌을 주고 싶어 'Make Your Dream'이라는 의미를 붙였다.

일본에 가기 몇 달 전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를 진행했었다. 1년간 꾸준히 준비해 온 프로젝트라서 많이 긴장한 탓인지 정작 내가 하고 싶었던 말보다 머릿속을 거치지 않은 투박한 말만 늘어놓았던 것 같다. 나는 내가 책임감이 꽤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를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을 떠올리니 우스웠다. 어쩌다 한 번 있을 그저 그런 실수였지만 일본에서 내가 1년간 준비해 온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릴까 봐 막막하고 무서웠다. 내가 이렇게까지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새로운 일본 친구를 사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보다도 긴장감과 두려움이 강했다.

내가 끌고 간 캐리어에는 부모님의 걱정이 한 아름 담겨 있었다. 정성스럽게 정리된 수건들과 옷들을 보니 괜히 마음이 울렁거렸다. 공항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북적이는 소리와 캐리어 끌고 가는 소리, 안내 방송 소리가 나를 반겼다. 정신없는 소음이었지만 왠지 조금 마음이 진정되었다. 더 이상 쓸데없는 생각을 그만하기로 마음먹고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수하물을 붙이는 것도 처음이라 어영부영했다. 어찌저찌 수하물을 해결하고 출국 심사를 받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심사관은 냉정한 표정으로 여권을 들고 내 얼굴과 비교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기에 조금은 어색한 미소

를 지었다. 무사히 확인받고 나는 출국장 쪽으로 걸어갔다. 내가 거니는 거리에 면세점이 가득했지만 별 흥미는 없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다양한 크기의 비행기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기다릴 뿐이었다. 입장할 시간은 금세 다가왔고, 사람들은 어서 빨리 비행기를 타기 위해 긴 줄을 늘어뜨렸다. 사람들이 줄어들자 나는 일어나 서서히 걸음을 옮겼다.

나는 침을 한 번 삼킨 뒤 기내용 가방을 들고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에는 여행에 대한 설렘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찼다. 아이와 손을 잡고 흥얼거리는 가족들, 친구와 함께 수다를 떨며 여행을 기대하는 사람들, 큰 배낭을 메고 무언가 결심한 듯 결의를 다지는 여행가들. 각자의 목적을 위해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그들이었지만 후끈한 열기만은 모두가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 열기 사이를 지나 짐을 올리고 중앙 자리에 앉았다. 그러고는 손에 들린 스마트폰의 전원을 조용히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국을 벗어나 내가 모르는 다른 세상으로 떠난다는 것이 새삼 실감이 났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내 등이 비행기 좌석에 딱 붙는 기분을 느꼈다.

어렸을 때는 이 느낌이 마치 비행기가 나를 집어삼켜 버리는 것만 같아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아서 두 눈을 꼭 감았었다. 하지만 비행기가 바퀴를 집어넣고 하늘에 다가갈 때면 떨어질 것 같다는 무서움보다 짜릿함이 더 컸다. 비행기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모르는 정도에 다다르고 점점 각도를 줄여 앞으로 쭉 뻗어나가면 내가 모험 소설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즐거웠다.

이제 서서히 몸이 붕 뜨고 귀가 조금씩 잘 들리지 않는다. 창밖의 도시는 점점 작아졌고 광활한 바다가 잠시 보였다가 구름과 파란 하늘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나는 그 광경을 멍하게 바라보다가 잠시 뒤 안전띠 등이 꺼지는 소리를 들었다. 너무나도 빠르게 느껴졌던 비행기의 초반 속도는 이제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비행기 창문에는 흰 도화지에 하늘색 물감이 번졌다. 창밖에는 그림처럼 변함없는 풍경만 펼쳐졌고 나는 지금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지 멈춰 있는 건지조차 구별할 수 없었다.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목이 막히고 귀는 아무리 침을 삼켜봐도 먹먹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따라 비행기에서 내렸다. 보이는 것은 크게 한국과 다르지 않았지만 익숙지 않은 냄새가 나의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다.

나는 공항 주변에서 홈스테이 배정을 받고 같이 지내게 될 일본 친구와 아이의 가족들을 만났다. 일본 친구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여 나와 편하게 소통할 수 있었다.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을 안정시켰다.

날이 밝고 대망의 발표날이 왔다. 이날만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 왔던 것들이 의미 있는 결과로 남기를 지독히 바랐다. 지난 한국에서 실수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지만 나는 더 넓은 세상에 나 자신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시작에는 항상 두려움이 따라오고 이건 다가올 미래를 위한 내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쿵쾅거리는 나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모든 학생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고 나는 주먹을 꽉 쥐며 발표를 시작했다.

"Hello, everyone. We are MYD. Make Your Dream!"

내가 첫마디로 내뱉은 'Make Your Dream'이라는 말이 뇌에 계속 맴돌았다.

나도 내가 꿈꾸는 것을 위해서 용기를 내야 해.

그 찰나를 기점으로 다음 대사가 노래 부르듯이 자연스럽게 술술 이어졌다. 머릿속에서는 불꽃놀이가 시작된 것처럼 짜릿했다. 내가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 같았다. 그제야 지금껏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나를 천천히 기다려주는 관중들. 그들의 시선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내가 지금까지 바라왔던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은 것 같아 더욱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끝까지 마무리하였다. 박수 소리가 나를 감쌌고 벅찬 감정과 함께 몸에 전율이 일어났다. 해냈구나. 온전히 그 시간만큼은 나만의 시간인 것 같았다.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왔다. 내가 친자식인 것처럼 여겨주시고 다 좋은 것만 해주시려고 했던 일본 가족들과 나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준 일본 친구를 이제 못 본다는 사실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하지만 여행은 항상 아쉬움이 남기에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쉬움을 누르고 밝게 웃으며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건넨 후 공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캐리어를 드르륵 끌고 이동했다. 수하물을 전보다 더 수월하게 붙인 뒤 공항 면세점에서 양손 가득 기념품을 챙겼다. 그것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에게 줄 선물이었다. 하나라도 더 가져가고 싶어서 하나라도 더 남기고 싶어서 남은 돈을 모조리 써 그곳의 명물들을 사들였다. 늘어난 짐들이 귀찮거나 무겁지 않았다. 조금은 만족한 듯 입꼬리를 올리며 나는 대기 좌석에 가서 앉았다. 날개를 쭉 편 상태로 꿋꿋이 제자리를 지키는 비행기의 모습이 그날따라 더 눈에 들어왔던 것 같다. 한참을 그 자리에서 머물렀다가 비행기에 올랐다. 여행을 시작할 때 올랐던 비행기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아이와 손을 잡고 흥얼거리는 가족들, 친구와 함께 수다를 떨며 여행을 기대하는 사람들, 큰 배낭을 메고 무언가 결심한 듯 결의를 다지는 여행가들. 다만 비행기가 하늘로 붕 떴을 때 구름이 나를 받쳐주는 것처럼 전보다 훨씬 몸이 더 가벼웠다. 나는 고개를 돌려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곧 져서 사라져 버릴 것만 같은 태양은 끝까지 눈부시게 빛을 내고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어 사진을 한 장 남겼다. 그러고는 여행하는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잊지 않으려고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그렇게 시간은 금방 흘렀고, 비행기가 곧 착륙한다는 안내 방송이 들렸다. 비행기는 서서히 하강했고 금방 바퀴가 바닥에 닿아 큰 소리를 내며 비행기의 속도는 줄어갔다. 귀가 여전히 먹먹했지만 그리 나쁘진 않았다. 또한 평소에 여행을 다녀온 후 비행기에서 내릴 때 피

로가 심했던 나지만 이날은 유독 컨디션이 좋았다. 기지개를 한번 켠 후 나는 마지막 승객으로서 비행기에서 천천히 내렸다. 시원한 공기와 바람 소리가 나를 맞이했다. 나는 빵빵한 나의 캐리어를 찾고 순식간에 수속 절차를 밟았다. 인천공항은 여느 때처럼 사람들로 가득했고 나는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왔다. 출구는 팻말을 들고 여행객들을 찾는 북적임으로 채워져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비행기가 여행의 시작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비행기가 여행의 끝일 수도 있다는 것이 다시금 느껴졌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시끌벅적한 그곳을 벗어났다. 어서 빨리 가족들에게 내가 겪은 좋은 추억을 공유하고 싶어 가슴이 두근댔다. 나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짐 정리할 틈도 없이 반짝이는 눈을 하고서는 나의 여행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번 여행은 나에게 추억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성장을 도운 여행이라고 생각한다. 좌절도 하고 절망도 했던 어린 내가 이 여행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운 것 같다. 앞으로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면서 나는 이것을 나의 기억 주머니에 꾹꾹 눌러 담아본다. 이제는 더 이상 시작이 무섭지 않다. 시작을 피한다면 새장 안에 갇혀있는 새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발버둥 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앞으로 예상치 못한 두려움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생겼다. 악착같이 버티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이야기, 나의 여행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Make Your Dream!

수필

7월의 활주로

중고등부 **우수상** 서다은

너무나도 뜨거운 이번 7월의 여름. 저는 이탈리아로 떠납니다.

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일단 저는 방에서 암막 커튼을 치고 세상과는 단절된 삶, 방에만 박혀서 게임과 인터넷만 하는 삶. 음, 이것을 히키코모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된 이유요? 그다지 특별하지 않을걸요, 얼어붙을 듯 추웠던 2년 전 겨울, 학교에서 일어난 친구들과의 불화, 선생님조차도 날 믿어주지 않았던 그날, 저는 아직까지도 그곳에 멈춰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2년간 히키코모리로 살았어요. 가족들도 제가 방밖에 나오지 않자 밖에서 제발 나와달라고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나 지나버렸죠. 근데 어느 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탈리아 피렌체의 베키오 다리를 배경으로 하고 찍은 사진을 보았는데 그 사진에 눈길이 한 번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나도 언젠가 저런 거리를 걸어보고 싶다. 한 손에는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 다른 한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그 다리를 내 손에 사진으로 담고 싶다는 생각을요. 물론 가족들과 같이 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2년 동안이나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학교도 안 가는 자식을 어떤 부모가 기다려줄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바뀌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이 더 이상 나를 창피해하지 않도록 성장하려고요. 일단 지금 제일 큰일은 방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2년 간 밖에 나가지 않았더니 방문을 여는 것조차도 두려워졌어요. 그래도 나가는 것부터가 저의 첫 번째 관문이겠죠. 방에서 하루 루틴같이 매일 하던 최종 보스를 잡는 게임. 그 게임 속에 있는 플레이어처럼 저는 던전을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던전의 문을 여는 것, 방 밖으로 나가기 위해 방문을 여는 것. 이건 2년간 게임만 하고 살던 저에겐 RPG 게임 같았습니다.

무기를 갖추고 던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를 반기는 것은 몬스터도, NPC도 아닌 부모님이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 아침밥을 먹을 시간이었다는 것도 몰랐어요. 방에만 있었을 때에는 지금이 몇 시 몇 분인지도 상관없이 자고 싶을 때 자고, 밥 먹고 싶을 때 방에 있던 컵라면을 먹던 삶을 살아왔는데. 저는 부모님이 7시에 아침 식사를 하신다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식사를 하시던 부모

님은 항상 열리지 않던 문이 열리자 크게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충격을 먹은 표정을 보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왜냐하면 2년 만에 마주하는 부모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고나온 저를 보는 부모님을 보고는 눈을 질끈 감아,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안은 너무나 고요했고, 가전제품에서 나는 전자음만 들릴 뿐입니다. 그렇게 조용한 순간이 2분 정도 되었을까요. 이제는 머릿속에 당황함이 가득 찼습니다. 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인가, 부모님은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실까. 당연히 화내시겠지만 저는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살며시, 모래추를 달아놓은 듯 무겁고 무겁던 눈을 뜨자 눈에 보인 건 제가 생각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화를 내시기는커녕 절 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그 길고 길었던 2년이 나에게만 힘들었던 게 아니구나. 방에서 나오지 않는 하나뿐인 딸을 2년 동안 기다리던 엄마 아빠도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때 그 생각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어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를 보고 미소 짓고 있는 부모님의 얼굴을 마주하니 저도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오랜만에 보는 부모님의 얼굴에 마음속 어느 한곳이 먹먹해지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부모님은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얼굴에는 주름이 나있었는데, 그 주름은 2년간 방밖에 나오지 않은 제가 부모님께 드린 짐이었겠지요. 또 엄마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건축업을 하시던 아빠 손에는 못 보던 상처들이 더 늘어나있었습니다. 시선을 좀 더 돌리자 식탁이 보였는데 그곳에는 부모님이 드시던 밥그릇 두 개 말고도 제 밥그릇 한 개가 더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에 멈춰있었는데 부모님은 그 시간을 동안 계속 달리시면서도 저를 언제나 기다려주고 계셨던겁니다. 아빠는 "나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엄마는 "어서와서 밥먹자"는 일상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나무로 된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반찬에는 김치, 분홍색 햄 소세지 부침, 애호박버섯 볶음 등등 다양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던 엄마표 제육볶음을 젓가락으로 집었습니다. 그 순간 방에서 혼자 라면을 먹던 모습이 겹쳐져 보였는데 저는 그때와 달라졌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아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부모님은 저에게 아무말도 없으셨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을뿐이였죠. 그게 그 침묵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평온했던 시간이었지만 저는 던전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기로 했어요. "엄마표 제육볶음은 여전히 맛있네" 오랜만에 내뱉는 말이라 어색했지만 그때보다도 더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말없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난 후, 부모님이 뜸을 들이다가 이야기 하셨습니다. 산책이라도 가지 않을거냐고요. 산책. 방 밖으로 나오는 것보다도 더 큰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굳어지는 제 표정을 보셨는지 나가기 싫다면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야 방밖으로 나왔는데 또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다음에 나올 때 지금보다도 더 큰 마음을 먹어야

할거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엄마 말로는 지금이 벚꽃이 만개할 시기라 거리를 나가면 온통 벚꽃 천지로 정말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맨날 입던 무채색 계열의 옷만 입어서 열어보지 않던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옷장안에는 예전에 꾸미기를 좋아했던 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그곳에는 분홍색 블라우스, 청자켓, 그리고 아직도 새것같은 하얀 운동화. 약간 먼지가 내려 앉았지만 제 눈에는 오래된 옷이 아니라 화려하게 빛나는 보물 같았습니다. 옷은 자주 입었고 벚꽃처럼 은은한 분홍빛의 블라우스를 입고 나가기로 했어요, 방밖에 한번 나오자 밖으로 나가는 것은 의외로 쉬웠습니다.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으며 거리에는 벚꽃잎들이 바람에 실려와 바깥 세계로 온 저를 환영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절경을 보고있으니 저는 마치 5살짜리 어린아이가 된것처럼 심장은 마구 뛰고, 호흡은 가빠지고, 힘들다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벅참이라는 감정이 온몸에 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위에서 커다란 소리가 들렸어요. 무심코 고개를 들어보니 하늘에는 구름을 천천히 가로지르는 비행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행기는 비행운을 남기며 시야에서 멀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간 나도, 저 비행기를 타고 피렌체의 베키오 다리를 걸을거라고. 저는 그 뒤로 핸드폰으로 벚꽃 사진도 찍고 부모님과도 정겹게 함께 사진을 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는 샤워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정리도 할겸 개운하게 씻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한동안 아무생각 없이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만 맞았던거 같습니다. 샤워기의 쏴아- 쏴아- 하면서 물나오는 소리밖에 들려오지 않는 이 적막함이 좋아요. 그동안의 쌓아온 습관은 어디가지 않나봅니다

목욕을 시원하게 마치고 나와서 식탁을 보니 바나나우유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옆에는 자그마한 메모도 있었어요. 식탁에 다가가서 메모를 보니 엄마의 글씨체로 '목욕 끝난뒤에는 바나나우유!'라고 적혀있었고 옆에는 우유그림도 조그마하게 그려져있었습니다. 저는 그걸보고 피식웃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괜히 울컥하기도 했지요. 방금까지 아무생각 없이 물만 맞고 있었는데 이 작은 메모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주었습니다.우유를 마시면서 거실로 가보니 아빠랑 엄마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TV에서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예능 프로의 오프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전에도 많이 봤었는데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구나 하면서 계속 보고있었는데 방문지를 고르기위해 돌림판을 돌리더라고요. 돌림판에는 일본 도쿄, 캐나다 토론토, 베트남 다낭 등 여러 휴향지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개에 제 눈이 멈췄습니다. 그렇게 제가 멈춘사이에 돌림판이 돌아가버렸고 돌림판은 빠르게 돌아가다 천천히 천천히 속도를 늦춰갔습니다. 돌림판이 멈추고, 제 시선은 돌림판의 화살표에 가있었어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은 제가 그토록 원했고, 덕분에 이렇게 밖을 나올 수 있었던 피렌체였습니다. "피렌체..." 라고 조용히 읊조리던 저를 보던 아빠가 입을 여셨습니다. "피렌

체 좋네, 우리도 이번 여름에 해외 여행 한번 다녀올까?" 조심스럽게 던진 아빠의 말에 저는 순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기쁨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배려가 가슴 깊숙이 울렸거든요. 머릿속에는 문득 비행기 안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출국장의 분주한 공기, 사람들 사이로 들려오는 기내방송, 푸드카트 바퀴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이륙을 기다리는 제 모습까지. 이륙 직전 점점 속도가 붙는 활주로 위의 떨림, 몸이 붕 뜨는 순간의 설렘, 그리고 하늘 위로 펼쳐지는 하얀 구름 바다.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그 순간들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장면처럼 선명했어요. 피렌체의 햇살, 베키오 다리 위를 걷는 제 모습도 상상 속에서 또렷하게 그려졌습니다. "정말... 갈 수 있을까?" 작은 목소리로 중얼이자, 옆에 있던 엄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갈 수 있지. 대신 돌아오면, 학교도 다시 가보는 거 어때?"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조용히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듯, 나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피렌체는 단지 여행지가 아니라, 멈춰있던 제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시

기장 아저씨

중고등부 **우수상** 유승우

기장 아저씨
새벽에도
커피 대신 엔진 냄새를 맡으셔
창문 없는 작은 방
세상은 이미 잠들어 있는데 말이야

기장 아저씨
하늘 위
구름 사이를 헤엄치시며
사람들의 꿈을 조심스레 실어 나르셔
한 번도 쉬지 않고 펄럭이는 날개 위에서 말이야

오늘 점심은 도시락과 바람 한 줌
창밖 웃음이 스쳐도
그냥 모른 척 계기판과 얘기하셔

집으로 돌아와
벗어둔 갑옷 위
하늘의 무게가 내려앉았어
그럼에도 아저씨는
다음 날 또 떠나셔

하늘을 나는 아저씨도

밤이 내려앉으면

창가에 기대어 먼 별을 헤아리는 시간이 있더라

시

공항

중고등부 **우수상** 유원준

수많은 발걸음이
목적지를 향해 흐른다.
출국, 입국, 연결편—
이별과 만남의 이름표들.
전광판이 바뀔 때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돌아온다.
감정은 짐보다 무겁고,
짐은 말보다 많다.
유리창 너머 활주로엔
또 다른 오늘이 이륙을 기다린다.
하늘로 향하는 비행은
한 사람의 결심일지도 모른다.
공항은 끝이자 시작,
잠시 멈춘 시간의 마당.
여기선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누구든, 한 번쯤은 머문다.

소설

그리움을 향한 이륙

중고등부 **우수상** 이소율

1. 편도

'떠난다는 것은 돌아오는 것의 반대가 아니란다.'

질서 있으면서도 어딘가 세월이 묻어난 글씨가 적힌 쪽지는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았다. 잉크는 말라 종이에 더 깊게 스며들어 짙어져만 갔다. 목 끝에서부터 올라오는 서운함에 덜컥 숨이 막혔다. 그리움에 눈물이 글썽거려 애써 고개를 저어보아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달력은 어느새 쪽지가 놓인 날로부터 11장이 찢겨 있었고 곧 한 장을 더 뜯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더욱 먹먹하게 만들었다. 처음 한 장을 찢을 땐 익숙한 기다림이었지만, 달력이 점점 납작해지고, 그리운 마음에 때가 묻어날 때면 익숙함보단 어딘가 이질적인 기다림이 되어갔다. 할머니는 어떻게 아셨는지 식탁에 놓인 사각 티슈에서 휴지를 한 움큼 뽑아 내 손에 쥐어 주었다.

"돌아오실 거야. 곧.."

할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리시며 시간이 지나 점점 위로 말리는 종이를 냉장고에 붙여놓았다. 할머니는 꼭 돌아올 거라며 날 위로했지만, '꼭' 이란 말이 시간이 지나며 더 흐릿해져 '곧'으로 바뀐 것은 이미 수개월 전이다. 약속이 없는 기다림은 이별이라던데 그와 이별하고 있는 걸까, 생각하다가도, 결국 돌아오는 그를 생각하면 이별이 아니라 그저 여행일 뿐일 거라는 마침표 위엔 어느새 유연한 곡선을 가진 물음표가 그려졌다. 나는 끝내 확신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축 처진 내 어깨를 토닥였다. 손길에서부터 피어나는 따뜻함은 날 위로하려 했지만 내 마음의 꽃받침은 더는 받을 수 없다는 듯이 위로를 지탱할 기운이 없어 보였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손을 비비적거리며 할아버지를 홀로 회상했다.

여행을 좋아하시던 할아버지는 어느 순간부터 편도 여행길에 오르셨다. 목적지의 티켓만 끊으시곤, 언제 돌아올지 정하지 않으신 듯했다. 이번에도 편도 티켓을 고집하실 걸 알고 있기에 난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번엔 언제 돌아와?"

어렸던 나는 늘 초초한 눈망울을 가지고 말했다. 하지만 그 날도 어김없이 대답이 늦으셨다. 아니, 못하셨다. 그저 내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다. 공항에 도착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 게이트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수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가고 부딪혀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겁이 나지 않았다. 마치 떠나지 않을 사람처럼, 할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에겐 늘 이륙만 존재했다. 어릴 적 나는'멋진 자유인'의 철학 정도로만 받아드렸다. 기다림을 받아들일 만큼 자라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을까 봐, 이대로 떠나버리면 어쩌나 싶었다. 어릴 적부터 나의 청춘은 낭만이 아닌 결핍에 가까웠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난 부모님이 존재한다. 하지만 존재 자체가 채움을 의미하진 않았다. 왜냐하면, 난 그들의 행방을 모르기 때문이었다. 언제부터라고 특정하지는 못하지만, 먼 여행을 떠나버린 그들이 나에게 남겨준 건 할아버지와 할머니뿐 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든든한 기둥에 대한 믿음 없이 자라지 않았다. 난 단연코 단단히 자랐다. 한때 군인이셨던 할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듬직한 기둥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하늘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군인이셨다. 군인과 하늘은 참 안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했다. 하늘을 통제한다? 두 단어는 마치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듯 서로 어색하게 붙어있었다. 나는 심심할 때마다 할아버지에게 군인이셨을 때의 기억을 물어보곤 했다. 그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 것은 역동적인 전투도, 두려웠던 첫 비행도 아닌 그저 푸르기만 했던 하늘이었다.

"할아버지는 하늘을 그렇게 많이 봤다면서 아직도 하늘이 좋아?"

자꾸만 먼 여행을 하려는 그에게 난 가지 말라는 뜻을 은근히 담아 물어봤다. 그는 잠시 웃더니, 낮게 대답했다.

"그 시절엔 비행이 아니었지. 비행은 자유를 향한 이륙이지 명령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는 뜻이란다. 이륙은 자유의 항행이지만 그 시절 이륙은 자유가 아닌 속박이지. 하늘에 있었지만, 자유는 찾아볼 수 없었단다."

난 이해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가 여행을 갈 때 자꾸만 편도 티켓만을 고집할 때, 내 곁을 떠나는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물어봤다.

"할아버지는 왜 편도 티켓만 끊어? 그러면 난 할아버지가 언제 돌아오는지 알 수 없잖아.. 하늘이 좋다면서. 그러면 갈 때, 올 때 하늘을 두 배로 보면 두 배로 좋은거 아니야?"

매 순간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그는 곧장 대답했다.

"착륙지는 티켓으로 정하는게 아니란다. 내가 도착하는 곳이 곧 착륙지가 되는 거지. 그래야 자유로워질 수 있어. 할아버지가 말한 하늘은 자유와 같아서 비행을 즐기는 거지."

난 이 순간도 이해할 수 있었다. 군인이셨으니까, 할아버지는'멋진 자유인'이니까.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편도를 고집하며 그리운 사람을 두고 가는 이륙이, 과연 자유로울까? 하지만 나는 어릴 적부터 그런 할아버지를 동경하며 컸다. 자유, 어딘가에 얽히지 않는 자유를 동경하면서도 미워했다. 자유로운 비행을 향한 결핍을 꿈으로 이어 속박에서 벗어난 그의 이륙을 동경했다. 떠남의 결핍이 꿈으로 이어졌다 했어도 난 그의 철학을 좇으며 컸다. 그것이 내가 그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지나는 시간의 질량은 나를 더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 한때 그의 철학을 동경했던 나는 이윽고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만 갔다. 편도만 고집하며 그리운 사람을 두고 떠나는 이륙이 정말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 돌아오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 나는 그 답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었다

2. 끝 무렵의 봄

"소희야, 꽃 구경하러 갈까?"

꽃을 좋아하시는 할머니는 봄이 되면 나와 꽃구경을 가길 물었다. 돌아온 봄은 늘 같은 내음을 풍기고 있었다. 3월의 끝자락부터 따뜻함을 뱉기 시작했다. 겨울 내내 굳어 있던 골목길에 연분홍이 번지는 계절이면, 할머니는 낡은 운동화를 꺼내 들었다. 봄의 여운이 끝나갈 무렵, 기분 전환이 필요했던 나와 할머니는 밖으로 나갈 적절한 핑계를 찾았다. 나만이 그를 그리워하는 건 아니었기에. 봄의 햇빛은 겨울의 얼어붙은 기억까지 녹여내지 못했다.

봄이 끝나간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거리에는 봄이 한창이었다. 막 날리기 시작한 꽃가루에 눈이 간지러웠지만, 눈을 감기엔 향긋한 풍경이 아른거리는 거리였다. 사람들의 홍채는 저마다의 핑크빛으로 물들었다. 가로수 아래로 흩날리는 꽃잎은 발목에 스치듯 붙어 사뿐히 부서졌다. 하지만 할머니는 벚꽃으로 가득한 거리를 지나 더 안쪽에 있는 한적한 갈대밭으로 향했다. 그런 발걸음에 이유를 물을 틈도 없이 할머니는 작은 벤치의 가장자리에 앉아 옆자리를 비워줬다.

"할머니, 왜 혼자 여기에 있어? 저쪽으로 가면 할머니가 좋아하는 수국 엄청 많아! 보라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더라고."

"할머니는 여기 있는 꽃도 좋아해."

"엥? 여기 꽃이 어딨어. 다 갈대뿐인데?"

"저기 산란한 솜뭉치들이 꽃이란다. 그 사이사이에 작은 씨앗들을 품고 있는 거지."

어딘가 허전했던 꽃구경은 할머니의 빈 자리로 가니 곧장 채워질 수 있었다. 자세히 보니 봄볕을 한껏 머금은 솜뭉치들이 바람을 따라 기웃거렸다. 가을에만 자라는 줄 알았던 갈대는 봄에도 산란했다.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빛바랜 황금빛 줄기, 그 사이로 묻어나오는 햇살과 바람이 머물다 간 자리에서 묻어 나오는 햇살을 맞으며 포근한 꽃구경을 계속했다.

"너희 할아버지도 참.. 갈대 같은 사람이었는데"

할머니는 얕은 한숨을 섞어 눈을 지긋이 감았다. 할아버지는 갈대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생각해보면 누구보다 갈대 같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비행기에 몸을 맡겨 자유를 향해 기웃거렸으니까.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가 한쪽으로 기울 듯 내 마음도 자꾸만 기울어져 갔다. 그리움으로 한번, 미움으로 한번. 노을을 가릴 듯 말 듯 한 갈대는 내 속도 모른 채 여유로움을 뽐냈다. 갈대밭 사이로 보이는 작은 새싹들은 누군가의 발에 밟혀 시들어가고 있었지만, 그리움으로 싹튼 내 마음만은 이상하리만큼 시들지 않았다. 갈대의 유연함이 부러우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 흔들림이 두렵지 않았다. 기다림이란 건, 어쩌면 흔들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일지도 모르니까.

"할머니, 갈대는 봄에도 피고, 가을에도 피잖아. 나도 그냥 기다리려고. 봄에서 가을이 되고, 또다시 봄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릴래."

난 할머니 손을 살며시 잡았다. 할머니의 손등은 햇볕에 그을린 듯 거칠어 보였고, 손등에는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손끝에서부터 전해지는 따뜻함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보다도 더 깊게 내 마음을 울렸다. 우리의 시선은 같은 하늘에 머물렀다. 바람에 몸을 맡겨 흔들리는 갈대처럼, 나는 점점 기다림에 순응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되뇌었다.

'난 언제쯤 이 기다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바람에 살랑이는 갈대를 보며 홀로 묻고 또 물었다. 대답 없는 물음은 봄바람에 날려 갈대 사이로 스며들었다. 갈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저 부드럽게 흔들리며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내 마음은 갈대처럼 순응과 갈망을 기웃거리며 잔잔하게, 때로는 거칠게 흔들렸다

3. 장마가 마르는 여름

여름밤의 더위는 시끄러운 자각몽처럼 날 깨웠다. 땀이 삐질삐질 흐르는 등을 선풍기에 기댔다. 더위를 생각하지 않기 위해 급하게 낀 이어폰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야!'

이어폰 밖에서 들리는 듯한 소리를 무시했다. 마치 누군가가 날 부르는 소리 같았다.

'...아!'

'소희야!'

노래를 멈추고 이어폰 줄을 잡아당겼다. 머리가 살짝 울릴 정도로 심장이 빨리 뛰었다. 심장의 반쯤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방안은 조용했다. 그저 바람에 살랑거리는 나뭇가지 그림자 몇 가닥만이 창문 밖을 출렁일 뿐이었다. 여름 바람에 억센 잡초마저 살랑이는 밤이었다. 세상은 매미와 풀벌레 우는 소리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어폰을 끼면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꼭 누군가 날

부르는 목소리 같았다. 환청이라기엔 늘 누군가의 목소리를 담은 듯 선명했다. 결국, 듣던 노래를 포기한 채 이어폰을 대충 말아 침대 모퉁이에 걸어 놓았다. 선풍기에 몸을 맡기고도 가슴은 묘하게 답답했다.

투둑, 투두둑-

무언가가 창문을 치기 시작했다. 처음엔 창밖을 서성이는 벌레인 줄 알고 황급히 스텐드를 껐다. 남아있던 작은 불빛마저 사라졌지만, 창문 밖엔 여전히 같은 소리가 났다. 어둠이 눈에 익기도 전에 그 소리는 창문을 연타하며 시원한 빗줄기가 내는 소리로 바뀌었다. 여름밤에 시작된 장마였다.

생각해보니 집 앞 담벼락엔 능소화가 피어있었다. 능소화는 장마를 앞둔 무거운 공기 속에서 더욱 짙게 피는 꽃이었기에 장마를 예측할 수도 있었다. 5월은 조금 쌀쌀하고, 7월부턴 너무 더워서인지 6월부터 피어났다. 능소화가 피는 여름이 되면 할아버지는 여행을 잘 가지 않았을뿐더러, 연착되는 비행기로 인해 그와 함께 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10분, 20분으로 늘어나는 출발 시간은 한편으론 애가 타면서도 즐거웠다. 캐리어 위에 앉아 할아버지와 이야기 나눌 때면 웃음에 튕겨오는 빗물이 마르곤 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공항은 더 소란스러워졌다. 우산을 접으며 빗물을 털어내는 소리, 신발 밑창이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끼익- 되는 소리, 연착되는 비행기에 튕겨 나오는 한식들로 시끌벅적했다.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 찬 공항 한가운데서도, 할아버지와 나 사이엔 조용한 대화가 흐르고 있었다. 안내 방송이 나올 때면 그와 하던 말을 멈추곤 울리는 소리에 집중했다. 모두 저마다의 간절함이 묻어난 잠시의 기도가 들리는 듯했다. 할아버지는 떠나기 전 언제나처럼 나에게 손을 흔들어 누구보다 차분하고 다정한 인사를 건네주었다. 다른 승객들처럼 급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인사가 아니라 아주 천천히, 아주 다정한 인사만큼은 아무리 봐도 익숙해지지 않았다. 비가 오는 공항의 유리창은 뿌옇게 흐려있었다. 그때마다 난 그와 처음 떨어진 것처럼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한층 잠잠해진 빗줄기를 지나, 주르륵 흐르는 빗물 사이에서 비행기가 떠나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내 눈앞에도 어김없이 장마가 내렸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마처럼, 불규칙하고도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다. 뿌연 창문에 물줄기가 하나, 둘씩 길을 내며 흘렀다. 나는 아직 그가 손을 흔들던 게이트에 머물러 있었지만, 내 양 볼을 젖어만 갔다.

담벼락에 맺혀 있던 능소화가 거센 빗물에 지기 시작했다. 능소화는 웅덩이에 무언가 중얼거리듯 작은 파장을 일으키며 불규칙한 포물선으로 낙화했다. 떨리는 파장에 파랬던 웅덩이는 어느새 붉게 물들고 있었다. 또다시 비 오는 그 날처럼, 난 지붕 아래서, 정수리는 젖지 않지만 내 양 볼이 간지럽게 무언가 흐른다. 지금도 비를 보면 문득 장마가 그의 발목을 붙잡아 놓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여름은, 이번 장마는 빨리 지나가기를 홀로 기도하며 다시 이어폰을 꺼내 빗소리가 안 들릴 만큼 소리를 키웠다. 하지만 아무리 볼륨을 높여도 빗소리는, 그리고 그리움은 멈추지 않았다.

내 눈물까지 그에게 닿지 않도록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장마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기다림의 열기는 어느 여름보다 뜨거웠다.

4. 단풍이 흐린 가을

부스스한 머리카락 사이로 들어오는 가을바람이 이른 아침을 깨웠다.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은 활짝 연 창문의 바람보다 거세게 들이닥치는 듯했다. 붉은 풍경 속 적막함이 밀려 들어왔다. 애매하게 열려있던 창문을 활짝 열었다.

'...'

단풍은 색이 아닌 온도였는지 마음 한편엔 미지근한 따스함이 올라왔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창문 밖을 바라보니 아무도 없던 길거리에 사람들이 군데군데 보이기 시작했다. 출근길에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잔을 들고 바삐 뛰는 모습들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잦아들어 시야를 넓히니 푸른 아파트 옥상을 지나 저 멀리, 붉게 물든 산이 보였다. 주황색으로 물든 것만 같은 산은 뭉개진 열매의 색을 띠고 있었다. 군데군데 푸른 나무가 보였지만 분명히 눈에 띄는 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와 매번 오르던 산은 왜인지 모르게 낮아 보였다. 잡힐 듯 가까운, 그러나 여전히 멀리 있는 풍경은 가을 하늘처럼 맑기만 했다. 오늘은 홀로 산을 오르기로 했다. 그리움을 어지러운 단풍에 묻어 보기 위해.

주말이 되면 산을 좋아했던 할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했다. 체력이 유독 약했던 나는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턱턱 막혔다. 나에겐 힘겨운 길이었지만, 그에겐 천천히 걷는 산책길처럼 보였다. 나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 그만 오르자며 징징거렸다. 그의 한 걸음을 따라잡기 위해 세 걸음을 더 걸어야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이상을 앞서가지 않으셨다. 늘 세 걸음 정도 앞에서 날 기다렸다. 눈물을 훔치며 발걸음을 옮기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 날도 어김없이 산 중턱에 힘들어 주저앉았다. 발걸음을 멈춘 할아버지는 나에게 다가와 시원한 바나나 우유를 건네주었다. 차가운 손수건으로 돌돌 말려진 우유엔 아직도 냉기가 서렸다. 바싹 마른 입안을 침으로 굴려 가며 뚜껑을 까서 쭉쭉 마셨다. 대충 옆에 보이는 큰 바위 위에서 우리는 서로 목을 축였다. 서로의 신발엔 아직 이슬이 덜 마른 낙엽이 군데군데 붙어있었다.

"오늘도 정상에 도착했구나. 잘했다."

산 정상은 한참 남았는데, 할아버지는 내가 한계라는 걸 눈치챈 듯 말했다. 처음엔 그저 날 놀리려는 줄 알았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젓곤 했다.

"산 정상은 한참 남았잖아. 그리고 난 한 번도 정상에 도착한 젓이 없는데.. 나 놀리는거지?"

"네가 있는 곳이 늘 정상이란다. 물론 더 높은 곳도 있겠지만, 오늘 가장 높은 곳에 왔으니 이곳이

정상이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었다. 그저 나를 달래려고 하는 말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다. 높이만 쫓는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 그 순간 도착한 산 중턱도, 함께 오르던 길도 모두가 정상이라는 것을. 눈길이 닿는 곳마다 그의 철학이 묻어난 추억이 떠올랐다. 시간이 지나서야 그의 말에 힘을 얻었다. 등산스틱으로 바닥을 툭툭 쳐가며 산을 오르다 보니, 이윽고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다. 가을 하늘은 어느 계절보다 맑고, 높았다. 참아왔던 숨을 몰아쉬고 곧장 음수대로 향했다. 음수대 옆에는 오래된 스티커들이 잔뜩 붙어져 있었다. 바나나 우유 캐릭터가 그려진 스티커도 그중 하나였다. 산 정상에서도 그와의 추억이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게 다가왔다. 가방에서 미지근해진 바나나 우유를 꺼내 마셨다. 그러곤 다시 스티커를 붙였다.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묻히지 않을 자리, 그동안 붙여놓았던 스티커들 옆에 붙이고 한참을 꾹- 눌렀다. 그 잠깐의 시간은 어느 순간보다 고요했다. 나는 흐린 단풍 속에서 그와의 추억을 새겼다. 시간이 지나도 산길에서 그가 나를 기다리던 순간들이 여전히 눈앞에 선명했다. 그가 날 기다린 순간들을 붙잡으며 그를 기다릴 수 있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붙잡을 순간들이 넘쳐났다. 하늘을 유유히 지나가는 비행기 구름이 점점 희미해지듯, 그리움도 조금씩 옅어질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붉은 단풍 사이에서 나는 여전히 그와 함께였다. 가을바람이 스치고, 단풍잎이 바스라져 발밑에 깔리는 순간마다 나는 다시 한번 되돌아 말했다.

'오늘도 정상에 도착했구나. 잘했다.'라고.

사람들은 제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이 산을 오른다. 산의 정상을 지나 비탈길을 조금 걷다 보면 자그마치 300년이 더 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우두커니 서 있기 때문이다. 은행나무 주변엔 동그란 길이 새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나무 기둥을 중심으로 서서 기도를 했고, 무릎을 아까워하지 않고 절을 하는 사람도 볼 수 있었다. 수십 번의 은행이 피고 지는 동안 이름 모를 사람들은 세월이 묻어나는 기둥에 손을 얹고 소원을 빌곤 했다. 둥근 길을 따라 한 바퀴, 두 바퀴를 돌며 바닥에서부터 코끝을 찌르는 은행의 냄새를 맡았다. 몇 번을 돌아도 익숙해지지 않는 냄새였지만 들숨과 날숨을 계속했다. 그리고 단단하고 거친 기둥에 손을 얹었다. 작은 호흡에 은행잎이 하나둘씩 떨어졌다. 겨울이 곧 다가올 줄 알았는지 잎은 몇 개 남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몇 안 남은 은행잎 아래서 서툰 기도를 계속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할아버지와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어느 마지막 은행잎엔 내가 새겨져 있기를 빌었다.

5. 흐린 수채의 겨울

매 계절 그랬듯, 오늘도 공항으로 향하기 위해 나갈 준비를 했다. 지붕 아래 솟아있던 고드름이 녹아 맺힌 물방울은 다시 얼어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다. 봄과 가을엔 할머니와 함께 나갔지만, 여름엔 너무 더워서, 그리고 겨울엔 춥고 길이 미끄러워 홀로 공항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늘 괜찮다며 같이 가자 했지만, 나는 괜찮지 않을 거라 대답했다. 길에 눈이 쌓여 하얘진 풍경은 잔잔한 위험이 분명하게 깃들어 있었다. 길 위에 드리운 흰 눈이 내 발자국을 삼킬 때마다 그 기다림이 나만의 몫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심히 다녀와야 한다. 소희야. 그리고 이건.. "

집을 나서려 신발을 신고 있을 즈음에 할머니가 나를 붙잡았다. 그러곤 목도리를 한 바퀴 더 둘러주셨다. 어젯밤부터 쇼파에 앉아 정성껏 뜨던 목도리의 주인은 나였나보다. 할머니의 무릎 위엔 아직도 노란 실오라기가 몇 개 붙어있었다. 집안은 따뜻했기에 목도리를 두른 찰나의 순간은 조금은 더웠다. 목도리 사이로 스며드는 겨울 냉기가 숨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도로 위엔 얇은 눈이 바스락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발끝에서부터 전해졌다. 발끝에서 부서지는 눈 소리가 고요한 겨울 공기를 깨뜨렸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기다리던 버스에 올라 뒷자리에 앉았다. 코가 시리듯 아파 목도리를 올려 얼굴의 반 정도를 가렸다. 할머니의 손에서부터 나는 특유의 채취가, 온기가 느껴졌다. 창문엔 살짝 김이 서려 흐릿해진 바깥풍경이 시야에 들어왔다.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 꺼지지 않은 몇 개의 가로등은 매번 같은 풍경인데도 오늘은 유난히 흐릿하게 보였다. 창문에는 희미한 성에가 맺혀 있었고, 나는 손끝으로 대충 문질러 작은 틈을 만들었다. 그 사이로 스치는 겨울 풍경은 한 폭의 흐릿한 수채화처럼 번져있었다. 버스가 커프길을 지날 때마다 묘하게 기울어지는 몸에 맞춰 마음도 묘하게 흔들렸다. 그가 돌아올 거란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희망이 아주 작은 불씨처럼 남아있어 쉽게 끌 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 작은 불씨가 나를 이렇게 매 계절 같은 자리로 이끄는 것인지도 모른다.

공항에 도착하면 늘 그렇듯, 시간은 분주히 흐르고 있었다. 겨울을 제대로 맞이한 공항은 캐럴 노래가 틀어져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내고 있었다. 울리는 캐럴 소리, 저마다의 멋을 내는 사람들의 코트 사이에서 기분 좋은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왔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 공항에 왔는지 뜨거운 열기가 공항 속을 부산히 맴돌았다. 매 계절 공항에서 그를 기다리지만, 변함없는 공항 속 온기는 여전했다. 출발을 알리는 안내음. 발걸음을 재촉하는 신발의 부산한 소리와 창밖의 멈춰 있는 활주로는 4번의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다. 기다림은 계절마다 반복되었지만, 겨울만큼은 조금 더 서늘한 공기가 깃들어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내게 인사를 건넸던 날, 그는 두꺼운 갈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공항의 입구에서부터 갈색 코트를 입은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다행

히도 이번 겨울엔 남색 코트가 유행인지 눈에 띄는 갈색은 많지 않았다 남색 코트의 유행 덕분에 기다림의 모서리에 걸린 마음의 상처는 조금 덜 아팠다. 갈색 코트를 찾아 부산히 시선을 옮겼다. 저마다의 사람들이 비행기에 타고, 내렸다. 갈색 코트를 입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위주로 범위를 좁혀 한 명씩 티 나지 않을 정도로 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이 있는 것처럼 애틋하고, 각별한 재회를 했다. 그를 기다리며 앉아 있던 의자가 잠시 흔들렸고, 내 옆에 앉아 있던 여자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온 그녀의 사람을 껴안았다. 두 사람 모두 전보다 환한 표정으로 만남을 즐겼다. 공항에서 사람들이 재회했다. 환한 표정 사이에서, 무조건적인 이륙이 진짜 자유가 아님을 깨달았다.

말뿐이었던 그의 말을 믿으며 봄에는 할머니와 꽃길을 거닐며 여전히 그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그리움에 잠기고, 여름에는 능소화 꽃잎이 지는 소리를 들으며 시간의 속도를 가늠했다. 가을에는 노을보다 붉게 물든 산을 바라보며 돌아오지 않는 편도의 의미를 곱씹어보고, 겨울엔 꽁꽁 얼어붙은 공항 유리창 앞에서 갈색 코트의 남자를 찾는다. 이제는 알 수 있었다. 이 기다림은 이별이 아니라는 것을. 네 개의 계절 중, 가장 춥고 서늘한 계절이 되어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

'착륙은 자유의 반대가 아니야.'

그냥 스쳤다기엔 너무나도 선명한 떠오름이 첫눈보다 고요하게, 그러나 깊게 내려앉았다. 할아버지를 다시 보면 꼭 말해주고 싶다. 비행은 자유와 이륙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착륙은 여행의 끝이 아니라, 그리운 사람에게로 다시 가는 이륙이라고. 할아버지를 매 순간 나에게 착륙시켜서 보고 싶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나에게 기다림은 더 이상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에 감내하는 긴 활주로의 여정이 되었다. 공항의 유리창은 어느 때보다 차갑게 얼어 있었다. 나는 그저 꽁꽁 언 유리창 너머를 기웃거렸다. 언제 눈을 헤집고 나타날지 모르는 갈색 코트의 남자를 기다리며.

수필

활주로 끝, 마음의 길

중고등부 **우수상** 이지예

어린 시절부터 저는 하늘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자라왔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동차나 기차로 여행을 떠날 때, 제 기억 속 여행의 시작은 언제나 활주로 위에 서 있는 은빛 비행기에서부터였죠. 공항 특유의 매캐하면서도 달콤한 냄새, 청소용 세제와 커피 향이 섞인 공기, 끝없이 반짝이는 유리창 너머로 바쁘게 움직이는 주황빛 안전 조끼를 입은 직원들의 발걸음, 짐을 나르는 카트의 철컥거리는 소리, 수많은 여행자들의 낮은 목소리와 수군거림, 안내 방송과 기계음,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까지, 그 모든 소리가 서로 얽히며 만들어내는 공항 풍경은 마치 하루를 시작하는 도시의 울림처럼 제 마음을 설레게 했죠. 그 안에서 저는 숨을 고르고, 눈을 크게 뜨고, 온몸의 감각을 열어, 하늘과 사람, 그리고 여행의 세계가 주는 묘한 긴장과 설렘을 느꼈어요. “오늘은 하늘을 진짜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겠지?” 저는 엄마에게 작은 손을 내밀며 속삭였어요. “응,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함께 보자.”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꼭 끌어안아 주셨고, 저는 그 순간 설렘과 긴장감이동시에 마음속에 번지는 걸 느꼈죠. 공항의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짐을 끄는 바퀴 소리, 안내 방송의 기계음과 사람 목소리가 뒤섞인 공간은 마치 한 편의 무대극 같았고, 그 안에서 저는 주인공처럼 느껴졌죠. 비행기와 공항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은 너무나 순수하고 우스꽝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일곱 살 때 처음 비행기를 탔죠. 아버지께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비행기에 탈 때는 신발을 벗어야 하는 거야”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을 비행기의 규칙처럼 굳게 믿었어요. 탑승구 앞에서 당당하게 신발을 벗고 서 있는 제 작은 발가락이 차갑게 공항 바닥에 닿는 순간, 옆에 계시던 승무원분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리셨고, 앞좌석에서 대기하던 승객분들까지 소리를 내며 웃으셨어요. “어머, 귀여워요! 신발 벗고 타는 아이는 처음 봤네요.” 승무원분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제 등을 토닥여주셨죠. “앗, 제가 규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당당하게 대답하자, 얼굴은 금세 자신감이 가득 차올랐어요. 그런 제 말에 아빠께서는 “하하, 규칙은 다음부터 신발 신고 타는 거란다.” 라는 말씀과 함께 살짝 웃으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

죠. 그 순간, 저는 잠시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작은 발가락 하나, 신발 한 켤레가 이렇게 큰 웃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여행자가 된 듯한 기분도 들었죠. 어린 시절의 저에게는, 이 순간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하늘로 향하는 길에서 처음 배운 교훈이었어요. 항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거대한 연결고리라는 것을 깨달았죠. 작은 웃음 하나와 배려가 여행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승무원분들이 보여준 따뜻함과 유머는, 어린 마음속에 하늘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처럼 자리 잡았죠. 시간이 흐르고, 조금 자란 저는 또 다른 비행을 경험했어요. 필리핀으로 향하는 밤비행기였죠. 어린아이에게 밤이라는 시간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낯선 세계였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검은 하늘은 끝없이 깊었고, 점점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은 별처럼 흩어졌어요. 하지만 설렘도 잠시, 좁은 좌석에 오래 앉아 있으니 몸은 금세 지치기 시작했죠. “엄마, 아직도 안 가요?” 저는 지루함에 투덜거리며 물었죠. “조금만 참자, 곧 도착할 거야. 우리가 하늘 위에서 얼마나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지 기다려보자.” 엄마가 부드럽게 손을 잡아주었지만, 몸은 여전히 피곤했고 마음은 답답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 구름은 마치 솜뭉치처럼 둥둥 떠 있었고, 그 사이로 멀리 빛나는 도시의 불빛이 점점 사라지며 하늘 속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보여 더 공허하고 긴장된 느낌이 들었죠. 그때 승무원 한 분이 다가와 능숙하게 종이로 작은 강아지를 만들어 제 손에 쥐어 주셨어요. “이 친구가 오늘 밤 옆자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예요.” “와, 진짜요?” 제가 눈을 반짝이며 물으니, 승무원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오늘 네 친구가 되어줄 거란다. 피곤하면 이 친구에게 얘기해도 좋아.” 종이 강아지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누군가 제 피곤과 지루함을 읽고 건넨 따스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저는 웃음을 터뜨렸고, 그 작은 배려 하나가 좁은 기내의 공기를 환하게 만들었어요. 기체가 천천히 어둠 속 구름 사이를 지나며, 창밖으로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과 별빛이 풍선 강아지의 그림자를 기나긴 좌석 바닥 위에 드리우는 장면은 마치 작은 마법처럼 느껴졌죠. 그 순간, 비행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따스함을 담아내는 작은 세상임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하늘은 언제나 평온하지 않았어요. 착륙 직전, 갑작스러운 난기류로 기체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어린 저는 의자 팔걸이를 꼭 움켜쥐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창밖의 불빛이 어지럽게 흔들리고, 옆자리의 승객들도 긴장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제 심장은 쿵쾅거리며, ‘괜찮겠지, 괜찮겠지’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모두 안전합니다. 좌석벨트를 꼭 매주세요.” 기장님의 안내방송이 들려오자, 어린 마음에도 닻처럼 안정감이 스며들었어요. 승무원들은 신속하게 객실을 점검하며 두려움에 떨던 승객들의 어깨를 토닥였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두려움 속에서도 누군가의 차분한 태도와 헌신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를 배웠어요. 흔들리는 기체 속에서도, 작은 말 한마디와 배려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드는지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죠. 비행기가 활주로에 안전하게 내려앉은 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감사 인사를 꼭 전해야겠다.' 필리핀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린 저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몸으로 승무원과 기장분들을 찾아 눈을 맞추고 수줍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승무원, 가장분들은 잠시 놀란 듯 저를 바라보다가 금세 따뜻한 미소로 손을 흔드셨어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이 따스함과 감동이 스며들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어보다 마음을 전하는 작은 제스처가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를, 저는 그때 처음 느꼈어요. 돌아오는 길, 공항의 창문 너머 활주로에 서 있던 직원들이 양손을 높이 흔들며 작별 인사를 건네던 순간도 잊을 수 없어요. 어린 시절의 저는 그 손짓이 마치 나만을 위한 배웅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그 모습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여정을 존중하고, 그 한 사람의 안전을 바라는 진심 어린 인사였음을 깨달았어요. 떠나는 이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 남는 이는 그 길이 안전하기를 바라며 손을 흔드는 것이죠. 저는 그 따스한 손짓 속에서 하늘길을 지켜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어요. 손을 흔드는 순간에도 마음으로 전하는 배려와 온기가 느껴졌죠. 이 모든 장면들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제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어요. 신발을 벗고 탔던 어린 시절의 순수한 웃음, 종이 강아지에 담긴 배려의 온기,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기장분들과 승무원분들의 헌신, 그리고 창문 너머 마지막까지 이어진 작별 인사. 그 속에서 저는 항공과 사람이 만나는 진짜 의미를 보았죠. 하늘을 나는 거대한 금속의 날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 숨 쉬는 사람들의 마음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저는 언젠가 이 기억들을 품고 또 다른 여정을 떠날 거예요. 하지만 어떤 여행을 하더라도 제 마음속에서 항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다리를 건너며, 누군가의 삶 속에서 작은 웃음과 위로, 그리고 따스한 손짓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언제나 사람과 마음을 이어주는 여행을 이어갈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작은 배려와 진심 어린 마음이 만들어내는 기적들을 계속 목격하고 느끼며 살아갈 거예요.

소설

하늘을 잇는 보이지 않는 끈

중고등부 **우수상** 장주혁

새벽 3시 40분, 인천국제공항은 거대한 철새가 꿈틀거리듯 조용한 박동을 시작하고 있었다. 활주로는 짙은 어둠 속에 깊이 잠겨 있었다. 그 위로 미세한 유도로등만이, 마치 길 잃은 영혼을 인도하려는 듯,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얼어붙은 콘크리트 위로는 뼛속까지 스미는 초겨울 새벽 공기가 날카롭게 들이쳤지만 거대한 격납고 안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그곳은 엔진 오일의 쿰쿰한 냄새와 금속 특유의 비릿함, 밤샘 작업자들의 뜨거운 열기가 뒤섞여 묘한 활기로 가득한 공간이었다. 이곳이야말로 하늘과 땅을 잇는, 살아있는 심장부임을 온몸으로 말해주는 듯했다. 맹렬하게 돌아가는 엔진 소리는 아직 들리지 않았지만, 기계들의 숨소리가 그 자체로 생명처럼 울려 퍼졌다.

수십 년간 항공기 옆에 붙어 살며 몸으로 익힌 베테랑 항공정비사 이준은 육중한 보잉 747 여객기 'JAHS2216'의 거대한 날개 아래서 손전등을 비춰가며 랜딩기어의 유압 라인을 꼼꼼히 살폈다. 굵은 팔뚝에 맺힌 땀방울이 그의 고된 밤샘 작업을 증명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항공기와의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다. 유치원 시절, 아버지를 따라 처음 갔던 공군 기지의 에어쇼에서 거대한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하늘로 치솟던 그 순간, 그는 전율했다. "저런 괴물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그 의문은 어린 가슴에 깊이 박혔고, 그는 그때부터 비행기의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비도구 그림을 그리며 성장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항공 관련 전문대학에 진학했으며, 주경야독하며 꿈에 그리던 항공정비사가 되었다. 작은 전자 제품 하나도 해체하고 조립하길 즐겼던 그는, 자신에게 항공기는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생명체이자 자신과 닮은 영혼을 가진 존재였다고 확신했다.

그는 고글 위로 흐르는 땀을 훔치며 엔진 정비일지에 빈틈없이 기록을 이어나갔다. 그의 등 뒤에서는 흰머리가 성성한 베테랑 정비사이자 그의 오랜 멘토인 최 반장이 엔진 덮개를 다시 잠그며 철컥, 하는 둔탁하고도 확실한 소리를 냈다. 마치 하늘과의 묵언의 약속을 다지듯 말이다.

"준아, 이젠 좀 쉬면서 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최 반장의 목소리에는 투박하지만 깊은 걱정이 배어 있었다. 그는 준이 지난 몇 년간 자신을 얼마나 몰아붙여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준은 랜딩 기어의 바퀴 하나하나를 다시 어루만지며 대답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예민하게 살아 있었다.

"반장님. 오늘은 파리행 JAHS2216편입니다. 장거리 비행인 만큼 한 번 더 확인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사실, 파리라는 지명은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정확히 5년 전, 그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유일한 혈육이자, 하늘을 사랑했던 어린 동생, 은별이가 프랑스 항공학교에 합격했던 날, 꿈에 부풀어 파리로 떠났던 마지막 비행기가 바로 파리행이었다.

"오빠, 나 파일럿 돼서 오빠가 정비한 비행기 몰 거야!"

어린 은별이의 맑은 음성은 아직도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러나 은별이는 이륙한 지 몇 분 만에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향했다. 그때의 충격은 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는 그 후, 단 하나의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완벽주의자가 되었다. 그는 그의 삶을 오직 항공기 정비에만 바쳤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격납고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의 완벽주의는 타인의 눈에는 때로는 과민하고 집착적으로 보였지만, 그에게는 하늘이 다시는 누구에게서도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약속이자 맹세였다. 그는 고장 난 비행기를 보면 동생의 모습을, 무사히 이륙하는 비행기를 보면 자신의 약속을 떠올렸다. '단 한 번도 실패해선 안 돼. 단 한 번도.'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내면의 외침은 누구보다 강렬했다. 밤마다 찾아오는 동생의 비명 소리는 그를 잠 못 들게 했고, 그의 눈에는 늘 피로가 서려 있었다.

같은 시각,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 내 승무원 브리핑 룸. 길고 잦은 비행에도 여전히 지치지 않는 듯한 서른을 앞둔 객실 승무원 박지은은 선임 승무원의 브리핑을 들으며 정신없이 개인 물품을 점검했다. 그녀의 몸에 딱 맞는 승무원복은 그녀의 당당한 태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지은에게 승무원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어릴 적, 해외여행에서 처음 만난 승무원의 우아하고 친절한 모습에 매료되어 나도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꾸었다. 고등학교 시절, 외국어 능력 향상에 매진했고, 대학에서 서비스 관련 전공을 하며 승무원 동아리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활동했다. 수많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기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한 잔, 담요 한 장에도 승객을 향한 마음을 담았다. 그리고 마침내 날개를 달고 꿈을 이뤘을 때, 그녀는 세상 전부를 가진 듯 행복했다. 그녀는 승무원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려 노력했다. 기내 안전 교육은 물론, 심폐소생술과 응급 처치 교육은 물론, 수화까지 배웠다. 비행의 고단함 속에서도 그녀는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때로는 위기에서 벗어날 희망을 준다고 믿었다.

"...그리고 오늘 JAHS2216편은 만석이고, 파리 현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난기류 구간이 예상됩니다. 모두 긴장 풀지 마시고."

선임의 말에 지은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다. 난기류. 그녀의 머릿속에 잊히지 않는 장면이 떠올랐다. 1년 전, 심한 난기류 속에서 한 승객이 심정지를 일으켰고, 그녀는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끝내 그 승객을 살리지 못했다. 차가워지던 그 승객의 손,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승객 가족의 절망적인 눈빛은 트라우마가 되어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다. 그때의 무력했던 죄책감은 아직도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더 능숙했더라면…' 밤마다 그 승객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녀는 그때의 무력함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완벽해지려 노력했다. 퇴근 후에도 비상 처치 매뉴얼을 외우고, 기내 방송 연습을 반복했다. 완벽한 미소 뒤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자기혐오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승객들에게는 언제나 완벽하고 친절한 미소만을 보여야 했다. 이것이 그녀의 일상이었고, 그녀가 선택한 책임감이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단 한 명이라도 더 지켜낼 거라며 스스로 다짐하였다.

공항의 심장부, 관제탑. 지상으로부터 60미터 높이에 위치한 유리창 너머로 드넓은 활주로가 한눈에 들어왔다. 마흔을 넘긴 베테랑 관제사 김민준은 스크린에 빼곡히 표시된 비행기 심볼들을 응시하며 쉴 새 없이 무전을 주고받았다. 그의 손에는 통신 헤드셋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어릴 적부터 과학 잡지를 탐독하며 우주선과 항공기에 열광했던 그는, 낡은 세계 지도 위에서 나만의 항로를 그려보는 것을 즐겼다. 비행기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인류의 꿈을 싣고 날아오르는 존재라 믿었다. 육군 항공 관제 부대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과 동시에 관제사 시험에 합격하며 그야말로 '하늘길'이 그의 삶의 무대가 되었다. 복잡한 계산과 빠른 판단을 요구하는 관제 업무는 그에게 천직이나 다름없었다. 마치 체스 경기처럼 수많은 수를 미리 읽고 예측해야 하는 그의 일은 늘 도전적이고 짜릿했다.

"인천 타워, HL216, 이륙 허가 요청합니다."

"HL216, 런웨이 33L, 이륙 허가, 굿데이."

그의 목소리는 절도 있고 명료했다. 수백 대의 비행기를 얽히지 않게 조율하며 안전하게 이착륙시키는 그의 지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는 하늘 위의 교통경찰이었다. 그러나 그 중요성과는 별개로 그의 무게는 늘 그를 짓눌렀다. 쏟아지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근무시간 때문에 집에 가면 아내와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여덟 살 아들에게 늘 무심한 가장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가족들은 이제 그를 비행기만 아는 아빠라며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 아들이 운동회에서 아빠 응원상을 받지 못했다고 울먹일 때, 민준은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다. 그날도 그는 예측 불가능한 항공 스케줄 때문에 불참했었다. 아내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그 마음을 표현할 줄 몰랐다.

'내가 이토록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군.' 그는 고독하게 헤드셋을 조여 맸다. 그의 눈에 맺힌 피로는 어제 새벽 퇴근길에 잠든 아들의 조그만 손을 떠올리게 했다. '내 아들, 내가 지켜줘야 할 또 다른 삶이지. 이 모든 비행이 결국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것.' 그는 보이지 않는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졌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때때로 그를 집어삼킬 듯 짓눌렀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라운지. 은퇴를 앞둔 쉰을 훌쩍 넘긴 초로의 인문학 교수 에릭은 파리행 JAHS2216 탑승을 기다리며 고대 철학 서적을 읽고 있었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수십 년간 고대 그리스 철학을 가르쳐온 그는 학회 참석 차 한국에 왔다가, 자신의 오랜 꿈인 '인류 문명의 유대'에 대한 다음 연구를 위해 다시 파리 소르본 대학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의 삶은 오직 지적인 탐구로 점철되어 있었다. 젊은 시절, 세상의 모든 현상을 이성과 논리로 설명하려 애썼고, 인간 존재의 본질을 파헤치는 데 열정을 쏟았다. 수많은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며 학자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의 삶은 늘 고요하고 이성적이었다. 세상의 지적 탐구 외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지적인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이따금씩 고향을 향한 알 수 없는 쓸쓸함이 스쳤다. 그에게 비행은 언제나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설렘, 지적인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행위였다. 비행 전 반드시 '혼자만의 명상 시간'을 가졌던 그는 창밖 활주로를 응시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거대한 비행기 아래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작은 그림자들, 끊임없이 오가는 조업 차량들. 이 모든 움직임이 하나의 비행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 숨겨진 노력의 크기를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편안한 여행을 돕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 여길 뿐이었다. 그는 오늘 자신에게 일어날 비범한 경험이, 평생 탐구해온 '인류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질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준은 JAHS2216의 엔진 정비 일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엔진 3번 라인, 미세 진동 확인. 특이사항 보고 및 조치 완료.' 그의 손길은 완벽했다. 하지만 정비실을 나서려는 순간, 그는 불현듯 섬뜩한 기시감을 느꼈다. 어둠 속,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엔진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는 환상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은별이가 속삭이는 듯한 환청이 들리는 것만 같았다. "오빠, 뭔가 이상해…."

"준아, 이제 출발해도 되겠어? 본사에서 난리다. 이 비행기가 뜨지 못하면 파리 공항의 다음 스케줄까지 다 꼬여."

최 반장의 목소리가 준을 현실로 불러들였다.

준은 랜딩 기어 앞에서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반장님, 엔진 3번 라인, 한 번 더 봐야겠습니다. 제 육감이 계속 불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최 반장의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스쳤다. "아니, 자네가 직접 다 확인했잖아. 이륙 시간 15분 전이

라고. 본사에서는 비상 착륙 훈련 때문에 더 이상 지연은 없다고 엄포를 놓았어. 자칫하면 자네 목까지 날아갈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마저 묻어났다.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육안으로는 이상 없지만, 이건 분명 뭔가 있습니다. 제 경험을 믿으세요. 동생에게 맹세한 하늘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놓치면… 저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최 반장은 준의 비장한 표정을 보며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내 불찰이다. 비행이 우선이지. 다이렉트로 보고하고 연장 처리하마." 그의 표정에는 고참 정비사의 믿음과 신뢰가 가득했다. 최 반장은 이준의 그 강박적인 완벽주의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의 직감을 절대 무시할 수 없었다.

준은 빠르게 다시 엔진 3번 라인으로 돌아가 정비 패널을 열었다. 동생을 떠나보낸 뒤, 그는 어떤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의 완벽주의는 타인의 눈에는 때로는 과민하고 집착적으로 보였지만, 그에게는 살아남은 자의 비극이자 항공기를 지키는 그의 숭고한 방식이었다. 잠시 후 그는 결국 엔진의 아주 미세한 연료 펌프 압력 센서 이상을 발견했다. 일반적인 육안 점검이나 기기상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나사 풀림이었다. 이 정도로는 알람이 뜨지도 않았을 것이다. 육안 점검만으로는 불가능한 미세한 문제였다. 그는 즉시 부품 교체를 지시했고, 항공기는 예정보다 2시간 지연되었다.

본사 직원이 격납고로 달려와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벌게져 있었다. "이준 정비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륙 지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항공사 이미지 실추는 물론, 승객들의 막대한 피해 보상까지! 전부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당신 하나 때문에 항공사 전체가 흔들릴 판이라고! 지금 당장 비행기 이륙시켜요!" 그의 고함은 격납고 안에 메아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준의 심장을 갉아먹는 듯했다.

준은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로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책임은 제가 집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 비행기를 이대로 보내는 것보다는 지금 2시간 지연시키는 것이 훨씬 큰 책임을 지키는 일입니다. 승객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책임은 없습니다. 그 어떤 피해 보상보다 소중한 것이 사람의 목숨입니다.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본사 직원은 그의 눈빛에 압도되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준의 눈빛에서 '나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굳건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파도가 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잃지 않았다.

박지은은 이륙 지연 소식에 기내에서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JAHS2216 기내에서는 벌써부터 승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시계가 보여지고, "도대체 언제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파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요!" "시간도 없는데! 당신들 서비스가 이래서야 원!" 같은 불평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연신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승객들의 불만을 한 겹 얇게 감싸는 듯했다.

"고객님, 기술적인 문제로 잠시 이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녀는 매뉴얼대로 완벽하게 대처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이래서 내 월급 받는 거지 뭐. 완벽해야지. 한 치의 실수도 없어야지.' 지루한 기다림 끝에 비행기가 드디어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아올랐을 때,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장장 12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그녀의 업무는 더욱 복잡해졌다. 한 승객은 특별 기내식 서비스 시간을 놓쳤다고 화를 냈고, 다른 승객은 담요가 부족하다며 재촉했다.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아도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난 프로니까. 나는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녀는 승객들의 온갖 요구를 들어주며 자신과 현실 사이에 두꺼운 벽을 쌓아 올렸다.

옆에 있던 막내 후배 승무원이 울상을 지으며 속삭였다. "선배님, 저 승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너무 화가 나요. 저는 아직 이런 일이 너무 힘드네요." 후배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지은은 살며시 후배의 어깨를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그분들도 어딘가에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불안해서 그런 거야. 비행 중에는 다들 평소보다 예민해지기 마련이야. 이해해 줘야 해. 이런 상황도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일이야. 힘들어도, 승객들에게는 우리가 마지막 보루니까. 우리가 웃으면 승객들도 안심하게 돼." 그녀의 말 속에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고단한 비행의 무게를 홀로 감당해 온 그녀의 경험이 녹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후배는 그녀의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다잡았다. 그녀의 표정은 결연했다.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내가 쓰러지면 이 사람들이 불안해할 테니까'

베테랑 김민준 관제탑은 폭풍 전야였다. 갑작스러운 짙은 안개가 공항을 뒤덮으며 가시거리가 제로에 가까워진 것이다. 관제사의 모니터에는 평소보다 두 배는 많은 항공기들이 오렌지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륙 대기 중인 항공기와 착륙을 기다리는 항공기들의 무전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그의 심박수는 최고치에 달해 있었다.

"인천 타워, HL216, 시정 불량. 착륙 재시도해도 될까요? 연료 부족합니다! 승객들이 불안해해요!"

"HL216, 절대 불가. 서클링하며 재지시 대기! 관제사 지시에 따를 것!" 민준은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민준은 숨도 쉬지 않고 스크린의 항공기들을 주시했다. 동시다발적으로 밀려드는 이착륙 요청과

회항 지시. 그의 손끝 하나, 목소리 하나에 공항 전체의 흐름이 달렸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날 아침 아내가 "오늘은 일찍 들어와서 애들 숙제 좀 봐줘."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제 아들 생일 케이크를 함께 자르는 것은 불가능할 터였다. '미안하다. 또 늦을 것 같아. 아니, 어쩌면 이번엔 정말 못 갈지도.' 그는 마음속으로 가족에게 사과하며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했다. '무조건 안전하게, 무조건.'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비행기들의 경로와 교신음에 집중되어 있었다.

옆에 있던 경험 적은 젊은 신입 관제사가 그의 비상한 능력에 감탄한 듯 그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김 선배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게… 제게는 마치 수십 개의 줄을 동시에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동시에 체스 여러 판을 두는 것 같아요. 선배님은 천재이신 것 같습니다."

민준은 그 질문에 대답할 여유조차 없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레이더와 무전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에게는 이 비행기를 무사히 착륙시키는 것이 세상의 전부였다. 그의 입술은 바짝 말랐지만, 단호한 목소리만이 관제탑을 울렸다.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게 할 수 없다.' 이토록 지극한 고독과 고뇌가 필요한 직업이 또 있을까. 그는 외롭게 자신의 책무를 다하고 있었다. 그의 관제 지시가 하늘에 보이지 않는 안전한 길을 만들고 있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은퇴를 앞둔 쉰을 훌쩍 넘긴 초로의 인문학 교수 에릭은 라운지에서 이륙 지연 안내 방송을 들으며 평정심을 유지했다. '최소한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겠지.'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의 복잡한 움직임을 관찰했다. 비행기들이 활주로를 오가고, 수많은 조업 차량들이 그 주위를 맴돌았다. 인간의 지성과 기술이 빚어낸 거대한 유기체. 그 일부분이 된다는 것은 늘 흥미로운 일이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떠오를 때, 그는 이 거대한 철새가 품은 생명의 무게와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문득 떠올렸다. 자신이 비록 승객의 위치에 불과하지만, 이 여행의 매 순간이 곧 새로운 깨달음의 과정이 될 것이라는 예감에 설레었다. 그는 자신이 한국에 올 때의 흥분감과는 또 다른, 파리로 돌아가는 길에 대한 기대감에 책장을 넘겼다. 그의 서재에 꽂힌 수많은 철학 서적들, 그 속에는 인류가 던져온 수많은 질문과 답이 있었지만, 정작 삶의 가장 본질적인 연결고리는 놓치고 있었음을 그는 알지 못했다.

창밖은 여전히 푸른 하늘과 흰 구름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지루함마저 느껴지던 장거리 비행은 기내식 서비스가 한창일 때 갑자기 돌변했다.

"으읍… 으읍… 으윽!"

JAHS2216 기내, 에릭 교수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를 내며 의자에서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다. 손은 파르르 떨렸다. 옆자리

승객은 경악한 얼굴로 벌떡 일어섰다.

"승무원! 여기 환자가 발생했어요! 위급해요! 제발 좀 빨리 와주세요!" 옆자리 승객의 다급한 외침에 지은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에릭 교수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의 심장이 발이 멎는 듯했지만, 훈련받은 몸은 먼저 움직였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프로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메디컬 키트 가져와! 산소통 바로 연결해!" 그녀는 큰 소리로 동료 승무원에게 지시하며 에릭 교수를 통로에 눕혔다. "교수님, 저 보세요. 숨 쉬세요. 천천히… 괜찮으실 겁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교수의 손을 잡아주며 다독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절박함과 간절함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기내 방송을 했다.

"승객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기내 응급 환자가 발생하여 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승객분들 중 의료 지식이 있으신 분께서는 승무원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멀지 않은 좌석에서 한 승객이 손을 들었다. "제가 의사입니다!" 지은은 재빨리 의사를 안내하고, 그와 함께 비상 의료 매뉴얼에 따라 응급 처치를 시작했다. 의사는 신속하게 응급 처치 도구를 꺼내 들었다. 기내에서는 승객들의 불안한 시선과 웅성거림이 점차 커져갔다. 밀폐된 공간에서, 수만 피트 상공 위에서 벌어지는 숨 막히는 사투였다. 지은은 지난번 실패를 떠올리며 더욱 침착하려고 애썼다. 그녀의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들었지만,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매뉴얼대로 움직였다. 그녀의 눈은 간절함으로 빛났다. '이번에는 반드시 살릴 거야. 반드시.' 그녀의 맹세는 하늘 위에서 메아리쳤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트라우마에 갇힌 승무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생명을 구하는 임무에 전념하는, 강인한 전사였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기내에서 비상 보고가 들어오자 민준의 관제탑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인천 타워, JAHS2216, 기내 환자 발생. 긴급 착륙 요청합니다! 환자 상태 위중! 빠른 처치가 필요합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파리행 비행기 JAHS2216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비상 상황 처리 매뉴얼이 스쳐 지나갔다. "JAHS2216, 상황은? 환자 상태는? 지금 당장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는 헤드셋을 꽉 쥐고 거칠게 되물었다. 통신 너머에서 지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호흡 곤란 증세가 심합니다! 산소 공급 중이지만… 빠른 착륙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의식이 점차 흐려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인천 타워, 모든 항로 비상 착륙 모드 전환! JAHS2216, 런웨이 33L 클리어! 모든 비행기 경로 조정! 비상 의료팀 활주로 대기 지시 완료! 즉시 보고하라! 항공기는 이제부터 인천 타워의 지시만 따른다!"

민준은 숨 막히는 압박감 속에서,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지시를 내렸다. 그의 손이 레이더 스크린 위를 빠르게 스쳤다. 모든 항공기의 동선이 바뀌고, 비상 착륙 활주로가 열렸다. 그는 묵직한 책임감을 느끼며 땀을 비 오듯 흘렸다.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수백 명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고 하늘을 나는 수십억 원짜리 항공기까지, 이 모든 것이 그의 손끝에 달린 순간이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옆에 있던 젊은 신입 관제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김 선배님,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마치 비행기가 선배님 손 위에서 춤추는 것 같습니다. 로봇처럼 빠르고 정확하세요. 정말 경이롭습니다."

민준은 그 질문에 대답할 여유조차 없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레이더와 무전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에게는 이 비행기를 무사히 착륙시키는 것이 세상의 전부였다. 그의 입술은 바짝 말랐지만, 단호한 목소리만이 관제탑을 울렸다.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게 할 수 없다. 내 아들과 아내에게 떳떳해야 한다.' 이토록 지극한 고독과 고뇌가 필요한 직업이 또 있을까. 그의 지시가 전파를 타고 하늘을 가르며 생명을 지키고 있었다.

이준은 이미 퇴근했지만, 비상 착륙 소식을 듣고 다시 공항으로 달려왔다. 그의 낡은 차는 굉음을 내며 활주로 옆 격납고로 향했다. 그가 오전에 점검했던 바로 그 파리행 JAHS2216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동생의 모습이 떠올랐다. 심장이 거칠게 요동쳤다. '만약 그때 내가… 아니야! 이번엔 막을 수 있어!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은별아, 지켜봐 줘.' 그는 이를 악물었다.

"비상 착륙 항공기 JAHS2216 점검 준비! 의료팀 최단거리 확보! 사고 대비 차량 전원 대기! 유도등 추가 설치!"

그는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이며 다른 정비팀과 함께 활주로로 향했다. 긴급 차량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격납고에서 쏟아져 나왔다. 준은 비상 장비를 재확인하고, 의료팀과 소방차들이 이미 활주로 주변에 대기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의 손에 쥐어진 랜턴 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만약 엔진에 문제라도 발생하면… 내가 다시 봐야 한다. 내가 책임져야 해. JAHS2216은 내가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의 눈빛은 맹렬히 타올랐다. 그는 동생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을 오직 완벽한 정비로 승화시켜 왔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다.

최 반장이 그의 곁으로 달려와 소리쳤다. "준아, 자네 판단이 옳았어! 엔진 내부 센서에서 미세한 과열 흔적이 발견되었어! 만약 JAHS2216이 그대로 파리로 갔으면… 비행 중에 큰일 날 뻔했어! 자네 덕분에 대형 사고를 막았네! 대단한 직감이야! 정말 고마워!" 최 반장의 목소리에는 경악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그의 눈에는 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가득했다.

준은 최 반장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이 비행기를 무사히 착륙시키고, 환자를 구하는 겁니다. 모두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냉철했지만, 그 속에는 타오르는 열정이 있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다음 조치를 준비했다. 거대한 JAHS2216 비행기가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손은 이미 필요한 장비를 찾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비상 활주로를 향해 흔들림이 없었다.

JAHS2216은 마침내 활주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기내에서는 에릭 교수가 의식이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멀리서 들려오는 기내 방송과 지은의 침착한 목소리에 의지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아득한 꿈결 같았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고 활주로에 가까워지는 것을 희미하게 느끼는 순간, 기내는 순간적인 진동과 함께 격렬한 소음으로 가득 찼다. 창밖으로 소방차의 붉은 불빛이 빠르게 번쩍였다. 비상 착륙등의 섬광이 비행기 안을 불안하게 비췄다. 비행기의 모든 부품들이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착륙합니다! 자세 잡으세요! 브레이스, 브레이스!"

지은의 외침과 함께 JAHS2216은 강하게 바닥에 착지했다. 굉음과 충격이 기내를 뒤흔들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안도의 소리이기도 했다. 착륙 후, 승객들의 안도감에 섞인 탄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은은 간신히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섰다. 그녀의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비록 쓰러져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어렸다. 그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크게 숨을 내쉬었다.

굉음과 함께 활주로에 무사히 착지한 JAHS2216.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에릭 교수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얼굴에 생기가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의료팀이 신속하게 기내로 진입하여 교수를 들것에 싣고 움직였다. 의료진의 빠른 손놀림은 그녀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었다.

"무사히 착륙했어요, 교수님… 이제 병원이에요…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지은은 벅차오르는 감정에 울먹였다.

희미하게 눈을 뜬 에릭 교수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났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저를 살렸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했다. 지은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주저앉았다. 옆에 서 있던 동료 승무원이 그녀를 부축하며 말했다. "지은 씨, 정말 잘했어요. 교수님, 분명히 괜찮으실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그녀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다. '이번에는… 해냈어. 우리는 기적을 만들었어. 다시는 무력하지 않아.' 그녀의 가슴 속에는 비행을 넘어선, 인간적인 승리의 기쁨이 파도쳤다. 잊히지 않던 그 승객의 얼굴이 환하게 미소 짓는 듯했다. 그녀의 승무원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활주로 옆, 이준은 비상 착륙한 JAHS2216의 엔진과 랜딩 기어를 다시 한번 살폈다. 그의 눈썰미와 직감으로 인해 이 항공기가 무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그의 마음은 잠시 흔들렸다.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의 예상이 완벽하게 들어맞은 것이다. 그는 의료팀이 에릭 교수를 앰뷸런스에 싣고 떠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내 동생도… 이렇게 무사할 수 있었다면… 적어도 내가 손쓸 수 있었다면.' 그의 가슴 한편이 저릿했지만, 동시에 다른 이의 생명을 지켜냈다는 작은 자부심이 솟아올랐다. 그는 민준의 관제탑을 올려다보았다. 민준 또한 JAHS2216이 무사히 착륙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헤드셋을 벗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 모두가 이 비극을 막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준은 그날의 사투를 지켜본 최 반장과 눈을 마주쳤다. 최 반장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이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그에게는 어떤 찬사보다 값진 인정이었다. 이준의 얼굴에 희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마음에 비로소 작은 평화가 찾아들었다. 그는 JAHS2216이라는 이름에 작은 희망을 보았다.

민준은 헤드셋을 벗자마자 책상에 털썩 주저앉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마치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듯했다. 그의 셔츠는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옆자리 동료 관제사가 어깨를 두드렸다.

"선배님,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시정 불량 속에서 그 정도 관제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교수가 응급 처치받고 바로 병원 갔답니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뉴스에 이미 비상 착륙 소식이 속보로 뜨고 있어요. JAHS2216, 무사히 잘 마무리 됐다고요! 선배님이 해냈어요!"

민준은 동료의 칭찬에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모두 무사했어. JAHS2216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이….' 그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늦을 것이라고 말했고, 아내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알았어. 오늘은 애들한테 아빠가 영웅이라고 말해줄게. 아들이 아빠가 너무 멋있대. 빨리 보고 싶대요."라고 대답했다. 아들의 목소리는 아직 잠에 취해 있었지만, 아빠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민준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가 지켜낸 것은 단순히 항공기가 아니었다. 그 안에 실린 수백 명의 삶, 그리고 그 너머의 수많은 가족들이었다. 그의 고독한 일상 속에서, 그는 이 비행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인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손에 땀이 흥건했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하게 데워지는 듯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책임감이 잠시나마 달콤한 보람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에릭 교수는 병상에 누워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그의 눈에는 지난 몇 시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눈을 감자 자신을 살린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지은 승무원의 침착하고도 따뜻한 미소였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자신의 비행을 위해 애썼을 정비사, 관제사들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는 이번 비행이 자신에게 단순한 '목적지'가 아닌, '삶의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주었음을 직감했다. 평생을 철학적 탐구에 바쳐왔던 그였지만, 인간의 삶이 이토록 많은 이들의 헌신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내 존재 자체가 타인의 보이지 않는 노력 위에 세워져 있었구나. 나는 그들의 노력 덕분에 살아났구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구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구나. 이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보이지 않는 연결망 덕분이었어.' 그의 눈에 맺힌 작은 눈물은 깊은 감사의 표현이었다. 그는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거대한 삶의 진실을 마주한 깨달음의 감격에 젖었다. 이 경험은 그의 다음 저작 '연결된 존재의 본질'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다.

며칠 후, 인천국제공항은 다시 평온한 활기로 가득했다. 이른 아침, 승객들의 발소리가 쉼 없이 이어졌다. 터미널 곳곳에는 지난 비상 착륙에 대한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무사히 상황이 해결된 것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날의 긴박했던 JAHS2216의 비행은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일하던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과 깊은 감동을 남겼다. 그들의 일상에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깊이가 더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이준은 늘 그랬듯 항공기 아래에서 땀 흘리며 점검하고 있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섬세했고,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최 반장이 그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잔에서 쌉쌀한 향이 피어올랐다.

"준아, 지난번 그 JAHS2216 엔진 센서 말이다. 재점검팀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대. 연료 펌프에 아주 미세한 문제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야. 자칫하면 공중 폭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더군. 정말 아찔했어. 조금만 늦었으면 비행 중에 엔진 문제가 터질 뻔했다더군. 자네 직감과 끈기 덕분에 대형 사고를 막은 거야. 자네는 정말 이 하늘이 보낸 선물이야. 자네 동생 은별이도 분명 자네를 보며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야. 잘했다." 최 반장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준은 아무 말 없이 최 반장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물기가 어렸다. 동생의 사고 이후,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의 짐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듯했다. 그는 이제 하늘을 증오하지 않았다. 그는 동생을 잃은 고통을 통해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더 큰 가치를 발견했다. '내 동생은 비록 하늘에서 꺾였지만, 나는 이 하늘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어. 내 동생의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이 하늘에서 완성하는 거야.' 그의 다짐은 확고했다. 그는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이며 다시 한번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 그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와 자부심이 떠올랐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고독한

정비사가 아니었다. 하늘이 준 책임감과 사명감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그는 JAHS2216이라는 이름에 자신의 맹세와 동생의 꿈을 담아냈다.

지은은 파리행 다음 비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승무원 대기실에서 동료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우아해 보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진정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지은 씨, 저번 교수님 편지 말인데요…" 선임 승무원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선임 승무원의 얼굴에는 감동이 서려 있었다.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사무장님이 전체 공유했대요. 우리 모두의 노력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고맙다고요. 다 지은 씨 덕분이에요. 당신의 침착함이 그분의 생명을 살렸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덕분에 우리 팀도 최고의 평가를 받았어요."

지은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에릭 교수가 보낸 감사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박지은 승무원, 당신의 침착함과 용기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비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이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미소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이자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서비스는 더욱 깊고 따뜻해졌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프로를 넘어, 승객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진정한 하늘의 수호자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웠고, 그녀의 눈빛은 더욱 반짝였다. 그녀는 이제 어제의 무력감에 갇히지 않는, 진정한 '하늘의 별'이 되었다.

민준은 관제탑에서 야근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의 모니터에는 JAHS2216을 비롯한 수많은 비행기들이 점점이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잠에서 깬 이제 여덟 살이 된 아이가 아내의 휴대폰을 빌려 전화해 "아빠, JAHS2216 무사히 도착해서 다행이야! 아빠가 비행기 지켜줬지? 우리 아빠 최고!" 하고 물었을 때, 민준은 뭉클했다. 아들의 목소리는 아직 잠에 취해 있었지만, 아빠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아내에게 늦는다고 미안해할 필요가 없었다. 아내는 그에게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타주며 말했다. "여보, 당신 일 늘 존경스러웠지만, 이제 애들도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된 것 같아. 당신은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언제나 당신이 자랑스러워." 민준은 그제야 자신이 이토록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며, 가족 또한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사실에 가슴 벅차올랐다. 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불빛들, 그것은 그가 지켜야 할 무수한 생명들이자, 그에게 주어진 숭고한 책임이었다. 그날의 비행은 그의 가족에게도 새로운 의미의 사랑과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의 무전 속 단어 하나하나에는 이제 기계적인 정확성뿐 아니라, 삶의 무게와 보람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이준은 점검을 마친 항공기 JAHS2216이 활주로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다. 길게

늘어선 유도로등을 따라 묵묵히 나아가는 거대한 비행기는 마치 그의 동생의 꿈을 싣고 다시 비상하는 듯했다. 그는 희미하게 불이 들어온 기내 창문 안의 승객들을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노력 속에서 안전한 비행을 누리는지 알지 못할 터였다. 하지만 이준은 상관 없었다. 그의 임무는 그저 완벽한 비행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곧 JAHS2216은 힘찬 엔진 소리와 함께 거대한 동체가 지면을 박차고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 안에는 또 다른 희로애락을 지닌 승객들이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중이었다.

"날아라, 무사히…"

그의 입술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 나왔다. 저 하늘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꿈과 희망, 사랑,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땀과 헌신이 만들어내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끝없이 이륙하는 무대였다. 공항의 모든 이들은 오늘도 각자의 활주로 위에서, 서로를 알지 못해도 같은 목적을 향해 움직이며, 끝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서로의 삶에 작은 물결을 일으키며, 거대한 활주로를 따라 잊을 수 없는 감동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매일 기적과 같은 비행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주인공들이었다. 그들의 활주로는 끝없이 이어질 터였다.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들은 항상 그 자리에서, 서로를 믿고, 하늘과 땅을 잇는 이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 갈 것이었다. 그들의 헌신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처럼,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소설

비행 청소년

중고등부 **우수상** 황현승

창문은 늘 감옥 같았다.

지상으로 간신히 고개를 내민 반지하의 사각형. 세상과 나를 잇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나를 가장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단단한 벽이었다. 한낮의 태양은 건너편 빌라의 낡은 벽돌담에 먼저 걸려 산산이 부서졌고, 그 금빛 부스러기만이 창문 틈으로 간신히 흘러들었다. 그나마도 방범창 살의 격자무늬에 걸려 더 잘게 조각났다. 방 안으로 떨어진 빛은 더 이상 빛이라 부르기에는 민망했다. 수년간 쌓인 먼지와 뒤섞여 허공을 부유하는 미세한 알갱이, 혹은 희망의 시체처럼 보였다.

서진은 자주, 거의 무의식적인 습관처럼 그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창문 너머의 하늘은 분명 파란색이었지만, 언제나 일부분이었다. 온전한 하늘이 아닌, 누군가 일부러 잘라낸 파편. 그 네모난 파편 속에서는 바람의 흐름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구름 한 조각이 지나가는 데에도 한나절이 걸리는 듯했고, 그마저도 방범창 살에 걸려 소리 없이 잘려 나가는 듯했다. 그는 그 조각난 하늘을 오래도록 응시하다가 문득 생각하곤 했다. 어쩌면 내 미래도 저렇게 조각나 있는 건 아닐까. 왼쪽 위 모서리에서 조금, 오른쪽 아래에서 또 조금, 그렇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다 보면, 결국 남는 건 사방이 꽉 막힌 이 눅눅한 방구석뿐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들 때면, 보이지 않는 손이 목덜미를 서서히 조여 오는 듯한 갑갑함에 숨을 참아야 했다.

"아... 답답해."

턱을 괸 채 힘없이 내뱉은 말은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방 안의 축축하고 무거운 공기 속으로 가라앉았다.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다. 낡아서 시트지가 들뜬 MDF 책장과 벽 곳곳에 피어난 곰팡이 무늬, 오래된 콘센트와 느슨해진 커튼 고리, 그리고 겨울의 냉기를 이기지 못하고 모서리부터 일어나 버린 장판의 껍질만이 그의 넋두리를 묵묵히 삼켰다. 모든 사물이 제자리에서 서서히 썩어가며, 그와 함께 침묵하고 있었다.

책장에는 항공 잡지가 세월의 순서대로 꽂혀 있었다. 처음 비행기를 꿈꾸기 시작했던 중학생 시절의 것부터, 더 이상 사볼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된 작년의 것까지. 표지의 제트기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빛을 잃었고, 책의 모서리는 닳아 네모가 둥글게 마모되었다. 책 위,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그가 용돈을 모아 스스로 조립한 비행기 모형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듯 서 있었다. '하늘의 여왕'이라 불리던 보잉 747의 위엄 있는 동체, 우아한 곡선의 에어버스 A330, 소리의 벽을 뚫었던 콩코드의 길쭉한 코와 델타익, 심지어 프로펠러 시대의 전설이었던 DC-3의 굵직한 몸체까지. 조립할 당시에는 설명서의 페이지마다 연필로 표시를 해가며 시간을 잊고 몰두했지만, 지금은 모두 얇은 먼지의 이불을 뒤집어쓴 채 침묵하고 있었다. 기체에 붙인 데칼은 가장자리가 조금씩 들뜨기 시작했고, 한때 반짝이던 바퀴는 플라스틱 특유의 광택만 희미하게 남긴 채 멈춰 있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날지 못하는 꿈의 화석이었다.

맞은편 벽에는 세계 공항 지도가 붙어 있었다. 수많은 빨간 핀들이 빼곡히 박혀 있었는데, 꼼꼼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실제 취항 도시가 아닌, 막연히 '가고 싶은 곳'이었다. 핀과 핀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었다.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그었던 항로인데, 현실의 지도 위에서는 여전히 점과 점으로만 외롭게 남아 있었다. 밤이 되면 핀 머리의 빨간색이 창밖 가로등 불빛과 섞여 희미하게 반짝였고, 그 반짝임은 서진을 설레게 하는 동시에 기이하게도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저 작은 점 하나에 닿기 위해, 세상은 얼마나 많은 길을 만들어냈는가. 그런데 왜 내게는 길이 보이지 않는가.

바깥세상은 늘 시끄러웠다. 자동차 경적이 신경질적으로 크고 짧게 공간을 찢었고, 배달 오토바이의 배기음이 골목을 통째로 긁고 지나갔다. 늦은 밤이면 취객들의 이유 없는 웃음과 고성이 계단 통로를 타고 내려와 낡은 현관문 아래 틈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는 방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마치 깊은 물 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둔탁하고 흐릿해졌다. 세상은 저렇게 연료를 태우고, 바퀴를 굴리며, 쉴 새 없이 이륙하고 착륙하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서진은 바퀴가 부서진 동체처럼 이 방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다. 활주로 끝에서 영영 속도를 올리지 못하는 비행기. 그것이 지금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었다. 그 불씨에는 아주 오래된 기억이 기름처럼 깃들어 있었다. 초등학생 시절, 무뚝뚝했던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처음 가본 공항 전망대. 거대한 유리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활주로와 콘크리트의 선.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멀리서는 택싱하는 비행기들이 마치 거대한 은빛 곤충처럼 줄지어 움직였다. 이윽고 이륙을 위해 정지한 비행기의 엔진이 RPM을 최대로 올리며 굉음을 터뜨릴 때, 서진은 처음으로 이해했다. 소리에도 무게가 있다는 것을. 그 육중한 진동은 가슴뼈를 통해 척추로, 다시 발끝까지 내려갔고, 마치 오래된 엘리베이터가 한 층을 기어오르듯 그의 작은 몸을 천천히 들어 올리

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거대한 쇳덩어리가 바람을 움켜쥐고 지면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 어린 서진의 눈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 같은 것이 고였다. 그때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저 위로 올라갈 거야.'

그 다짐은 한동안 그의 삶의 방향타가 되어주었다. 항공 동아리, 서툰 영어 회화, 전공 서적 코너에서 몰래 읽던 항공역학 입문서, 그리고 수많은 시험 준비. 하지만 현실의 바람은 상상 속의 양력과 달랐다. 기울어버린 집안 형편, 감당할 수 없는 등록금, 채용 공고의 까마득한 자격 요건들, 그리고 합격자들의 화려한 스펙 표. '당신의 능력은 뛰어나지만, 안타깝게도...'로 시작하는 정중하게 포장된 불합격 메일들. 그는 점점 숨이 찼고, 반지하의 부족한 공기는 그의 심장을 조금씩 뭉개는 듯했다.

밤은, 역설적이게도, 그의 유일한 동맹이었다. 골목의 소음이 잦아들고 세상의 불필요한 움직임이 가라앉으면, 오히려 그는 자신이 살아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밤, 도저히 이 방의 공기를 더는 견딜 수 없겠다는 생각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외투를 걸쳤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조차 조용히 내고 싶은 마음에, 닳아빠진 운동화 끈도 차가운 시멘트 계단에 앉아 매었다.

찬 공기가 뺨을 때렸다. 그 차가움에는 날카로움보다 맑음이 먼저 있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깨끗하게 씻겨 나가는 것 같은 감각. 목에서부터 허파꽈리 맨 아래까지 시원하게 뚫리는 통로. 덕분에 그는 잠시나마 자신의 무게를 잊고 곧장 길을 따라 걸을 수 있었다. 새벽의 도시에는 낮과는 다른 종류의 모터 소리가 낮게 돌았다. 배달 오토바이는 간헐적으로 밤의 정적을 갈랐고, 멀리서 달려오는 택시의 헤드라이트가 낡은 담벼락에 긴 빛의 흐름을 남겼다 사라졌다. 산책 나온 노인과 눈을 마주치고 어색하게 목례를 나누었고, 편의점 앞 파라솔의 파란 조명이 골목 어귀를 깊은 바다처럼 푸르게 만들었다.

발길은 언제나처럼 시립 도서관으로 향했다. 24시간 열람실의 커다란 유리 벽은 짙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등대처럼 보였다. 서진에게 그 건물은 공항의 관제탑과 닮아 있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다보는 권위적인 건물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길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곳이라는 점에서. 삐걱이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종이 냄새와 묵은 먼지, 그리고 형광등의 나직한 진동이 한꺼번에 그의 감각을 스쳤다.

그에게는 정해진 자리가 있었다. 콘센트가 가까운 벽면, CCTV 사각지대까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동선에서 살짝 벗어난 구석. 의자는 오래 앉아도 허리가 덜 아팠고, 앞의 낡은 공용 모니터는 부팅할 때마다 노인의 기침처럼 "치르륵" 소리를 냈다. 서진은 자리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는 익숙한 동작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다. 오래된 로고가 천천히 사라지고 바탕화면이 나타나자, 그는 망설임 없이 준비해 둔 폴더를 열었다. 'Runway-Night.' 'Approach-Crosswind.' 'A380-Cockpit POV.' 파일 이름들만 보아도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다. 이것이 그

의 유일한 비행이었다.

첫 번째로 선택한 건 야간 이착륙 편집 영상이었다. 화면 속 활주로는 칠흑 같은 어둠의 배경 위에 반짝이는 점선으로 나타났다. 유도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 길을 안내했고, 중앙선은 아득한 소실점을 향해 길게 이어져 있었다. 카메라의 노출이 미세하게 조정되는 순간, 불빛들이 마치 잔잔한 수면 위로 떨어지는 별빛처럼 부드럽게 떨렸다. 서진은 소리를 약간 키웠다. 제트 엔진의 웅장한 소리는 싸구려 컴퓨터 스피커를 통과하며 실제보다 훨씬 얇고 가벼워지지만, 그 얇음마저도 그에겐 충분히 현실적인 위안이었다.

보잉 747이 출력을 최대로 올렸다. 거대한 기체가 마치 길고 검은 활주로를 통째로 먹어 치울 듯 맹렬하게 달렸다. 바퀴가 지면과 마찰하며 내는 낮은 비명이 사라지고, 육중한 동체가 미세하게 떠오르는 바로 그 순간, 서진은 무심코 손가락을 책상 위에서 살짝 들어 올렸다. 함께 날아오르는 듯한 기분. 그 순간이 왜 그토록 중독적인지 그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의 몸은 이미 그 중독을 아는 쪽으로 깊숙이 기울어 있었다.

"이야... 이게 진짜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화면 속 기체는 지상의 모든 경계와 국경을 비웃듯 검은 대기를 가르며 유려하게 솟아올랐다. 조종석을 푸르게 물들이는 계기판의 불빛들, 그리고 발아래로 빠르게 멀어지는 도시의 등불들. 그가 사는 도시의 층간 소음, 취업 공고의 높은 벽, 자기소개서의 막막한 문장들, 그리고 반지하의 눅눅한 절망감—그 모든 것들이 일시적으로 페이드아웃된다. 오로지 상승률과 고도, 속도와 방향이라는 순수한 숫자만이 남는다. 어떤 숫자들은, 꿈의 또 다른 표기법이었다.

서진에게 비행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편리함보다는, 같은 장소에 머물면서도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마법에 가까웠다. 고도가 바뀌면 시야가 바뀌고, 시야가 바뀌면 세상과 인간의 크기가 바뀐다. 그는 그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도시'가 아니라 '다른 높이'였다.

그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다. 착륙 영상이었다. 카메라는 활주로의 끝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는데, 접근하는 기체는 활주로를 향해 기묘하게 비스듬한 각도로 날아오고 있었다. 옆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나아가기 위해 동체를 살짝 틀어 균형을 잡는, 고도의 기술이었다. 영상 속 조종사는 지면에 닿기 직전, 그 찰나의 순간에 기체의 각도를 바로잡으며 바퀴를 활주로에 떨어뜨렸다. 타이어에서 '착!' 하는, 낮고 건조한 비명이 한 번 터져 나왔다. 아스팔트에 단단히 붙는 소리. 서진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수많은 변수와 치열한 계산, 그리고 인간의 감각이 마지막 순간에 단 하나의 점으로 완벽하게 수렴하는 느낌. 그 '붙는'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혼란스러운 요동이 멈추는 듯했다.

그는 더 오래 거기 앉아 영상을 바꾸고 또 바꾸었다. 런던 히드로, 싱가포르 창이, 도쿄 하네다, 도하 하마드,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인천. 공항들은 저마다 다른 빛의 색깔을 갖고 있었고, 활주로의 포장 상태도, 주변을 둘러싼 바다와 도시의 형상도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공통적이었다. 어둠을 뚫고 뻗어 나가는 빛의 선들이 길을 만들고 있다는 것. 그것은 마치 캄캄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확실하고 아름다운 합의처럼 보였다. '여기로 오라. 여기가 길이다.'

잠이 줄어든 새벽, 열람실은 더욱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두꺼운 책에 얼굴을 묻고 졸았고, 누군가는 텀블러의 뚜껑을 소음이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열어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창문이 없는 공간인데도 어쩐지 새벽 공기의 묵직한 무게가 실내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서진은 그 무게를 좋아했다. 무게가 있다는 건 방향이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무게는 언제나 아래로 끌어당기지만, 바로 그 저항이 있어야만 위로 솟아오르려는 의지가 성립하는 법이다.

그때였다.

나직하고, 온기 있는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스쳤다.

"비행기, 아주 좋아하나 보구나."

서진은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다. 반사적으로 모니터를 가리며 이어폰을 황급히 뺐다. 자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통로, 가장 깊은 열망을 들켜버린 듯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언제부터 옆에 와 앉아 있었는지 모를 백발의 노인이 희미한 미소를 띠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네? 아... 네, 그냥... 취미로 좋아해서요. 혹시 소리가 시끄러웠다면 죄송합니다."

"아니다. 나도 젊었을 적엔 저 소리가 세상 어떤 자장가보다 달콤했으니."

노인은 고개를 작게 끄덕이며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다. 그때 재생되고 있던 영상은 야간의 인천공항 착륙 영상이었다. 깊은 어둠, 촘촘히 박힌 유도등, 그리고 활주로의 식별 번호가 점점 커지며 눈앞으로 다가오는 바로 그 장면.

"저건 인천공항 3번 활주로군. 저 정도 고도에서 기체가 저렇게 기우뚱하는 걸 보니 측풍이 제법 부는 날이야. 잘 봐, 곧 조종사가 기수를 바로잡으면서 방향타를 아주 짧게 한 번 더 건드릴 게다. 자, 바로 지금... 그렇지. 살짝 왼쪽으로."

서진은 홀린 듯 그가 말한 대목에서 영상의 재생 속도를 낮추고 되감았다. 정말로, 노인의 말대로 미세한 각도 변화가 있었고, 바퀴가 지면에 닿는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알아차리기 힘든, 눈으로 보기에는 거의 '없음'에 가까운 움직임. 하지만 그 작은 차이 하나가 착륙의 안정감을 완전히 바꿔 놓는다는 것을, 느려진 화면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어머... 맞네요. 그걸 어떻게... 영상만 보고 아세요?"

노인은 한 박자 늦게 웃었다. 웃을 때 눈가의 주름이 부드럽게 접혔다. 마치 평생에 걸쳐 바람의 결

을 읽어 온 사람의 얼굴 같았다.

"나도 한때는 저 조종간을 잡고 세상을 누볐거든."

그 말의 끝에, 노인의 시선이 잠시 먼 곳을 향했다. 서진은 그 한순간의 공백에서 오랫동안 비행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공기를 느꼈다. 구름의 밀도와 밤바다의 빛, 그리고 수만 피트 상공의 고독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기억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 있었다.

"정말, 조종사셨어요?"

노인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 않았다. 자랑이나 허풍 대신,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은 세월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그의 말투를 조율하고 있었다.

"혹시... 어느 항공사에서, 어떤 기종을..."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글로 먼저 보는 편이 더 나을 게다."

노인은 옆에 놓아두었던 낡은 가죽 가방을 천천히 열었다. 가방의 내부 안감은 해져 있었고, 모서리에는 가죽이 얇게 벗겨져 있었다. 거기서 꺼낸 것은 너무 오래 써서 손때가 묻어 짙은 광택이 도는 낡은 가죽 노트였다. 표지에는 아무런 글자도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아주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은, 굳이 만져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게 내 비행일지다. 수천 번의 이륙과 착륙, 그리고 하늘에서 만난 수많은 인연과 바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 이제는 나한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이다. 자네가 한번 읽어볼 텐가?"

서진은 숨을 삼켰다. 누구에게나 그 순간의 '성물' 같은 것이 있다. 야구 선수에게는 오래된 글러브가, 사진가에게는 흠집 난 렌즈가, 요리사에게는 손에 맞게 닳아진 칼이 그렇다. 서진에게는 지금, 이 낡은 가죽 노트가 바로 그 자리에 놓였다. 그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노트를 받았다. 종이의 가장자리가 손끝에 와 닿는 감촉, 가죽에서 풍기는 오래된 책과 희미한 기름이 섞인 듯한 향기. 그것은 시간의 촉감이었다.

"...제가 이걸, 정말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럼. 자네 눈빛을 보니, 아주 오래전에 처음으로 조종간을 잡고 싶어 안달이 나 있던 내 젊은 시절 모습이 떠오르는구나. 이 이야기들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주렴."

노인은 자신의 이름을 짧게 말했다. "내 이름은 영호." 한 글자 한 글자를 또박또박 누르는 발음. 그 이름이 그의 얼굴과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오래된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다음에 또 보세."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마치 온도와 속도를 완벽하게 맞춘 택싱처럼, 열람실의 고요한 공기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서진은 한동안 노인이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봤다. 손안에 든 노트의 무게가 갑자기 몇 배는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단지 물질의 무게가 아니라, 아직 읽히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의 무게였다. 그 밤, 그는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과, 손에 쥔 노트의 감촉만으로도 마음 한가운데에 작은 관제탑이 세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를 살짝 옮겼다. 열람실의 가장 깊은 구석, 다른 이들의 시선이라는 소음이 가장 덜한 자리로. 가방에서 조용히 펜을 꺼내 북마크처럼 노트 사이에 끼웠다. 창밖이 보이지 않는 방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수많은 창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 창들은, 모두 하늘 쪽으로 활짝 열려 있었다.

2장. 활주로 위의 노인

노트의 표지를 다시 한번 쓸어보았다. 수많은 손길이 스쳐 지나갔을 가죽은 인공적인 광이 아니라, 시간과 체온으로만 낼 수 있는 깊고 부드러운 빛을 띠고 있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둥글게 마모된 모서리를 한 번 더 훑고 나서야,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드디어 첫 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단정한 만년필 글씨로 날짜와 공항 코드가 적혀 있었다. 컴퓨터 활자체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사람의 손'이 쓴 글씨. 잉크가 종이에 스며든 힘은 정확했고, 획의 끝은 '나는 이 단어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분명하고 단단했다. 첫 기록은 1980년대의 어느 날, 파리 샤를 드골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이었다. 라인업, 테이크오프, 상승, 항로 전환, 목적지 기상, 잔여 연료, 예상 난기류. 항공 용어들이 사실의 뼈대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 사이를 채운 문장들은 결코 건조한 업무 보고가 아니었다.

알프스 산등성이에 저녁노을이 붉게 번진다. 하늘의 구름이 아니라, 땅의 거대한 돌들이 스스로 빛을 내는 듯하다. 창문에 비친 승객석을 보니 어느 신혼부부가 두 손을 꼭 잡고 있다. 내가 그들의 손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창에 비친 두 사람의 얼굴 표정, 그 경이로움과 안도감이 섞인 표정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늘은 언제나 멀리 있지만, 빛은 때로 아주 가까이 와서 말을 건넨다.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한 줄 한 줄을 손가락으로 더듬어가듯 천천히 읽었다. 글씨는 사진보다 느리고, 영상보다 조용했다. 그 대신 글씨만이 줄 수 있는 깊은 촉감이 있었다. 그날 알프스 상공의 공기는 어땠을지, 차가운 금속으로 이루어진 조종석의 냄새는 어땠을지, 유리창에 성근 입김이 남겼을 타원형의 흔적들까지. 그의 두 눈은 마치 새로운 종류의 카메라처럼, 문장을 통해 세계의 초점을 다시 맞춰가기 시작했다.

노트는 한 장, 또 한 장 소리 없이 넘어갔다. 오로라가 녹색 커튼처럼 춤추던 북극의 밤 비행.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든 깊은 새벽, 부기장과 조용히 나눈 몇 마디의 대화. '자네 아들은 이제 몇 살이 됐나?', '이번에 돌아가면 아내와 온천이라도 다녀와야겠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사람을

진정으로 사람이게 만드는 그 일상적인 교신의 온기. 노트의 한쪽 페이지에는 비행 전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아주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고, 그 맞은편에는 손으로 직접 그린 활주로 접근 경로가 연필로 그려져 있었다. 어디엔가 커피를 엎질렀던 모양인지, 페이지의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우글쭈글해지며 옅은 갈색으로 물든 흔적도 있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역사였다.

그의 시선이 유독 오래도록 머문 기록은 사막에 관한 것이었다. 사하라 상공. '저것이 바로 신의 지문이다.' 어느 유명 사진작가가 창밖으로 펼쳐진 거대한 모래 능선을 보며 조종석에서 속삭였다는 문장. 그리고 그 문장 아래, 영호는 이렇게 덧붙여 놓았다. '나는 그의 눈에서 세상의 모든 지평선을 보았다.' 그 문장은 단지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장의 박동 같았다. 어떤 문장들은 독자에게 말을 걸지 않고도, 직접 몸 안으로 들어와 혈관을 타고 흐르며 새로운 박동을 만들어낸다. 서진은 자신의 심장이 그 문장의 리듬에 맞춰 조용히 뛰는 것을 느꼈다.

노트는 그를 다시 남쪽으로 데려갔다. 내전 지역으로 향하는 긴급 구호 비행. 활주로라 부르기 미안할 만큼 짧고 울퉁불퉁한 흙길에 내려야 했던 어느 날. 평소보다 방향타가 유독 무겁게 느껴지던 예측 불가능한 바람. 착륙하고 나서야 본 임시 캠프의 낡은 비닐 타프들. 그 아래에서, 구호 단체가 나눠준 초록색 플라스틱 컵을 소중하게 들고 해맑게 웃던 아이들. 그리고 부모를 모두 잃고도, 세상에서 가장 맑은 눈으로 웃던 한 소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 제 소원도 하늘에 꼭 전해주세요.' 영호는 그 말을 받아 적고, 그 옆에 짧게 자신의 소회를 남겼다. '나는 조종사였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는 우체부였다.'

서진은 쉽사리 책장을 덮지 못했다. 도서관의 차가운 형광등 빛이 노트의 검은 잉크에 닿아 아주 얇은 광택을 만들었다. 그 얇은 빛만으로도 그의 세계는 충분히 밝아졌다. 그는 조금 전까지 모니터 화면으로 보던 화려하고 자극적인 하늘과 전혀 다른 차원의 하늘을, 지금 이 낡은 글자들을 통해 보고 있었다. 조종간을 쥔 손의 감각과 지상의 아이가 짓는 표정이 하나의 문단 안에서 만나는 방식. 그 만남은 소란스럽지 않았지만, 그 어떤 굉음보다 강렬했다.

"마음에 드는 모양이네."

나직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때, 영호는 이미 다시 그의 옆자리에 와 앉아 있었다. 언제 다가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의 발걸음에는 소리가 없었다. 서진은 마치 소중한 보물을 들킨 아이처럼 노트를 가슴 가까이 끌어당겼다가, 이내 숨통을 쥐고 있다가 놓아 주듯 천천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런 느낌은 정말 처음이라서요. 그냥 유튜브 영상으로 보는 건... 결국엔 유리창 너머에서 구경하는 느낌인데, 선생님의 글은... 마치 제가 그 조종석 안에 함께 들어가 앉아 있는 느낌이랄까요."

"비행이란 본래, 안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좀 있지."

영호는 책상 끝에 팔꿈치를 얹고, 노트의 특정 페이지를 가리키며 넘겨 보였다. 거기에는 기상 레이더에 포착된 적란운의 간략한 그림과, 그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휘갈겨 쓴 듯한 메모가 있었다.

'거친 난기류의 경계를 지나갈 때, 초보 조종사들은 하늘이 나를 사정없이 흔든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내가 공기의 거대한 결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스스로 흔들리는 것이다.'

"'하늘이 나를 흔든다'고 생각하는 순간, 조종간은 실제보다 몇 배는 더 무겁게 느껴지지. 원망과 두려움이 손끝에 실리거든. 하지만 '내가 공기의 결을 거슬렀다'고 깨닫는 순간, 비로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다음 수를 생각할 수 있게 돼. 비행기도 그렇고,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야."

서진은 그 말을 노트의 문장과 함께 통째로 마음에 새겼다. 그의 머릿속에서 착륙의 장면과, 얼마 전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억울하게 꾸지람을 들었던 기억, 집에서 들었던 냉정한 말, 그리고 면접장에서 받았던 날카로운 질문들이 하나의 이미지로 엮였다. '세상이 날 흔든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결을 거스르고 있었던 것뿐이다.' 그 생각의 전환은 이상하게도 굴욕감이 아니라 해방감에 가까웠다. 거슬렀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거나 넘어설 수 있다는 뜻이니까.

"선생님, 저... 이런 이야기, 조금만 더 들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요. 아까 저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그... 측풍이 불 때 착륙 직전에 각도를 푸는 타이밍 같은 거요."

영호는 기분 좋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나눌 수 있다는 순수한 기쁨이 어려 있었다.

"크랩을 풀면서 러더를 주는 타이밍은 말이야, 바람의 세기를 계산하는 머리로 잡는 게 아니라 눈으로 잡는 거야. 하지만 또 눈으로만 잡는 것도 아니지. 소리, 진동, 몸이 시트에 눌리는 압력의 미세한 변화... 온몸의 감각이 함께 반응해야 해. 휠이 지면에 닿기 전에, 이미 내 다리가 먼저 땅을 딛는다는 느낌을 가져야 하고, 그 '먼저'라는 감각이 체감상으로는 0.2초쯤 될 거야. 하지만 그 0.2초는 비행할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언제나 다르게 찾아온다네."

"언제나... 다르게요?"

"그렇지. 그래서 비행이 평생을 해도 재미있는 게야."

그들은 한동안 영상과 노트를 번갈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도쿄 하네다 공항의 바다에서 불어오는 변덕스러운 바람, 샌프란시스코의 안개 속에서 유도등을 따라 들어가는 독특한 접근선, 싱가포르의 높은 습도가 타이어와 활주로 사이에 만들어내는 미묘한 소리의 차이, 그리고 겨울철 인천의 맑고 차가운 냉기. 영호는 전문 용어를 꼭 필요할 때만 썼다. 대신 그는 감각의 언어로 기술을 설명했다. '눌림', '풀림', '살짝', '먼저', '아직', '이제'. 그런 살아있는 단어들이 서진의 몸에 직접 기억을 심어 주는 듯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러 있었다. 열람실의 낡은 시계 초침이 유난히 느리게 움직였고, 어느새

밤은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와 있었다. 외부의 소음은 거의 완벽하게 사라졌고, 누군가의 마른기침 소리가 방의 어딘가에서 작게 울렸다. 영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노트는 좀 더 봐도 좋다. 다만, 마지막 몇 장은 나중에 보게."

"마지막 몇 장은... 왜요?"

"모든 이야기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니까."

서진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 켠에는 조그만 물음표가 선명하게 새겨졌다. '순서가 있다.' 노트의 모든 열쇠가 아직 그에게 건네진 것은 아니었다.

영호는 가방을 들고 떠났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조용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등이 뜬금없이 젊어 보였다. 서진은 노트를 덮지 못했다. 한 줄만 더, 한 장만 더. 그 유혹이 꿀처럼 달콤하게 이어졌다. 그러다 문득, 그는 노트를 품에 안고 일어섰다. 열람실의 가장 깊은 구석,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자리로 다시 이동했다. 이것은 이제 단지 독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관제에 가까웠다. 그는 이제 자리를 잡고, 주변의 빛을 줄이고, 소리를 세팅하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 자신의 모든 의식을 이 노트에 조율해야 했다.

그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3장. 낡은 일지의 목소리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열람실 내부의 공기는 종이 냄새와 사람들의 희미한 체온, 그리고 잠들지 않는 전자기기의 미열이 뒤섞여 만들어 내는 기묘한 온도로 가득했다. 서진은 노트의 세 번째 섹션을 펼쳤다. 표지 바로 뒤, 얇은 간지에 만년필로 적힌 목차는 마치 잘 짜인 비행경로도 같았다. 파리, 나이로비, 앵커리지, 방콕, 카이로, 요하네스버그, 상파울루, 괌. 도시의 이름들이 딱딱한 지명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음계를 가진 리듬처럼 느껴졌다.

노트는 단지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누가 누구와, 하늘 아래에서 무엇을 나누었는가'를 섬세하게 기록했고, 그 나눔의 자리에 하늘이 어떤 표정으로 함께했는지를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다. 서진은 그 사실을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깨달았다.

도쿄 하네다 접근 중. 비가 조금씩 굵어진다. 항공기 창에 맺힌 물방울이 중력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고, 바람의 힘에 밀려 맹렬하게 대각선으로 이동한다. 우리는 가끔 바람의 방향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 비행을 오래 할수록 하늘을 눈으로 느끼지 않고 계기판의 수치로만 보게 되는 나쁜 버릇이 생긴다. 하지만 오늘은, 온전히 눈으로만 보고 싶었다.

나리타에서 연결편으로 우리 비행기에 오르게 된 노년의 부부. 남편은 비행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했다. 이륙 직전에 두 눈을 꼭 감는 오랜 습관이 있는데, 그 이유를 30년 만에 아내에게 처음으

로 고백했다고 했다. '내 마지막 모습이 당신이었으면 해서'라고. 옆자리의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은 남편의 그 마음을 30년 동안 이미 알고 있었다고 조용히 말했다고 한다.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아주 오래 부르는 사람들. 이륙은 그들에게서 분리의 동사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동사였다.

한 페이지를 넘기자, 전혀 다른 대륙의 건조한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 듯했다. 감비아 상공. 강의 색이 마치 진한 초콜릿처럼 깊고 탁하다. 등고선처럼 펼쳐진 모래 물결은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대한 모자이크 같고, 아주 멀리서 유목민들이 피운 불이 바람을 따라 천천히 옮겨가는 것이 보인다. 지상에서 만난 구호단체 스태프는 말보다 손짓으로 그들이 가져온 물건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준다. 텐트, 의약품, 식수. 그곳에서 만난 한 아이의 얼굴. 그 아이는 신기하게도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를 위해 웃어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안다는 뜻이기도 했다.

난민 캠프의 한가운데서 만난 소녀의 이야기에는 유독 줄 간격이 넓었다. 영호의 글씨가 그 부분에서 미세하게 흔들린 것처럼 보였다.

나는 네가 웃는 이유를 알 것도 같고, 동시에 영원히 모를 것 같다. 너는 하늘에서 온 사람에게 소원을 부탁했고, 나는 하늘을 직업으로 삼았지만 수많은 소원들을 중간에서 놓친 적이 많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다. 네가 내 손에 쥐여 준 작은 들꽃 장식을 노트에 붙여 두었다가, 결국 다시 떼어냈다. 종이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진짜 증거는 향기다. 오늘의 향기는 마른 모래와 낡은 비닐과 진한 땀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어난 웃음이 뒤섞인 냄새였다.

서진은 그 대목에서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글이 때로는 사진보다 더 많은 색채와 향기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지금 처음으로 온몸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사진은 찰나의 빛을 붙잡지만, 글은 시간의 공기를 붙잡는다. 공기가 바뀌면 사람의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세계가 바뀐다. 그러면 같은 하늘 아래에서도 전혀 다른 고도의 삶을 살 수 있다.

노트의 다음 장을 넘기던 그의 손가락이 순간 멈칫했다. 이상하게도, 그가 가장 깊은 감동을 받았던 '사막을 건너는 사진작가'의 이야기 부분에 지워진 흔적이 있었다. 연필로 쓴 글씨를 지우개로 문질러 덮은 듯한 얕고 거무스름한 자국. 그리고 그 위에 지금의 문장이 덧씌워져 있었다. '나는 그의 눈에서 세상의 모든 지평선을 보았다.' 하지만 그 아래 아주 희미하게, 원래 쓰여 있던 다른 글씨의 곡선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다. 서진은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종이를 형광등 빛에 비추었다가, 각도를 약간 틀어보았다. '박기훈'이라는 이름의 흔적. 아주 옅었지만, 틀림없이 그 이름이었다.

그는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다. 빛의 그림자 탓이거나, 혹은 뒷장의 글씨가 비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둠에 익숙해진 눈이 작은 차이를 분별해 내기 시작했을 때, 그 흔적은 더욱 선명해졌

다. 박-가-훈. 그는 소리 내지 않고 입 모양으로만 그 이름을 불러 보았다. 이 노트의 주인은 분명 '영호'인데, 왜 다른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있는가.

서진은 당황스러운 마음을 다잡고 다른 페이지들을 미친 듯이 훑어 나갔다. 놀랍게도, 그에게 가장 강한 울림을 주었던 몇몇 장면들에만 유독 비슷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북극광 아래에서 부기장과 나눈 대화를 적은 이야기의 마지막 줄. 남미의 어느 야간 접근 비행에서 승객의 심장 발작을 무사히 넘겨낸 이야기의 말미. '세상에는 간신히 버텨낸 한 번의 위태로운 착륙이, 수백 번의 완벽한 이륙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라는 아름다운 문장 바로 옆에도, 아주 옅은 연필 자국 같은 흔적이 번져 있었다.

그날 이후, 서진은 노트를 이전과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읽을 수 없게 되었다. 감동은 여전히 감동이었으나, 그 감동의 발원지를 의심하는 차가운 마음이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이 이야기는 누구의 것인가. 이 하늘은, 이 감정은, 과연 누구의 하늘이고 누구의 감정인가. 완벽하게만 보였던 노장의 뒷모습, 그 영웅의 동상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 균열은 아주 작았지만, 그 사이로 의심이라는 빛이 끈질기게 스며들었다. 때로 빛은 상처의 틈으로 더 잘 들어오는 법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이 이야기들이 영호의 것이 아니고, '박기훈'이라는 알 수 없는 누군가의 것이라면, 내가 느꼈던 이 심장의 떨림은 모두 거짓인가? 감동에도 저작권이 있는가? 하늘에서 만난 사람들의 표정은,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에 따라 그 의미가 바뀌는가?

며칠 후, 그는 도서관을 나오며 휴대폰으로 '박기훈 조종사', '박기훈 기장', '박기훈 비행일지' 같은 단어들을 조합해 검색해 보았다. 하지만 이름이 너무 흔했다. 너무나 많은 '박기훈'이 한 화면에 떠올랐고, 도무지 단서를 잡을 수 없었다. 오래된 항공 커뮤니티의 게시판 글 몇 개, 사고 기사와는 무관해 보이는 짧은 기사 하나, 동명이인의 블로그 몇 개. 그마저도 대부분은 끊어진 링크로 이어졌다. 그는 허탈하게 웃었다. 하늘 위에서는 항로 표지판이 명료하고 단순한데, 지상의 정보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길을 잃게 만든다.

며칠이 더 흘렀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노트를 멀리하지도, 그렇다고 예전처럼 가까이하지도 못했다. 읽으면 마음이 움직이고, 움직인 마음은 질문을 낳고, 그 질문은 다시 그를 노트로부터 밀어냈다. 그러다 어느 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 도서관으로 가자. 영호를 만나 직접 물어보자.

그날 새벽, 열람실에는 평소보다 사람이 더 적었다. 책상 위에 엎어져 있던 누군가가 몸을 뒤척이며 자리를 고쳐 앉았다. 그때, 문 쪽에서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났다. 영호였다. 그는 늘 그렇듯 과장되지 않은 걸음으로 들어왔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영호는 잠시 놀란 눈으로 그를 보다가, 금세 표정을 누그러뜨렸다.

"왔구나."

"이 노트요... 여기... 지워진 흔적이 있습니다."

서진은 문제의 페이지, '사막을 여행하는 사진작가'의 대목을 펼쳐 보였다. '나는 그의 눈에서 세상의 모든 지평선을 보았다'는 문장 아래, 희미하게 남아 있는 다른 이름의 그림자.

"이건... 왜 지우신 겁니까? 여기,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영호의 얼굴 근육이 아주 짧은 순간 딱딱하게 굳었다가, 이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페이지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책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아, 그거. 옛날 글씨체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말이다. 지저분해 보여서 조금 고쳐 쓴 것뿐이야."

말투는 평온했지만, 그의 눈동자 어딘가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 떨림은 아무리 경험 많은 베테랑 조종사라 할지라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돌풍처럼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보이지 않을 듯하지만, 기체를 뒤흔드는 분명한 흔들림.

"...정말, 그뿐인가요?"

서진은 자신의 목소리에 실린 떨림을 그제야 느꼈다. 질문은 짧았지만, 그 짧은 질문이 불에 닿은 알코올처럼 열람실의 정적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듯했다.

영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자네, 요즘은 공부는 잘 되어 가나?" 같은 서툰 말로 화제를 돌리려 했다. 서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이미 대답을 요구하는 활주로처럼 길게 뻗어 있었다. 그날의 대화는 결국 활주로의 가장자리를 빙글빙글 돌기만 할 뿐, 어느 누구도 중심을 향해 착륙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서진은 노트를 덮고 펜을 들어 빈 종이에 이렇게 적었다. "비행은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그 아래에 다시 적었다. "이야기는 누구의 것인가." 그는 그 문장들을 오래도록 응시하다가, 세 번째 줄에 아주 작은 글씨로 썼다. "이해가 시작되는 순간, 소유는 흐려진다."

노트를 다시 펼쳤을 때, 이상하게도 그는 이전보다 더 또렷한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다. 낡은 일지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목소리가 겹쳐진 합창이었다. 하늘의 노래, 금속의 떨림, 승객들의 잠과 울음, 지상의 아이들이 터뜨린 웃음, 동료의 한숨, 관제탑의 짧은 교신, 바람의 방향, 그리고 기록하는 자의 독백. 누군가 아무리 지우려 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잔향이 있다는 것을, 그는 그제야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아직 알지 못하는 더 큰 진실이 있었다. 그것은 노트의 뒷부분, 접착이 약해져 살짝 들떠 있는 페이지의 가장자리, 그리고 영호의 오래된 말투 속 어딘가에 깊숙이 숨어 있었다. 그는 곧 그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 그는 한 장 한 장을 정직하게 읽어내기로

결심했다. 정직하게 읽고 느끼는 그 행위만큼은, 그 어떤 이름과도 상관없이 온전히 자신의 몫일 테니까.

4장. 난류 속의 항로

노트를 향한 서진의 마음은 복잡한 계기판처럼 변해버렸다. 경이로움과 감동을 나타내는 지침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의심과 혼란이라는 경고등이 시끄럽게 깜박이며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박기훈'이라는 지워진 이름의 잔상은 그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어, 마치 낮은 고도에서 예고 없이 만난 난기류처럼 그의 정신을 온통 흔들어댔다.

낮 동안 카페에서 일하는 시간은 고역이었다. 커피 원두를 갈아내는 그라인더 소리는 불길한 엔진의 소음처럼 귓가를 맴돌았고, 뜨거운 스팀을 내뿜는 에스프레소 머신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손님들의 무심한 주문과 동료의 가벼운 농담은 아득하게 멀리서 들려오는 교신처럼 느껴졌다. 그의 몸은 분명 축축한 행주를 손에 쥔 채 카운터 앞에 서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해독 불가능한 비행일지의 한 페이지 위를 위태롭게 선회하고 있었다.

'단순한 실수일까? 아니,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된 흔적은 실수가 될 수 없어. 그렇다면 의도적인 은폐인가? 왜? 영호 선생님 같은 분이 어째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그는 이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혹은 더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 그의 목적지는 영호의 온기가 묻어나는 낡은 노트가 아니었다. 그는 차갑고 이성적인 빛을 내뿜는 공용 컴퓨터의 모니터 앞에 앉았다. 탐색 등을 켠 구조 헬리콥터처럼, 그는 정보의 바다에서 단 하나의 진실을 건져 올리고자 했다.

검색창에 '박기훈 조종사'라고 입력했다. 엔터키를 누르자, 수십 개의 링크가 화면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대부분은 동명이인의 평범한 일상에 관한 것들이었다. 어느 회사의 박기훈 부장, 맛집을 탐방하는 블로거 박기훈, 지역 신문에 실린 작은 기사 속의 박기훈. 그는 검색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바꿔보았다. '박기훈 기장', '박기훈 항공사고', '1990년대 박기훈 파일럿'.

시간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몇 시간을 매달렸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오래되어 링크가 깨진 항공 동호회의 게시글, 희미한 썸네일만 남은 뉴스 기사.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관련된 모든 기록을 지워버린 것처럼, '조종사 박기훈'의 항적은 디지털 세계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마지막 검색어를 입력했다. 노트에서 본 가장 오래된 기록의 연도와, 국내 최대 항공사의 이름을 조합했다.

바로 그때였다. 화면 한구석, 아주 오래된 온라인 신문 기사 아카이브에서 눈에 띄는 제목을 발견했다. '김포공항, 야간 착륙 중 활주로 이탈 사고. 인명피해는 없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링크를 클릭했다. 날짜는 1995년 늦가을. 기사는 짧고 건조했다. 악천후 속에서 착륙하던 보잉 747기가 강한 측풍으로 인해 활주로에서 잠시 이탈했으나, 조종사의 능숙한 대처로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기체 일부 파손, 활주로 일시 폐쇄. 그리고 기사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항공 당국은 해당 기장과 부기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 어디에도 조종사의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서진은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자신이 찾던 '지워진 활주로'가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그는 무거운 머리를 감싸 쥐었다. 단서는 찾았지만, 의문은 오히려 더 커졌다. 이것이 영호와 박기훈의 이야기라면, 왜 영호는 이 사고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박기훈의 이름은 노트에서 지워져야만 했을까?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그는 다시 낡은 노트로 돌아갔다. 어쩌면 답은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 때문이었다. 그는 마치 폭풍우 속에서 유도등을 찾듯,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러다 김포공항 사고가 있었던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쓰인 기록 하나를 발견했다. 그날의 비행일지는 평소와 달리 아주 짧고 단편적이었다.

짙은 안개 속을 비행할 때가 있다. 창밖은 온통 우유처럼 하얗고, 수평선도 지상도 보이지 않는다. 그때 조종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감각이 아니라, 눈앞의 계기판뿐이다. 내 몸은 분명 오른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소리치는데, 계기판은 수평을 유지하라고 차갑게 명령한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이 순간의 비행은, 기술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

서진은 그 문장들 속에서 깊은 고뇌를 읽었다. 이것은 단순히 안개 속 비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감각과 외부의 평가 사이에서 길을 잃은 한 인간의 독백처럼 들렸다. 그는 다음 날, 영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간접적인 질문이나 탐색은 무의미했다. 이제는 직접 부딪혀서, 이 난류의 중심을 통과해야만 했다.

영호는 항공 동호회 사무실 한편에 있는 낡은 비행 시뮬레이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 속에는 비가 쏟아지는 야간 활주로가 펼쳐져 있었다. 영호는 조종간을 잡은 채, 미동도 없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선생님."

서진의 목소리에 영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온화했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왔구나. 오늘은 표정이 영 좋지 않구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냐."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서진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1995년 가을, 김포공항에서 있었던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 아십니까?"

영호의 손이 조종간 위에서 순간 굳었다. 그의 입가에 맴돌던 희미한 미소가 사라졌다. 열려 있던 창문으로 찬 바람이 불어와, 낡은 항공 지도를 파르르 떨리게 했다. 영호는 시선을 다시 모니터로 돌렸다. 화면 속 비행기는 여전히 착륙하지 못한 채 활주로 상공을 위태롭게 맴돌고 있었다.

"비행을 하다 보면 수많은 일을 겪게 되지. 기억하고 싶은 일도 있고, 영원히 잊고 싶은 일도 있고."

"박기훈 기장님과... 관련된 일입니까?"

영호는 대답 대신 시뮬레이터의 전원을 꺼버렸다. 화면이 암흑으로 변하며, 두 사람의 얼굴이 모니터에 희미하게 비쳤다. 영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서진아. 때로는 항로를 확인하는 것보다, 그저 묵묵히 계기판을 믿고 비행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면, 오히려 방향을 잃게 될 수도 있어."

그것은 조언이었지만, 동시에 완곡한 경고였다. 서진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의 마음은 더욱 거센 난류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영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박기훈'과 '지워진 활주로'가 있었다. 서진은 이제 확신했다. 이 비행일지는 단순한 낭만과 감동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이름과 영광이 어떻게 사라져갔는지에 대한, 슬프고도 아픈 진실을 품고 있는 마지막 기록이었다.4장. 난류 속의 항로

노트를 향한 서진의 마음은 복잡한 계기판처럼 변해버렸다. 경이로움과 감동을 나타내는 지침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의심과 혼란이라는 경고등이 시끄럽게 깜박이며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박기훈'이라는 지워진 이름의 잔상은 그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어, 마치 낯은 고도에서 예고 없이 만난 난기류처럼 그의 정신을 온통 흔들어댔다.

낮 동안 카페에서 일하는 시간은 고역이었다. 커피 원두를 갈아내는 그라인더 소리는 불길한 엔진의 소음처럼 귓가를 맴돌았고, 뜨거운 스팀을 내뿜는 에스프레소 머신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손님들의 무심한 주문과 동료의 가벼운 농담은 아득하게 멀리서 들려오는 교신처럼 느껴졌다. 그의 몸은 분명 축축한 행주를 손에 쥔 채 카운터 앞에 서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해독 불가능한 비행일지의 한 페이지 위를 위태롭게 선회하고 있었다.

'단순한 실수일까? 아니,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된 흔적은 실수가 될 수 없어. 그렇다면 의도적인 은폐인가? 왜? 영호 선생님 같은 분이 어째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그는 이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혹은 더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 그의 목적지는 영호의 온기가 묻어나는 낡은 노트가 아니었다. 그는 차갑고 이성적인 빛을 내뿜는 공용 컴퓨터의 모니터 앞에 앉았다. 탐색 등을 켠 구조 헬리콥터처럼, 그는 정보의 바다에서 단 하나의 진실을 건져 올리고자 했다.

검색창에 '박기훈 조종사'라고 입력했다. 엔터키를 누르자, 수십 개의 링크가 화면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대부분은 동명이인의 평범한 일상에 관한 것들이었다. 어느 회사의 박기훈 부장, 맛집을 탐방하는 블로거 박기훈, 지역 신문에 실린 작은 기사 속의 박기훈. 그는 검색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바꿔보았다. '박기훈 기장', '박기훈 항공사고', '1990년대 박기훈 파일럿'.

시간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몇 시간을 매달렸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오래되어 링크가 깨진 항공 동호회의 게시글, 희미한 썸네일만 남은 뉴스 기사.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관련된 모든 기록을 지워버린 것처럼, '조종사 박기훈'의 항적은 디지털 세계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마지막 검색어를 입력했다. 노트에서 본 가장 오래된 기록의 연도와 국내 최대 항공사의 이름을 조합했다.

바로 그때였다. 화면 한구석, 아주 오래된 온라인 신문 기사 아카이브에서 눈에 띄는 제목을 발견했다. '김포공항, 야간 착륙 중 활주로 이탈 사고. 인명피해는 없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링크를 클릭했다. 날짜는 1995년 늦가을. 기사는 짧고 건조했다. 악천후 속에서 착륙하던 보잉 747기가 강한 측풍으로 인해 활주로에서 잠시 이탈했으나, 조종사의 능숙한 대처로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기체 일부 파손, 활주로 일시 폐쇄. 그리고 기사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항공 당국은 해당 기장과 부기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 어디에도 조종사의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서진은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자신이 찾던 '지워진 활주로'가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그는 무거운 머리를 감싸 쥐었다. 단서는 찾았지만, 의문은 오히려 더 커졌다. 이것이 영호와 박기훈의 이야기라면, 왜 영호는 이 사고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박기훈의 이름은 노트에서 지워져야만 했을까?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그는 다시 낡은 노트로 돌아갔다. 어쩌면 답은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 때문이었다. 그는 마치 폭풍우 속에서 유도등을 찾듯,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러다 김포공항 사고가 있었던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쓰인 기록 하나를 발견했다. 그날의 비행일지는 평소와 달리 아주 짧고 단편적이었다.

짙은 안개 속을 비행할 때가 있다. 창밖은 온통 우유처럼 하얗고, 수평선도 지상도 보이지 않는다. 그때 조종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감각이 아니라, 눈앞의 계기판뿐이다. 내 몸은 분명 오른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소리치는데, 계기판은 수평을 유지하라고 차갑게 명령한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이 순간의 비행은, 기술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

서진은 그 문장들 속에서 깊은 고뇌를 읽었다. 이것은 단순히 안개 속 비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감각과 외부의 평가 사이에서 길을 잃은 한 인간의 독백처럼 들렸다. 그는 다음 날, 영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간접적인 질문이나 탐색은 무의미했다. 이제는 직접 부딪혀서, 이 난류의 중심을 통과해야만 했다.

영호는 항공 동호회 사무실 한편에 있는 낡은 비행 시뮬레이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 속에는 비가 쏟아지는 야간 활주로가 펼쳐져 있었다. 영호는 조종간을 잡은 채, 미동도 없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선생님."

서진의 목소리에 영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온화했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왔구나. 오늘은 표정이 영 좋지 않구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냐."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서진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1995년 가을, 김포공항에서 있었던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 아십니까?"

영호의 손이 조종간 위에서 순간 굳었다. 그의 입가에 맴돌던 희미한 미소가 사라졌다. 열려 있던 창문으로 찬 바람이 불어와, 낡은 항공 지도를 파르르 떨리게 했다. 영호는 시선을 다시 모니터로 돌렸다. 화면 속 비행기는 여전히 착륙하지 못한 채 활주로 상공을 위태롭게 맴돌고 있었다.

"비행을 하다 보면 수많은 일을 겪게 되지. 기억하고 싶은 일도 있고, 영원히 잊고 싶은 일도 있고."

"박기훈 기장님과... 관련된 일입니까?"

영호는 대답 대신 시뮬레이터의 전원을 꺼버렸다. 화면이 암흑으로 변하며, 두 사람의 얼굴이 모니터에 희미하게 비쳤다. 영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서진아. 때로는 항로를 확인하는 것보다, 그저 묵묵히 계기판을 믿고 비행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면, 오히려 방향을 잃게 될 수도 있어."

그것은 조언이었지만, 동시에 엄연한 경고였다. 서진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의 마음은 더욱 거센 난류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영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박기훈'과 '지워진 활주로'가 있었다. 서진은 이제 확신했다. 이 비행일지는 단순한 낭만과 감

동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이름과 영광이 어떻게 사라져갔는지에 대한, 슬프고도 아픈 진실을 품고 있는 마지막 기록이었다.

5장. 지워진 활주로

영호의 경고는 서진의 꺼져가던 의심에 기름을 들이부은 격이 되었다. 그는 이제 멈출 수 없었다. 마치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관제탑과의 교신이 끊긴 조종사처럼, 그는 이제 자신의 감각과 직관, 그리고 희미한 단서들만을 믿고 진실이라는 활주로를 향해 어떻게든 나아가야만 했다. 그의 일상은 온통 지워진 이름과 사고의 흔적을 복원하는 데 집중되었다. 카페에서의 아르바이트는 영혼 없는 육체의 노동으로 전락했고, 그의 정신은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도서관의 낡은 자료들 위를 위태롭게 비행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도서관 구석에 처박혀 1990년대의 신문 마이크로필름과 씨름했다. 뱅글뱅글 돌아가는 필름 속에서 눈이 핑 돌 지경이었지만, 그는 끈질기게 사고 전후의 기사들을 샅샅이 훑었다. 하지만 모든 기록은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사고의 표면적인 사실만을 건조하게 전달할 뿐, 그 아래 숨겨진 진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었다. 조종사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거대한 힘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절망적인 기분으로 노트를 다시 펼쳐 들었을 때였다. 그는 그동안 수없이 노트를 넘기면서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이질감을 손끝에서 느꼈다. 가장 마지막 장, 두꺼운 가죽 표지가 덧대어진 안쪽 면이 미세하게 들떠 있었다. 마치 낡은 벽지처럼 가장자리가 살짝 일어나 있는 느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는 가늘고 뾰족한 북마크의 끝으로 조심스럽게 그 틈을 벌려보았다. 그러자 가죽 표피 안쪽으로, 얇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아슬아슬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누군가 아주 오래전, 세상의 모든 눈을 피해 필사적으로 숨겨놓은 비밀문서처럼.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아무도 자신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내 펼쳤다. 그것은 항공기 운항에 사용되는 전문 용지처럼 얇고 바삭거리는 재질의 종이였다. 그리고 그 위에는, 연필로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게 그린 활주로의 도면이 그려져 있었다. 평행하게 그어진 두 줄의 활주로선, 일정한 간격의 중앙선, 그리고 착륙 시 목표로 삼는 터치다운 존을 알리는 굵은 표시까지. 모든 것이 실제 공항의 도면과 똑같았다.

하지만 서진의 숨을 멎게 한 것은 따로 있었다. 활주로의 끝, 기체가 진입하는 방향에 큼지막하게 적혀 있어야 할 활주로 식별 번호가, 마치 깊은 상처처럼 파여 있었다. 누군가 지우개로 아주 악착같이, 종이가 찢어지기 직전까지 문지른 흔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의 삭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록에 대한 분노이자, 그날의 기억을 향한 지독한 폭력처럼 보였다.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침을 삼켰다.

그는 도면을 형광등 빛에 비추었다. 각도를 달리하며 비춰보자, 지워진 흔적 위로 흑연 가루가 희미하게 남긴 잔상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숫자 '1'의 곧은 선, 그리고 그 옆으로 '4'의 꺾인 선. 마지막으로 알파벳 'R'의 둥근 곡선. '14R'. 그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그 숫자를 입속에서 굴려보았다. 그리고 도면의 귀퉁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쓰인 문장을 발견했다.

'바람이 모든 것을 바꾼 곳.'

서진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공용 컴퓨터로 달려갔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김포국제공항 14R 활주로'. 엔터키를 누르자, 수많은 정보들이 화면을 채웠다. 그리고 그 순간,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강렬한 전율을 느꼈다. 김포공항의 14R 활주로는 과거부터 강한 서풍이 불 경우 난기류와 윈드시어가 자주 발생하여,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착륙이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 곳이었다. 특히 그가 찾아냈던 1995년의 사고 기사와 노트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이 도면, 그리고 '박기훈'이라는 지워진 이름이 하나의 선으로 명확하고도 비극적으로 연결되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노트를 챙겨 들고 도서관을 뛰쳐나왔다. 차가운 밤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그의 몸은 오히려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영호를 만나야 했다. 이번에는 그 어떤 변명이나 회피도 용납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는 더 이상 순진한 동경심에 가득 찬 어린 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이 이야기의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권리가 있는, 유일한 독자이자 마지막 상속자였다.

영호는 늦은 오후, 오래된 격납고 한편에서 낡은 경비행기의 프로펠러를 닦고 있었다. 육중한 격납고 문이 열리며 들어서는 서진의 모습에,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서진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이륙을 앞둔 전투기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영호의 앞으로 다가가, 숨겨져 있던 활주로 도면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이게... 그날의 활주로입니까?"

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1995년 늦가을, 김포공항 14R 활주로. 선생님의 친구이자 또 한 명의 조종사였던 박기훈 기장님이 마지막으로 내렸던 곳. '바람이 모든 것을 바꾼 곳'. 맞습니까?"

영호의 손이 멈췄다. 그는 닦던 프로펠러에서 천천히 손을 떼고, 서진이 내민 도면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증발한 듯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격납고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멀리서 아련하게 들려오는 제트 엔진의 이륙 소리만이 가득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과 오랜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걸... 결국 찾아냈구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각오한 사람처럼 담담했다.

"그래, 맞다. 그날 기훈이가... 아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내렸던 활주로지."

"왜... 왜 박기훈 기장님의 이름은 지워져야만 했습니까? 제가 읽었던 노트의 모든 아름다운 문장과 깊은 감동은 그분의 것이기도 한데, 왜 정작 그분의 존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야만 했던 겁니까?"

서진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와 슬픔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야기가 사실은 반쪽짜리였을지도 모른다는 배신감, 그리고 이름 없이 사라져간 한 조종사에 대한 깊은 연민이 뒤섞인 절규였다.

영호는 기름때 묻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거칠게 쓸었다. 그러고는 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평생의 회한과 지독한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한 자의 고통이 서려 있었다.

"그건... 내가 그 녀석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영호는 한 걸음 다가와 서진의 손에 들린 노트를 받아 들었다. 그리고는 '사막을 건너는 사진작가'의 이야기가 적힌 페이지를 펼쳤다.

"이 문장, '나는 그의 눈에서 세상의 모든 지평선을 보았다.' 이건 분명 기훈이가 직접 쓴 문장이 맞아. 그 녀석은 나보다 훨씬 감성적이고 글재주가 뛰어났지. 하지만 그 사진작가를 우리 비행기 조종석에 태워준 것도, 사막 위로 펼쳐진 노을을 보며 함께 감탄했던 것도 바로 나였어. 이 노트의 모든 기록은 그렇게 시작됐지. 한 사람은 온몸으로 경험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영혼으로 기록했어. 때로는 그 역할이 정반대이기도 했고. 우리는... 하나의 조종간을 함께 잡은, 두 개의 몸을 가진 하나의 조종사였으니까."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서진은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 노트는 한 사람의 위대한 일지가 아니었다. 이것은 두 사람이 평생에 걸쳐 함께 써 내려간, 세상에 단 하나뿐인 교차 비행일지이자 우정의 증거였다. 한 사람의 하늘과 다른 사람의 하늘이 서로의 창을 통해 겹쳐지고, 한 사람의 뜨거운 감정과 다른 사람의 섬세한 문장이 하나의 잉크로 합쳐진 기적 같은 기록.

서진은 혼란스러웠던 머릿속이 거짓말처럼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누가 먼저 썼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영호가 썼든, 박기훈이 썼든, 혹은 두 사람이 같은 문장을 바라보며 함께 썼든.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이 노트가, 지금 자신의 눅눅하고 어두운 반지하의 하늘을 통과하며 새로운 항로를 눈부시게 그려주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감동에는 저작권이 없었다. 영감에

는 소유주가 없었다. 그것은 바람처럼, 빛처럼, 그저 한 사람의 영혼에서 다른 사람의 영혼으로 흘러갈 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모든 질문의 폭풍 속에서, 아주 고요하고 선명한 하나의 문장이 그의 영혼에 닻을 내리듯 내려앉았다. 그것은 영호의 목소리도, 노트 속 필자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그들의 항적을 따라 비행했던, 바로 자기 자신의 깨달음이었다.

진정한 비행은 기체를 모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하늘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 순간, 서진은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이야기의 방관자나 독자가 아니었다. 박기훈의 이야기는 영호의 하늘을 통과했고,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자신의 하늘을 통과하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이야기도 길을 잃은 누군가의 캄캄한 하늘을 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비행은 세대와 시간을 넘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이 위대한 항로의 다음 조종사로 선택되었음을 깨달았다.

6장. 관제탑의 침묵

서진의 깨달음이 담긴 그 한마디는, 수십 년간 굳게 닫혀 있던 영호의 마음속 격납고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영호는 오랫동안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마침내 자신의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줄 동반자를 만난 자의 깊은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격납고 한편에 놓인 낡은 철제 의자를 손으로 가리켰다.

"앉게. 아주... 긴 이야기가 될 게다."

서진은 말없이 의자에 앉았다. 영호는 그의 맞은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기억의 상자를 열기 전, 경건한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보였다. 격납고의 텅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바람 소리와, 두 사람의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낮고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그 친구는... 기훈이는, 나보다 더 하늘을 사랑했던 녀석이었지. 사람들은 보통 조종사가 되고 싶어 하는 이유로 자유나 여행, 혹은 멋진 제복 같은 걸 꼽지만, 그 녀석은 달랐어. 그는 하늘 그 자체를 경외했네. 구름의 모양이 매일 다른 이유, 바람의 냄새가 고도마다 다른 이유, 별빛이 지상에서 볼 때와 3만 피트 상공에서 볼 때 어떻게 다른지를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이었지."

영호의 시선은 격납고의 높은 천장, 그 너머의 보이지 않는 하늘을 향해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 기억의 복원이었다.

"우리는 비행학교 시절부터 한 몸처럼 붙어 다녔네. 나는 타고난 감각이 좀 더 좋은 편이었고, 기훈이는 나보다 훨씬 더 성실하고 꼼꼼했지. 나는 바람을 몸으로 느끼며 비행했고, 그 녀석은 계기판의 모든 숫자를 완벽하게 이해하며 날았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최고의 파트너가 될 거라고들 했지. 그는 나의 부족한 이성을 채워주는 계기판이었고, 나는 그의 망설이는 순간을 밀어주는 바람이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평생을 함께 날 거라고, 단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어."

그의 이야기는 잠시 멈췄다. 행복했던 시절을 추억하는 자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스쳤지만, 그 미소는 곧 다가올 비극의 그림자에 가려 희미하게 사라졌다.

"그날, 우리는 아주 길고 힘든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 동남아에서 출발해 열 시간이 넘게 날아온 비행이었지. 비행 내내 기상도 좋지 않았고, 통신 장비에 자잘한 결함까지 있었지. 모두가 녹초가 되어 있었지만, 인천... 아니, 그때는 김포였지. 김포공항 관제 구역에 들어섰다는 교신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 '다 왔구나.' 하고. 그 안도감이... 어쩌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을지도 몰라."

영호의 눈빛은 순식간에 그날의 어두운 조종석으로 돌아가 있었다. 서진은 숨을 죽인 채, 그의 기억 속으로 함께 비행을 시작했다.

"그날 밤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여도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지. 활주로에 접근할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하지만 우리는 베테랑이었고, 그런 날씨는 수없이 겪어왔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 관제탑에서는 평소대로 주 활주로인 32L로의 착륙을 허가했지. 모든 것이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었어. 랜딩기어를 내리고, 플랩을 전개하고, 최종 접근을 시작했지. 활주로의 환한 불빛이 빗줄기 사이로 번져 보이기 시작했을 때였어."

그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 마치 그 순간의 긴박했던 교신이 다시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관제탑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네. '대한항공 123편, 복행하라! 복행하라! 활주로에 장애물 발생!' 복행. 즉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상승하라는 지시였지. 앞서 착륙한 비행기가 유도로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활주로 위에서 멈춰 섰다는 거야. 나와 기훈이는 순간 서로를 쳐다봤네. 수천 번의 비행 동안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었지. 우리는 즉시 엔진 출력을 최대로 올려 기수를 다시 들어 올렸어. 육중한 기체가 비명을 지르며 다시 솟구쳐 올랐지."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 잠시 후 관제탑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네. 32L 활주로는 폐쇄되었으니, 반대편의 14R 활주로로 착륙하라는 지시였지. 그 순간, 조종석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 14R 활주로는 그날 불어오던 강한 서풍을 정면이 아닌 측면으로 받으며 내려야 하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었거든. 더군다나 길이도 더 짧았고, 접근 유도등 시설도 32L보다 훨씬 미흡했지. 기훈이

가 마이크를 잡고 물었어. '관제탑, 다른 활주로 옵션은 없는가?'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네. '없다. 14R로의 접근을 지시한다.'"

그것은 지시였지만, 사실상 강요였다. 연료는 복행으로 인해 빠듯해져 있었고, 승객들은 동요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날 조종간은 기훈이가 잡고 있었네. 나는 옆에서 속도와 고도를 체크하며 그를 도왔지. '할 수 있지?' 내가 묻자, 기훈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그 눈빛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 두려움과 책임감이 뒤섞인, 하지만 어떻게든 해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지. 우리는 다시 착륙을 시도했어. 비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기체는 거대한 파도 위에 놓인 나뭇잎처럼 흔들렸지. 하지만 기훈이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비행기를 몰았어. 그의 모든 감각과 경험이 조종간 끝에 모여 있는 것 같았지."

"활주로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였어.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갑작스러운 돌풍,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거인의 주먹 같은 것이 우리 비행기의 왼쪽 날개를 강타했네. 기체가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왼쪽으로 기울었지. '잡아!' 내가 소리쳤고, 기훈이는 온 힘을 다해 조종간을 오른쪽으로 밀었어.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 왼쪽 주력 바퀴가 활주로의 단단한 아스팔트가 아닌, 그 옆의 무른 잔디 위로 떨어지고 말았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기체가 크게 흔들렸다. 승객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고, 조종석 안은 경고음으로 가득 찼다. 다행히 기훈이가 필사적으로 기체를 바로잡아 활주로 안으로 되돌아왔고, 최악의 참사는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기체의 랜딩기어는 심하게 손상되었고, 활주로는 파손된 기체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그 후의 일은... 지옥과도 같았지."

영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사고 조사 위원회가 꾸려졌고, 나와 기훈이는 매일 같이 불려 가 조사를 받았어. 차갑고 네모난 방, 우리를 죄인처럼 쳐다보던 조사관들의 눈빛. 그들은 집요하게 물었네. '왜 좀 더 일찍 복행을 결정하지 않았나?', '측풍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던 것 아닌가?' 그들의 모든 질문의 끝에는 이미 정해진 답이 있었지. 바로 '조종사의 과실'이라는 다섯 글자."

"우리는 필사적으로 항변했네. 착륙 직전의 무리한 활주로 변경 지시, 기상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았던 예측 불가능한 돌풍의 존재. 하지만 우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관제탑은 자신들의 교신 기록 중 유리한 부분만을 제출했고, 항공사는 모든 책임을 우리 조종사들에게 떠넘기려 했지. 거대한 조직 앞에서, 우리 두 사람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힘이 없었네. 우리가 믿었던 관제탑은...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했어.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조종사 두 명의 날개를 꺾는 쪽

을 택한 게야."

그 침묵 속에서, 박기훈은 하늘에서 추방당했다. 비행 자격이 무기한 정지되었고, 오랜 법적 다툼 끝에 그는 결국 하늘로 돌아오는 것을 영원히 포기했다. 평생을 하늘의 언어로 숨 쉬고, 하늘의 길 위에서 살았던 사람에게, 땅은 너무나 낯설고 가혹한 감옥이었다.

"그 후로 기훈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 한때 하늘의 모든 별자리를 꿰고 있던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세상의 모든 바람 소리를 구분해 내던 그의 귀는 닫혀버렸지. 그는 더 이상 웃지도, 말하지도 않았어. 가끔 만나면 술에 취해 텅 빈 눈으로 중얼거리곤 했네. '내 잘못이 아니야, 영호야.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이 이 땅 위에는 없어.'라고. 하늘에서는 모든 것이 그토록 명료했는데, 땅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불투명하다며 그는 괴로워했지."

영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노트를 소포로 보내왔더군. '내 비행은 여기까지다. 이 기록은 이제 자네가 맡아주게. 불태우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든... 하지만 자네의 비행은 계속되어야 하니까.'라는 짧은 편지와 함께. 그 편지를 읽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 세상이 그를 버렸는데, 나마저 그의 마지막 비행 기록을 버릴 수는 없었지."

그는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래서 결심했네. 그의 비행이 여기서 끝나게 두지 않겠다고. 내가 조종간을 잡는 동안, 그의 영혼도 내 옆자리에서 함께 비행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의 아름다운 기록들 옆에, 나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덧쓰기 시작한 게야. 그의 이름이 세상에서 완전히 잊히는 것이 두려워서, 하지만 동시에 그 끔찍했던 사고의 상처를 다시 들추고 싶지는 않아서... 나도 모르게 그 녀석의 이름을 지우고, 내 이름과 내 이야기로 그의 상처를 덮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참 비겁하고 어리석은 짓이었지. 나는 그의 이야기를 지키려 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죄책감에서 도망치려 했던 건지도 몰라."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것이 차오르고 있었다.

"아닙니다, 선생님. 그건...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었던 가장 용감하고 위대한 비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침묵하는 관제탑을 향한, 세상에서 가장 길고 외로운 항의 비행이요."

그 말에, 영호의 눈에서 끝내 참아왔던 눈물 한 방울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황급히 기름때 묻은 작업복 소매로 눈가를 닦아냈다.

"그렇게 말해주니... 수십 년 묵은 마음의 빚을 조금은 탕감받은 기분이구나. 나는 그저 기훈이의 이야기가 이 차가운 박물관의 엔진처럼, 한때는 세상을 움직였지만 결국에는 모두에게 잊힌 채 녹슬어 가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었을 뿐이야. 그러다 도서관에서 자네를 만난 거고. 잠들지 못하고 활주로 영상을 들여다보던 자네의 그 간절하고 순수한 눈빛에서, 나는 아주 오래전, 처음으로 하늘

을 날고 싶어 안달이 났던 기훈이와 내 모습을 보았네. 그래서 결심했지. 이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조종사를 만나, 새로운 하늘로 다시 날아올라야만 한다고."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관제탑은 침묵했다. 세상은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 하지만 그들의 비행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한 사람이 절망 속에서 마지막 기록을 남겼고, 다른 한 사람이 그 기록을 지키고 외롭게 이어왔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이야기와 침묵의 무게가 서진의 어깨 위로 고스란히 내려앉았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이제 그들의 침묵에 응답해야만 했다. 그것은 그의 숙명이자, 그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비행의 시작이었다.

7장. 마지막 비행

박물관의 차가운 공기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어두웠다. 서진은 영호와 헤어져 홀로 걷기 시작했다. 무거운 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가벼웠다. 모든 것을 알게 된 후의 허탈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침내 자신이 가야 할 항로의 좌표를 확인한 조종사의, 고요하고 단단한 발걸음이었다. 도시의 소음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멀게 느껴졌다. 그의 귓가에는 오직 영호의 마지막 목소리와, 그 목소리 너머에서 들려오는 박기훈이라는 이름의 침묵만이 맴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반지하방으로 돌아왔다. 끼익, 하고 녹슨 소리를 내며 열리는 현관문. 그를 맞이하는 것은 언제나처럼 눅눅하고 서늘한 공기였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더 이상 그 공기에서 절망의 냄새를 맡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주 오래된 종이와 잉크, 그리고 두 조종사의 세월이 뒤섞인 듯한 옅은 향기를 느꼈다. 그의 방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감옥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새로운 이륙을 준비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격납고가 되어 있었다.

그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노트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불을 켠 채, 아주 오랫동안 그 노트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동경의 대상이었고, 한때는 의심의 근원이자 혼란의 시작이었던 이 낡은 가죽 노트. 이제 그것은 그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이것은 단순한 비행일지가 아니었다. 이것은 세상의 침묵에 맞서 두 사람이 함께 써 내려간 위대한 저항의 기록이었고, 꺾인 날개를 대신해 서로의 하늘을 날아주었던 우정의 증거였으며, 그리고 이제는 그에게 건네진 마지막 비행 명령서였다.

그는 천천히 노트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아주 느린 속도로 다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번의 독서는 이전의 그 어떤 경험과도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추적하는 탐정도, 감동적인 이야기에 취한 독자도 아니었다. 그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으로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숨겨진 두 사람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있었다.

알프스산맥 위로 노을이 번진다는 문장 속에서 그는 박기훈의 시적인 감성과, 그 옆에서 계기판을 확인하며 안전거리를 계산했을 영호의 이성적인 목소리를 동시에 들었다. 사하라 사막을 '신의 지문'이라 표현한 대목에서는, 경이로움에 취한 박기훈의 옆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조종간을 잡고 있었을 영호의 따뜻한 얼굴을 보았다. 내전 지역의 아이에게서 '우체부'가 되었다는 문장 뒤에서는, 구호 물품의 무게와 연료 잔량을 계산하며 다음 비행 계획을 짜고 있었을 두 사람의 치열한 책임감을 느꼈다.

모든 페이지가, 모든 문장이 두 사람의 듀엣이었다. 때로는 박기훈이 주선율을 연주하면 영호가 든든한 화음을 넣었고, 때로는 영호가 정확한 박자를 이끌어가면 박기훈이 그 위로 자유로운 변주를 펼쳤다. 그들의 비행은 그렇게 완성되었다. 서진은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이 노트가 그토록 깊은 울림을 주었던 이유는, 단순히 한 명의 뛰어난 조종사가 쓴 글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하늘을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날았던 두 영혼의 목소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침내 노트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마치 이 모든 운명을 예견이라도 한 듯, 단 한 문장이 유언처럼 적혀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네가 쓴다.

이전에는 그저 막연한 초대처럼 느껴졌던 이 문장이, 이제는 수천 피트 상공에서 내려온 장엄한 명령처럼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것은 단순한 격려나 부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모든 비행과 상처, 그리고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책임져 달라는 간절하고도 무거운 위임이었다. 그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엇에 홀린 듯, 그는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다. 이륙 전, 조종사가 자신의 기체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비행 전 점검과도 같은 신성한 의식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책장 위, 먼지 쌓인 비행기 모형들을 하나씩 꺼내 마른 헝겊으로 정성껏 닦았다. 한때는 실패한 꿈의 잔해처럼 보였던 이 모형들이, 이제는 자신이 처음 하늘을 꿈꾸게 했던 순수한 열정의 증거처럼 보였다. 그는 보잉 747의 먼지를 닦아내며 박기훈과 영호가 함께 비행했을 거대한 동체를 떠올렸고, 콩코드의 뾰족한 코를 닦으며 그들이 동경했을 소리의 벽 너머 세상을 상상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방에 나 있는 유일한 창문, 그를 그토록 답답하게 짓눌렀던 반지하의 네모난 창문을 닦았다. 찌든 때와 먼지를 닦아내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그 창문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 좁은 창문은 그의 세상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드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유일한 출구이자 조종석의 계기판이었다. 그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조각난 하늘이 있었기에, 그는 온전한 하늘을 더욱 간절히 꿈꿀 수 있었던 것이다.

모든 정리를 마친 후, 그는 깨끗해진 책상 위에 노트를 다시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오랫동안 펴보지 않았던 자신의 낡은 노트를 나란히 놓았다. 그는 조용히 가방을 멨다. 그 안에는 두 조종사의 삶이 담긴 비행일지가, 마치 블랙박스처럼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공항 근처의 작은 언덕으로 향했다. 자신의 방을 나서는 것은 더 이상 도피가 아니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넓은 대로로, 낮은 지대에서 높은 언덕으로. 그의 모든 발걸음은 지상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길고 장엄한 이륙의 과정이었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 밤은 가장 깊은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차가운 철망 너머로, 거대한 공항이 잠들지 않는 생명체처럼 빛을 내뿜고 있었다. 수천 개의 유도등이 별처럼 반짝이며 어둠 속에 길을 내고 있었고, 멀리서는 지상요원들의 작은 불빛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서진은 그 광경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값싼 동경심으로 활주로를 바라보는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저 빛의 의미와 무게를 아는 사람이었다. 저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길고 고된 비행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철망에 기대어 이륙을 기다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거대한 여객기 한 대가 어둠을 뚫고 그의 시야로 들어왔다. 육중한 동체가 천천히 활주로의 시작점으로 이동했고, 이윽고 멈춰 섰다. 숨을 고르는 거인처럼. 잠시 후, 네 개의 엔진이 차례로 포효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낮은 울음소리 같았던 소음이, 점차 대지를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으로 변해갔다. 그 소리는 더 이상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중력에 저항하는 모든 존재들이 터뜨리는 비명이었고, 땅의 속박을 끊고 하늘로 솟아오르려는 의지의 함성이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빨라지는 속도.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았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기체의 앞바퀴가 가볍게 들리는 그 찰나의 순간. 로테이션. 지상에서의 모든 규칙과 무게를 벗어던지고 하늘의 법칙 속으로 들어가는 그 경계의 순간. 육중한 동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우아하게 허공으로 떠올랐다.

서진은 그 광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비행기는 어둠 속으로, 더 높은 곳으로, 끝없이 솟아올랐다.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멀어지며 그의 발아래 작은 점들로 부서졌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반지하 방도, 지긋지긋했던 아르바이트도, 막막했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모두 저 작은 점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도가 바뀌자, 시야가 바뀌었고, 시야가 바뀌자,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사소해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이 항로의 조종사는 나다.'

그는 상상 속에서, 자신만의 비행일지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 첫 번째 기록을 써 내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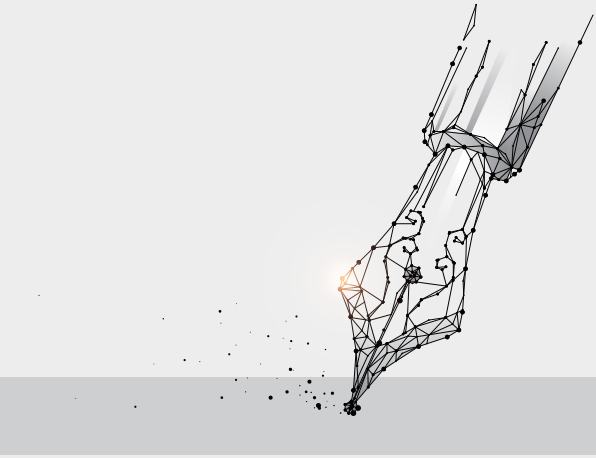
'비행은 계속된다. 활주로는 때로 지워지고, 관제탑은 때로 침묵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 눈으로 새로운 길을 그리고, 내 심장의 박동으로 응답할 것이다. 나는 오늘 이륙한다. 박기훈의 절망과 영호의 신념을 연료 삼아, 나의 반지하방이라는 중력을 벗어나.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착륙할 것이다. 그곳이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는 활주로이든 상관없다. 나는 두 발로 당당히 그 위에 서서, 나 자신의 비행을, 그리고 그들의 비행이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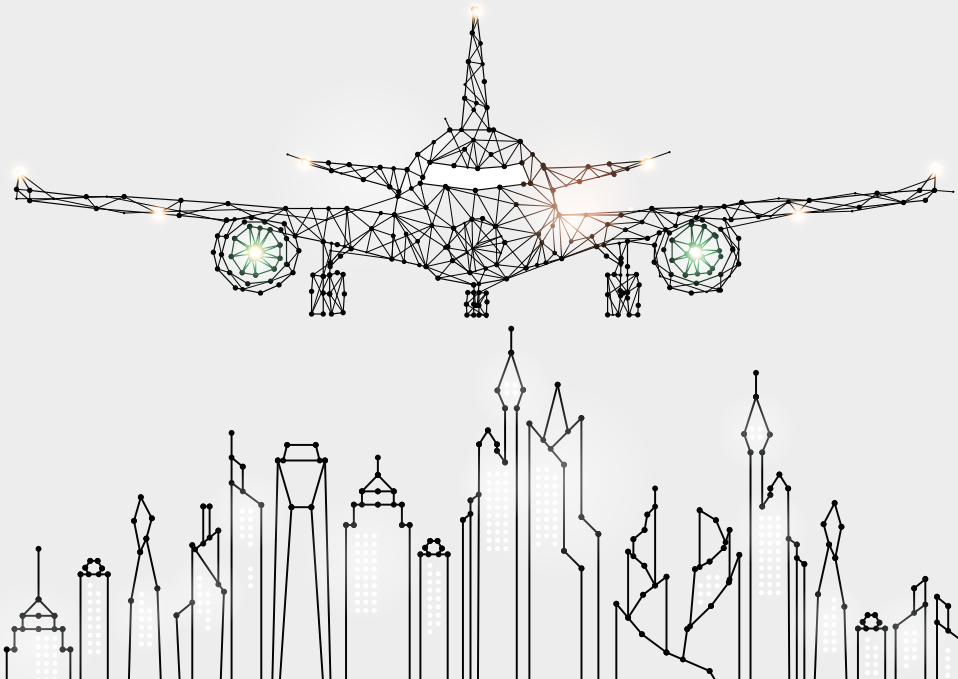
비행기의 붉고 하얀 점멸등이 점점 작아져, 마침내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 하나가 되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언덕 위에는 다시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에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불빛이 환하게 켜지고 있었다. 그것은 결코 꺼지지 않을 그만의 항로를 비추는 등불이었다.

그는 차가운 철망에서 손을 떼고, 언덕을 내려오기 위해 몸을 돌렸다. 더 이상 공항 쪽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제 자신이 걸어가야 할 지상의 길, 새로운 활주로를 향해 있었다. 그는 어둠 속 하늘을 향해,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직하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쓴다."

그리고 그 말은, 노트 마지막 장에 남겨진 문장과 정확히 겹쳐져 하나의 완전한 약속이 되었다. 이야기에는 종착역이 없었다. 다만 한 사람에게서 다음 사람으로, 용기 있게 이어지는 눈부신 항적만이 밤하늘에 길게 새겨지고 있을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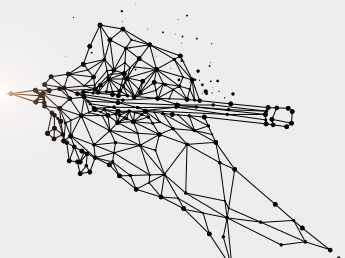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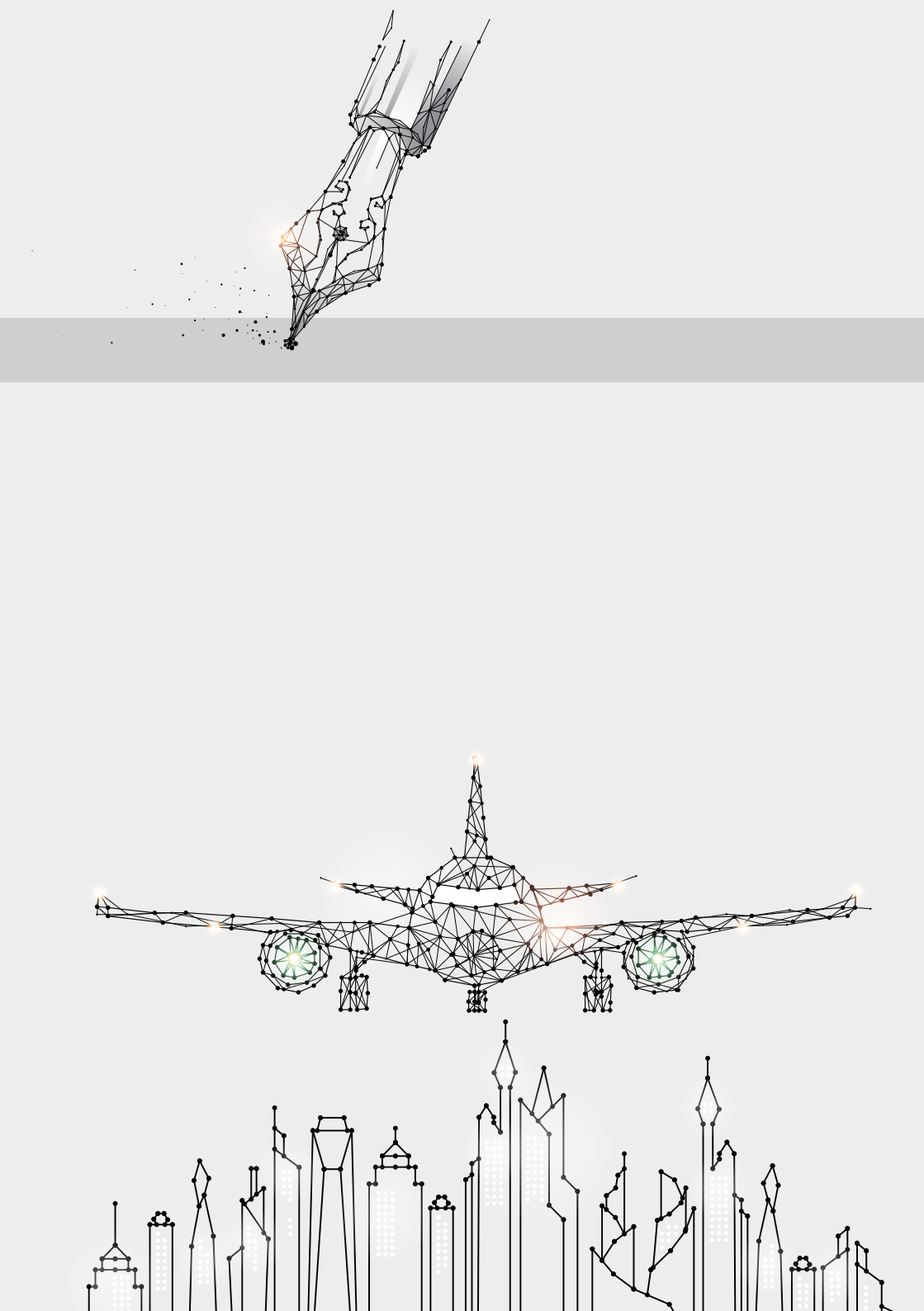


초등부

최우수상 소설 하늘 우체국: 마지막 비행 김가빈

우수상 시 하늘 위 귀경길 김상윤
소설 할머니와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곳 김요한
시 꿈 김운성
소설 여행은 힐링이다. 김정원
시 비행기와 나 김지훈
수필 첫 비행의 상상과 설렘 이지원
수필 연착은 '짜증'이 아니라 '행복' 정현진
수필 오늘은 비행기 덕후 내일은 프랑스 툴루즈 에어버스 테스트 파일럿 최은혁





초등부

장려상	시	할머니의 손 고건희
	수필	데스티니의 여행 고은채
	시	종이학 김규원
	소설	공항에서 발견한 내 진짜 친구 김서경
	수필	지구의 푸른 멍을 꿰매는 비행 김율곡
	시	비행기의 좋은 점 김준형
	시	비행기 여행의 매력 김지오
	시	할머니의 버킷리스트 나도연
	시	구름 카펫 위를 나는 시간 남가은
	시	할아버지의 하늘 민동원
	시	비행의 설레임 박유리
	시	형이 왔다 박준필
	시	인천공항의 마음을 엿보다 신주원
	시	선물 심동하
	수필	하늘을 날아 이탈리아로 내 추억 상자 이야기 심세윤
	시	시간여행자 유하린
	시	하늘나라 가는 비행기 이라온
	시	공항은 나의 놀이터 이룬
	수필	행복했던 두 번의 비행기 여행 이우진
	수필	대륙 너머로가는 14시간의 비행 이태평
	시	똥은 어디로 가나요 이해강
	수필	추억여행 이해준
	시	하늘은 나를 기억할까 최민서
	시	두근두근 콩닥콩닥 한정우
	시	눈 깜짝할 새 현진서

최우수상

초등부

소설

하늘 우체국: 마지막 비행

김가빈

소설

하늘 우체국: 마지막 비행

초등부 **최우수상** 김가빈

1.

하늘이는 공항을 좋아했다. 비행기 이륙 소리, 탑승 게이트의 안내 방송, 여행객들의 설레는 표정까지. 공항은 마치 다른 세계로 향하는 문 같았다. 그 문을 처음 열어준 사람은 바로 외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은퇴한 항공 엔지니어였다. 하늘이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비행기를 구경하러 공항에 가곤 했다. 활주로 끝에 앉아 하늘을 날아오르는 여객기를 보며 하늘이는 말했다.

"할아버지, 나도 저기 타고 싶어요."

"곧 탈 수 있단다. 우리 둘이 비행기 타고 여행 가자꾸나."

2.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졌다. 하늘이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할아버지는 하늘이에게 비행기 티켓을 건넸다. 도착지는 하와이.

"우와! 진짜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비행이 될지도 모르니까."

하늘이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할아버지 얼굴에 담긴 따뜻한 미소만은 잊지 못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하늘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람들, 캐리어, 탑승 수속, 면세점, 그리고 드디어 여객기에 탑승했다.

비행기 좌석에 앉자마자 하늘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다.

"할아버지, 저런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누구는 가족을 만나러, 누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러, 누구는 여행을 하러 가겠지. 하지만 결국엔 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가는 거란다."

그 말이 하늘이의 가슴에 깊이 들어왔다.

3.

비행기 이륙 전, 승무원이 안전 수칙을 설명하고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 비행기는 곧 이륙합니다.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는 숨을 들이쉬었다. 활주로를 따라 비행기가 달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하늘이는 심장이 쿵 하고 뛰는 걸 느꼈다. 비행기가 바닥을 박차고 날아오를 때, 하늘은 마치 자기 자신도 함께 날아오르는 느낌이었다.

기내식으로 나온 오믈렛과 파인애플 주스를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옆자리 할아버지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그 모습에 하늘이는 수첩을 꺼냈다. 수첩엔 이렇게 적었다.

“하늘 우체국 제1호 편지 – 할아버지와의 첫 비행.”

“편지를 쓰는 거니?” 할아버지가 웃으며 물었다.

“응! 하늘 우체국으로요. 나중에 또 비행기를 탈 때 꺼내 볼 거예요.”

“그럼 나도 하나 써야겠구나.”

할아버지도 손바닥만 한 메모지를 꺼내 무언가를 적었다. 그리고 하늘이 몰래 하늘이의 배낭 속에 넣었다. 기내에서는 담요를 덮고, 함께 애니메이션도 보고, 창밖에 흐르는 별빛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하늘이에게 비행기 조종석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었고, 하늘이는 눈을 반짝였다.

4.

하와이에서의 여행은 말 그대로 꿈 같았다. 첫날은 와이키키 해변에서 놀았고, 둘째 날은 호놀룰루 시내 관광을 했다. 하늘이는 국제시장에 가서 할아버지에게 조개 목걸이를 선물했고, 할아버지는 작은 우쿨렐레를 사주었다. 저녁에는 공연장에서 훌라춤을 보며 열대 과일로 만든 디저트를 먹었다.

셋째 날, 하늘이는 처음으로 스노클링을 해보았다. 바닷속에서 알록달록한 물고기들이 눈앞을 지나가자, 하늘이는 너무 신나서 소리쳤다. 물 속이라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해질 무렵, 둘은 해변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하늘아, 네가 하늘을 좋아해서 참 다행이야.”

“왜요?”

“하늘은 모든 걸 이어주거든.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그리고 마음과 마음까지.”

그

말이 하늘이의 가슴에 깊이 남았다.

5.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 한 달 뒤,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웠다. 하늘이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에서 혼자 울다가 문득, 여행 가방을 열어보았다. 그 안엔 할아버지가 남긴 쪽지가 있었다.

"하늘아. 우리 마지막 비행, 고마웠다. 다음 비행은 네가 조종하는 여객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보자. 사랑해. - 하늘 우체국에서, 할아버지."

하늘이는 편지를 꼭 쥐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 무언가 다시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6.

그날 이후, 하늘이는 매일 비행기 공부를 시작했다. 기내 방송 흉내 내기, 세계 지도 그리기, 항공 교통 시스템 조사까지. 영어 단어보다 먼저 배운 건 ILS(계기 착륙 시스템)라는 용어였다.

방과 후에는 공항 다큐멘터리를 찾아보았고, 주말에는 가까운 공항 전망대에 가서 비행기를 스케치했다. 항공기의 부품 이름, 항로, 항공사 기체 차이까지 외우는 데 푹 빠졌다.

하늘이는 다짐했다.

"나는 여객기를 타는 사람이 아니라, 조종하는 사람이 될 거야."

7.

몇 년이 지나, 하늘이는 항공과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시뮬레이터 조종 훈련을 받으며 자신의 꿈을 키웠다. 학교 친구들과 만든 '비행 동아리'에선 공항 체험도 가고, 공항 관제탑을 견학하며 매 순간을 기록했다.

하늘이는 친구들과 함께 공항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여러 나라 여행객들을 도왔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접하며 하늘이는 더 넓은 세상을 꿈꾸게 되었다. 특히, 한 번은 길을 잃은 어린이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나서, 그 아이가 준 그림 편지를 받고 크게 감동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늘이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우리 '하늘 우체국'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공항에서 편지를 쓰고, 우리가 드론이나 여객기를 통해 전달하는 거야."

선생님도 감동했고, 공항 측의 협조도 얻을 수 있었다. 프로젝트 이름은 'Sky Mail: 마음을 싣고 나는 편지'.

8.

하늘이는 프로젝트 발표를 위해 국제 청소년 항공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만난 또

래 항공 꿈나무들과의 만남은 하늘이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었다. 일본, 프랑스, 케냐, 아르헨티나…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모두 하늘을 사랑했다.

하늘이는 밤늦게까지 영어 발표 연습을 하고, 팀 친구들과 PPT 자료를 만들었다. 발표 날, 그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하늘 우체국은 단순한 편지 배달이 아니라, 감정을 연결하는 하늘길이에요."

하늘이는 당당하게 발표했다. 박수갈채 속에서 하늘이는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 여기까지 왔어요."

9.

첫 번째 시범 운행 날, 하늘이는 공항 안내 방송을 들으며 활주로 옆에 섰다. 이제는 진짜 조종 훈련생으로 첫 비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늘색 봉투 하나를 가슴에 넣고 있었다. 그 안엔 자신이 쓴 편지와, 할아버지의 메모.

"하늘 우체국, 두 번째 비행. 할아버지, 지금도 보고 계시죠? 저는 출발합니다."

비행기는 부드럽게 이륙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고, 하늘이는 미소 지었다. 그 어디선가,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잘했다, 우리 하늘이."

하늘이는 이제 하늘 위를 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매 비행마다, 누군가의 마음을 함께 실어 나르고 있었다.

10.

지금 하늘이는 여름방학마다 지역 초등학생들을 위한 '하늘 체험 캠프'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공항 투어, 시뮬레이터 체험, 하늘 우체국 엽서 쓰기까지, 아이들은 그를 따라다니며 눈을 반짝인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다.

"형아는 왜 조종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늘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을 하늘에 남기고 싶어서."

그날 저녁, 하늘이는 또 한 통의 편지를 썼다. 하늘 우체국, 제10호 편지였다.

"할아버지. 오늘도 하늘은 참 예뻤어요. 고마워요. 저, 지금도 잘 날고 있어요."

하늘이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다음 비행을 준비했다. 목적지는 또 다른 마음이 기다리는 하늘 저편이었다.

우수상

초등부

시

하늘 위 귀경길

초등부 **우수상** 김상윤

4,200킬로미터 6시간 35분
우리 집 귀경길은 하늘을 달려요

구름을 매트처럼 깔아 놓고
조용히 눈을 감으면
어느새 도착해 있어요

다른 집 귀경길은
차가 안 움직인다며 투덜투덜하지만
우리는 멀리 가도 막히는 법이 없어요
하늘에는 신호등이 없거든요

창밖을 보면 구름이 배처럼 떠다니고
비행기 안에선 만화가 나오고
밥이 따뜻해서 김이 나요

도착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할머니가 팔 벌리고 기다리는 곳이에요

비행기는 보고 싶은 마음을 태우고
구름 미끄럼틀을 타고 할머니 품으로 내려가요

소설

할머니와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곳

초등부 **우수상** 김요한

prologue (이야기를 시작하며)

공항 안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키 크고, 덩치 있는 사람 속에 유독 마르고 키 작은 남자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고 있다.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공항 안을 신기한 듯 둘러본다. 아버지와 함께 탈 비행기를, 아픈 할머니를 위해 병문안을 가기 위한, 그런 소중한 비행기다. "아빠! 어떤 게 우리가 탈 비행기죠?" 라는 아이의 질문에 아빠는 "17시 30분에 출발하는 LA행 비행기야." 라고 대답한다. 이에 아이는 아버지한테,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라고 물어보고, 아버지는 비행기가 지연되지 않는 이상 12시간 정도 걸린다는 것을 알려준다. 아들의 계속되는 질문을 받으며, 둘은 수하물 위탁대로 직진한다.

"손님, 가방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는 공항 직원의 말에

"아빠, 내 가방에 좀 넣으면 돼." 라고 아들이 대답한다.

이런 장난스럽기도 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아버지와 아들이다.

~

chapter 1

"17시 30분에 출발하는 LA행 비행기, 17시 00분에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과 함께 아들 이아는 아버지와 함께 탑승구로 간다.

"아빠! 나의 첫 비행기인데, 너무나도 기대가 돼." 이아가 말한다.

"아빠는 벌써 10번 넘게 타봤는데, 이아랑 타니까 너무 기대가 돼.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돼. 할머니 척추뼈가 골절되었거든." 아버지가 대답한다.

"네, 이제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상 탑승표에는 그룹 번호가 표시되어있습니다. 그룹 1이라고 써져있는 승객들은 대기 줄을 서주십시오. 그룹 1은 프레스티지와 일등석 모두 해당됩니다. 이코

노미 승객들은 잠시 후에 탑승하겠습니다. 아이를 동반하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그룹 1입니다. 비행기 등급이 다이아몬드 이상이면 그룹 1입니다." 승무원이 말한다.

"우리 그룹 1이야! 아빠!" 감탄하는 이아의 기색에 승무원은 흐뭇하게 웃으며 작은 이아의 손에 주황색 기차 장난감을 쥐어준다. 비행기를 향해 한 발 한 발 가는 이아에게 손을 흔들어준다.

"근데 왜 우리가 그룹 1이야?" 이아가 질문한다.

"아, 그건 우리가 프레스티지석 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네가 어려서 그런 것도 있어."

이아가 먼저 통로를 걷고, 아버지가 뒤따른다. 신난 나머지 이아는 이코노미 출입구로 간다.

"고객님, 탑승 표 보여주세요." 초록색 안경을 낀 남자 승무원이 묻는다.

"이건가요?" 이아가 대답한다.

"프레스티지석은 가운데 문입니다." 라는 말에 아버지는 꾸벅 인사하고, 이아를 데리고 들어간다.

"쾅쾌쾅우웅!" 알 수 없는 소리가 이아한테 들린다.

이아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아버지의 온기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가죽 잠바 안에 들어가 몸을 숨긴다.

이후 이아는 계속 미어캣처럼 눈치를 살폈다.

마침 앞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던 이아 앞사람은 표범 잠바를 입은 미국인이었다. 그 분은 "아, 그 소리 때문에 걱정이었구나. 그 소리는 엔진 소리야. 소리가 크고 굵긴 한데, 네가 탈 비행기가 내는 소리란다."라고 말해주며, 이아의 걱정을 달래고자 했다.

아버지는 이아를 데리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왔다. 그 안에 먼저 보이는 건 음료였다. 포도 주스부터 라임, 자몽, 용과, 페션푸르츠 음료까지 빠진 게 없었다. "그건 환영 음료라는 건데, 지금은 못 마셔. 이륙하면 줄 거야." 아버지가 알려줬다. 첫 비행에 궁금증이 생긴 5세 이아였다.

~

이어서 좌석을 향해 걷는데 한 아저씨가 유독 눈에 띄었다. 프레스티지석 2B에 앉은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마스크랑 장갑을 끼고 있어 이아는 무서워했다. 이아랑 눈이 마주치차 그 아저씨는 웃기까지 했다. 게다가 이아의 자리는 3C, 아버지의 자리는 3D여서 바로 대각선 위치였다. 아버지가 있어 그나마 이아는 안심할 수 있었다. 3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벌떼처럼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코노미 석 사람들이 이아처럼 문을 헷갈려 한 모양이었다. 또, 그 사람들은 복도를 지나가며 이아를 보고 뭐라고 서로에게 귓속말을 하거나, 인사를 해준다거나, 과자나 초콜릿을 주었다. 그것은 희한하게도 이아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다행히 잠시 후, 출입구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사람들이 더 이상 복도 측으로 오지 않았다. 이아는 그제야 한 숨 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이아에게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비행기가 움직이지 않자, 이아는 심심해졌다. 아버지는 화면으로 테니스 경기 영상을 보고 있었다. 이아가 여러 번 아버지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테니스 동점에

듀스여서 멈출 수가 없었다. 이아도 하는 수 없이 화면을 켰는데, 중간에 "기내 방송 중입니다."라는 텍스트와 함께 검색모드가 중단되었다. 이어서 비행기가 서서히 출발하며, 안내방송이 나왔다. 이아는 비행기를 처음 타는 것이어서 주의 깊게 봤다. 주변 사람들은 자세히 보지 않는 듯 했다. 2B 석에 앉은 양복 아저씨는 계속 뭔가를 중얼 중얼거리고 있었다. 안전방송에는 현지 날씨와 함께 기류 상태, 긴급 탈출, 구명조끼 등의 설명이 나왔다. 이아 혼자만 심각한 표정이었다. 아버지는 기내 방송이 나온 것도 몰랐는지 자신의 테니스 경기 하이라이트가 끝났다고 실망하고 있었다. 테니스를 사랑하는 아빠여도, "아빠, 비상구가 어디예요?", "기내 표준 속도, 외부 온도가 뭐죠?"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륙'이라는 기장의 말과 함께 엔진 소리가 나고, 기내가 흔들리며 삽시간에 육지에서 벗어났다. 창밖으로는 암스테르담의 풍경이 한 눈에 보였다. 평화롭던 시간은 이제 끝이었다. 갑자기 구름이 보이더니 기내가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때, "우리 비행기는 지금 난기류를 겪고 있습니다. 구름 지대를 벗어나면 괜찮아질 겁니다."라는 초록 안경 승무원의 듬직한 방송에 이아는 그제야 안심할 수 있었다. 다시 모니터가 검색 모드로 전환되었고, 아버지의 테니스 경기도 진행되었다. 이아도 모니터를 본격적으로 검색해, 게임 콘텐츠를 발견했다. 그런데 프레스티지석은 주로 어른들이 이용하는 거여서 그런지 게임이라고는 바둑, 고누, 당구 같은 복잡하고 고급 기술이 필요한 것 밖에 없었다. 영화는 대부분 어른 영화, 15금 이였고, 쇼핑도 화장품 등 이아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었다. 경기 콘텐츠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았다. 검색을 시작한지 3분 만에 이아는 끝내 전원을 꺼버리고 말았다.

chapter 2

아버지의 테니스 게임이 끝나기 무섭게 난기류 현상이 잠잠해졌다. 이아가 안심할 때면 다시 흔들리기 마련이었다. 이아의 심리는 롤러코스터만 같았다. 이아는 모니터를 포기하고 아버지에게 젓가락 게임을 제시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테니스 2화를 보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29화까지 있었다. 이아는 하품을 하고 멍하니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그제야 이아를 알아보고, 이어폰 하나를 내밀더니 "같이 볼래?"라고 물어보았다. 누구나 힘들 비행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이아의 심리 상태는 지루함이 넘쳐 흘렀고, 스트레스 지수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을 때, 리본을 하고 있는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환영 음료를 줬다. 이아는 그제야 환한 미소를 질 수 있었다. 이내 승무원이 "꼬마 손님, 뭐 드실래요?"라고 묻자, 이아는 승무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라임 주스요."라고 대답했다. 승무원은 이아가 비행기 탑승구에서 받은 주황색 기차를 갖고 바퀴를 흔들어주며, 인사를 건넸다. 이아는 손을 흔들어주며 벌컥벌컥 주스를 마셨다.

라임 주스는 당 떨어진 이아의 속을 가득 채워주었다. 근데 누군가 이아 눈에 띄었다.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웰컴 드링크를 받지 못했다. 그 경기 3화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경기 3화는 잠시 기내 방송으로 인해 일시중단이 되었다. 아버지는 곳간이 털린 듯이 탄식했다. 기내 방송은 저녁 메뉴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 방송에 '라따뚜이'나 '최고급 18K 금 스테이크' 등 이아가 알아듣기 어려운 외래어들이 있었다. 그제서야 아버지는 "금 스테이크"라는 말을 외침과 동시에 이어폰을 내려놓고 테이블 버튼을 눌러 테이블이 나오길 기다렸다. 이아도 뒤이어 테이블 버튼을 눌렀다. 저녁을 배식해주는 승무원이 오길 이아는 목 빠져라 기다렸다. 승무원이 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아는 인사를 건넸고, 이번엔 이아의 가방을 보며 잠시 놀아주었다. 승무원이 뒷좌석으로 이동하자, 이아는 본격적으로 저녁을 먹을 준비를 하였다. 아버지는 10분 만에, 이아는 15분 만에 잔반을 싹 비었다. 양복 입은 아저씨의 식판 바닥은 5분 만에 드러났다. 프레스티지석 승객들이 금 스테이크와 라따뚜이의 고급스럽고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맛에 다들 감탄하는 사이, 해는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졌다. 밖에는 금세 어두컴컴해졌다. 이아는 창밖을 보려 창문 뚜껑을 엶과 동시에 갑자기 불안해졌다. 이아는 사실 조울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 이 병은 치명적이기보다는 이아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곤 한다. 기쁘면, 엄청 날뛰고, 이와 반대로, 슬프면 성대가 터지게 운다. 화가 나면 웬만한 어른도 못 말릴 정도를 운다. 말하자면 감정 기복 변화가 심한 병이라고 볼 수 있다. 이아는 오늘 상당한 감정 기복 변화를 겪었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제 프레스티지 석의 위엄을 볼 차례였다. 취침 버튼을 누르니 자동으로 의자가 침대로 뚝딱 변신했고, 이아도 같이 눕혀졌다. 이를 알아차린 아버지는 테니스 7화를 보다 말고 이아에게 이불을 덮어줬다. 이불 덮은 이아는 180도로 누울 수 있어 정말, 정말 편했다. 이아는 금방 잠이 들었다. 그러나, 누군가의 강한 재채기 소리로 이아는 결국 깨고 말았다. "아, 참."이라고 이아가 말했다. 이아가 다시 자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화장실을 가겠다며 이아를 치고 지나갔다. 이아는 또 잠에서 깬 것을 기분 나쁘고, 불쾌하게 생각했다. 마침 이아도 화장실을 가야되어서, 이아도 벨트를 풀고 기내 앞 편 화장실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여기서 이아는 프레스티지 석의 위력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다. 바로 화장실 대기줄을 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먼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아는 반대편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몸을 돌렸다. 아버지는 3분 후, 나왔는데, 이아는 감감무소식이었다. 아버지는 먼저 자리로 돌아가 테니스 게임을 봤다. 이아는 아버지가 테니스 게임을 보는 동안, 어떻게 하면 화장실 잠금을 풀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분명 잠그는 건 쉬웠는데, 푸는 걸 잊어버렸다. 다행히 그 근처에 있던 승무원이 이아의 뜻을 알아차렸는지 버튼 위치를 알려주었다. 이아는 다행의 의미인 한숨을 쉬며, 화장실 문을 닫고 자리로 가려고 했다. 어느새 기내 불을 꺼져있었다. 이아는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무작정 자리로 달렸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기내가 흔들리는 바람에 세게 어딘가에 머리를 박고 넘어졌다. 이아는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다.

dream-(chapter 3)

어느새 이아는 비행기에서 내렸고, 공항에서 아픈 할머니를 보러 택시를 타고 있었다. 택시에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이 있었다. 옆에는 아버지가 있었다. 아버지는 표정이 어두워보였다.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와 택시에서 내렸다. 이아는 하늘을 무심코 봤는데, 할머니가 구름 속에서 날아다니고 있었다. 이아는 기겁했다. 할머니는 주걱으로 구름을 무슨 모양으로 만들려는 것 같았다. 얼마 되지 않아 할머니가 만든 작품은 이아에게 드러났다. "ㅅㅏㄹㅏㅇㅎㅐ.ㅇㅣㅇㅏㅇㅑ." 라고 써져 있었다. 이아도 할머니에게 보일 줄은 몰랐지만 손으로 하트를 해주었다. 할머니는 뒤이어 하늘에서 내려왔고, 이아 앞으로 순식간에 다다랐다. 할머니는 매우 건강해보였고, 이아를 엄청나게 반기는 기색이었다. 이아는 달려가 할머니를 안아주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만져지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보였다. 할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이아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손에는 이아의 기차 장난감이 들려 있었다. 장난감 역시 이아에게 만져지지 않았다. "할머니!"라고 목청 터지게 소리질러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들리는 건 까마귀의 울음소리뿐이었다. 이아는 가슴을 치며 통곡 했다.

계속해서 할머니를 외쳐보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할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밝아 있었으며, 이아를 향해 웃고 있었다. 이내 할머니는 서서히 다시 하늘로 높이 떠올랐다. "안 돼!"라고 이아는 막아보았지만, 슬프게도, 어쩔 수 없게도, 불행하게도 할머니를 막을 방법은 없었다. 이아의 얼굴은 처음에도 눈물로 가득했지만, 잠시 곰곰이 생각한 후, 할머니를 보내주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었다. 얼마 되지 않아 할머니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높이 올라갔다. 남겨진 이아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잠시 뒤에 아버지가 잽싸게 뛰어오더니 이아에게 와서 안겼다. 영문 모르는 이아는 어리둥절했지만, 아버지는 매우 슬픈 표정이었다. "이아야, 아빠야. 아빠, 엄마, 이아 셋이서,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자." 라고 아버지가 말하며 안아주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아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어디서도 느껴본 적이 없는, 특이한 느낌이 들었다. 몸이 풍선이 된 느낌이었다. 이아는 약간 부풀어 올랐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발이 땅에서 벗어났다. 이아는 그제야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아의 몸은 할머니를 향해 서서히 올라갔고, 아버지는 저 멀리서 손을 흔들었다. 점점 할머니와 가까워진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상공 10,000m 쯤에서 어떤 물체가 빠르게 지나갔고, 그 물체는 점점 할머니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물체를 타면 할머니를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을 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심지어 아버지의 얼굴도 보였다. 엄청난 점프를 뛴 이아는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엄청난 속도로 그 속에 빨려 들어갔다. 이아는 "와아!"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아의 "와아!" 소리는 점차 기내 방송 소리랑 비슷해졌고, 마침내 아침 식사를 한다는 방송이 나왔다. "에이, 꿈이잖아."

이아가 퉁명스럽게 혼잣말을 했다. 이아는 기차 장난감이 있는지 확인하러 자기 자리 근처를 양복 아저씨가 있었다. 양복 아저씨는 의사로, 이아가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었다. 이아는 드디어 자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이아는 양복 아저씨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했다. 이아는 곧장 양복 아저씨한테 예의 바르게 인사드렸다. 그리고 이아는 아버지한테 "나 엄청난 꿈을 꾸었어. 할머니가 글쎄, 하늘 위에서 나를 반겼어. 라고 말했다. 잠시 동안 굳어진 아빠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옆에 있는 창문을 열어 아침이 됐는지 확인했다.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일출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속에 이아만이 볼 수 있는 할머니가 보였다. 할머니가 이아를 만나러 떠오르고 있었다. 천천히 떠오르며, 이아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셨다. 심지어, 점점 이아에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아는 "뭐,뭐야!"라고 기겁하지 않을 수 없었다.

epilogue (이야기를 끝맺으며)

비행기를 타면 어디든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갈 수 있다. 비행기는 지구 곳곳에 있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비행기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을 태우는 것만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운반하는 중요한 존재다. 비행기는 빠르게 사람들의 감정, 생각을 전달하고 소중한 것을 운송시키는 우리에게 유용하고 없으면 안 될 존재다. 내가 상상한 이야기 속 주인공 이아는 첫 비행기를 타면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비행기를 탈 때마다 많은 감정을 느끼고, 할머니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비행기를 타는 것을 단순하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랑, 타는 동안의 시간들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따라서 비행기를 타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비행기에서의 모든 것들이 추억이 될 거고, 특별히 기억에도 남게 될 거다. 비행기를 지금까지 41 번 타본 내가 내린 결론은- 다양한 좌석에도 앉아보고, 다양한 기내 음식을 먹어본 후의 결론은 하나다. 중요한 건 좌석 종류 (일등석, 프레스티지석, 일반석)가 아닌, 기내 메뉴도 아닌, 그곳에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다. 비행기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니게 되니 더 많은 상상과 감상이 느껴질 수 있다. 때로는 무섭기도, 편안하기도, 아늑할 수 있다. 비행기를 타며,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한번 생각해보자. 비행기의 매력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추억을 만들어갔는가? 라고 - 이는 비행기를 타는 것 외에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마법이자 동화 같은 것이다.

비행기 안에서 즐거운 여행과 함께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펴보는 것은 어떨까?

시

꿈

초등부 **우수상** 김운성

어릴 적 내꿈은 비행기였다

비행기 조종사도 아닌
승무원도 아닌 바로 비행기

나는 비행기가 되어
하늘을 날아보고 싶었다.
구름 사이를 탐험하고
새들과 함께 날아보고
다른 비행기와 날기 시합도 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번개도 보고 싶었다

하지만 자라면서 알게 되었다
사람은 비행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 다음부터 내 꿈은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다

구름 사이를 나는 것도 아닌
새들과 나는 것도 아닌
다른 비행기와 시합을 하는 것도 아닌
번개를 보기 위해서도 아닌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가고 싶은 곳을 가게 해주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비행기 조종사

하늘 위에서 내 꿈이었던 비행기를 타고
사람들을 위해 날고 싶다

내 꿈은 비행기 조종사다

여행은 힐링이다.

초등부 **우수상** 김정원

"엄마! 나 영어학원에서 필리핀 캠프 신청받는다고 하는데, 나도 가면 안 돼?"

"응, 안 돼."

"아니, 엄마 제발~~~ 이거 50만 원밖에 안 한다고."

"너무 비싸, 빨리 숙제나 해."

내 예상이 정확히 맞았다. 나는 이제 방법이 없다… 내 친구들 전부 다 가고 심지어 내 짝사랑 민지도 가는데...

"엄마~~~ 사랑해요. 제발요!"

"안 된다고!! 빨리 공부나 해!"

"엄마, 내가 집안일도 돕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할게요. 게임도 한 달 동안 안 할게요. 제발요."

"흐으으으음, 알았어. 대신 공부 열심히 하고 편식하지 말자. 매일 브로콜리 먹기!"

"안 돼! 브로콜리는 절대 안 돼!"

"그러면 가지 말든가."

"알았어…."

그토록 싫었던 브로콜리와 내 게임을 포기하고, 드디어 필리핀 영어 캠프권을 획득했다. 아직 한 달이나 남았지만, 엄마가 변심할까 봐 재빨리 짐을 챙기려 방으로 들어갔다.

"태블릿이랑 내 인형도 챙겨야지~"

갑자기 엄청난 고함이 내 귀를 찔렀다.

"짐을 왜 벌써 싸니. 숙제부터 해!"

"아, 싫어!"

"그러면 필리핀 여행 취소한다?"

"알았어…."

떠나기 전까지 엄마의 요구들을 듣느라 정말 고통스러웠다. 그렇게 기나긴 3주가 지나고, 드디어 D-day다!

"민수야! 밥 먹어라!"

"알았어!"

식탁으로 달려갔다. 역시나 브로콜리 5개가 내 식판 위에 올려져 있다. 그래도 출발 날이라 그런지 오늘은 특별식 고기까지 더해졌다.

"잘 먹겠습니다!"

징그럽고 역겨운 브로콜리부터 해치우기 위해 눈을 감고 코를 막았다. 그리고 브로콜리를 집어 입으로 서서히 가져갔다.

'이건 초콜릿이다. 이건 초콜릿이다…'

그 역겨운 브로콜리를 초콜릿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꾸역꾸역 먹었다. 전부 해치우고 마지막 만찬을 즐겼다.

오전 9시까지 영어학원으로 가야 해서 재빨리 밥을 먹기 시작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밥을 입에 부으면서 먹었다. 나는 5분 만에 밥을 다 먹고 양치하러 갔다.

"잘 먹었습니다!"

양치를 하고 빨리 가방을 열어 다 챙겼는지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과 이어폰을 가방 앞주머니에 넣었다.

"엄마! 갔다올게!"

"그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사고 치지 말고! 조심히 다녀와."

엄마의 잔소리가 더 빗발치려 하자 얼른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다.

"자유다!"

열심히 영어학원으로 뛰어갔다. 다행히 5분 남기고 도착했다.

학원에서 5시간 동안 안전교육을 받은 후, 같이 점심 식사를 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안전 수칙, 선생님 전화번호, 길 잃었을 때 행동 사항, 비행기 사고 관련과 같은 각종 정보에 대해 들었다. 엉덩이에 땀이 차고 팔짝팔짝 뛰고 싶을 정도로 지루해질 즈음 그 딱딱하고 땀 때문에 젖은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인천공항으로 떠났다.

"짐 챙기고 차 타세요!"

선생님이 외치자 다들 기다린 듯 학원 차량으로 뛰어 들어갔다. 나는 민지 옆에 배정되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이 귀에 걸렸다. 내 짝사랑 민지와 총 4시간 동안 옆에 있을 수 있다니! 이런저런 생각하고 앞자리 수혁이랑 수다를 떨다보니 학원 차량은 벌써 영종대교를 건너고 있었다.

"민지야 설레지 않아?"

"딱히? 1년에 한 번 가는 건데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그래도 나는 첫 해외여행이니까…."

"나는 벌써 10번째거든?"

민지는 너무하다. 매번 말을 할 때마다 차갑게 한다. 하지만 민지가 마음을 열면 귀여울 뿐만 아니라 말수도 많아진다. 따뜻한 아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왜 남자들에게만 차가운 얼음처럼 대하는지 모르겠다.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말을 했다.

"너 영어 잘해?"

"응. 어른들이 나 정도면 미국 중학교 3학년 수준이래. 상위 2% 안에 든대. 너는 어쩌냐, 어제 시험 30점 받았잖아 ~~~ 쯧쯧쯧.

"그렇긴 하지…"

잘못 골랐다는 생각이 조금씩 든다. 좀 싸가지가 없는 것 같다. 잘난 척도 많이 하고, 놀리고, 이상하고, 차갑고, 가끔 미쳤다고 생각이 들 정도다. 그래도 민지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봐주게 된다.

드디어 영종대교에서 벗어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선생님의 지도를 따라 출국검사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러 갔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불안하게 하늘은 어두컴컴했다. 그때 선생님께서 비행기가 연착되었는 슬픈 소식을 전하셨다. 다른 친구들은 지루해했지만, 나는 큰 비행기를 직접 보는 게 처음이라 마냥 싫진 않았다. 오히려 신나는 시간이었다.

"세부행 ○○○편 탑승객 여러분, 탑승을 시작합니다."'

게이트 앞에서 목이 빠져라 기다리던 우리는 승무원 목소리에 엉덩이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보딩 브릿지로 들어가는 순간은 마치 꿈만 같았다. 너무 설렌 나머지 계속 멈춰가며 사진을 남기다가 휴대폰을 사정없이 떨어뜨려도 속상하지 않을 정도로 신나기만 했다.

"좌석 번호 확인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탑승권을 건넸다. 정말 드디어 가는구나 싶었다. 나는 내 좌석을 찾아 앉았다. 이미 내 옆 좌석에는 민지가 앉아 있었다.

"민지야 비행기가 왜 출발을 안 하지?"

"다른 사람도 타야 될 거 아니야. 바보."

"그러면 비행기에서 뭐 할 거야?"

"태블릿 볼 거야.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담아 왔거든."

드디어 비행기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내 마음도 쿵쾅쿵쾅 설렜다.

"우아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큰 게 저절로 움직이는 거지?"

"촌놈이네, 그것도 모르고. 뭔 호들갑이야."

"너 비행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

"뭐.. 그… 엔진이 돌면 움직이겠지."

민지가 더듬거리는 모습이 그저 귀엽기만 했다. 사실 난 비행기 덕후로 유명하다. 평소에 비행기 유튜브도 많이 보고, 관련 법이나 사건 사고들을 보기도 좋아한다.

드디어 비행기가 서서히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비행기 덕후가 비행기를 처음 탄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민지야! 비행기가 뜨고 있어!"

나는 민지 쪽을 봤다. 어이없다는 표정과 함께 피식 웃었다.

"너, 은근 웃긴다?"

4시간 넘게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가야 하나 싶었는데, 민지가 나에게 비행기 태블릿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옛날 영화부터 최신 영화까지 가득했다. 유튜브에서 보던 기내 생활을 내가 이렇게 누리다니! 평소에 보던 영화를 하늘에서 볼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정말 신났다. 게다가 출발부터 지금까지 틱틱대기만 하던 민지가 영화까지 추천해주겠다고 나서니, 이 하늘이 정말 천국처럼만 느껴졌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눌려!?"

민지가 태블릿 버튼을 못 누르고 있자 나는 피식 웃으며 도와줬다.

"당연히 손톱으로 누르니까 안 되지~~"

한 1시간 30분 동안 영화를 보았다. 갑자기 안내방송이 흘러 나왔다.

"승객 여러분, 현재 항공기가 난기류를 만나 다소 흔들림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바람이 많이 부는 건가?' 아니면 사고가 난 건가?' 등 여러 생각이 휘몰아치며 무섭기 시작했다. 갑자기 비행기까지 심하게 흔들렸다.

처음으로 엄마 없이 떠나는 여행이라 조금 무서웠지만, 그래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승무원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얼마 후, 또다시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러더니 옆으로 방향을 꺾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어서 비행기 기체가 왼쪽으로 꺾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다.

"민지야 비행기가 방향을 트는데?"

"그래? 난기류 때문에 그런 거 같아."

그때 다시 한 번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여러분, 현재 기상 악화로 인해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 잠시 다른 경로로 비행 중입니다. 안전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초조한 마음으로 안전벨트를 매만지고 있을 때, 갑자기 뒤쪽 좌석에서 비명이 들렸다.

"이거 너무 흔들리잖아요! 왜 비행기가 이렇게 불안정해?! 지금 당장 내려줘요! 이 비행기 진짜 안전한 거 맞아요? 지금 당장 착륙해요!"

불안을 못 견딘 어떤 승객이 이성을 잃은 채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하필 내 뒷 좌석이라 안 그래도 불안했던 나의 마음이 다시 불안으로 휩싸였다.

"고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꺼져! 나 여기서 죽으면 너네가 책임질 거야?"

난동객이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내 뒤에 앉아 있던 임산부는 마시던 물을 쏟았다.

"내 아기가 놀랐잖아요!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 질 거예요?"

"니가 뭔데 토를 달아?"

그렇게 둘은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승무원이 단호하게 경고해서 겨우 잠잠해진 듯했다. 하지만 난동객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던 찰나에 또 한 번의 일이 발생했다. 난동객이 홧김에 팔꿈치로 우리 자리를 치고 간 것이다. 민지의 코에서는 새빨간 피가 흐르고 있었다.

"민지야, 괜찮아?"

"으아, 아파…"

나는 이때가 기회라는 걸 느꼈다.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코를 막아 주었다.

"이러면 괜찮을 거야."

"고, 고마워."

나는 아저씨에게 크게 소리쳤다.

"왜 우리 좌석을 쳐요? 사람이 다쳤잖아요!"

"오구오구, 그랬어요? 근데 내 알 바가 아니잖니. 더 다치기 전에 조용히 앉아."

"민지한테 사과해요!"

"어린이가 예의범절을 지켜야지."

"아저씨, 비행기에서 폭행이나 협박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는 거 모르세요?"

"이놈이! 매운맛을 봐야겠구나!"

위에서 주먹이 날라왔다. 나는 순간적으로 피했다. 아저씨는 비행기 좌석을 내려쳤다. 아저씨의 주먹과 얼굴 모두 울그락불그락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느껴졌다.

"아저씨, 안 아파요?"

"이놈이! 어른을 놀리냐?"

그때 승무원이 테이저 건을 들고 왔다.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강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자 난동객이 승무원의 급소를 타격했다. 승무원은 소리도 안 지르고 조용히 주저 앉았다. 아저씨는 재빠르게 승무원의 테이저 건을 빼앗았다.

"약골이네."

나는 아저씨 모르게 민지에게 소근거렸다.

"승무원들에게 이 상황을 알려. 조용히."

민지와 잽싸게 자리를 바꿔 통로 쪽에 앉았다. 그리고 아저씨의 발을 걸었다. 그러자비틀거리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승무원 2명이 양쪽에서 달려와 난동객을 덮쳤다. 나는 아저씨의 테이저 건을 빼앗았다. 아저씨 코에서는 코피가 줄줄. 가관도 아니었다.

사람들의 박수 갈채로 비행기 분위기가 다시 좋아졌다. 나는 쑥스러워서 얼굴을 숙였다.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어?"

"너가 코피를 흘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갑작스러운 칭찬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했다. 이때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안녕하십니까, 기장입니다. 조금 전 예상치 못한 난기류로 인해 항로를 잠시 이탈했으나, 현재는 항공기가 안정적으로 복귀 중이며, 전반적인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또한, 객실 내에서 발생한 소란은 용감한 아이와 승무원들이 잘 제압하였고, 현재는 완전히 통제되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남은 비행 동안 저희 승무원들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심하시고 편안하게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던 영화를 마저 끝내기 위해 Play 버튼을 눌렀다. 갑자기 뒷좌석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

"너무 아파요. 살려주세요!"

아까 난동객과 같이 앉아 있던 내 뒷편 임산부이다.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임산부에게 물었다.

"혹시 괜찮으세요?"

"으으으으.. 숨을 못 쉬겠어…"

얼른 기내 휴식 공간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승무원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다.

"저기 임산부가 아프대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승무원들이 달려왔다. 비행기 안은 순식간에 산부인과로 변했다. 한 승무원

은 산모의 호흡 진정을 위해 산소마스크를 씌워주고, 다른 승무원은 산모의 손을 잡고 안정을 취하게끔 도와줬다.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승무원들이 정말 멋졌다.

"설마 지금 아이가 나오려는 건 아니겠죠? 으… 아직 35주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조짐이 이상했다. 아이를 낳는 모습을 본 적 없는 나도 마치 당장이라도 아이가 나올 것만 같았다. 숨막히는 상황. 옆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민지는 울고 있었다.

"너무 무서워. 저 산모가 죽으면 어떡해? 오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괜찮아. 승무원들이 다 조치를 취해 주시잖아. 저것 봐. 의사도 아닌데, 의사보다도 더 능수능란하게 대처해 주시잖아. 우리 다 괜찮을 거야. 도착까지 1시간도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참자."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라도 하는 듯 때마침 안내방송이 또다시 흘러나왔다.

"안녕하십니까, 기장입니다. 현재 탑승객 중 한 분이 급히 의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기내에 의료 자격을 가진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 구조 관련 종사자께서는 가까운 승무원에게 알려주시거나 호출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승무원들이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도와드릴게요!"

의사가 걸어와서 환자를 살피고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말했다.

"진통입니다. 산모가 출산할 수 있게 바닥에 매트를 깔아주세요. 환자분은 의자에서 살살 내려와 주세요. 아이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혹시 몰라서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산모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승무원 준비 공간으로 이동해서 출산 준비를 했다.

"민수야… 나 너무 무서워… 산모분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민지가 나의 어깨를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지금 산모보다는 옆에서 내 어깨를 잡고 걱정하는 민지의 모습이 더욱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설레는 기분도 들었다. 그동안 나에게 틱틱대던 민지가 나에게 기댄다고…?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민지를 최대한 따듯하게 위로해야 한다. 하지만 공감이 뭔지도 모르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생 최대 위기였다. 하지만 뭐라도 해야 한다. 그래야 민지도 설렐 테니까!

"민지야.. 산모분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마."

그러자 앞 좌석에 앉은 수혁이가 끼어들었다.

"너네 사귀냐? 닭살 돋아서 못 앉아 있겠어~~ 꽁냥꽁냥, 사이 좋~다!"

"...아니거든…!"

새빨간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홱 돌렸다. 학원이었다면 그대로 때렸겠지만, 그래도

민지 앞이니 한 번 봐주겠다는 마음으로 나는 말로만 수혁이의 마음을 긁었다.

"야, 그러면 너는 채영이랑 사귀잖아~~ 진짜 사이 좋더라?"

"야! 쉿! 말하지 말라고!.."

"님이 먼저 시비 걸었잖아. ㅋㅋ"

신나게 놀리고 있던 중, 비명 소리와 우렁찬 아기 소리가 기내 정적을 깨웠다. 드디어 아이가 나왔다. 다행히 산모분은 셋째 출산이라 비교적 수월하게 출산하셨다. 게다가 이륙하기 20분 전이라 운이 아주 좋았다.

"민수야, 정말 다행이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민지의 눈에서는 안도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차갑고 까칠한 민지의 모습은 사라지고, 여린 모습만 남은 민지. '민지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사실 나는 눈물을 흘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민지를 보니 모든 상황이 안전하게 마무리된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Cebu.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은 23시 30분이며, 기온은 약 28.7°C 입니다. 좌석벨트 사인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고, 휴대 전화는 기체가 완전히 멈춘 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수하물 칸을 여실 때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해 주시고, 잊으신 물건이 없도록 좌석 주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 15분 후 드르르르 비행기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승객들의 함성과 함께 박수가 터졌다. 기쁨과 동시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기쁨과 안도의 박수였다. 마침 착륙 음악까지 잔잔하게 흘러나왔다. 그동안 기내에서 발생했던 모든 걱정과 불안을 녹여주는 듯한 음악이었다. 어떤 승객은 자신이 출산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난동객에게 피해를 받은 것도 아닌데도 눈물을 흘렸다. 평소 한국 사람들이라면 성격이 급해서 재빨리 짐을 빼고 나가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을 모두 극복한 산모의 안전부터 확인을 했다. 그리고 산모가 먼저 나갈 수 있도록 길도 터줬다.

나와 민지에게도 산모는 잠깐 스쳐지나가는 인연이었지만, 함께 난동객도 물리치고, 아이 출산까지 본 상황이라 그런지, 그 아이가 마치 내 조카 동생 같은 느낌도 들었다. 도착하자마자 응급대원들이 들것에 산모를 싣고 나갔다. 비행기 통로를 스쳐지나가는 아기를 잠깐 봤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런 천사가 나올 수 있을까 싶었다. 물론 통통 부어서 못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귀여웠다. 들것에 힘없이 떨어진 산모의 손이 나의 손을 스쳤다.

"고마워, 학생…"

민지가 나를 물끄러미 보더니 씨익 웃었다. 나도 미소로 화답했다. 짐을 빼고 선생님, 그리고 친구

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역시 공항 공기는 상쾌했다. 밤 공기도 이렇게 산뜻할 수 있구나… 분명 오기 전에는 야식을 먹자고 조르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두 눈이 반쯤 감긴 채 공항에서 걸어 나왔다.

선생님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숙소로 향했다. 드디어 내가 기다리고 있던 방 배정이다. 나는 절대 남학생과 여학생을 같이 안 재울 거라고 믿고 민지와의 수다 타임을 포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자가 홀수라서 들어갈 방이 없다며 나에게 여자 방에서 자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김민지, 김민수! 오늘은 너네들이 주인공이잖아. 밤새도록 수다떨다 자라!"

여자 아이들이 킥킥대며 선생님에게 나를 여자 방으로 배정해달라고 한 것이었다. 그렇게 나와 몇몇 여자 아이들, 선생님은 밤새도록 하루 종일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다 잠들었다. 갑자기 쏟아지는 관심이 부담됐지만, 내심 기분 좋았다.

다음 날 아침, 게슴츠레한 상태로 조식을 먹으러 갔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꾸역꾸역 먹었다. 그런데 갑자기 호텔 식당 TV에서 내 이름이 들리는 것이 아닌가? 뉴스에서 내 이름과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하며 나에게 칭찬 세례를 퍼부었다. 갑자기 28개의 친구들의 눈이 나에게 꽂혔다. 너무 쑥스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밥만 먹었다.

그때 왼손에서 온기가 느껴졌다. 민지의 손이었다. 나의 손을 잡고 아침 햇살처럼 미소를 지었다. 잊지 못할 스릴 넘치는 사건이 따스한 로맨스가 되는 순간이었다. 역시 여행은 힐링이다.

시

비행기와 나

초등부 **우수상** 김지훈

밤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다

처음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다가
비행기가 뜨자 소곤소곤 말했다

밤이라 창밖도 어둡고
비행기 안도 어두워졌다

영화를 보던 사람들도
음악을 듣던 사람들도
창밖을 보던 사람들도
모두 조용해졌다
모두 잠이 든 것이다

나는 설레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조용한 비행기 안
밤하늘을 나는 비행기
잠들지 않은 건
나와 비행기 뿐인 것 같았다

수필

첫 비행의 상상과 설렘

초등부 **우수상** 이지원

우리 집은 4층이다. 4층이지만 꼭대기 층이라서 자주 들리는 비행기 소리에 베란다로 가서 하늘을 보면 비행기의 배가 보인다. 우리 집에서 보는 비행기는 우연히 길을 가다가 보는 하늘의 비행기 크기보다 훨씬 크게 보인다. 그래서 가끔 부모님은 가까운 비행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하시지만 난 비행기 엔진 소리가 베토벤의 운명같이 웅장하고 멋진 음악으로 들린다. 아마도 내 생각에는 우리 집 바로 위가 착륙을 위해 비행기들이 고도를 낮추면서 지나가는 도로인 것 같다. 그 덕에 비행기를 조금 더 가까이 볼 수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난 비행기의 배 밖에 보질 못한다.

내가 비행기를 탄 건 가족 모두 제주도 여행을 갈 때였다. 친구들은 해외여행도 몇 번이나 다녀와서 비행기를 여러 번 탄 친구들도 많은데 나는 인생에서 딱 한 번, 그것도 솔직히 내가 5살에 비행기를 탔다고는 하는데 기억이 나질 않는다. 처음에는 엄마가 비행기를 한 번만이라도 타고 싶다고 조르는 나에게 비행기를 타 봤다고 거짓말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주도 여행 때 찍은 사진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비행기를 타 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엄마 말로는 내가 비행기를 타자마자 자기 시작해서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일어나는 바람에 기억이 안 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아마 비행기 안은 포근해서 잠이 아주 잘 오는 곳이었나 보다. 그래도 나는 나의 첫 비행을 자느라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억울했다. 학교 가라고 깨울 때는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부리면 확실하게 깨우는 엄마가 나의 첫 비행 때는 깨우지도 않고 왜 그냥 자게 두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아마도 그때 엄마가 날 깨워서 내 기억 속에 비행기에 대한 작은 추억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비행기를 가까이에서 본 적도 없고 타 본 기억도 안 나서 나는 비행기의 모습을 생각하면 다른 친구들처럼 비행기의 멋진 날개와 꼬리, 웅장한 모습보다는 아빠 배처럼 둥글고 하얀 비행기 배 모습만 떠오른다.

나는 베란다에서 잠깐이지만 빠르게 지나가는 비행기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상상을 한다.

'어디로 가는 걸까?, 비행기 안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나와 같은 나이의 친구가 있다면 지

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오늘은 몹시 더운 날인데 비행기 안은 시원할까?, 저 비행기 안에 내가 있었으면...' 등등.

비행기를 타겠다는 나의 목표는 작년부터 본격적인 의사 표현과 노력으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아빠와 엄마가 휴가 스케줄을 맞추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대충 대답하시더니 나중에는 꼭 비행기를 타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다.

"비행기는 빠르니까", "나만 비행기를 못 타 봤으니까... 아니 타 본 기억이 없으니까", "해외를 가고 싶어서", "더 넓은 세상을 보면 내가 공부를 더 잘할 것 같아서" 등과 같은 나의 대답에 아빠와 엄마는 그런 이유로 비행기를 타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만 하셨다.

어떤 대답에도 부모님은 진지하게 고민하지를 않으셨다. 결국 비행기를 타지도 않을 거면서 말로만 고려해 보겠다고 하셨던 것 같았다.

대체 비행기 한 번 타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지 못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난 꼭 비행기를 타겠다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야 하는 이유를 계속 생각했다. 그러다 우연히 뉴스를 보면서 하나의 대답이 떠올랐다.

'자동차 사고 발생 확률은 연간 약 0.5%로 25만 건의 사고 발생, 배는 약 0.1%로 1만 건의 사고 발생하나 그에 비해 비행기 사고 발생 확률은 백만 번의 비행 시 1건으로 비행기는 철저한 관리와 기술 발전으로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가장 안정적인 교통수단이 되었다.'

나는 부모님께 또다시 어설프게 비행기의 안전성을 말했다가 해외여행 허락을 받지 못할 것 같아 간단하게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아빠하고 엄마는 그거 알아?"

"뭐가?"

"번개에 맞을 확률이 백만분의 일이 거든. 번개 맞을 확률은 많이 높은 걸까?"

"번개에 맞을 확률은 아주 작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기다렸던 아빠의 대답이 나왔다.

"근데 신기하게도 비행기 사고로 사망할 확률보다 번개에 맞을 확률이 11배나 높다고 하던데? 그리고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비행기 사고보다 약 100배 높다고 하네. 아빠는 매일 운전하니까 운전 조심히 해"

"그래. 아빠는 항상 안전 운전하니까 걱정하지 말아"

이때까지도 내 의도를 눈치채지 못한 아빠는 아빠를 걱정하는 딸의 말이라고만 생각해서인지 대견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비행기는 100만 번을 비행하면 사고가 1건 발생하는 확률로 대단히 안전한 교통수단이래"

"엄마도 얼핏 비행기가 가장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네"

엄마도 가만히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더니 내 의도에 맞춰 대답을 해주셨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 의도를 말할 타이밍이 된 것 같았다.

"나는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비행기를 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비행기 사고율이 교통사고나 다른 이동 수단 사고율보다 훨씬 낮아. 난 우리 가족의 안전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 아빠와 엄마도 우리 가족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면 반드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거야"

내가 생각해도 멋진 대답이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결국 나의 의도를 눈치채고 노력에 감동했는지 아빠와 엄마는 웃으시면서 올겨울에 가까운 곳이라도 꼭 비행기를 태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올겨울이면 나는 우리 가족이 춥지 않게 따뜻한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 혹시 동생이 감기에 걸리면 안 되잖아"

마지막까지 난 가족의 안전을 위해 비행기를 타고 따뜻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솔직히 나는 가족의 건강도 중요했지만 추운 겨울에 따뜻한 나라로의 여행을 상상하면서 모두가 패딩을 입고 있을 때 반팔 티를 입은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자랑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비행기를 탄다는 부모님의 약속은 요즘 나에게 있어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들면서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 평소 가족 여행을 계획해서 차를 타고 동해로 가는 것도 설레는 일이지만 신기하게도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탄다는 상상은 설렘과 동시에 기대를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멋진 기장님과 예쁜 승무원 언니들을 만나고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서 아래로 보이는 세상을 보는 것과 구름 사이를 날아다니는 내 모습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한다.

말로만 듣던 기내식은 얼마나 맛있을지, 어떤 메뉴가 나올지도 기대된다.

친구들은 비행기를 타면 가끔 놀이기구 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느낌이 어떨지도 너무 궁금하다.

반드시 창가 쪽에 앉아 솜사탕처럼 푹신해 보이는 구름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손오공처럼 근두운을 타고 다니는 듯한 황홀한 기분도 느낄 것이다.

요즘 아빠와 엄마는 나를 볼 때마다 꼭 해외여행 약속은 지키겠다는 말씀을 하신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나의 긍정적인 변화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비행기를 타겠다는 부모님과의 약속은 나 스스로를 바꾸기 시작했다.

먼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놀아주기 귀찮아만 했던 동생과 같이 놀아주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동생 블록으로 내가 타고 싶은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어느샌가 동생과 같이 블록 놀이를 하면서 내

가 먼저 비행기도 만들어주고 비행기 싸움을 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비행기 종류나 가고 싶은 나라 이야기로 대화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생도 비행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 동생이 비행기가 그려져 있는 동화책을 가져오곤 하는데 그러면 귀찮아하지 않고 책도 읽어주고 있다.

또 용돈도 최대한 아껴서 모으고 있다.

여행을 가서 동생과 같이 맛있는 간식을 사 먹을 생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사 먹던 젤리도 이제는 먹지 않고 대신 그 돈을 저금통에 넣고 있다. 엄마는 용돈을 모으고 있다는 것보다 단 것을 줄이고 밥도 잘 먹는다고 좋아하시며 칭찬해 주신다. 그럴 때마다 나는 여행을 다녀오면 다시 젤리를 사 먹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곤 했지만 그래도 지금만큼 엄마가 좋아하신다면 젤리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가족들 중 한 명이라도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평소 집안일을 하면서 허리가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엄마 허리도 주물러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비행기를 탄다는 기대가 바꾼 내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나로 인해 가족 모두가 즐거워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간다는 건 나를 바꾸고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달라진 나를 통해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천천히 여행 계획을 짜 보는 건 어때? 아빠가 길게 휴가내기는 어려워서 이번에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생각해 보자. 어려우면 여행사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가고 싶은 나라도 생각해 보고, 하고 싶고 꼭 가고 싶은 곳도 미리 계획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아빠와 엄마는 나에게 여행의 모든 계획과 권한을 주셨다.

내년 1월이나 2월쯤으로 여행을 계획한다면 아직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지만 나는 지금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평소에는 시간이 많았는데 비행기를 탄다는 계획이 생긴 이후로 나는 바쁘다.

학교와 학원을 다녀오고 동생과 놀아주면서 엄마 심부름도 하다 보니 하루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여행계획은 현재 베트남이라는 나라만 정해놓고 아직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하지만 바쁜 시간마저도 나에게는 즐거운 시간으로 느껴진다.

"이번 여행이 재미있으면 매년 가기는 힘들어도 최대한 자주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해보자."

아빠의 말씀에 나는 벌써부터 이번 여행을 완벽한 여행으로 만들어 다음 여행까지 계획하겠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난 비행기를 타 본 기억은 없지만 비행기를 탄다는 기대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리고 아직 다 생각하지 못해 어설프지만, 비행기 타기 전 계획까지만 있는 나의 계획을 하나씩 써 내려간다.

[목적지는 베트남] - 가 본 친구가 좋다고 했음 / 겨울에 더운 나라임

1. 비행기 타는 시간에 늦으면 안 되니 출발하는 날은 일찍 공항에 도착한다.
   - 여행 전날은 가족 모두 일찍 자도록 할 것. 특히 아빠는 술을 마시지 말 것.
2. 비행기를 탄다고 긴장하거나 무서워하지 말 것.
3. 반드시 창가 쪽은 내가 앉는다. 동생이 앉고 싶다고 해도 이것 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4. 비상금을 꼭 챙길 것.
5. 비행기 안에서는 절대 자지 않고 비행을 느낄 것.
6. 스튜어디스 언니들에게 먼저 인사할 것.

현재는 6개만 작성했지만 앞으로 6개월 동안 100개를 넘게 작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비행기를 탄다는 건 나를 바꾸는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가 나 또한 빠르게 바꾸고 있다.

첫 비행에 대한 기대! 그 기대만으로도 행복한 나!

나와 가족 모두 행복한 비행의 꿈이 시작된 것 같다.

수필

연착은 '짜증'이 아니라 '행복'

초등부 **우수상** 정현진

2025년 1월 1일, 나는 버지니아에서의 두 번째 새해를 맞이했다. 새해가 되자마자 나라에 큰일이 있다며 어른들은 '을사년다운 해의 시작'이라고들 하셨다. 하지만 나는 별생각 없이 여행 갈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언제 다시 한국으로 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올해도 새해맞이 여행을 떠났다. 해가 지평선에 걸쳐 있던 새벽에 일어나 친구 가족과 함께 공항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바다 건너에 있는 도미니카공화국의 푼타카나였다. 푼타카나는 멕시코 칸쿤처럼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이다. 미국 버지니아에 살며 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행은 처음이라 기대되고 떨렸다.

내가 사는 샬러츠빌에서 푼타카나까지 가려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샬럿을 경유해야 했다. 샬러츠빌에서 샬럿까지는 약 2시간. 무얼 할까 고민하다 택한 건 바로 책을 질릴 정도로 읽는 것이었다. 의자도 편하고, 주변도 고요한 덕분에 책을 읽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다. 게다가 내 옆 좌석까지 비어있었으니 거부할 수 없었다. 눈꺼풀은 무거워지고, 잠이 쏟아져도 이 좋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 같았다. 창밖으로 하얀 양떼구름이 있으니 책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었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아주 로맨틱하고 멋진 장면이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샬럿에 도착하자마자 끝나 버렸다. 그래도 여행지에서의 새로운 모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아쉬움은 뒤로한 채 설렘을 안고 비행기 밖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샬럿에서 다시 푼타카나행으로 갈아타 5시간 후쯤 푼타카나에 도착했다. 낭만 가득한 휴양지에서 신나게 놀 생각에 나와 친구의 장난기는 몇 배나 발동했던 것 같다. 몸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던 피로는 잊은 채, 우리는 5일 동안 머물며 원 없이 놀았다. 그 5일은 우리에게는 천국, 부모님들에게는 지옥까진 아니더라도 고단한 행군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어느새 부모님들도 아이처럼 신나게 물놀이하시는 걸 보니 내 마음도 행복해졌다. 하지만 그 행복은 여행이 끝나자마자 사라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처음이 순조로웠으니 여행의 마무리도 순조로울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언제나 자기의 생각만을 믿으면 안 된다. 머피의 법칙처럼 말이다.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버린 것은 바로 연착이었다. 연착도 감당하기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로까지 변경되었다. 보통의 연착이라면 길어도 4시간이지만 우리는 경로 변경까지 더해져서 하루가 연착된 셈이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모두가 기겁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일이었다. 하지만 연착이 눈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서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사람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닌 자연재해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일행도 나처럼 화가 나더라도 참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 예상과 달리 가족들은 눈보라처럼 계속 화를 냈다. 문제는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사실 부모님들 모두 화가 나 있었지만, 특히 아빠들이 더 격분했다. 우리 엄마는 일 년 전에도 러시아 화산 폭발로 인해 황당하고도 긴 연착을 경험한 터라, 이 상황이 그래도 견딜만한 것 같았다. 하지만 아빠들은 직접 경험하는 것은 처음이다 보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와 사뭇 다른 외국 국적 항공사의 일 처리 방식은 더 분통을 터뜨리게 만들었다. 내 눈엔 외국 국적 항공사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만 보였다. 특히 친구 아빠는 너무 화가 나서 데스크를 돌아다니면서 항의했다. 하지만 그들의 답변은 한결같이‘날씨 때문에 일어난 연착이니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다’였다. 항공사 측에서 아빠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말이라도 해주었다면 그나마 좀 화가 누그러졌을까?

하지만 어른들만 이렇게 정신줄을 놓은 것이 아니었다. 나와 내 친구들도 분통을 터뜨렸다. 우리마저도 화가 난 이유는 개학이 내일이었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스트레스에 죄 없는 머리카락만 쥐어뜯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가는 것만 같았다. 학교에 못 가면 그만큼 할 일이 밀리고, 재미있는 활동을 놓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크디큰 불안을 엄청난 기쁨으로 만든 것은 겨우 한 단어였다. 학교 측에서 보내온 메일의 제목, 바로 ‘DELAY’였다. 그때부터 나는 기쁨에 겨워 또 정신줄을 놓아 버렸다. 이런 상황이 바로 전화위복인 것일까?

우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부모님의 눈치가 보여서 기쁜 티를 내진 못했다. 부모님들의 화는 눈처럼 쌓여만 갔지만, 이 연착을 우리가 바꿀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조용히 닌텐도 게임기를 꺼내 유유히 컨트롤러를 움직였다. 나와 내 친구는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닌텐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할 뿐이었다. 부모님들은 옆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까 고민 중이셨다. ‘연착 탈출 대작전’을 펼치는 듯 군사 작전을 방불케 했다. 부모님들 눈에 띄면 바로 혼날 것 같아서 나와 내 친구는 계속 눈치작전을 펼치면서 조용히 게임을 즐겼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 같은 여행지에 오면 거의 대부분 비슷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같은 여행지에 왔는데도 우린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연착이 은근히 흥미진진한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 같아 아무도 모르게 키득키득

했다.

내가 이렇게나 좋아했던 이유는 아주 많다. 먼저, 공항은 집과 달리 사람이 많아서 활기찬 느낌이 난다. 집에서는 상상도 못 하는 그 공항의 기운 말이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까지 즐겁고 행복해진다. 게다가 친구와 함께 있으면서 게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였다. 기나긴 여행 동안 게임 퀘스트를 깨지 못해서 조마조마했었지만, 갑작스러운 연착 덕분에 내 걱정이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왜 부모님들은 우리 어린이들처럼 생각을 쉽게 전환하지 못하는 걸까? 원효 대사의 해골물 이야기처럼 마음가짐에 따라 나쁜 것이 좋아 보일 수 있고, 좋은 것이 나빠 보일 수도 있다. 우리들도 처음에는 눈앞이 깜깜하기만 했지만, 오히려 폭설 연착이 좋은 일들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며 행복해졌다.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도 있었지만 집에 돌아가서 누릴 수 있는 행복도 함께 생각해냈다. 집으로 돌아가면 나는 친구와 눈싸움이나 눈썰매를 탈 수 있고, 그러는 동안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만의 담소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게다가 개학이 연기되었으니 우리는 그 기간 동안 더 쉴 수 있고, 부모님들은 우리를 데려다주지 않아도 되니 편하게 지내실 수 있다. 부모님들이 생각을 못 바꾸신 이유는 코앞에 닥친 일에 급급해서인 것 같다. 당장 닥친 일만 보니까 불평이 생기고, 불평이 지속되어 부정을 낳게 된 것이다.

우리가 있는 공항에서도 마찬가지다. 공항에서 우리는 연착된 시작만큼 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게임을 할 수 있었고, 부모님들은 휴대폰을 하실 수도 있었으며, 공항의 전형적인 분위기를 느끼며 면세점 아이쇼핑을 할 수도 있었다. 아이쇼핑이어도 내 눈을 황홀하게 만들 수 있으니 아이쇼핑도 괜찮은 조건이었다. 구경만 해도 배가 부르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일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지만 불평이 부정을 낳아서 먼 미래까지 내다보지 못한 것 같다.

연착 시간을 즐기며 친구와 함께 두리번두리번 사람들을 구경했다. 대부분 두 가지 표정으로 갈렸다. 여행의 설렘으로 싱글벙글 입꼬리가 귀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던 사람들. 전자는 우리가 여행을 시작했을 때의 모습 같았고, 후자는 지금의 우리 가족처럼 보였다. 아! 연착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었던 것이구나! 하지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 좋은 공항의 분위기를 지금 느끼지 못하면 언제 다시 느끼려고? 공항에서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많다. 아이쇼핑도 하고, 전자기기도 가지고 놀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공항 특유의 냄새다.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나를 반기는 냄새 덕분에 여행의 설렘이 더욱 배가 되는 걸, 왜 어른들은 모를까?

우리는 푼타카나에서 1시간이 연착된 만큼 그동안 공항의 분위기를 더 즐길 수 있었다. 경로 변경 덕분에 샬럿에서 하루를 더 누릴 수도 있었다. 아빠들이 광란의 클릭으로 찾은 호텔은 내가 태어

나서 처음 가 보는 상태의 호텔이었다.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호텔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고,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는 불호령을 내렸다. 하지만 나는 호텔에서 머물며 하루를 더 여행하는 기분이었다. 아빠들은 비를 맞으며 편의점을 다녀왔는데 비 오는 날 저녁으로 컵라면을 먹으니,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고! 정말 행복했다. 컵라면을 먹은 뒤, 친구와 함께 게임까지 하니 천국이 따로 없었다. 연착과 경로 변경이 아니었다면 이런 예기치 못한 행복은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다음 날에도 나는 신나게 공항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직항이 아니라 뉴욕으로 갔다가 집으로 가는 것이었다. 이번엔 어떤 신나는 일들이 펼쳐질까? 하지만 아쉽게도 부모님들이 집으로 가는 직항을 찾고 말았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누리던 여행 특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아. 이때 직항이 없었어야 공항도 더 오랫동안 구경하고 여행 특권도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내심 반갑기도 했다. 나도 모르게 여행 피로에 쌓여, 집에 있는 침대가 그리워졌기 때문이다.

이번 연착 사건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엄마의 얘기도 들어 보고 남의 얘기도 들어 보면 모두 한목소리로 연착은 정말 짜증 난다고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도 연착이라는 상황을 겪기 전에는 연착은 그저 짜증 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황당한 연착을 경험해 보니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효 대사님의 해골 물처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자신의 감정을 바꾸며 전혀 다른 생각을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짜증 나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이번 일을 다시 돌아보며, 생각의 전환을 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마음먹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앞날이 그대로 펼쳐질 테니까!

수필

오늘은 비행기 덕후 내일은 프랑스 툴루즈 에어버스 테스트 파일럿

초등부 **우수상** 최은혁

나는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직장이 김해부산 지역의 항공사였고, 그곳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셨기 때문이다. 엄마의 고향은 서울인데 아빠의 직장으로 인해 먼 곳까지 이사를 오게 되어 많이 외로웠다고 하셨다. 눕히기만 하면 우는 나를 달래려 엄마는 아기띠에 나를 안고 김해공항행 경전철을 타고 왕복을 했다고 한다. 외할머니도 멀리 살고, 친구도 없는데 내가 울며 보채기까지 하니 힘들었는데 김해경전철을 타고 공항까지 가는 길에는 신기하게도 얌전하게 창밖구경을 하느라 눈이 땡글땡글 해졌다고 한다.

김해공항을 나의 놀이터로 자연스럽게 생각했고, 거대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신기한 모습을 매번 처음 보는 것처럼 재밌게 구경했다. 12살인 지금의 나는 아직도 비행기를 보면 눈이 커지고, 가슴이 쿵쾅거린다. 분명한 사실은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내 꿈은 바로 파일럿이기 때문이다.

내 꿈은 에어버스 테스트 파일럿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비행덕후 12년이면 비행기의 엔진 항공제조사와 연식 모델을 알 수 있다. 국어시간에 글짓기를 하면 해외여행기, 미술시간에 그림그리기를 하면 당연히 비행기, 매년 생일 선물과 크리스마스 선물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비행기 다이캐스트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네가 비행기를 많이 탄다고, 비행기 책을 달달 외웠다고, 비행기 모형이 많다고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끝까지 듣지 않아도 난 답을 안다! 바로 공부라는 것을 말이다. 수학,영어,국어 등 할 공부가 많지만 내 꿈을 이루기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참을만하다. 난 꼭 공군사관학교에 갈 것이고, 군 조종사에 선발되어 군복무를 한 후에 에어버스 테스트 파일럿이 될 것이다. 테스트 파일럿은 최신 항

공기 기술을 가장 먼저 경험 할 수 있고, 비행의 한계를 시험하며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멋진 직업이기 때문이다.

내 멋진 꿈을 말하면 친구들은 그건 위험한 일 아니냐며 묻는다. 하지만 항공우주산업이 얼마나 발전해있고, 안전에 철저한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건 우리 아빠가 비행기 꼬리를 만드셨기에 더 잘 안다. 나는 에어버스, 보잉, 엠브레어, 록히드마틴 등등 모든 항공제조사의 연구원, 엔지니어를 믿고 존경한다. 그 결과물인 시제기를 조종하는 테스트 파일럿이 되는 것은 영광일 것이다.

프랑스 툴루즈 여행! 에어버스 본사로 간다!

2025년 4월에는 새삼스럽게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느꼈던 사건이 있었다. 바로 프랑스로 가족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다. 우리 엄마는 돈을 아끼는 것에 진심이다. 한여름에 에어컨도 잘 켜지 않고, 외식비를 아까워하시는데 이번 프랑스 여행은 흔쾌히 진행하셨다.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돈과 시간을 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다.

인천에서 베트남 호치민시티 4시간, 프랑스 파리 비행기로 환승한 13시간을 합치면 17시간인데... 이게 끝이 아니다. 낭만의 도시 파리 샤르드골 공항에서 TGV 열차를 타고 다시 7시간을 더 가야하는 툴루즈가 최종 목적지였다. 그렇게 무려 24시간이 꼬박 걸려 도착했다. 이 엄청난 여정의 목적은 관광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내 꿈'을 위해서이다. 유럽항공우주 산업의 심장 툴루즈에 가서 에어버스 본사와 조립공장 투어, Aeroscopia 항공박물관 견학을 할 것이다.

툴루즈에서 첫 일정은 Aeroscopia 항공박물관 견학이었다.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책에서만 보던 콩코드라니 꿈만 같았다. 고개를 돌리니 나도 모르게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어! 저것은 A340-600!"

한국의 항공사에서는 도입 한적 없고 인천공항에 하루에 1번씩 이른 시간에 오는 기종이었다. 그 외에도 특이한 기종 여러 대를 보았다. 장거리 비행기인 A380 과 도색 중인 유나이티드 항공 A321 이 있었다. 그렇게 2시간 내내 나는 계속 감탄 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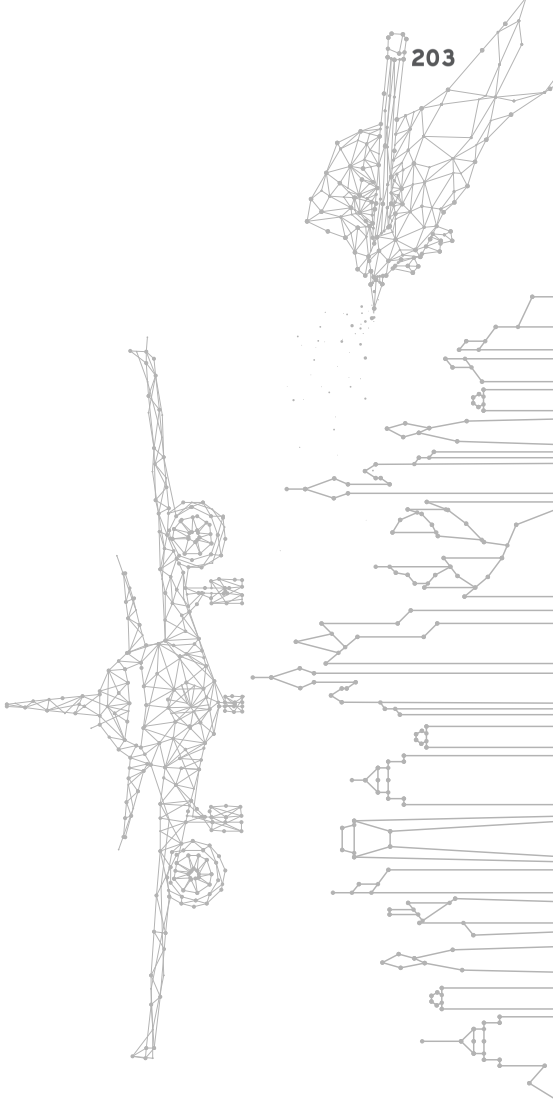
두 번째 일정으로 에어버스 본사의 조립공장을 둘러보는'Let's visit airbus' 투어를 시작했다. 버스를 타고 공장을 돌아다니며 비행기를 조립하는 공장에 들어갔다. 내부 사진촬영은 금지라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눈에 담기 위해 집중했다. 조립중인 비행기를 보자 나는 놀랐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파리공항으로 올 때 탄 기종이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탄 비행기가 이곳에서 만들어 졌다고 생각하니 너무 신기하고 흥미로웠다. 이 공장에서는 독일,스페인,영국 등에서 만든 부품을 모아서 아주 정밀하게 조립하는 것이 신기했다. 에어버스의 주기장에서 도색중인 항공기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그 순간 실제로 보기 힘든 기종 A330-700XL 벨루가가 비행하는 모습을 보았다. 꿈만 같다는 말

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았다.

Smooth takeoff, 꿈을 향해

Aeroscopia 항공박물관에는 1970년에 출시된 에어버스가 만든 최초의 여객기 A300가 전시되어있어 조종석에 들어갔다. 난 마치 시간여행자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계기판이 아날로그여서 그 옛날의 파일럿들은 더 어려웠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유튜브에서 A300의 초도비행 다큐를 본 적이 있다. 1972년 10월 28일에 프랑스 툴루즈에서 역사적인 첫 비행에 성공한 이야기였다. 테스트파일럿은 비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스템 검증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50년이 넘는 동안 이 기종은 안전하게 하늘을 날고 있다. (현재 여객기는 퇴역했고, 화물기로 개조되어 운항하고 있다.) 그 시절에 이렇게 멋지고, 거대한 비행기를 타고 다른 세계를 여행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신기했을까? 혹시 무서웠을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엄청난 기술로 멋진 비행기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입이 떡 벌어졌다. 하지만 이미 단종된 기종이라 타볼 수 없다는 것은 아쉬웠다. 하지만 괜찮다. 난 30년 후에 가장 먼저 신형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다하는 테스트 파일럿이 될 테니 말이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귀찮고 힘든 훈련을 밟아가며 조종사가 되는 길로 한걸음 한걸음 걸어갈 것이다. 나는 특별한 일 없이 하루를 보내도 평범하지 않다. 힘든 날도, 아픈 날도, 당연히 기쁜 날도 모두가 의미 있는 하루일테니 말이다. 2025년 비행기 덕후 어린이가 2055년에는 프랑스 툴루즈 에어버스 테스트 파일럿이 되어 이 글을 다시 꺼내본다면 감동이겠지? 내 꿈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반짝일 것이다.



장려상

초등부

할머니의 손

초등부 **장려상** 고건희

할머니를 모시고 가족여행을 갔다
비행기를 타고 갔다
한 번도 비행기를 타지 못한
할머니를 위한 효도여행이었다

할머니는 내 옆에 앉으셨다
창밖을 보며 아이처럼 신기해 하셨다
그러다 비행기가 출발하자 무섭다고 하셨다
떨린다고 하셨다

내가 예방주사를 맞을 때
치과에 충치 치료를 할 때
무서울 때마다 할머니가 손을 잡아주셨다

비행기가 하늘로 오를 때
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다
할머니가 아기가 되고
내가 어른이 된 것 같았다

수필

데스티니의 여행

초등부 **장려상** 고은채

드디어 기다려왔던 나의 첫 해외여행을 떠나는 날이 다가왔다. 눈 깜빡했더니 공항으로 순간 이동을 한 것 같다. 이제 나도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비행기를 타려고 줄을 섰지만, 나는 빨리 날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했다. 이 비행기를 타기 직전, 공항에서 춤을 추었다. 그리고 나의 소중한 비행기에 발레리나처럼 올라탔다.

그런데 그렇게 들뜨고 좋았던 감정은 한순간 정체 모를 공포감에 덜덜 떨고 있었다. 그리고 머릿속이 새하얀 색으로 칠해지는 기분이었다. 분명히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행복하고 기쁨에 차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두려워진 것일까를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 이유가 얼마 전에 무안 공항에서 발생한 비행기 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 가족의 첫 해외여행은 그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예약까지 다 마친 상태였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터지면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셨다. 나는 처음으로 나가는 해외여행이라서 혹시라도 취소하실까 봐 오히려 그것만 걱정이 되었다. 내가 사고를 당할 거라는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았다. 어쩌면 여행을 취소하지 않고 예정대로 나가게 된 데에는 나의 간절함이 큰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막상 비행기에 타고 보니 들뜬 마음에 가려졌던 공포감이 더 큰 목소리를 내버리게 된 것이다. 비행기에 타기 직전까지도 데스티니의 여행이라고 여겼던 첫 해외여행이 갑자기 '데스 여행'으로 변해버릴 것만 같아 점점 더 두려움이 커졌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몸이 벌벌 떨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내 양옆에 엄마, 아빠가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언니 오빠도 함께 있으니 불안감이 좀 가라앉았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용기를 내자! 지상에서든 공중에서든 사고는 날 수 있고 어쩌면 그 사고를 내가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사고를 당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 두려울 땐 내 안의 해피 바이러스를 불러내자!

그러자 내가 탄 비행기가 어떤 일이 생겨도 살아남는 슈퍼맨처럼 느껴졌다. 망토를 바람에 날리며 안전하게 나를 목적지까지 잘 데리고 가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살아가는 동안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예전의 나는 한 번 다치거나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이번에도 또 다칠지 몰라,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올 거야, 하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면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여행을 통해 그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의 데스티니 여행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종이학

초등부 **장려상** 김규원

반짝이는 색종이로 학을 접는다
손끝에서 구르다 날개를 편다
공중에서 힘껏 날갯짓하는 종이 날개
반짝이는 하늘로 소원을 접는다

나는 날아가는 학
종이 안에 산을 넣고
푸른 언덕을 휙휙 넘으며
솟아나는 하늘을 접는다
종이학이 하늘로 날아오르려 한다

바람이 푸르르 불어오고
내 손은 파삭하게 학의 날개를 쭉 편다
학은 세상을 구경한다
파도를 타고 날아 온 손끝 바다 냄새
바람을 입에 물고 온 하늘 아래 빛

나는 학이 물고 온 조개를 열어
태양처럼 빛나는 진주를
산산이 부서지는 파도 위로 비추어 본다
빛을 흩날리는 태양 너머로 비추어 본다

종이로 만든 푸른 날갯짓
바람을 일으켜 세상을 넘고
세상으로 날아갈 준비를 한다
마음속에서 꺼낸 반짝이는 진주에
소원을 담아 하늘로 올려보낸다
반짝이는 하늘에 내 소원을 날린다

학이 날개를 쭉 편다
종이학이 꿈을 쭉 편다
나는 훨훨 날아 간다
꿈을 품고서

소설

공항에서 발견한 내 진짜 친구

초등부 **장려상** 김서경

"야 우리 마라탕 먹으러 가자!", 서원이가 소리쳤다. 나 이 서원, 정 해원, 김 서영, 진 소영은 마라탕 집으로가 재료를 담고 음식을 기다렸다.

음식이 나오자 우리는 먼저 주문을 외쳤다. 우리 제로원은즈는 항상 무언가를 먹기 전 주문을 외쳐야 했다. 서영이와 소영이가 "제로!", 서원이과 해원이가 "원" 내가 "은!" 그리고 다함께 "즈!"라고 외치며 컵을 다함께 한 곳으로 모은다. 우리는 주문을 외친 뒤 허겁지겁 마라탕을 먹기 시작한다.

먹는 중 해원이가 물어보았다. "너희들 이번 주에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는 거 알고 있지?" 그러자 서영이가 "당연하지! 우리 언니가 그러는데 우리 학교엔 막 댄스 파티도 있고 축제도 있다고 함! 나 완전 기대됨!" 이라고 말했다. "맞아 ! 우리 서제로 많이 신났네! 아 맞다 ! 다은아 넌 이번에 비행기 처음 타본다고 했나?" 소영이가 나에게 물었다. "응 맞아.." 라고 대답했다. 하 ... 소영의 남 깎아내리기가 시작 되었다.

소영이는 항상 자기가 위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 내가 쟤보단 훨씬 낫지

걘 좀 이상하잖아 " 이 말을 항상 한다. "부럽다 ...첫 비행기 여행을 친구들이랑 가네 ?" 소영이가 말했다. "그렇네! 부럽다! " 서영이가 맞장구를 쳐주었다. 우리 제로원은즈에는 같이 지내는 무리가 안에서 존재한다.

제로원은즈에서의 제로는 서영이와 소영이를 의미한다. 둘의 끝자리의 영을 사용하여 영어로 제로를 사용하다. 그리고 원은 서원이와 해원이를 의미한다. 그들의 끝자리 원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은은 나를 의미한다.

나 빼고 각 각 둘씩 끝자리가 같아 그렇게 만들었다.

우리는 다 먹고 헤어졌다. 밤늦게 문자를 했다. 서원이는 무슨 링크를 하나 보냈다. 무슨 이상한 꼬까옷을 입은 대머리 아저씨가 춤을 추는 영상이었다.

그 문자 밑으로 웃기다 는 문자가 수두룩했다. 나도 문자하나를 보냈다.

“애들아 이거 무슨 영상이야?”애들 문자가 안 왔다. 계속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다음날 선생님께서 두 명씩 수학여행 짝을 정해야한다고 하셨다.

서원이는 해원이랑, 서영이는 소영이랑 짝을 했다. 나는 할 친구가 없어 조용히 있었다. 난 결국 남은 애 신 소은이랑 짝을 하게 되었다. 나는 망했다. 우리 반의 공식 찐따, 신 소은 !작년에 친구들한테 차갑게 대하고 힘들게 했다나 뭐라나 ...그리고 난 좀 실망을 했다. 제로랑 원 둘 다 자기들끼리 고를 줄은 알았으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서로를 골랐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한 두 번은 아니다. 저번에 둘씩 수행형가를 할 때도 자기들끼리 골랐고 만날 체육시간에 자기들끼리만 파트너를 했다. 나는 그 때마다 소심해 따지지 못했고 결국 그냥 조용히 남는 친구랑 짝을 하게 되었다. 근데 신 소은이랑 이라니... 신 소은만 아니기를 바랐는데.

선생님께서는 짝꿍끼리 필요한 이야기를 할 시간을 따로 주셨다.

우리는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았고 내가 먼저 형식상 연락처를 물어 보았다.

소은이는 모기소리로 010-..... 라고 나에게 이야기 했다.

귀가 간질간질할 정도로 정말 작은 소리였다.

나는 그런 소은이가 더 답답했다. 그리고 연락처에 신 소은이라고 저장했다.

주말 내내 아무런 문자가 오지 않았다. 나는 번데기처럼 집에 계속 처박혀 휴대폰을 보고 놀았다. 난 심심했다. 그러다가 서영이의 바뀐 프사를 보았다.

그 프사에는 4명의 여자애들이 뒤를 돌아 사진을 찍은 모습이 있었다.

난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다.서원, 해원, 서영, 소영이었다. 그 애들이 날 빼고 놀러간 것이다. 난 하루 종일 심각했다. 이러다가 내가 제로원은즈에서 빠져 제로원즈가 될지도 모른다. 난 얼른 단톡방에 문자를 보냈다.

“애들아 뭐해? 나 심심해” 그래도 계속 문자가 오지 않는다. 나는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다.

드디어 수학여행 디데이 날이다. 물론 여전히 신 소은이랑 가는 게 싫지만 그래도 오늘은 내가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날이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캐리어를 챙기고 학교로 갔다. 학교는 시끌벅적했다. 마침내 선생님이 오셨다.

“자 모두들 조용! 오늘은 우리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날이다.

우리가 2박3일 동안 제주도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안전이다. 모두들 알겠지? 그럼 1번부터 10번 까지 신발 갈아 신고 오세요“

우리들은 빠르게 운동화로 갈아 신고 짝과 함께 두 줄을 섰다 .

나와 신 소은은 3번째로 섰고 나머지 애들이 다 선 뒤 우리들은 버스로 향 했다, 해원이과 서원이가 맨 앞자리, 소영이와 서영이가 그 뒷자리, 나와 신소은이 그 뒷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들은 아주

시끄러웠다. 반면에 우리 둘은 서로 어색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난 잠이라도 자려고 하는 너무 버스안이 시끄러워 자지도 못했다. 진짜 세상에서 제일 긴 1시간이었다.

공항에 도착하자 선생님은 우리들의 짐을 먼저 부치게 했다.

그 다음 밥을 먹었다. 대충 자장면을 먹었다. 근데 난 깜박하고 물을 사지 못했다. 줄이 너무 길어 결국 사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꾸덕한 자장면을 먹는 내내 목이 너무 말랐다. 그러더니 갑자기 새 물통이 내 앞에 나타났다. 신 소은의 것이었다. “ 나 물 필요 없어 너 마셔” 라고 말했다. 나 그 말을 들은 뒤 허겁지겁 물을 마셨다. 그리고 난 살짝 고개를 밑으로 내리며 고맙다는 표시를 했다. 이상했다. 소문으로는 항상 자기만 생각하고 남에게 배려 해주지 않는 못된 애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무심한 척 다정한 애였다.

우리는 밥을 먹고 비행시간을 기다리며 자유 시간을 가졌다.

귀여운 것을 좋아하는 애들은 모두 루피 팝업 스토어에 갔다. 난 물었다.

“우리도 저기 가볼래” 신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보니 예쁘고 귀여운 루피가 많았다. 하지만 인형에 관심이 없던 나는 그냥 대충대충 보기만 했다.

신소은도 그런 듯 보였다. 우리는 그냥 남는 시간은 휴대폰을 보며 앉아있었다. 배터리가 있어서 다행이지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비행기를 탔다. 탑승 입구부터 시끄러웠다. 우리는 여권을 승무원들에게 보여주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다. 신 소은이랑 짝이 된 게 조금 아쉬웠지만 첫 비행기에 난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다. 내 좌석은 15B, 신 소은 좌석은 15A였다. 신 소은이 창가자리 나도 예쁜 사진 많이 찍고 싶었는데... 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앉았다. 그런데 누가 날 툭툭 쳤다. 신 소은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물었다.

“혹시 너 나랑 자리 바꿀래? 난 창가자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 ”

난 그 말을 듣고 당연히 “응”이라고 크게 외쳤고 우리는 자리를 바꾸었다. 창가자리는 시원하고 안락했다.

무엇보다 바깥 풍경을 볼 수 있어 너무 좋았다. 난 자리를 바꿔준 소은이가 고마웠다. 그 아인 아마 좋은 아이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승객 여러분 ! 저희 비행기는 곧 이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시고 안내 사인이 꺼져도 꼭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비행기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갑자기 속력을 내더니 붕 뜨기 시작했다. 붕 뜰 때 신기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을 때 예쁜 사진을 많이 찍었다.

파란 하늘에 몽실몽실 떠 있는 구름이 참 예뻤다. 이 작은 비행기 창문 안에 아름다운 그림이 하나 있는 것 같았다. 난 제로원은즈 단톡방에 사진들을 올렸다, 4에서 줄어들지가 않았다. 앞을 보니 그들은 서로 얘기하느라 바빴다.

난 신소은하고의 톡 방에 들어가 사진을 보냈다. 옆에서 내가 보낸 사진들을 보는 신 소은의 옆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축 밑으로 내려진 입 꼬리가 쓱 올라갔다.

처음 봤다 .그 애의 웃는 모습을...

난 잠이 들었다. 일어나보니 곧 착륙하겠다는 안내 음이 나왔다.

우린 도착하자 벨트를 풀고 차례대로 줄을 서 제주도 공항으로 나갔다.

짐을 가지고 우리는 버스를 타고 숙소로 갔다.

숙소 안은 생각보다 작았다. 딱 6명이 땅바닥에 잘 수 있는 공간 이었다

나, 이서원,정해원,김서영,진소영,신소은이 한 방을 쓰기로 했다.

우리는 짐을 풀고 바로 모였다. 선생님이 크게 소리쳤다. “자 모두들 모였나? 우리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한 곳만 들르고 밥 먹고 바로 오겠다. 알겠나? 자 그럼 출발!”우리는 버스를 타고 비자림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도착한 뒤 선생님이 탐방 해설사와 함께 들어가기 시작했다.

탐방 해설사 선생님은 이 나무들의 수명이 500년 이상 된 비자나무 28000 그루라고 하셨다. 아름다운 숲 풍경과 시원한 공기가 나를 안정되게 만들었다.

나는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으며 이 아름다운 순간을 휴대폰 안에 담았다.

선생님 말씀으로는 비자나무가 면역강화, 소화개선, 항산화 항염 등 효험이

있으며 심신이 편안해질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하셨다. 진짜 고요하고 깨끗한 숲이어서 그런지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서영이와 소영이가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 제대로 느끼기가 힘들었다. 조용히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우리 사이가 더 멀어질까봐 말을 차마 꺼내기가 어려웠다. 난 아직 우리 제로원은즈의 우정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숲을 걷고 밥을 먹으러 갔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서원이, 해원이, 소영이, 서영이를 보았다. 그녀들은 서로 깔깔 웃으며 좋은 시간을 보내 듯 했다. 나는 두려웠다, 혹시 나만 빼고 더욱 친해지면 어떡하지? 나만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나는 신 소은을 보았다. 신 소은은 멍한 채 물만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다. 나도 같이 물을 마셨다.

음식이 나오자 나는 사진부터 찍었다. 생각보다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군침이 돌았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제로!원!즈!” 결국 나는 그들 속에서 빠져 버린 것이다.

내 머리 속은 한순간에 까매졌다. 난 멍한 채있었다. 그때 누가 날 톡톡 쳤다. 신 소은 이었다. 난 정

신을 차리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새콤하니 맛은 있었으나 입맛이 별로 없었다. 나는 반을 남기고 숙소로 돌아갔다.

나는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린 뒤 누웠다. 난 휴대폰을 꺼내고 카톡 창으로 들어갔다. 아무런 문자가 오지 않았다. 휴대폰을 들고 생각했다.

'내가 뭐 잘못한 것 있나? 갑자기 쟤네가 저럴 이유가 없잖아'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었다. 그때 나한테 카톡이 왔다! 제로원은즈 단톡방에 온 줄 알고 신이나 빠르게 휴대폰을 켰다. 하지만 그 단톡방은 아니었다.

신 소은 이었다. 나에게 음식 사진과 비자림 숲 속 사진을 보냈다. 그리고 함께 문자가 있었다. "힘내" 이 두 글자가 내 가슴속으로 녹아 들어갔다.

나도 오늘 내가 찍은 사진들을 보내가 "너도" 라는 문자를 보냈다.

생각보다 감동이었다. 지금 보니 신 소은이 내 옆에 있었다. 아마 내 심각한 표정을 본 모양이었다.

선생님이 휴대폰을 다 걷으신 뒤 잘 준비를 다하고 잠자리에 누웠다. 하지만 누가 날 깨웠다. 서영이였다. "다은아 ? 너 지금 잘거야?" "응 자려고 하는데 왜?"라고 대답했다. "아쉽다...우리 베개싸움하려고 했는데 ..하고 자면 안될까?" 난 "그래..하고 자지 뭐.."라고 이야기했다. 신 소은이 물었다."나도 같이 해도 될까?"서영이는 당황한 듯 머뭇거리다 "그래"라고 말했다. 나,서영,소영,해원,소원,소은이는 각 각 베개 한 개씩을 들었다. 서원이가 "준비..시작!"이라고 외치자 우리는 싸움을 시작 했다.생각 보다 베개로 맞는 것이 아팠다. 우리는 각각 베개를 격렬하게 휘둘렀다. 하지만 갑자기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서영이, 소영이, 해원이, 서원이의 베개들의 방향이 다 내 쪽으로 되어있는 것만 같았다.

한 번에 4개의 베개공격을 받으니 어지러웠다. 그래서 나는 눈을 감고 열심히 때렸다. 그런데 그때 "악"이라는 소리와 함께 베개싸움이 멈췄다.

눈을 떠보니 그 소리를 냈던 사람은 서영이었다. 서영이는 울음을 터트리고 해원이와 서원이는 어찌 할 바를 몰랐다. 소영이는 나한테 소리쳤다.

"야 ! 정다은 ! 너 때문에 서영이 다쳤잖아?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서영이의 팔에 멍이 들었다. 하지만... 난 알았다. 이 멍은 어제 체육시간에 서영이가 축구 골키퍼를 하다 축구공에 맞아서 들었다는걸...난 소심하게 외쳐 보았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냐.. 이건 체육시간에 ..."

해원이는 내 말을 끊었다. "야..정다은..지금 사람이 다쳤는데 변명을 하고싶냐? 너 생각보다 인성 실망이다"

해원이와 소영이는 서영이를 일으켜 세워 밖으로 나갔다. 서원이는 나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

다. “너 앞으로 우리한테 말 걸지 마 짜증나니까!” 그리고 문을 열고 쾅 닫으며 함께 밖으로 나갔다. 난 한참동안 그 문을 보며 그 자리에 서있었다. 난 다시 잠자리에 다시 누웠다. 내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떨어지는 눈물과 함께 잠이 들었다.

다음날 우리는 새벽부터 집합해야만 했다. 담임선생님은 말씀하셨다.

“자 모두들 일찍 일어나느라 수고 했다.우리는 이제 성산 일출봉을 갈 것이다. 올라가서 개운하게 걷고 밥 먹자고 알겠지? 자 그럼 두 명씩 짝 만들고 출발하자“ 나는 서영이의 얼굴을 보았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붓고 입은 삐쭉 튀어나와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서영이는 얼굴 찌푸리고 홱 뒤를 돌았다. 나한테 단단히 삐진 모양이다.

우리는 성산 일출봉을 도착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아직 새벽이라 그런지 밝지는 않았다. 생각보다 계단도 많고 등산이 어려웠다. 숨이 턱턱 막히기 시작했고 힘들었다. 난 사실 저질체력으로 조금만 많이 걷는 것만으로도 금방 힘들어한다. 그럴 줄 알고 미리 물을 얼려 두 병이나 가져왔다. 선생님이 잠깐 휴식시간을 주셨다.

난 얼음물을 벌컥 벌컥 마셨다. 시원하니 살 것 만 같았다. 반면 신 소은은 조용히 숨만 쉬고 있었다. 입을 벌리고 숨을 헐떡헐떡 쉬는 걸 보니 그 애도 숨이 차 보였다. 난 가방에서 시원한 물을 한 개 더 꺼내 신 소은 앞에 내밀었다. 신소은운 얼른 물을 두 손으로 받고 뚜껑을 열어 벌컥벌컥 마셨다. 목이 엄청 말랐던 모양이다. 난 은근 뿌듯했다.

우리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계단 지옥이어서 힘들었다.

드디어 ! 정상에 도착했다!. 나는 하늘을 보았다. 하늘은 해가 뜨기 시작하여 아주 예쁜 노을을 띄었다. 애들은 사진 찍기 바빴다. 나는 노을보다 노을에 비친 바다가 더 눈에 보였다. 마치 보석 같았다. 나는 한참동안 그걸 쳐다보았다.

성산일출봉을 내려 온 뒤 우리는 밥을 먹으러 갔다. 우리는 갈치조림을 먹으러 갔고, 나와 신 소은은 갈치조림 2인분을 같이 나눠 먹었다. 음식이 나오자 난 사진을 찍었다. 또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렸다. “제로! 원! 즈!”갑자기 어제 일이 내 머릿속을 스쳐갔다. 생각해보니 난 서영이한테 사과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내 머릿속은 하얘졌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신 소은은 내 숟가락 위에 가시 바른 갈치 살을 올려주었다.

“얼른 먹어 ” 라는 따뜻한 말이 소은이의 얼굴에 써 있었다. 나는 얼른 밥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마음과 달리 너무 맛있어서 난 한 공기를 빠르게 비워냈다.

선생님은 밥을 먹은 뒤 자유시간을 주셨다. 나는 아까 보았던 회오리감자를 먹으러 갔다. 소은이도 나를 따라 왔다. 나는 치즈가루가 많이 뿌려진 회오리 감자를 시켰다. 난 소은이 에게도 물어보았다. “너도 먹을 거야?”

신 소은은 머리를 끄덕였다. “2개 주세요” 난 소은이에게 돈을 건네받고 결제했다.

치즈가루가 솔솔 뿌려진 뜨끈 뜨끈한 회오리 감자가 맛있었다.

우리는 다 먹고 소품 샵에 들렀다. 여기도 아기자기 한 게 많아 보였다.

귤 모양 키링이 정말 귀여웠다. 신소은도 이곳에 관심이 많아 보였다.

하지만 나는 돈이 없어 사지 않고 구경만 했다.

소은이 그 키링을 두 개 골라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나머지 한 개는 누구 것인지 문득 궁금해졌다. 난 엄마가 사오라고 한 싼 감귤 초콜릿이나 샀다.

우리는 다시 바로 버스에 탑승했다. 선생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자, 얘들아 ! 우리는 이제 드디어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해수욕장을 갈 거다. 탈의실에 가서 수영복을 갈아입고 안 다치게 노는 거야 알겠지! 이상! “

나는 드디어 새로 산 수영복을 입을 생각에 신이 났다.

하지만 서영이,소영이,해원이,서원이는 날 보며 키득키득 웃고 있었다.

나는 얼른 화장실에서 수영복을 갈아입고 준비운동을 한 후 바다로 들어갔다. 물은 생각보다 차가웠지만 그래도 물속에 들어오니 신이 났다 .서영이, 소영이, 해원이, 서원이는 모래에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소은이는 어디 갔나 보이지 않았다. 나는 서영이한테 사과나 하려고 물 밖으로 나갔다. 해원이는 그런 나를 보고서는 서원이, 소영이, 서영이한테 눈짓을 보내는 듯 하더니 넷은 갑자기 날 보고 웃기 시작했다. 난 웃는 이유를 몰랐다. 그런데 갑자기 헐렁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얼른 내 수영복을 보았다. 내 수영복 어깨 끈이 끊어지기 일보직전 이었다. 큰일 났다. 나는 여벌의 수영복도 걸칠 수 있는 티셔츠도 없었다. 해원이는 모든 애들이 날 볼 수 있게 박수를 크게 치고 웃었다. 너무 창피하다. 수십 개의 눈들이 날 향해 보고 있었다. 나는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순간 머릿속이 까매졌다.

그 때 누가 나를 비치 타올로 가려주고는 손을 잡고 뛰었다. 그 순간 아무 생각 없이 뛸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화장실로 함께 들어갔다. 날 가려준건 바로 소은이었다.

소은이는 나에게 자기 수영가방을 건넸다.

“이거입어” 그리고 나서 화장실을 나가버렸다. 난 재빠르게 수영복을 갈아입고 나갔다.

나는 제로원즈에게 정말로 실망을 했다. 아까 날 보고 계속 키득키득 거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였다니. 그들이 내 수영복을 잘라놓은 것이다.

난 정말 친했던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적이 될 수 있나 생각을 했다.

난 배신한 제로원즈가 너무 미워 그후 아무것도 즐길 수 가 없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신 소은 이었다. 소은이는 아무 내용 없이 사진들을 보냈다. 오늘 성산일출봉에서 찍은 사진들부터 붉은 노을과 어우러진 제주 바다의 모습 등 .

난 노을이 비친 바다 사진을 보고 저장을 했다. 이 사진을 한참 보다가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제로원즈는 급하게 짐을 쌌다. 나와 소은이도 급하게 짐을 쌌다. 오늘은 우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다.2박 3일이라는 시간이 꽤 길었다. 우리는 짐을 다 싸고 차례대로 버스에 탑승했다. 피곤했는지 버스 안은 코 고는 소리로 가득했다. 나도 깜박 잠이 들었다.

눈을 떠 보니 공항에 도착을 했다. 짐을 부치고 잠시 자유시간을 보냈다.

공항에서 볼거리는 많았으나 나는 앉아서 휴대폰을 보았다.

소은이는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타는 비행기가 연착이 되었다는 방송을 얼핏 들었는데 나는 문득 몇 시까지 가야할지 몰라 채팅창에

물어보았다. 해원이가 “11:20”이라고 카톡을 바로 보냈다. 난 “고마워”라고 답을 보냈다.

지금은 9:40이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네. 여유가 있어.’

공항 안이 시끄러워 난 이어폰을 끼고 신나게 음악을 들었다.

멋진 풍경 제주도가 아쉽기도 했지만 그래도 집에 간다는 것이 안심이 되었다. 얼른 집에 가서 눕고 싶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노래를 듣고 너튜브를 보았다. 기다리는 시간은 항상 지루하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내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다. 소은이었다. 지금은 10:27분이다. 시간은 아주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소은이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고 뛰었다. 그리고

내 손 안에는 어제 소은이가 산 귤 키링이 쥐어져 있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은 10시35분으로 8분 만을 남겨 두고 우리가 그렇게 뛰었다는 것을 탑승 후 알게 되었다. 땀으로 범벅된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며 웃었다. 비행기 창밖으로 살짝 보인 제주의 푸른 바다에서 맑은 바람이 느껴졌다.

수필

지구의 푸른 멍을 꿰매는 비행

초등부 **장려상** 김율곡

지구의 푸른 멍을 꿰매는 비행

오늘 아침, 나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깜깜했지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심장이 먼저 알고 쿵쾅거렸다. 1년에 딱 두 번, 아빠를 만나러 가는 '비행기 타는 날'이니까.

나는 옷장 깊숙이 숨겨둔 공룡 스티커 북을 꺼내 가방에 맨 먼저 넣었다. 아빠는 티라노사우루스를 제일 좋아한다. 이걸 보면 아빠는 분명히 "우와!" 하고 놀랄 거다. 거실로 나가니 엄마가 토스트를 굽고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 밥 먹고 가야 쌩쌩하지."

엄마는 일부러 밝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내가 필리핀까지 혼자 가는 게 걱정되는 게 분명했다. 그때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우리 강아지, 오늘 중요한 임무가 있는 날이지?"

"네! 저 잘할 수 있어요."

이건 할머니랑 나만 아는 비밀이다. 할머니는 아빠랑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 마음 사이에 커다란 상처가 생겼다고 했다. 그래서 비행기가 바늘이 되어서 그 상처를 꿰매주러 가는 거라고. 비행기 뒤에 길게 생기는 하얀 구름이 바로 그 바느질 실이란다. 생각만 해도 멋진 일이다.

공항은 엄청나게 컸다. 사람들도 많고, 씽씽 굴러가는 캐리어 소리가 꼭 천둥소리 같았다. 엄마는 나를 출국장 앞까지 데려다주고는 꼭 안아주었다.

"엄마 걱정 말고, 재밌게 놀다 와. 아빠한테 안부 전해 주고."

"네. 엄마도 내 걱정하지 마세요."

씩씩하게 말하고 돌아섰지만, 사실 조금 무서웠다. 하지만 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으니까, 울면 안 된다. 비행기 자리는 창가였다. 다행이다. 바느질이 잘 되는지 감시하려면 창가 자리가 최고다. 내 옆에는 모르는 아저씨가 앉았는데, 타자마자 잠이 들더니 코를 골기 시작했다. 꼭 잔디 깎는 기

계 소리 같았다.

곧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점점 빨라지더니, 갑자기 '쿠아아앙!'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의자에 꽉 파묻혔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롤러코스터가 하늘로 솟구치는 기분! 잠시 뒤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자 살며시 눈을 떴다. 우리 동네가 레고 블록처럼 작아 보였다. 신기했다.

구름 위로 올라오자, 창밖은 온통 파란색이었다. 그리고 저 아래 바다. 정말 할머니 말처럼 시퍼런 멍 자국 같았다. 그때, 비행기 날개 끝에서 하얀 실이 '슈욱' 하고 풀려나오기 시작했다. 됐다! 바느질이 시작된 거다. 나는 그 실이 끊어지지 않는지 한참 동안 지켜봤다.

한참 뒤에 밥을 줬다. 고기는 질겼고 빵은 아무 맛도 안 났다. 그래도 오렌지주스는 맛있어서 두 잔이나 마셨다. 앞에 있는 화면으로 만화영화를 봤다. 로봇이 막 싸우는 영화였는데, 너무 재밌어서 소리를 지를 뻔했다. 한참 영화를 보다가 문득 창밖을 봤다. 하얀 실은 여전히 잘 따라오고 있었다. 다행이다.

옆자리 아저씨는 입을 벌리고 자고 있었다. 저러다 입에 파리가 들어가면 어떡하지? 하는 이상한 걱정을 하다 보니 조금씩 심심해졌다. 아빠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내가 가는 걸 알고 있을까? 괜히 가슴이 답답해서 가방 속 공룡 스티커를 만지작거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곧 착륙하겠습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창밖을 보니 세상이 온통 깜깜한데, 땅에는 노란 불빛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다. 우와! 나는 창문에 코를 박고 구경했다. 저 중에 아빠네 집도 있겠지? 비행기가 땅에 가까워지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흔들렸다. 바느질이 끝났다는 신호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훅' 하고 더운 바람이 불어왔다. 땀 냄새랑 이상한 풀 냄새가 섞여서 났다. 한국이랑은 공기 냄새부터 달랐다. 사람들 따라 한참을 걸어 나가자, 드디어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이 보였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아빠를 찾았다. 키 큰 사람들 다리 사이로 아빠가 보였다.

"아빠!"

아빠는 나를 발견하고는 팔을 활짝 벌렸다. 나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달려가 아빠 품에 폭삭 안겼다. 아빠는 나를 번쩍 들어 올리고 까끌까끌한 수염을 내 볼에 비볐다. 간지러워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우리 아들, 오느라 고생 많았네. 배고프지?"

"아니, 괜찮아! 아빠, 나 이거 가져왔어."

나는 가방에서 공룡 스티커 북을 꺼내 보여주었다. 아빠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나를 더 꽉 안아주었다. 아빠 손을 잡고 공항 밖으로 나오면서 생각했다. 할머니가 말한 마음의 상처는 이제 다 나은 것 같다. 아빠 손이 아주 따뜻한 연고 같았다.

비행기의 좋은 점

초등부 **장려상** 김준형

아빠를 만나러 가는 길
나는 비행기를 탔다
내가 좋아하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저 멀리 구름도 보이고
아주 작게 다른 비행기도 보았다
하늘은 늘 새로운 그림이다

기내식은 불고기덮밥이었다
평소에 먹지 않았던 채소도
고추장까지 비벼서 뚝딱
엄마가 흐뭇하게 바라보신다
하늘에서 먹는 밥은 꿀맛이다
덕분에 난 효자가 된다

아빠가 계신 대만에
서서히 비행기가 내려앉고 있었다
멀리 옥산과 아리산이 보이고
때마침 바다에서 고래가 환영을 해주고 있었다

출국장 문이 열리고 아빠가 보였다
아빠를 향해 달려가 안겼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빠
그 사이 더 컸네
아빠의 목소리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비행기의 가장 좋은 점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다

비행기 여행의 매력

초등부 **장려상** 김지오

비행기 여행 최고의 매력은 무엇일까?
혼자 가는 여행일까?
아니면 출발할 때 느껴지는 불안함과 설렘?
비행기에서의 기내식?
밤에 볼 수 있는 색다른 야경?

아니야. 최고는 여행 도중에 생기는 추억이야.
혼자만의 시간,
맛있는 기내식,
색다른 야경,
또 추억마저도,

모두 다른 모습이지만 여행의 매력이지.
우리의 일상은 크고 작은 추억들이 모여서 생겨.

원래는 큰 추억이 아니어도
결국,
큰 추억으로 쌓여 우리의 삶을 메꿔 주지.

비행기 여행도 그런 거야.

시

할머니의 버킷리스트

초등부 **장려상** 나도연

할머니가 온 가족을 소집했다
올해 칠순 기념으로
가족 여행을 떠나자는 것

공항에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가족 넷
작은 아빠 가족 다섯
막내 고모 가족 셋
열네 사람이 모였다

아이들은 신나게 돌아다니고
고모랑 고모부는 아이들을 잡으러 다니고
아빠와 작은 아빠는 비행기표를 뽑고
짐을 부쳤다
나와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챙겼다
아이들은 신났고 어른들은 바빴고
할머니는 즐거워 보였다

차례차례 비행기에 오르고
나는 할머니 옆자리에 앉았다
비행기가 떠오르고

창밖을 바라보는 우리 할머니
소녀가 되신 것 같다

할머니의 버킷리스트
온 가족 해외여행
자, 나씨 가족 드디어 출동이다!

시

구름 카펫 위를 나는 시간

초등부 **장려상** 남가은

비행기에 오른다
달 나라도 아닌데
발이 둥둥 떠다닌다
기쁨이 데굴데굴 구르고
기대가 발레리나처럼 날아오른다

점점 더 높이 높이 오르는 비행기
급기야 구름 커튼을 젖히고
공중의 주인공이 된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커튼은 어느새 카펫이 되어 있다
마시멜로처럼 부드럽고 달콤해 보이는
구름 카펫

힘찬 날갯짓으로
구름 카펫 위를 날게 해주는
비행기는
우리 인생의 레드 카펫

누구라도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시간
비행의 시간

할아버지의 하늘

초등부 **장려상** 민동원

저 높은 하늘에는 무엇이 있을까?

커다란 구름덩어리가 있을까
긴 무지개가 있을까
별들이 총총 떠 있을까

커다란 구름 사이
긴 무지개 끝
빛나는 별들 너머
우리 할아버지가 계실 것만 같아

언제나 나를 똥강아지라 부르고
하얀 백숙 끓여 주셨는데
나를 금덩어리보다 귀하다고 해주셨는데

엄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친구분들이랑 바둑을 두신다고 했다

가끔 비행기 타고 떠나는 여행에서
구름 돗자리 펴고

무지개 바둑판에서
별들로 바둑을 두는
우리 할아버지를 상상한다

우리 할아버지도 어디선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나를 보고
많이 컸구나 하고 좋아하실 것만 같다

비행의 설레임

초등부 **장려상** 박유리

대합실 의자에 앉아
비행을 기다리는 사람들

유학가는 대학생 언니
한국여행 끝내고 돌아가는 외국인 가족
출장 가는 양복 입은 아저씨
다들 행복한 얼굴이다

우리 가족도 그들 틈에 앉아
대만 행 비행기를 기다렸다

기내식은 뭘 나올까
선물도 주는 걸까
2시간 40분을 어떻게 기다리지

비행기가 이륙하자
기쁨과 설렘이 하늘로 쑤웅 올라갔다

“항공기가 곧 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2시간 40분이
꼭 초코아이스크림을 먹듯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시

형이 왔다

초등부 **장려상** 박준필

미국으로 공부하러 간 형이
방학을 맞아 온다고 한다
우리 가족은 공항으로 마중을 갔다
아빠는 설렘이 가득했고
엄마는 초조한지 손을 비볐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 안 오니 하시며 걱정하셨다
나는 형이 오면 격하게 환영해 줄 생각이었다

드디어 출국게이트가 열리고
형이 돌아왔다
나는 품 안에 있던 태극기를 꺼내
“고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고 외쳤다

아빠와 엄마 할머니를 보며
반가워하며 손을 흔들던 형이
나를 보더니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부끄러워했다
나는 형이 온 것도
형이 싫어하는 것도 다 좋았다

설렘과 초조

걱정과 기쁨

그리고 부끄러움

모든 감정이 있는 순간이었다

시

인천공항의 마음을 엿보다

초등부 **장려상** 신주원

늦은 밤 미국에서 오는 삼촌을 만나러 인천공항에 갔다
삼촌은 나를 예뻐해 주시겠지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셨을까

삼촌을 기다리는 마음과 함께
공항에 가면 여러 마음을 볼 수 있어 좋다

가족의 웃음을 안고 싶은 마음
파란바다 속에 발을 담갔던 마음
병원에 가서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
돈을 벌어서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

한편으론
마음들을 만나게 해준 승무원의 안도하는 마음
마음이 오고가도록 지켜주는 공항직원의 마음

마음들이 함께여서
밤의 공항은 불빛으로 가득하다

드디어 보인 삼촌과 두 손의 선물은
나의 마음에도 날개를 달아준다

마음이 내려앉은 인천공항
마음속 비행운이 많아 좋은 곳

선물

초등부 **장려상** 심동하

나는 요즘 걱정이 많다

카타르에 계신 우리 아빠
귀국일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동지역 전쟁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아빠랑 매일 통화를 했다
보고 싶다고 빨리 오라고
그러면 아빠도
보고 싶다고 빨리 오고 싶다고 했다

텔레비전에서 비행기를 볼 때마다
아빠가 비행기를 탔다는 연락이 오길 바랐다

밤이 되어도 아빠와 연락이 되지 않던 날
나는 새벽까지 걱정을 하다 깜빡 잠이 들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익숙한 냄새 까칠한 턱수염
조금은 초췌한 아빠가 보였다

열시간을 날아 온 아빠였다
아빠 힘들지 않았어요?
내가 울먹이며 물었다

“동하 볼 생각에 하나도 안 힘들었지”

내 생일에 비행기가 데려다 준
최고의 선물이었다

수필

하늘을 날아 이탈리아로 내 추억 상자 이야기

초등부 **장려상** 심세윤

방학이 시작되었지만, 내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다 보면, '즐거운 방학'이라는 말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았다.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가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세계사 수업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날은 마침 이탈리아의 역사에 대해 배우는 날이었고, 특히 교황이 황제에게 직접 왕관을 씌워줬다는 바티칸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다. 수업을 마치고 거실로 나갔을 때, 엄마가 나를 불렀다.

"세윤아, 오늘 수업 어땠어? 오늘은 뭐 배웠니?" 엄마는 늘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궁금해하셨다.

"네, 오늘도 재미있었어요! 오늘은 바티칸에 대해 배웠는데, 교황의 권위가 너무 높아서 황제의 왕관을 교황이 직접 전해주었대요!"

"음~ 그래?" 엄마는 짧게 대답하시더니 잠시 뜸을 들이셨다. 그리고는 내게 상상도 못 한 질문을 던지셨다.

"세윤아, 우리 이탈리아 여행 가볼까? 가서 콜로세움이랑 여러 유적지를 실제로 보면 어떨까?" 생각지도 못했던 유럽여행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환호성이 나왔다. 하지만 속으로는 학원 보강 걱정이 앞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학원을 빠지면 나중에 두 배로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에 살짝 시무룩해졌다. 내 마음도 모르고 엄마는 "이탈리아 가는데 미리 공부 좀 해 놔."라고 하신다. 나는 속으로 '어차피 이탈리아에서 투어도 할 것 같은데 왜 미리 공부해야 할까…….' 하고 생각했다. 그래도 여행을 간다는 건 분명 기쁜 일이었다. 즐겁지 않던 방학의 연속 속에서, 나는 커다란 캐리어를 가져와 필요한 옷과 장난감, 그리고 가득 부풀어 오른 설렘을 가방 속에 차곡차곡 담기 시작했다.

이탈리아로 떠나는 우리의 모험은 무려 9박 11일이라는 긴 여정이었다. 출발하는 날 아침부터 내

심장은 두근거렸다. 설레는 마음에 시계를 계속 확인했지만, 들뜬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짐을 모두 챙긴 후, 가족과 함께 외할아버지 차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오후 6시 비행기였지만, 공항 라운지를 이용할 계획이라 우리는 일찌감치 오후 1시에 공항에 도착했다.

오후 2시가 되자, 우리는 직원분께 여권을 보여주고 비즈니스 티켓과 라운지 이용권을 받았다. 큰 캐리어 두 개는 짐칸으로 부치고, 가장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비행기에 탔다. 보안 검색대에 도착해서 검색을 받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바로 로션이었다. 용량은 분명 기준에 맞춰 덜어 왔다고 생각했는데, 로션 용기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압수당했다. 아빠는 "하아, 그거 우리 9일치 로션인데……."라며 길게 한숨을 쉬었다. 아빠와 나 모두 피부가 예민해서 늘 쓰던 로션만 발라야 했는데, 갑자기 로션이 없어져 버리니 너무 아쉬웠다. 여행 시작부터 뭔가 꼬이는 기분이었다.

겨우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라운지에 도착했다. 라운지에서는 비행기가 잘 보일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잘 보이지 않아 조금 실망했다. 대신 푸드 코너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다. 공항 안에서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면세점 구경에 서점까지 둘러볼 수 있다니! 비행기 시간까지 지루할 틈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건, 내게는 정말 특별한 첫 경험이었다.

드디어 비행기에 탈 시간이 되었다. 길고 긴 무빙워크를 다섯 번 정도 타고 39번 게이트로 향했다. 순서대로 티켓을 검사받고 게이트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보리색 비행기가 눈앞에 펼쳐졌다. 아랍 느낌이 물씬 나는 에티하드 항공의 초록색 삼각형 무늬 꼬리날개가 반짝이고 있었다.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니 아랍 전통 의상을 입은 승무원들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비행기 안쪽으로 쭉 들어가 오른쪽 창가 자리인 8F 좌석에 앉았다. 잠시 후 승무원들이 기념품이라며 에티하드 로고가 박힌 가죽 가방과 슬리퍼, 부드러운 잠옷까지 무료로 나눠주었다. 우리 가족이 아랍에미리트 국적의 항공기를 타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우리가 탄 비행기는 대륙과 바다를 건너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까지 가는 노선이라고 했다. 이제 정말 이탈리아로 가는 대장정이 시작되는구나 싶었다.

기장님의 아랍어 안내 방송이 들리고, 비행기는 천천히 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엔진 점검부터 날개 끝의 플랩 점검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자 거대한 비행기는 활주로를 향해 이리저리 방향을 틀었다. 이윽고 "위이잉!" 하는 굉음과 함께 엄청난 속도로 앞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땅 위를 한참 달리던 비행기가 서서히 기수를 들더니, 마침내 하늘로 힘껏 솟아올랐다. 드디어, 나의 이탈리아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비즈니스 좌석은 내게 처음 경험하는 세상이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아까 받은 기념품 주머니를 열어보고, 좌석에 있는 화면으로 신나는 비디오 게임도 즐겼다. 칸막이로 나뉜 나만의 공간은 의자를 끝까지 눕히고 발을 쭉 뻗어도 벽에 닿지 않을 만큼 넓었다. 이렇게 마음 편히 발을 뻗을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다.

나는 감탄할 틈도 없이 바로 식사를 주문했다. 스테이크와 부드러운 에그 스크램블, 그리고 딱 하나 남아있었다던 초코아이스크림까지! 내가 고른 완벽한 조합의 식사는 정말 환상적이었다. 배를 든든히 채운 후, 나는 넓고 편안한 의자에 몸을 맡기고 잠이 들었다.

몇 시간쯤 잤을까? 몸이 살짝 흔들리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보니,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며 조금씩 고도를 낮추고 있었다. 나의 첫 비즈니스 비행과 아쉬운 이별을 준비하며 의자를 바로 세우고 짐을 정리했다. 덜컹! 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아랍에미리트의 자이드 국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두바이에 있는 공항이라 그런지 엄청 넓고 깨끗해서 깜짝 놀랐다. 우리는 로마로 가는 환승 비행기였기 때문에 따로 입국 수속을 받지 않았다. 공항 곳곳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로마로 출발하는 다음 비행기에 올라탔다.

탑승구에 도착해 다시 티켓 검사를 받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5F 좌석이었는데, 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이전보다 더 넓게 느껴졌다. 하지만 아무리 넓은 비즈니스 좌석이라도 장시간의 비행은 점점 지루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창밖은 온통 새카만 암흑뿐이었고, 설상가상으로 기대했던 오믈렛은 품절이라는 소식에 괜히 더 우울해졌다. 창밖은 여전히 깜깜했다. 마치 밤하늘이 신비로운 우주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1월 29일, 새벽 6시 5분. 나른한 비행기 안, 기장님의 나지막한 아랍어 방송이 울려 퍼졌다.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곧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설렘이 온몸에 퍼졌다. 스르륵, 잠들어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기지개를 켜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행기는 점차 땅을 향해 고도를 낮췄다. 창밖으로 보이던 작고 흐릿한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마법처럼 점점 선명하고 거대하게 확대되기 시작했다. 동체가 느껴질 만큼 빠른 속도로 내려가던 비행기는 이윽고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했다.

로마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은 솔직히 기대했던 유럽풍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오래된 건물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여서 조금 아쉬웠다. '유럽은 소매치기가 심하다'라는 엄마 아빠의 이야기가 계속 맴돌아, 우리 가족은 각자 개인 물품을 더 꼼꼼히 확인하며 조심 또 조심했다. 공항을 나와 우리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아마도 긴 비행 탓이었을까? 피곤함에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눈을 뜨니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시골 마을 풍경이 그림처럼 스쳐 지나갔다. 쌩하고 달리는 기차와 함께, 우리는 드디어 이탈리아의 작은 예술 도시 피렌체에 도착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우당탕 피렌체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피렌체는 예술가들이 많이 태어난 도시라서 그런지, 길을 걷다 보면 멋진 건물과 예쁜 다리가 많이 보였다. 나는 책에서만 보던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이야기를 떠올리며 걸었다.

우리는 여행의 첫 문을, 근처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식당 '오스테리아 파스텔라' 방문으로 활짝 열었다. 이곳은 삶은 뜨거운 파스타 면을 커다란 대야 같은 치즈 통에 넣고 직접 버무려 주는 특별한 식

당이었다. 추가로 잘게 썬 트러플 버섯까지 듬뿍 얹어 먹었는데, 그 향긋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거의 12시간 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이라 모두가 허겁지겁 먹었다. "우와!" 감탄사가 절로 나올 만큼 정말 환상적인 맛이었다. 특히 트러플 특유의 깊은 향은 정말 일품이었다. 잠시 후 나온 문어구이 역시 쫄깃쫄깃한 식감에 고소한 맛까지 더해져 최고였다. 우리는 배가 터질 듯 푸짐하게 점심 식사를 즐겼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피렌체의 상징이자 예술의 정수, '피렌체 대성당'이었다. 이 성당은 15세기 건축가 브루넬레스코가 지었으며, 198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되었다고 한다. 특히 내가 읽었던 책에도 이 성당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직접 보러 간다는 사실에 더 설레고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피렌체 대성당의 공식 이름이 '이곳은 그냥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싸웠던 곳 같았다. 피오레'라는데, 뜻은 '꽃의 성모 마리아'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실제로 내 두 눈으로 본 피렌체 대성당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웅장했다. 검은색과 흰색 대리석이 정교하게 어우러진 외관은 15세기에 지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보존이 잘 되어 있었고, 그 거대한 규모에 압도당하는 느낌이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들이 가득한 피렌체 대성당은 보는 내내 황홀경에 빠지게 했다. 성당의 벽화와 천장 그림을 그리다가, 눈에 물감이 떨어져 실명한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워서 그림을 그려야 했을 그 화가들의 고통과 심정이 조금이나마 이해되는 것 같았다.

피렌체 대성당을 나와 다음으로 향한 곳은 '시뇨리아 광장'이었다. 이곳은 마치 피렌체 공화국의 심장 같았다. 도시의 시작과 역사의 핵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지금도 피렌체 정치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넓은 광장 주변으로는 우피치 미술관과 베키오 궁전이 위엄 있게 서 있었고, 광장 곳곳에는 피렌체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담은 멋진 동상들이 눈에 띄었다. 특히 14세기에 지어진 베키오 궁전은 얼핏 보면 뾰족한 탑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탑이 아니라 웅장한 건물이라고 해서 신기했다. 책에서만 보았던 아름답고 우아한 동상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보니, 가슴이 벅차오르는 듯 웅장한 감동이 밀려왔다.

광장을 둘러본 후 우리는 레푸블리카 광장 주변을 산책했다. 이곳은 시뇨리아 광장과는 또 다른 활기찬 분위기였다. 사람들은 하하 호호 웃으며 알록달록한 회전목마를 타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야외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에스프레소 커피와 부드러운 티라미수 케이크를 여유롭게 즐기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한 폭의 풍경화 같았다. 마침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붉게 물든 저녁노을이 광장 위로 쏟아져 내렸다. 석양빛을 받아 반짝이는 광장은 황홀할 만큼 아름다웠다.

여행 3일 차 아침, 창밖은 촉촉한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빗속을 뚫고 우피치 미술관을 향해 나섰다. 미술관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삼엄한 경비가 우리를 맞이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의 진품이 가득한 곳이라 경비가 이렇게 엄격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기대감이 커졌다. 과연 어떤 그림들을 만날 수 있을까? 미술관 안에는 책에서 수도 없이 봤던 익숙한 작품들이 정말 많았다.

그중 내가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자세히 본 작품은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었다. 내 키의 약 두 배 정도 되는 거대한 그림이었는데, 1400년대에 이렇게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림 속 비너스는 정말 살아있는 듯했다.

다음으로 발길을 멈춘 곳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젊은 시절 모습을 조각한 것이라고 하는데, 매끄러운 카라라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다. 토스카나에서 채석되는 귀한 대리석이라니, 얼마나 대단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일까? 이 불멸의 예술품이라고 불리는 다비드상에도 아픈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91년에 어떤 사람이 망치로 다비드의 왼쪽 발을 내리쳐 발가락이 부서졌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소중한 예술 작품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4일 차, 오늘은 피렌체에서 내가 가장 기대했던 쉐프체험 날이었다. 나는 오늘 이탈리아 최고의 셰프가 되겠노라 혼자 다짐했다! 피렌체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작고 아담한 파스타 레스토랑이 나타났다. 그곳에서 엄마와 나는 친절한 셰프님과 인사를 나누었다. 우리 말고도 중국,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체험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나이나 국적은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금세 친구가 되어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달콤한 티라미수 케이크와 신선한 토마토 치즈 파스타를 만들었다. 케이크는 워낙 달콤해서 설탕이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우유와 치즈 같은 좋은 재료가 듬뿍 들어갔다. 특히 처음으로 직접 파스타 면을 반죽하고 밀대로 미는 과정이 너무나 즐거웠다. 다른 나라 음식을 직접 만들고 그 문화를 배울 수 있었던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요리하고 소통하는 것도 무척 재미있어서, 이 경험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았다.

이제 우리는 이탈리아의 심장, 로마로 향할 차례였다. 피렌체에서 이딸로 기차를 타고 설렘 반, 아쉬움 반으로 로마로 이동했다. 로마는 이탈리아반도 중부, 테베레강 강가에 자리한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라고 했다. 세계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과거 로마 제국의 중심이자 '세계의 수도'라 불렸던 곳! 책에서만 보던 그곳에 드디어 가는 것이다.

여행 8일 차, 낮 동안 별다른 일정 없이 쉬다가 저녁 9시가 되자 지하철을 타러 테르미니역으로 향했다. 로마 여행 전에 엄마 아빠가 "로마는 한국과 달리 소매치기가 많으니 대중교통 이용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셨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역 플랫폼에 도착하자마자 서로 가방을 꼭 쥐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비 중인 경찰관 옆에 바싹 붙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관이 우리 쪽을 보며 알 수 없는 아랍어(?) 아니, 이탈리아어로 짧게 말했다. "- E' un borseggiatore. Lo guardi attentamente. Tieni la borsa alla grande." 잽싸게 아빠가 번역기를 돌려보니, "저 사람 소매치기니까 조심하고, 가방 잘 잡으세요!"라는 뜻이었다. 어쩐지 아까부터 우리 가방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남자 때문에 괜히 찝찝했는데, 진짜 소매치기라니! 등골이 오싹했다. 우리는 경찰관이 소매치기인 걸 알면서도 왜 바로 잡지 않는지 의아했다.

"음…. 알고 있어도 현장에서 딱 잡아야 증거가 되는 모양이야. 아마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 걸 거야." 아빠는 그렇게 추측했다. 소매치기가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에 온 가족이 바짝 긴장해서 가방을 더 꽉 붙잡았다. 다행히 그 소매치기는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을 시도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휴, 정말 다행이었다!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지하철을 타고 콜로세오 역으로 향했다. 역 출구로 나서자마자, 책에서만 보았던 그 거대한 콜로세움이 눈앞에 떡하니 나타났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웅장함에 입이 떡 벌어졌다. 우리는 콜로세움 앞에서 역사 투어를 해주실 가이드분을 만났다. 그런데 문득 궁금증이 생겼다. '콜로세움 바로 앞인데 왜 역 이름은 콜로세오라고 지었을까?'

"아빠, 콜로세움 앞인데 왜 역 이름은 콜로세오예요?"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아빠는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시더니 말했다.

"아, 콜로세움이 이탈리아어로 콜로세오(Colosseo)래! 그래서 그런가 봐."

우리는 가이드님과 함께 콜로세움을 시작으로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제국 로, 포로 로마노 전망대 등 로마의 유서 깊은 유적지들을 둘러보았다. 그중에서도 단연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바로 콜로세움이었다.

콜로세움은 최대 5만 명에서 8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신기하게도 계급에 따라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크게 붐비지 않았다고 한다. 건물은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1층은 노예나 평민, 2층은 귀족, 그리고 가장 높은 3층은 황제와 황제의 가족들이 앉는 자리였다고 한다. 나는 콜로세움이 마치 거대한 '작은 사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급별로 다른 대우를 받고, 심지어 출입구까지 달랐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다.

책에서는 늘 콜로세움의 외부 모습만 봤었는데, 이번 여행에서는 직접 내부 경기장까지 들어가 볼 수 있어서 무척 좋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탁 트인 공간이 눈앞에 시원하게 펼쳐졌다. 수천 년 전, 이 자리에 앉아 피 튀기는 검투사들의 경기를 지켜보던 사람들을 떠올리니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낡고 오래된 경기장을 바라보며, 목숨을 걸고 싸웠을 검투사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이곳은 그냥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싸웠던 곳 같았다.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었다.

여행 9일째, 이날은 유럽 축구를 좋아하는 나를 위해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같은 날이었다. 우리는 이탈리아의 유명 축구팀, AS 로마의 홈경기를 보러 갔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스타디움, 올림피코 구장! 경기장에 들어서자 푸른 잔디가 눈앞에 시원하게 펼쳐졌고, 돔 모양의 거대한 관중석에는 이미 5만 명이 넘는 팬들의 함성이 귀를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다.

홈경기답게 AS 로마 팬들의 응원 열기는 상상 이상으로 뜨거웠다. TV로 볼 때는 선수들이 패스하고 슛할 공간이 넓어 보였는데, 직접 비슷한 눈높이에서 보니 생각보다 공간이 좁아 깜짝 놀랐다. 상대 팀은 나폴리였는데, 멀리 로마까지 와서 응원하는 나폴리 팬들을 보며 이탈리아 축구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경기는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전반 초반, AS 로마 수비수의 실수로 첫 골을 허용했다. "와아아아!" 나폴리 팬들의 엄청난 환호성이 경기장을 뒤흔들었고, 곧 이어진 나폴리의 응원가는 구장을 가득 채웠다. 홈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싶었지만, 후반 막판 AS 로마가 극적인 동점 골을 넣는 순간 경기장은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다.

아쉽게도 내가 응원하던 AS 로마가 이기는 골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지지 않고 끝났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함성과 열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다.

꿈만 같았던 11일의 여행이 끝나고,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캐리어를 끌고 공항으로 향했다. 처음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설레며 도착했던 인천국제공항, 이제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집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니 그리운 집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멋진 이탈리아를 떠난다는 아쉬움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왔다.

며칠 동안 이탈리아 곳곳을 걸으며 매일 밤이면 콕콕 쑤시던 발바닥도 오늘은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다. 내 발걸음도, 내 마음처럼 이곳에 더 머물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활주로를 힘껏 달리던 비행기가 서서히 하늘로 솟아오르자, 창밖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다. 창밖 불빛이 점점 작아지자, '다음에 또 와야겠다.' 하고 혼자 생각했다.

좌석에 기대앉아 엄마와 함께 지나온 장면들을 이야기했다. 피렌체의 좁은 골목길, 우피치 미술관의 명화들, 로마의 웅장한 콜로세움, 그리고 올림피코 경기장의 짜릿했던 함성까지. 그 순간들이 다시 눈앞을 스쳐 지나가다, 어느새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잠에서 깨어나니 긴 여행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끝이 안 날 것 같던 여행이 어느새 기억 속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앞으로 비행기를 타고 또다시 하늘을 날아오를 때마다, 이탈리아에서의 특별한 순간들이 내 마음속에서 언제든 다시 펼쳐질 거라는 것을. 다음 여행을 기다리며, 이번 여정의 기억을 내 마음속 가장 소중한 '추억 상자'에 조심스레 담아 두기로 했다.

시간여행자

초등부 **장려상** 유하린

고모의 초청으로 미국에 갔다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열 다섯 시간을 날아 고모에게 갔다
오전 비행기로 출발했는데
미국에 갔더니 같은 날 아침이었다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다

고모가족과 즐거운 이주일을 보내고
밤비행기를 타고 인천으로 향했다
한국에 도착하고 보니
하루가 사라져 있었다
분명 24일 저녁에 출발했는데
도착하니 26일 새벽이었다

하루를 더 살게도 하고
하루를 삭제하기도 하고
비행기의 마법 덕분에 나는
시간여행자가 되었다

시

하늘나라 가는 비행기

초등부 **장려상** 이라온

할머니는 하늘나라
먼~ 곳으로 가셨대요
비행기 타고 가셨대요
아주아주 높은 데로

할머니 탄 비행기는
눈으로는 안 보여요
구름 속에 숨었대요
별들 하고 친구래요

할머니 보고 플 땐
높은 하늘 바라봐요
흰 구름 지나가면
할머니 얼굴 생각나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할머니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손 흔들면
할머니도 볼 수 있을까?

기장님, 부탁해요
하늘 끝에 다다르면
할머니 집 들러 줘요
귤 한 봉지 주고파요

나중에 진짜 비행기 타면
내 마음도 가득 실어
할머니한테 달려가서
꼭~ 안아줄 거에요

시

공항은 나의 놀이터

초등부 **장려상** 이룬

공항은 나의 놀이터
동생이랑 손잡고
주말이면 꼭 가요
사람들 사이로 숨바꼭질하고
비행기 따라 창밖을 바라봐요
아이스크림 한 입,
비행기 한 대.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내 마음도 괜스레 설레며 따라 올라가요.
엄마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공항에서 일했대요. 벌써 20년.
나는 아직 열 살인데
반 친구들 중 공항 제일 많이 가본 아이일걸요.
아마 대한민국 10살 중에도 손꼽힐 걸요?
터미널 여기저기
엄마 친구들이 먼저 인사해요.
"얘가 바로 그 딸이야?"
나는 쑥스러운데 조금 뿌듯해져요.
외국사람들이 길을 물으면
엄마 대신 내가 알려줘요.
"This way."

내가 엄마처럼 말할 때,
엄마 입가에 살짝 미소가 떠요.
엄마는 전 세계 공항에 친구가 있어요.
태국에도, 호주에도, 더 멀리 유럽 공항에도
공항으로 이어진 그 인연들이
전 세계에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의 공항은
사람들이 떠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연결되는 곳이에요.
나에겐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마법같은 문
그래서 난 생각해요.
나중에 커서 비행기를 타고
공항을 돌며
엄마처럼 사람을 반기고
친구를 만들고
누군가의 설렘을 시작하게 해주고 싶어요.
나는 아직 열 살,
내가 자라는 만큼
공항도 자라고 있어요.
공항에서 나는 매주,
조금씩 더 넓은 세상을 배우며
조금씩 더 크게 자라고 있어요.

수필

행복했던 두 번의 비행기 여행

초등부 **장려상** 이우진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다.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는데 무려 시간이 네 시간 삼십 분이나 걸렸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비행기 안에서 할 거리가 별로 없었다. 그래도 비행기 안에서 먹었던 기내식이 맛있었던 것은 기억한다. 공중에 떠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던 것 같다.

우리가 간 곳은 사이판이라는 곳이었다.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놀거리가 많아서 좋다고 했던 것이 기억나 나도 들뜬 기분으로 그곳에 도착하기를 기다렸던 것 같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한 뒤 호텔로 향할 때 즐겁게 놀 생각에 기분이 들떴던 기억이 나기도 한다.

사이판에 도착해서 호텔로 향하는 동안 여러 가지 놀이시설을 봤던 기억도 난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신나게 수영을 하고 맛있는 과일 주스를 실컷 마셨던 것 같다.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비행기에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난다. 이 무거운 비행기가 중간 휴식도 없이 어떻게 네 시간이 넘게 날 수가 있을까? 그때는 그 의문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같았다.

이번 여름에는 제주도에 여행을 다녀왔다. 그런데 한라산을 오를 때 너무 힘들어서 이런 생각을 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일찍 도착해서 편할 텐데.' 그러다 이번 여름방학에 보았던'어린 왕자'라는 영화가 떠올랐다.

그 영화는 책 어린 왕자의 내용을 그대로 살리면서 뒷이야기가 더 추가되어 있었다. 주인공이 여름방학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여서 생활계획표대로 생활한다. 그러다 어느 날 공부하다가 어떤 종이비행기가 날아왔다. 그 종이비행기는 옆집에서 날아왔다. 옆집에는 할아버지가 살고 계신다. 그날부터 주인공과 할아버지는 친구가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그래서 주인공이 할아버지를 비행기에 태워 병원에 모시고 간다. 그리고 주인공은 어린 왕자를 찾고 싶어 했다. 어린 왕자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비행기가 빠르다는 점을 이용해 지구이탈을 해서 이상한 별, 아니 이상한 행성에 도착한다. 그 행성에는 어린 왕자가 어른이 되어 있었다. 주인공은 어린

왕자를 행성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온다.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주인공은 그렇게 비행기 조정을 잘 할까? 라는 궁금증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 그건 영화니까 가능하다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었다.

나는 이륙할 때가 가장 재미있다. 그리고 비행기는 이륙과 착륙을 할 때 가장 빠른 줄 알았는데 책을 통해 하늘을 날 때 제일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행기 여행을 하면서 점점 더 비행기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다.

그리고 한발 한발 내디디며 산을 오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빠른 속도로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기를 타는 것이 훨씬 신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수필

대륙 너머로가는 14시간의 비행

초등부 **장려상** 이태평

태평양을 지나 미국으로 향하는 14시간의 비행 저 대륙 넘어로! 처음에 미국에 가자 했을때는 너무나 기뻤다. 내가 미국에 간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무안항공 관련 기사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미국을 가는건 포기할 수 없었다. 내가 꼭 가보고 싶었던 나라니까. 미국행 비행기를 타러 가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 설레임은 내 입에서 자그마한 웃음이 계속 새어나오게 했다. 입국심사후 우리는 비행기를 탔다. 조금 지연되긴 했지만 나는 언제나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불안은 했던지라 성호를 긋고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그러곤 안대를 끼곤 잠에 들었다. 내가 깨어난 시간은 비행기 출발후 4시간 이었다. 하품이 계속 나왔다. 비행기 자석에 있는 모니터를 보니 맙소사! 10시간이나 남았다. 윽 기내식은 한 2시간 정도 남았을 테니 영화를 보았다. 음 근데 몸이 찌뿌둥해서 그런가 집중은 별로 안됐다. 영화를 다보고는 기내식이 나왔다. 닭고기와 밥? 그런거였는데 맛이 꽤나 좋았다.과자는 입맛이 없어 손도 안댔는데 밥을 먹으니 입맛이 돌았다. 밥도 먹으니 배부르겠다 하고 다시 잠들었다. 일어나니 한 5시간 정도 남았다. 이제 얼마 안남았다. 드디어! 잔다고 닫은 창문을 열었다. 칠흙같은 어둠이었다. 근데 생각해 보니 이 비행기는 빛하나 없는 어둠속에서 홀로 비행하는 것이다. 오 생각해보니 좀 멋있는 것 같다. 그렇게 재밌는 상상을 하며 실실 웃었다. 생각도 지루해져 예능을 보았다. 3번이나 돌려봐서 그런가 따분했다. 모니터를 만지작거리다가 지도에 들어가봤다. 이제 30분 밖에 안남았다!

뉴욕에 가면 꼭 불러 보고 싶었던 노래가 있었다. 바로 “Empire State of Mind.” “인 뉴욕~” 하며 콧노래를 흥얼이니 괜히 기분이 좋아졌다. 마치 내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

입국 심사를 마친 우리는 할렘으로 향했다. 사실 ‘할렘’이라는 이름이 조금 무서웠다. 한국에서 위험하다고 들었던 기억 때문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묵기로 한 곳은 호텔도 아닌, 에어비앤비였다. 심지어 집주인과 같은 공간을 쓰는 형태라 걱정과 기대가 반반이었다.

그 집의 주인은 크리스라는 이름의 60대 라틴계 흑인 여성이었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했다. 우리가 처음 도착했을 때, 크리스는 따뜻한 미소로 인사해 주었다. 그 미소 덕분에 낯선 공간이 한결 포근하게 느껴졌다. 거실엔 러그가 깔려 있었고, 벽에는 아프리카 조각상들이 놓여 있었다. 책장엔 책이 가득했으며, 내 방 창문 너머로는 겨울 거리 풍경이 펼쳐졌다. 방 안 조명은 따뜻했고, 전체 분위기가 신기하게도 낭만적이었다. '미국 집이 이렇구나.'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Do you know where the Apollo Theater is?" 내 발음이 괜찮을지 걱정됐지만, 크리스는 환하게 웃으며 친절히 알려주었다. 그날 하루가 괜히 더 기분 좋았다. 또 어떤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크리스가 나를 보고 "Early bird!"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하루 종일 내 기분을 좋게 했다.

크리스는 '실비아 식당'을 추천해 주기도 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닭다리 튀김과 콜라드 그린(우리나라 우거지 같은 채소 요리)을 먹었다. 가게 주인이 직접 노래도 불렀는데, 분위기가 정말 멋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식당은 흑인 아이들의 교육비를 모으기 위해 어떤 흑인 여성이 만든 곳이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더 인상 깊었다.

어느 날은 엄마와 함께 새벽 산책을 나섰다. 목적지는 콜럼비아 대학교. 가는 길에 벽에 그려진 그래피티 하나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손가락 모양으로 'LOVE'라고 쓰여 있었는데, 낡은 골목이 마치 예술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고, 지금도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닌다.

물론 좋은 기억만 있었던 건 아니다. 어떤 날은 만둣집에 갔는데, 문 앞에 '반값'이라고 써 있어 들어갔다. 알고 보니 그 이벤트는 이미 2년 전에 끝난 거였다. 물컵은 제대로 씻기지도 않았고, 직원도 무척 불친절했다. 팁은 주기 싫었지만, 결국 3달러를 더 가져갔다. 기분이 몹시 나빴다. 그날 이후로는 아침마다 직접 밥을 해 먹었다. 냄비밥에 라면, 김, 계란프라이. 미국에서 먹은 음식 중 가장 맛있었다.

여행 막바지에는 보스턴에 갔다. MIT 대학교를 구경하던 중, 우연히 피아노를 발견했다. 사실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왠지 아쉬워서 잠시 앉아 연주를 해 봤다. 캐논을 쳤다. 체르니 30까지 배운 덕분에 칠 수 있었다. 그 피아노는 소리가 무척 좋았고, 지금까지 쳐 본 피아노 중 가장 만족스러웠다. 크리스도 언젠가 피아노를 배우면, 함께 연주해 보고 싶다.

지금, 그 여행을 다녀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크리스 덕분에 할렘이라는 도시는 내게 더 포근하게 느껴진다. 낯선 땅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 그 존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때 처음 알았다.

언젠가 크리스가 한국에 오면 꼭 경복궁에 데려가고 싶다. 경복궁은 미국보다 훨씬 오래된 궁궐이고, 크고 아름답다. 함께 한복도 입고 사진도 찍고 싶다. 또 군산이라는 도시에도 가 보고 싶다. 바닷가에 자리한 이 도시는 일제강점기 일본식 가옥이 많이 남아 있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준다. 맛있는 해산물도 많다.

또다시 미국에 갈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꼭 할렘으로 가고 싶다. 크리스의 집에 다시 머물고 싶다. 그때는 영어도 더 잘하고, 하고 싶은 일도 더 많아져 있을 것이다. 백악관도 가 보고 싶고, 헤밍웨이의 집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도 찬찬히 둘러보고 싶다. 뉴욕의 멋진 건물들도 천천히 눈에 담고 싶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아마 그 비행기 창밖에 깜빡이던 빨간 불빛이었는지도 모른다. 혼자 깜빡이던 그 불빛이, 나에게 이렇게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 줄 줄은 정말 몰랐다.

시

똥은 어디로 가나요

초등부 **장려상** 이해강

나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착륙을 기다렸다.
첫 비행의 설렘도 잠시 배가 살살 아파 화장실에 갔다.
화장실에 앉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비행기는 하늘에서 날아다니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똥을 누면 똥은 어디로 갈까?
똥을 하늘에서 날려버릴까? 바다에 뿌려버릴까?
똥을 모아두었다가 저 밑 밭이 보일 때 거름으로 주는 걸까?
똥으로 폭탄을 만들어 나쁜 사람들에게 던질까?

호기심으로 가득 찬 머리로 자리에 앉았을 때 들리는 소리
“우리 비행기 곧 인천공항에 착륙합니다”

나처럼 내 똥도 어딘가에 안전하게 착륙하면 좋겠다.

추억여행

초등부 **장려상** 이해준

#1 첫 해외여행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 들어섰다.

"우와.."

반짝 빛나는 대리석과 아름다운 자식으로 꾸민 공항은 왠지 낯설었다. 이륙은 9시인데, 시간이 남아서 라운지에서 밥을 먹었다. 허겁지겁 먹다보니 벌써 9시. 첫 해외여행이라 그런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

'만약 추락하면 어쩌지?', '만약 비행기가 고장나면?', '만약 총기류는 없겠지?'

다행히 안전하게 착륙했다.

"여기가 베트남이다!"

착륙하니 실감이 안 들었다. 들뜬 마음에 괜히 신나기도 했다.

#2 아직 낯선 베트남

지루한 체크인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겨우 옮겨 택시를 탔다. 택시는 곧장 숙소가 아닌 쌀국수집으로 갔다.

"깜언."

그렇게 하나 외우기도 지독한 베트남어를 끄집어내 생각했다.

'이번 여행.. 쉽지 않겠는데..'

일단, 고민은 집어치우고 쌀국수를 후루룩 먹었다.

"와, 맛있다!"

라임즙을 짠 쌀국수의 맛은 색달랐다. 한국의 쌀국수와는 유난히 달랐다. - 부른 배를 두드리며 쌀국수집을 나왔다. 둥근 해 어디갔나 하늘은 온통 까만 밤으로 뒤덮여 있었다.

#3 베트남에서의 생활

일어났을때의 개운함은 좋았다. 한껏 기지개를 핀 나는 숙소화장실로 향했다.

"치카치카.."

양치한 시간만 10분. 숙소화장실에서 나온 뒤 엄마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양치한 나, 옷입는 엄마, 뻗은 언니와 동생..

"어휴.."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나저나, 우린 어디가지? 우리는 감성이 돋보이는 어느 카페에 왔다.

"엄마, 난 딸기스무디."

나는 들어오기도 전에 너무 신나 메뉴도 미리 골라왔다. - 맛있는 딸기스무디를 배부르게 먹은 뒤, 버기카를 타고 숙소로 향했다.

"달그락 달그락"

흔들흔들, 마치 놀이기구를 타는 기분이었다.

#4 이게 여행이지!

꾸벅꾸벅, 졸린 눈을 비비고 아침부터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다.

"엄마, 2층 맞지?"

엘리베이터 버튼를 꾹 누르고 닫힘 버튼도 야무지게 눌러주었다. 그렇게 조식당으로 온 나는 원하는 음식을 접시 가득 쓸어담았다.

"올~ 접시 배치 좀 예쁜데?"

음식 사진을 10장 넘도록 찍고 그제서야 숟가락을 들었다. 역시나 조식은 맛있었다. 햄과 연어는 기본, 요거트까지 담아왔다. - 만족스럽게 먹은 뒤 난 다시 숙소로 올라갔다.

"이제 수영장 갈거니까 옷 좀 입어."

여행의 진리는 수영! 수영장 없음 여행 못한다. 낑낑.. 3번의 시도로 수영복을 입고 당장이라도 수영장에 풍덩 빠졌다.

"흐으읍!"

잠수 대결, 인어공주 놀이, 물 속에서 촬영하기 등등.. 정말 재미있게 논 것 같다.

#5 여행의 마무리

"진짜 재미있었다."

여행의 마무리엔 그동안 경험했던 걸 되풀어보는 시간이다. 짐을 꽁꽁 싸매 비행기에 타고, 또 다

시 하늘과 하나되는 순간이다.

"엄마, 라면 먹을까?"

모두가 자고 있던 밤, 나는 메뉴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음, 마침 언니랑 동생도 자는데 라면 한번 먹자!"

오예스! 비행기 탈 때는 라면이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다. 비록 기내식은 못 먹어도 말이다.

"후룩.. 후루룩.."

호호 불어 한입에 후루룩 먹던 그 맛을 잊을 수 없다,

에필로그

지금 돌아보면 전부 추억이겠지, 미소만 지어진다.

마치 추억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이 글이 우리의 추억의 향수가 되기를!

시

하늘은 나를 기억할까

초등부 **장려상** 최민서

여권사진을 찍으러 갈 때부터
나는 자꾸 웃음이 나왔어요
“진짜 비행기 타는 거야?”
사진 속 나는 진지했지만
가슴은 매일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공항에 간 날
가방보다 더 부푼 건 내 마음이었어요
티켓을 손에 쥐자
엄마 손보다 따뜻했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나는 엄마에게 자꾸만 물었어요
“빨리 타고 싶다. 엄마! 지금 하늘 어때?”

창가자리,
네가 그렇게 원했던 자리였어요
드디어 앉았을 때
내가 구름위에 떠있는 기분

내가 구름보다 위에 있다니!

나는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사진을 찍었어요
날개가 함께 나오도록

그 순간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무엇을 먹지 않아도
내 마음은 이미 배가 불렀어요

마카오에서는
사진을 백장도 넘게 찍었어요
밤의 불빛도 예뻤고
낯선 말들도 신기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난 말이 없어졌어요
아쉽고 또 아쉬워서
하늘이 조금 멀게 느껴졌거든요

비행기가 따시 떠오를 때
나는 속으로 말했어요
“또 올게. 하늘아, 나 기억해줘.”

여권은 가방속에 있지만
내 마음은 아직 창가에 있어요
비행기는 내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날개였어요

하늘을 처음 만난 열두살,
그건
내가 진짜 날았던 시간이었어요

시

두근두근 콩닥콩닥

초등부 **장려상** 한정우

두근두근 콩닥콩닥
첫 가족여행은 기분좋은 설레임이다.
숙제해라, 방 치워라, 누나와 싸우지 말아라, 빨리자라
엄마의 폭풍같은 잔소리도 달콤한 덕담이다.

두근두근 콩닥콩닥
공항 안은 시끌벅적 사람들 소리에 갇혀있다.
빠져나올 수 없는
내가 좋아하는 노랫소리처럼 흥겹다.
드르륵 드르륵 캐리어들이 경주하는 소리
차라락 차라락 환전하는 소리
하하 호호 60년 지기 할머니들의 웃음소리
쏼라 쏼라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나라 말도
그저 흥겹다.

두근두근 콩닥콩닥
"지금 2번 탑승구에서 탑승을 시작합니다."
"엄마,아빠,누나 빨리와"
엄마 손을 이끌고 출발!
슝~슝~슝~슈우우우웅~
두근두근 무서워서 누나 손을 꼬옥~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을 보니
무서움이 콩닥콩닥 설레임으로 바뀌었다.

소곤소곤 큭큭큭
소곤소곤 큭큭큭
우리 비행기는 조용한 웃음바다

시

눈 깜짝할 새

초등부 **장려상** 현진서

가족들이랑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을 간다
4시간이나 걸린다고 한다
무서우면 어떡하지?
심심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나는
신나는 영화도 보고
개인 등 켜서 책도 읽고
맛있는 밥도 먹고
창밖 구름 구경도 실컷 했다

그러다 잠이 솔솔 와서 잠도 잤다

“일어나야지! 다 왔어!”

엄마가 깨우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신기하다
4시간이 엄청 짧다

발 행 일 2025년 10월 30일

펴 낸 곳 한국항공협회 www.airtransport.or.kr
Tel. 02. 2669. 8700 Fax. 02. 2669. 5590

주최·주관 한국항공협회

후 원 국토교통부 · 한국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에어부산 · 제주항공 · 진에어 · 티웨이항공
한국문인협회

제11회 항공문학상

수상작품집

한국항공협회
Korea Civil Aviation Association